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2013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와」무크지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2013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와」무크지

수원시
평생학습관
No.1304

학자에게 듣다 | 서울대학교 한숭희 교수 시민교육, 클래스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 삶과 접속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 평생학습,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허하라 |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셉트 정리가 필요하다 |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평생교육사, 당신은 직업인인가 신념을 가진 활동가인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 혁신에서 배우다 | DIY 대학 운동 | P2PU | DIY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 | Maker Faire | 프리존(Free Zone) |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 Learning To Love You More 프로젝트 | 디자인과 교육 | 소셜 러닝 | 기술 변화와 미래교육 | 43Things | The City 2.0 | 코드 아카데미 | 게임과 학습 | SOLE 자기조직학습환경 | Trade School | 언신투어즈 |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 NESTA |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 새로움과 만나다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도전 | 코자자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경제를 위하여 | Wisdome 지혜와 지식, 재능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장 | 영화나눔협동조합 영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 롤링다이스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된 공동체 | 똑똑도서관 건물도, 책도 없다.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도서관 | 책 읽는 벤치 책 공유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 책 읽는 지하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지적인 플래시 몹 |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살아 있는 책과의 생생한 만남 | 지리산문화공간 토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 일본시부야대학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 베드타운에 들어온 이상한 예술가들 이야기 | 해방촌 빈집 공유, 자치, 환대의 지구 마을 만들기 |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읽기'와 '마을 찾기'의 여정 | 간다잡학대학 공유의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산다 | 시니어 大樂 자신의 삶이 활동의 원천이 된다 |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시니어가 시니어를 서포트 하는 곳 | 평생교육 이슈체크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 | 학원법 개정으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

THE 와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HE 와

학 자 에 게
듣다 | 서울대학교 한숭희 교수 시민교육, 클래스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 삶과
접속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 평생학습, 실험정신
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하하라 |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셉트 정리가 필요하다 |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평생교육
사, 당신은 직업인인가 신념을 가진 활동가인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
기 | 혁신에서 배우다 | DIY 대학 운동 | P2PU | DIY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 | Maker Faire | 프리존(Free
Zone) |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 Learning To Love You More 프로젝트 | 디자인과 교육 | 소셜 러닝 | 기술 변화와 미
래교육 | 43Things | T h e City 2.0 | 코드 아카데미
| 게임과 학습 | SOLE 자기조직학습환경
| Trade School | 언신투어즈 | 공
감 의 뿌 리(Roots of Empathy) | 21
세기를 살아 가는 우리들에게 필
요한 역량은? | NESTA | 타자와
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 새로움과 만
나다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도 전 | 코자자 소유에서 공 유로, 공유경제를 위하여 |
Wisdome 지혜와 지식, 재능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 장 | 영화나눔협동조합 영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 롤링다이스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된 공동체 | 똑똑도서관 건물도, 책도 없다. 네트워크로 이어
지는 도서관 | 책 읽는 벤치 책 공유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 책 읽는 지하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지적인 플래시 몹 |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살아 있는 책과의 생생한 만남 | 지리산문화공간 토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 일본시부야대학 시
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 베드타운에 들어온 이상한 예술가들 이야기 | 해방촌 빈집 공유, 자치,
환대의 지구 마을 만들기 |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읽기'와 '마을찾기'의 여정 | 간
다잡학대학 공유의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산다 | 시니어 大樂 자신의 삶이 활동의 원천이 된다
|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시니어가 시니어를 서포트 하는 곳 | 평생교육 이
슈체크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 | 학원법 개정으
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

2013

목 차

4 **발간에 부쳐**

학자에게 듣다

8	서울대학교 한숭희 교수	시민교육, 클래스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34호
18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	삶과 접속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36호
30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	평생학습,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38호
41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허하라	40호
52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셉트 정리가 필요하다	42호
66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평생교육사, 당신은 직업인인가 신념을 가진 활동가인가	45호
7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47호

혁신에서 배우다

92	DIY	DIY 대학 운동	내가 스스로 디자인 하는 나만의 대학	31호
		P2PU	수강자들이 함께 만드는 대학	42호
		DIY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	38호
		메이커 페어Maker Faire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다 창작자이며 생산자이다	30호
112	예술과의 결합	프리존Free Zone	발랄한 일탈이 허락되는 길거리 공간	32호
		인사이드아웃프로젝트	표정으로 말하는 메시지와 소통의 힘	33호
		Learning To Love You More 프로젝트	일상에서 예술하기	35호
		디자인과 교육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34호
136	인터넷 플랫폼과 네트워크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공유	40호
		기술 변화와 미래교육	다양한 변화, 확인하고 실현하기	39호
		43싱즈43 Things	일상을 공부로 바꾸는 메커니즘	28호
		더시티2.0The City 2.0	당신의 꿈의 도시를 제작하라	41호
		코드 아카데미	미래 세대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44호
166	새로운 교육방법론	게임과 학습	사회악과 가능성, 그 경계에서 학습의 방법을 찾다	36호
		SOLE자기조직학습환경	인간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43호
		트레이드 스쿨Trade School	공짜가 아니다. 물물교환에서 오는 비금전적 가치의 힘	27호
		언신투어즈UnseenTours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29호
192	미래 사회 교육	Roots of Empathy공감의뿌리		46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37호
		네스타Nesta	사회적의미를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47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45호

새로움과 만나다

218	사회적자본과의 만남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9호
		코자자Kozaza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경제를 위하여	43호
		위즈돔Wisdome	지혜와 지식,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장	24호
		영화나눔협동조합	영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32호
		롤링다이스RollingDice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된 공동체	23호
250	책을 통한 만남	뚝뚝도서관	건물도, 책도 없다.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도서관	29호
		책 읽는 벤치	책 공유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46호
		책 읽는 지하철	세상에서 가능 조용하고 지적인 플래시 몹	37호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살아 있는 책과의 생생한 만남	41호
274	마을과의 만남	지리산문화공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25호
		일본시부야대학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28호
		마쓰도시(松戸市)의 변화	베드타운에 들어온 이상한 예술가들	39호
		해방촌 빈집, 빈가게	공유, 자치, 환대의 지구 마을 만들기	40호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읽기'와 '마을찾기'의 여정	41호
300	시니어와 학습의 만남	NPO법인 간다(神田)잡학대학	공유의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산다	22호
		시니어 大樂	자신의 삶이 활동의 원천이 된다	23호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시니어가 시니어를 서포트 하는 곳	24호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31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	44호
336	학원법 개정으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	26호

344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348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와」기사 목록**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눈길을 끄는 칼럼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기』 연구자로 이름이 높은 중국의 왕리췬 허난대 교수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가 괜찮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자신의 품질이 괜찮아야 한다. 이어서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해줘야 하며, 괜찮다고 말을 하는 사람 역시 괜찮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사람의 건강 역시 괜찮아야 한다. 실천력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왕리췬 교수의 주장은 '물을 거울삼지 말고 사람을 거울삼아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묵자의 일갈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주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를 통해 성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성공에 대한 왕리췬 교수의 의견을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그의 '공식'을 웹진 「와」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와」는 괜찮은 웹진일까. 그리고 주변의 괜찮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가. 그리고 「와」는 자기 지구력을 갖추었을까.

가끔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덕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듯 하고,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와」의 지속성과 지구력만큼은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간 2년 동안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친상으로 제가 원고를 넘기지 못했을 때도 있고 왕왕 필자의 애먹임으로 인해 담당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기획력 빈곤으로 머리를 쥐어 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을 논외로 치면 근 50호 발간 동안 제 날짜(격주 수요일), 제 시간(오후 5시)에 전국의 독자들 컴퓨터 속으로 무사히 배달한 것만큼은 칭찬받을만한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콘텐츠의 질입니다.
아무리 신속배달을 하더라도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 다시는 그 집에 전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배달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의 실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일천하여 아직 시야도 넓지 않고 공력도 부족하여 깊게 파고드는 것도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 리가요. 저희 나름의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1년 동안 발행된 웹진을 이렇게 책자로 묶어 내는 것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쯤이나 쑥스러움이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만족은 없다. 만족하는 순간부터 파멸이 시작된다'는 세간의 말에 숨어 자위를 해 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만나고 취재하고 기획한 내용들이 제대로 표현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글로 표현된 텍스트, 필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컨텍스트를 잘 이해했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맥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무당 칼춤 추듯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라고 한다면 매그넘 창시자인 사진가 로버트 파카의 다음과 같이 가슴을 때리는 명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사진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지가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람에, 기관에, 사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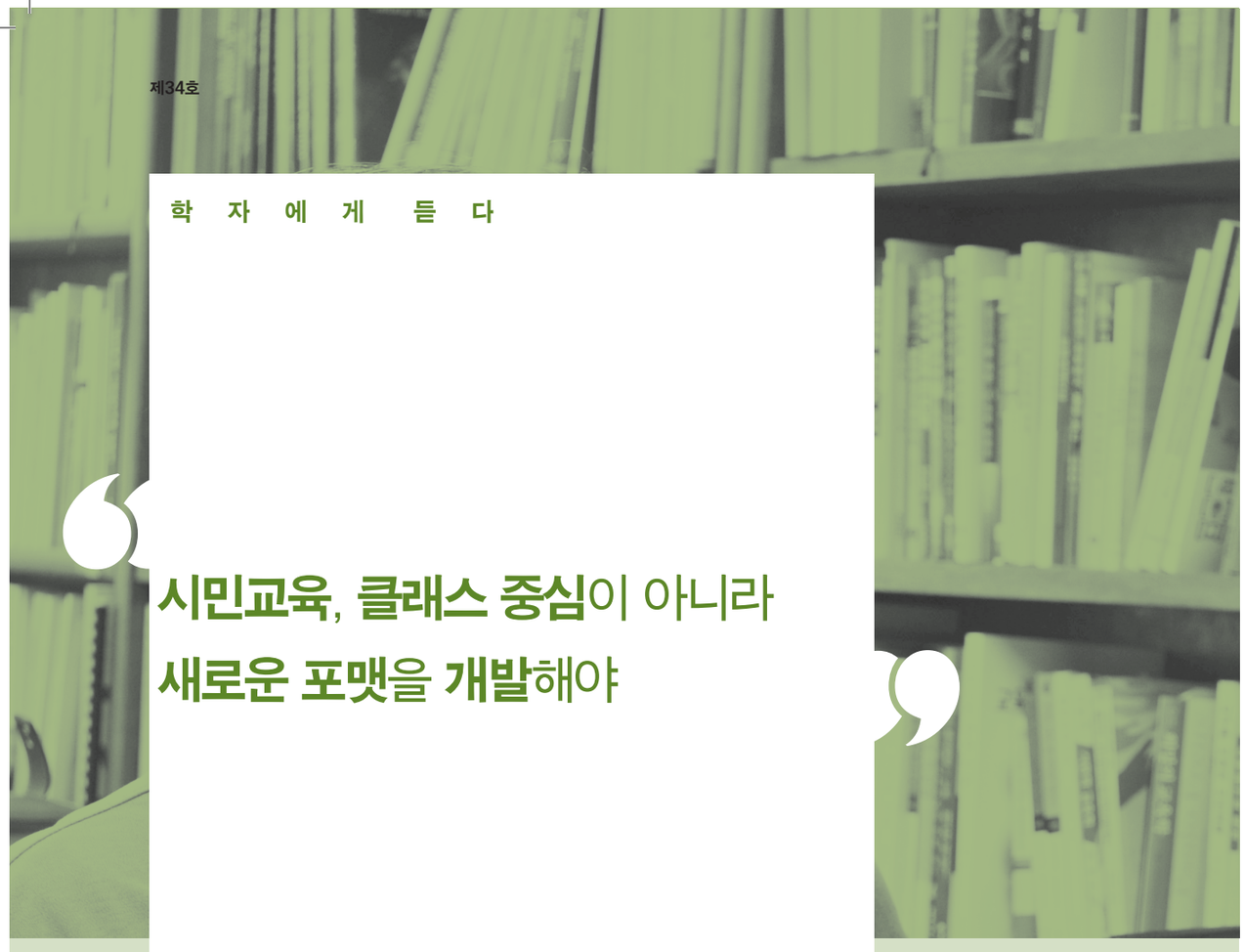
학자에게 듣다

p.8	서울대학교 한숭희 교수	시민교육, 클래스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34호
p.18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	삶과 접속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36호
p.30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	평생학습,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38호
p.41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허하라	40호
p.52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셉트 정리가 필요하다	42호
p.66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평생교육사, 당신은 직업인인가 신념을 가진 활동가인가	45호
p.7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47호

1

학 자 에 게 듣 다

시민교육, 클래스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한숭희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2010년 모 신문사에서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유의 기획특집은 왕왕 특정 집단이 특정 기준을 잣대 삼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마치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를 보는 듯하여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취향 혹은 그 신문사의 기획의도와는 무관하게 교육 분야에서 선정된 분이 오늘 저희가 만날 한숭희 교수이기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그 기사 중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해온 전문가. 미래 학습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 이 분야의 주요 저널 편집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파격적인 학습혁명을 이끌어 10년 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꼽힌다."

정성원 관장_ 교수는 아무래도 현장의 실무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조망 속에서 현장에 유용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학자 분들이 담론을 생성해 내는데 현장과의 소통과 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조사·연구·공부하시는 분들의 다른 각도에서 평생학습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으면 평생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숭희 교수_ 저는 근데 현장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웃음). 지금 학습도시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학습구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도움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한 건 저는 관장님이 궁금해서였습니다. 지자체 위탁받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일들을 어떤 구조로 하고 있나 하는 점 등이 알고 싶은 거죠. 예전에 광명에서 성공회대학교가 위탁운영을 하다 금방 계약이 종료되었잖아요. 성공회대가 워낙 원칙과 고집이 있어서 공무원과 갈등을 많이 겪었지요. 서강대 위탁운영도 오래 가지 못했고…. 그래도 희망제작소는 나름 성공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성원_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물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민적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은 공교육 중심으로만 돼 있지 실제 성인 대상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시스템이나 예산 등등이 상당히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숭희_ 네 없는 편이죠. 저는 평생교육을 이렇게 해석해요. 앞에 '평생'은 '평생학습' 할 때 평생이고 뒤에 '교육'은 필드로써 '성인교육' 할 때 교육이고. 말하자면 '평생학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실천하는 성인교육의 영역'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사회교육이 있었잖아요? 성인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말할 때는 단지 필드만 얘기한 거였는데 그 필드 플러스 평생학습이라는 비전이 앞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비전이 학교교육 중심에서부터 계속교육과 성인교육으로 연장되는 풀 스펙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풀 스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한

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의 성인교육이 성인교육만 하는 것이었다면 이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관성 속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책무성을 갖고 있는지, 교육의 총 연장선상 안에서 기존의 주어진 역할들보다는 교육의 프레임을 바꾸는 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유럽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은 교육개혁을 성인교육이 주도하죠. 성인사회에서의 사회민주주의, 거기서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 성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스터디 서클, 이런 것에서의 민주성, 통합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학교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는 학교대로 그냥 정체되어 썩고 성인교육은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국가의 책무성이기도 하고 어떤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종의 관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교육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이 바뀌면 다른 것들은 순간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라고 하니까 벌써 다 달라지잖아요. 기업 경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 또 거기에서 분배방식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솔루션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앞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컨텍스트Context는 과거 우리가 교육만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라든지, 자원분배방식이라든지 또는 학습자를 선정하고 참여시키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방식 전체가 달라져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그걸 전혀 못했죠. 그걸 1세대라고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2세대의 교육정책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교육부의 정체성과 역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습사회'라는 말도 일부러 쓰기 시작하고 있고,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학습생태계'란 말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학습생태계가 어떤 관점 전환을 주고자 하나의 멍석을 새로 깔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비유가 될 수 있지만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잖아요. 과거의 학문과 다른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서 근대사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조망하기 시작한 것처럼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세기를 여는 것입니다. 교육방식은 물론이고 교육이 사회를 직조하는 어떤 구성방식까지도 다루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그걸 우선 교육학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이라는 연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실천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사실은 전례도 없고 모범도 없고 자꾸만 외국에서 이론을 빌려오려고 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지자체들이 그 중심에 서는 게 사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외국의 어디를 보더라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평생교육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에서도 유심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경험에서 선례가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 카피하기 바쁘고, 얼마 전에 다녀온 독일에서도 한국사례에 목말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처럼 평생학습 측면도 국가가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평생교육법이 따로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국가 예산이 적지만 배정되어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끌고 가는 게 물론 좋은 면이 있는데 평생학습 측면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 리소스에 그냥 목매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고 기초지자체가 따라가는 형국이었고 그게 학습도시 정책이었는데 벌써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가 되어 따라가고 있고 이제 점점 광역 시도진흥원이 생겨나면서 나름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시·도 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원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진흥원도 국가진흥원과 사이가 좋아 같이 가는 모습이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요. 수원처럼 기초 지자체지만 덩치가 큰 곳도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변화로 나아갈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기대되고 저희로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성원_ 현재 평생학습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고 그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비해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숭희_ 관심 있었죠. 그것이 시민교육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성원_ 예전에 저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는데 참여연대 시절의 경우 시민교육이라는 게 있어도 참여연대 본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처럼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원과 상황이 좀 나은 기관에서 그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단체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시민사회진영의 고민 부재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숭희_ 사실 리쿠르트recruit 방식으로 새로 멤버들을 데려오는 대부분의 창구가 교육이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시민교육 담당하는 실무자를 쭈욱 지켜보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다른 데 돌려서 이슈 중심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차분히 발전시킬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우)

정성원_ 행정 측면에서 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평생학습 진흥체계가 있죠. 한 교수님은 광역 단위를 허리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체계에서 보면 이것이 위계적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숭희_ 그게 위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시·도에 가면 본인들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진흥원은 교육부 산하이고, 시·도 공무원들은 문체부나 행자부 관계가 있어 예산 지원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위계적 지시를 받거나하는 관계는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독립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국가진흥원은 취약한 프로모션이나 학습계좌제 등을 통해 학점은행제처럼 인증체제에 관여한다거나 또는 학습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업무인 것이죠. 오히려 시군구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지시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바텀-업bottom-up이죠. 그런데 바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개발을 잘 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밖으로 잘 알리지 않고… 워낙 발로 뛰는 일이라 힘들기도 하고… 인력만 여유가 있다면 불이 확 붙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성원_ 교수님 쓰신 글을 보니까 대학교의 경우 연구 중심의 대학과 교육 중심의 대학 그리고 제3의 범주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셨던데 이게 지금 지형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숭희_ 곧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어차피 문 닫는 대학은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문 닫게 해요. 외국 같은 경우 대학을 크게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나누는데 연구 중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중심의 상당부분은 그 안에 이미 평생학습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큰 대학들을 보면 나이트칼리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들이 저녁에 와서 배울 수 있게 하고, 게다가 일반 클래스의 30%는 대개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들은 성인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전체로 보면 우리가 엄청나다고 하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도 30~40%는 25세 이상 성인들이 학습자로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대학은 우리가 인생을 1기, 2기, 3기로 나누면 1기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1기는 취업 전, 2기는 취업하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3기는 은퇴 후로 나누면, 대개 1기 중심의 대학이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기(보통 '계속교육'이라고 함)는 기업의 연수나 승급을 위한 교육인데 대개 이런 교육을 연수원에서 하고 있지만 형태가 약하잖아요. 대학이 더 경쟁력이 있지요.

외국은 대학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대학들도 이런 데 눈을 많이 돌려서 연수하러 학생들이 대학을 오고 학위도 따 갈 것입니다. 이런 형태도 일종의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한 모형입니다. 제3기 대학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대학은 비율로 볼 때는 60%가 2기나 3기의 대학을 담당하고,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1기 중심으로 가지만 3기 대학 형태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전적으로 평생학습 중심의 성인교육으로만 간다,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대학 수요는

떨어지고 있지만 25세에서 70세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방향은 맞는데 다만 총장이나 이사장들이 가치를 느끼고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성원_ 이것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메이저리티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메이저리티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을까요?

한숭희_ 주요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학위 형태는 아니더라도, 오래됐는데 이화여대에서 성인대학으로 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샘플인데 사실 그걸 만들 때 사실은 굉장히 압력도 심했고 이대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했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중심 대학은 연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교육 중심으로 가는 대학들은 거의 반반정도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도 그런 대학 많거든요. 연구 중심이라고 할 수 없는 대학들이 있고, 지방도 주요 국공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다라고 볼 수 있죠.

정성원_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시민교육 관련한 공동연구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역사의 진전이랄까 이것이 결국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은 참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스럽습니다.

한숭희_ 시민교육은 개념적으로는 평생학습과 통합하는 게 맞는데 시민사회단체 부설의 평생교육에서도 시민교육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교육은 클래스 중심의 교육으로만 갈 수는 없고 그건 필요하지도 않고 철저히 경험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나 행사가 교육의 장인거지요. 클래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게 시민사회 활동과 분리될 수 없고 면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클래스로 성공시키는 것은 시민교육의 본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학교 등을 할 경우 참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체로 그 기관의 멤버 아니면 귀동냥하러 와서 듣고 그냥 가버리는, 그야말로 호기심으로 왔다 지식사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 클래스가 아무리 많아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순수하게 액티비티 중심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미 일반화 되었지만 초기에 역사탐방을 기획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새로운 포맷이 나타났을 때 생소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학습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개발이 되어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성원_ 클래스 중심의 고민보다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현장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명 평생교육사 실습생을 받아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마지막 날에 소감을 들으면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다르다고 느낄까? 실습생은 아직 경험은 적지만 젊은 친구의 감수성으로 다양하게 접근해보고 시도해 볼만한 것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 학습관에서 접하는 게 더 신선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숭희_ 수원시평생학습관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주로 어느 학생들이 오나요?

정성원_ 특정한 학교는 아니고 대부분 다 다릅니다. 당연히 이론으로 배운 것과 현장의 문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배운 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니 '내가 계속 가야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상 와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또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을 해보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론과 현장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교수님은 현장의 소식을 어떻게 듣나요?

한숭희_ 주로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세한 건 잘 모를 수 있지요.

정성원_ 저희 기관에서 평생교육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지를 받아 보는데 저희에게 적실하게 다가오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숭희_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성원_ 학계가 반드시 현장의 갈증을 해갈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갈증 나는 것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과 담론을 생성해 내는 것들이 긴밀하게 현장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론으로 생성되고 규정할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서로 따로 놀고, 봐도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 이 문제가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숭희_ 현장의 생생함이 담론으로 스며들도록 상호 소통, 연결이 되면 참 좋죠. 저희가 구로구랑 하는 게 평생교육 강사 인큐베이터입니다. 전적으로 구로구가 재정지원을 하고 일 년에 80명 정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콘텐츠가 있고 이걸 딜리버리delivery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모를 때 그분들을 일반과정, 심화과정 2단계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강의를 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면 계속 강사를 하는 거고 못 살아남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분들께 제가 권하는 건 한번 될 만한 사람들끼리 학습협동조합을 만들어라, 요즘에 협동조합 많이 지원하니까 사회에 자기가 조금 투자를 하고 자기 회사를 만들어 해봐라 입니다. 실제로 현재 학습협동조합이 광주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광주대학교에 임형택 교수가 이사장으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중간 프로그램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강사로 섰을 때 아무래도 수요처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일을 시작해보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아마 현재 프로그램 수보다 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원_ 평생학습계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요?

한숭희_ 없어요(웃음). 현장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현장의 변화를 보며 놀라고 있어요. 늘상 마음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현장에서 실현되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꿈이 아니었네?' 라고 느끼는데, 다만 수명이 길지 못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한 사람과 현장에서 실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함께 코웍이 된다면 더 오래 가고 성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아쉽긴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밑진다 생각하시고 연락하세요. 사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립니다.

현장과 강단이 많이 괴리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계 만큼 접합되어 있는 곳도 드물거든요. 제일 모범이 되는 사례는 복지나 상담 쪽이고 거기 못 지않게 평생교육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더 문제는 진흥원들이라고 봐요. 국가진흥원도 봉사하는 자세보다는 점차 관료화 되어가는 느낌이 있고, 시·도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관 주도에 순응하는 형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질서가 아니고 협력적 관계니까 각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프로포절을 내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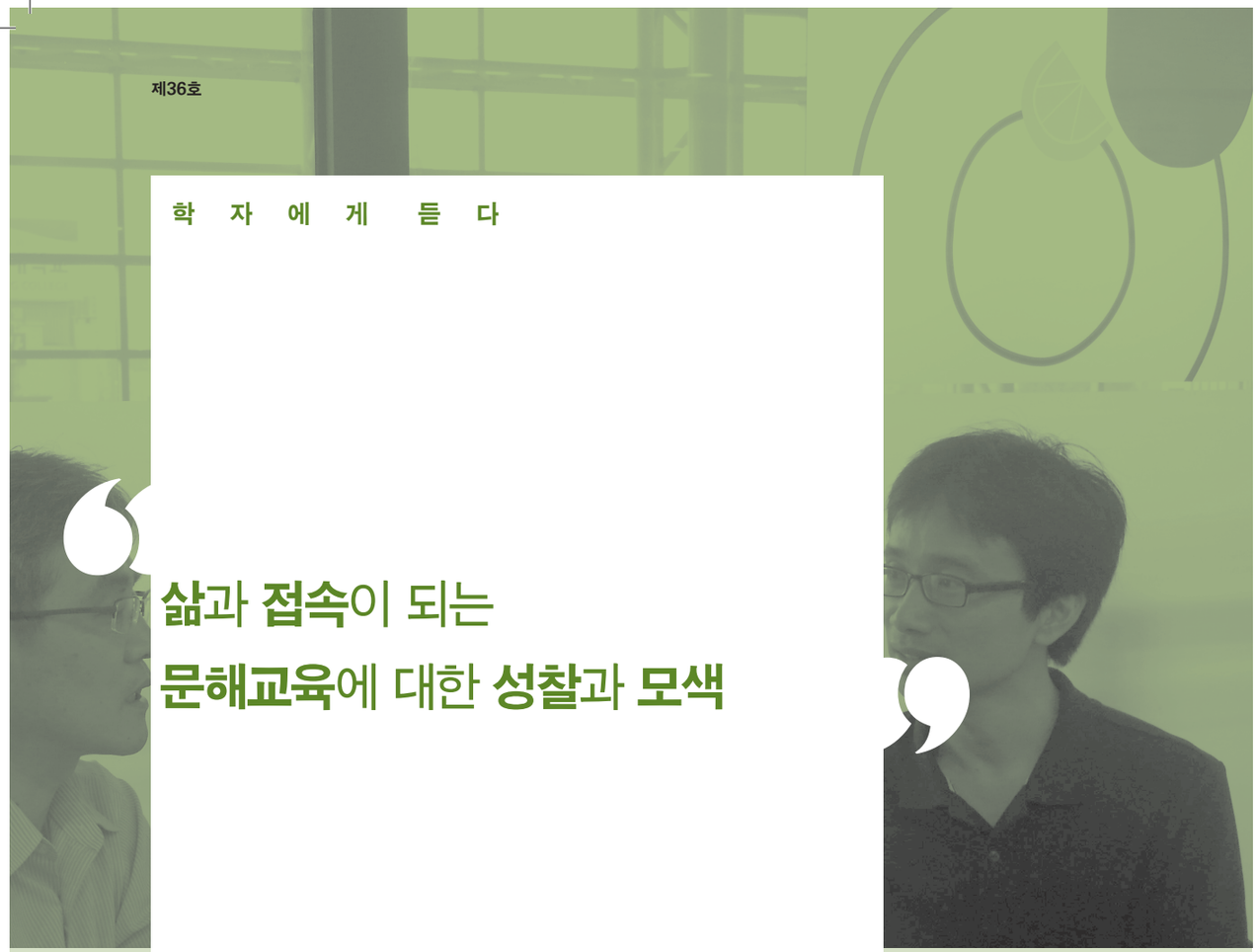
한숭희 교수는 「시민교육」 창간준비호에 다음과 같은 권두언을 썼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이곳에 소개하며 첫 번째 학계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학습했습니다.
> 바꾸기 위해 학습했습니다.
> 준비하기 위해 학습했습니다.
> 이제는, 돌이켜 이해하기 위해 학습해야 합니다.
> 의식과 생각이 나로부터 출발하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 일상적 혁명 속에 나를 재위치시키기 위해 학습해야 합니다.
> 무엇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의식으로, 그리고 의식은 결단과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 이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꼼꼼하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직조해 내야 합니다.
> 시민교육 없이 역사의 발전은 없습니다.
> 항상 발전만 있는 건 아니지만,
> 어떤 때는 원치 않게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있지만,
> 그래도 우리가 넉넉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 우리에게 학습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유선애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 자 에 게 듣 다

삶과 **접속**이 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허 준 교수(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한숭희 교수 미팅 이후 이번에는 젊은 신진학자와의 인터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레이더에 포착된 분이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입니다. 처음엔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만 그런다고 포기할 저희들이 아니지요. 지역주민운동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문해교육 쪽에 관련 글도 많이 쓰고 발표도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문해교육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성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더욱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성원 관장_ 어렸을 때 성함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허 준 교수_ 많았죠. 한참 허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는데 제 개인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한 만 명도 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예진아씨랑 헤어지지 마세요' 라는 글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웃음). 또 제가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했는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학생이 저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성함이 뭐예요?"(웃음)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 이름을 평범하게 지었습니다.

저는 수원시평생학습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누구나학교 한번 조사해봐라. 뭐랄까, 지금까지의 평생학습관 하면 조금 구태의연하고 단조로웠는데 수원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지자체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가면 수원 한번 가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원_ 처음에 인터뷰 요청에 대해 왜 그렇게 고사를 하셨습니까?

허 준_ 사실 저는 인터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터뷰하신 분이(한숭희 교수) 제 지도교수님이시거든요. 덕분에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신다는 근황을 알게 되었던 차에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구 실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상품의 가치가 높지 않아서…

평생교육학자로서의 삶

정성원_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로 어떤 분야이신지? 평생교육 분야도 나눠져 있지 않나요?

허 준_ 평생교육도 전문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마도 대부분 평생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저는 평생교육 전공과목들(자격증 과정)과 교육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평생교육개론, 경영론, 방법론 등이 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저를 평생교육과 교육사회 전공으로 채용해서 평생교육과 교육학, 교육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학부 전공은 철학입니다.

정성원_ 제자분 중에 평생교육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허 준_ 제가 대학에서 근무한지 5년 차인데 영남대에서 3년이 되었고, 그 전에는 목포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사범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교육학과에서는 평생교육에 관심이 적어요. 대개 교직을 꿈꾸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영남대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는 국가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목포대에서는 평생교육원이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대부분 교직 이수를 하면서 복수전공을 하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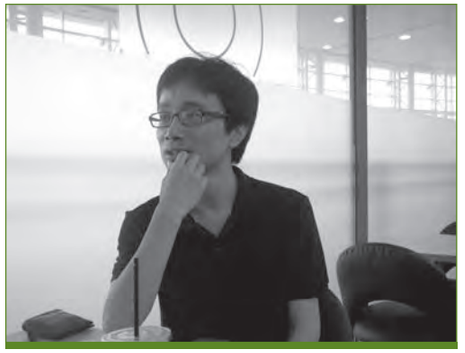
정성원_ 제자분들이 평생교육 분야보다는 일반교직에 관심이 많으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관심 갖게 되지 않나요?

허 준_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학과가 교과교직을 하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등의 전공 학생들도 있고, 복수전공을 해야 교직을 나가기 때문에 역사, 수학 등 전공 교직이 다양합니다. 과 지도교수 입장에서 교직 성공률이 5~10%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교직보다는 다른 길을 권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맡은 교육사회학이 학교문제를 많이 다루긴 하지만 관심사를 다양하게 하는 게 일반 학과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분야 학생의 현장 실습 문제

정성원_ 평생교육 관련해서 과목을 이수하려면 해당 평생교육 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는데 저희 기관에도 거의 매달 학생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실습기간이 딱 한 달인데 그 정도 기간이면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도 책임 있는 일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가버리게 되니 한 명의 파트너로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자기 일도 바쁜데 실습생을 챙겨야 하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부가된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달이 끝난 시점에는 함께 평가회 시간을 갖게 되는데 실습생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의 배움과 실제 현장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또다시 겪는 혼란이 있겠지만 배움의 과정에서 한 달이 아닌 한 학기 정도의 긴 호흡으로 파견해서 구체적인 업무도 맡아 보고 관련된 리포트를 쓰게 하면 그 기관도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하고 실습생들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서로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허 준_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 간 친구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을 것 같네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동안 YMCA나 흥사단 등과 연결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반 행정기관들은 관료적인 문화가 있어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일하기 쉽지 않은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할 친구들에게는 그런 기간의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취지는 한 학기동안 학점을 이수하고 그중에 4주 정도를 실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한 학기의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든 학교가 비슷하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저희 때는 전공하기도 바빴는데 지금은 전공에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증 전공에 연계전공까지 4년에 졸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투자해서 실습한다는 것이(물론 평생교육학과라면 푸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자격증만 취득하려는 친구들에게는 가서 느끼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평생교육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3학년 때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원봉사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도교수 입장에서 권하기 힘듭니다. 반면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할 친구라면 지금 형태의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해교육에 대한 고민과 모색

정성원_ 교수님은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글도 쓰시고 발표도 많이 하시는데, 문해교육이 새롭게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허 준_ 그것은 공식적인 고민이 아니고 제 개인적 고민입니다. 제가 문해교육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문해교육 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민이 문해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현장이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지 얘기를 하면 제 라이프스토리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공은 철학이고 교육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지역문제였습니다. 난곡 공부방에서 교사활동을 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지역 활동가를 만나고 지역 활동가들을 보니까 야학 출신들이었고, 그래서 야학 연구를 하게 되고 박사과정까지 사회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우연히 첫 직장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신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문해교육 사업담당을 하면서 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해교육)제도화 과정 속에 한편으로는 비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여를 해온 저는 2007년도부터 6년 정도 깊숙이 관여를 해오면서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해교육 제도화가 주로 학력인정과 연계 되면서 이것이 학력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 '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을 풀겠다'는 의미의 문해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죠. 문해교육은 평생교육 발전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950~1960년대에 학교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어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인 이제야 지원이 이뤄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1964년 이후로 문해교육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비문해율이 20~30% 되면서 2001년부터 처음으로 조금씩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력인정도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해교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비판적인 문해교육 관점에서 보면 문해교육이 단지 글을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문해교육의 방향성이 학력보완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헌데 이런 학력보완 의미로만 작동한다면 저는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학력자들의 그래프를 보면 60~70대 대부분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군대에서 배워 연령층이 높다고 해도 글을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력인정으로 간다면 그 욕구가 충족이 된 이후 문해교육의 생명력은 끝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습득이 아니라 생활의 기술을 익히거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지금의 문해교육의 준비된 제도나 정책들이 걱정 되는 거죠. 지금은 학력위주로 가다보니까 NGO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력인정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력인정은 진흥원장이 주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민간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학이나 NGO단체가 기대했던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력인정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학교교육 행정에 오래 길들여져 있는 시·도 교육감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대구의 경우 〈아름다운 학교〉처럼 전통 있는 문해교육 기관들, 정말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자체적으로 교재 만들고 프로그램 짜고 운영 해온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은 100%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학습자 수는 한계가 있고 학력인정 해주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겠죠. 애초에는 문해교육 법제화가 지금까지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야학이나 민간기관을 지원해 주려는 취지로 법제화 과정에서도 야학이나 민간기관 관계자가 많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학력인정 중심으로-물론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간기관이 고사되고 있지 않나 라는 위기의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해교육의 방향성이 뭐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제 관심인 지역공동체와 연결이 되는데 '졸업장이라는 또 하나의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_ 문해교육이 시민교육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학력인정으로만 제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허 준_ 그것도 평가를 해 봐야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학력인정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귀찮아해요. 괜히 학교 일도 아닌데 민원만 생기고 해서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경기도는 하고 있나요? 서울은 하고 있고요. 좀 봐야겠지만 아직 확산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 제도가 만들어진 지 5년 차 정도 되었고 지금 수준에서는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학력인정으로 가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으나 방향성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해교육은 주체의 문제인가?

정성원_ 한편으로 문해교육이 시민교육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주체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NGO가 담당하기도 하고 개인 또는 종교단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허 준_ 그런 고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민대학이나 동대문에 있는 푸른시민연대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선거철이면 민주시민교육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푸른시민연대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 칠곡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 활동,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결시켜 가면서 접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해교육만으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삶의 문제와 연결시킬까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관의 문제로만 얘기하기에는 워낙 기관이 다양하고 종교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칠곡의 경우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기존의 관행이 아닌 희망제작소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역동성의 반영이지 않을까요?

제 연구과제이기도 한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요구가 녹아 있는 거죠. 학력법 보완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 전에 관에서 하지 못했던 서비스에 대한 행정요구도 있고 한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NGO들의 노력도 있고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

려는 등 많은 욕구와 역동적인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학습문화가 배워야 먹고산다는 특징이 있고, 각 지역의 정서도 있어 기관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해교육이 학력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기관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문화의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DNA처럼 근대화 과정 속에서 축적된 어떤 배움에 대한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대화 과정을 생각해보면 생존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일제가 통치하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 신분제도가 막 무너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배운다는 의미가 과거 조선시대의 그런 배움의 환경과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거치고 고도성장 과정 속에서 교육이 신분상승을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영이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자 하는 욕구로 분출되었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정성원_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확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방향이 어떨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게 있는지요?

허 준_ 문해교육으로서는 모르겠고요. '누구나 학교'에서 많은 가능성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움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한글을 배움으로써 다른 배움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을 배우다 보니 책도 읽고 싶어지고, 시를 읽게 되고, 시도 쓰고 싶어지고,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배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숭희 교수님도 시민교육이 클래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잖아요. 문해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육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으로 내려오고 사업을 양적 평가로만 하다 보니 얼마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는가에 평가가 맞춰지고 그러니 참여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과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숭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클래스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학습경험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런 고민들이 현장에서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경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7년간 행신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고양시 행신동 다세대주택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공동육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동네주민과 친해지게 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낮에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저녁에 조직가로 활동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저에게 다가와 '책 읽고 싶지 않냐' 해서 40대 아저씨 5명이 공부모임을 하고, 공부하다 보니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서 캠핑모임도 만들어지고, 노래모임도 만들어지고, 사람들과 모여서 떠들다 보니 대안학교도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동네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서로 만나고 사귀고 배우고 알려주고 그리고 지역에서 진정성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혼자 갇혀 있으면 그런 상상을 하기 힘든데 새로운 용기도 내게 되고, 이런 과정을 7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딪힐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제가 글에서도 썼습니다만, 어떤 세포 분열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자기 변화와 생활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가 무수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지역의 화두가,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 살자고 했는데 우리 아이만 대안교육 받으면 제도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청소년창의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0여년이 지나면 고양시만의 독특한, 주민들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고양시와 연계해서 지원도 받고 그쪽에서 인프라를 따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지역사회를 변하게 하고 사람들도 변하게 하지 않나, 이게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학교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부모 된 마음에 자녀에게 뭔가를 시켜주려고 하지만 실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닦달하다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하려는 것은 기다려주고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식의 성장과 한계

정성원_ 좀 전에 고양 쪽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평생학습관이 주민들에게 다양

←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좌)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우)

한 강좌를 제공하는 것도 평생학습관이 해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한 사람의 교양을 높여나가는 문제를 넘어 지역과 어떻게 맞물려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역과 맞물려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학교 모델을 단순히 평생학습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하고 4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각각 한 명씩의 코디를 파견하고 마을별로 주민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만들게 해보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 준_ 제일 좋은 건 지역주민 공동의 경험을 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안처럼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성미산 마을의 유창복 선생님 경우도 비닐하우스에서 밤새 지키면서 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술 먹고 수다 떠시면서 그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부안의 핵 폐기장 운동이 경주나 군산과 다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군수가 뒤통수를 쳐서 빌미를 제공했고, 군수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전경들이 와서 때리고 피를 흘리게 되니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공감의 형성이 연대의식과 시민의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민의식의 확장성이랄까 다른 지역, 다른 부문과의 연대의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안 핵 폐기장 반대운동의 경우 굉장히 생태적, 반개발주의적인 운동이고, 1년 동안 주민들이 거기에서 강한 집단학습을 했다면 환경의식이나 자치의식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시민의식으로 발전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핵 폐기장 반대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개 새만금 반대운동을 하셨는데 집회 같은 거 할 때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절대 새만금 얘기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굉장히 경계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주민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도부들은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참지 못하는, 말하자면 사춘기 자녀와 부모사이의 갈등처럼 주민과 지도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거든요. 이게 강한 운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 거죠.

부안 사례를 보면서 저는 강한 공감이 있을 때 형성된 시민의식의 한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공한 운동이고 주민자치의 성지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험이 소화되는 과정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길게 보고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부안이나 성미산의 사례보다는 행신동의 사례나 칠곡의 사례가 좋지 않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대한 관심과 접점

정성원_ 허 교수님은 학자시니까 담론을 만드시거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연구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 있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담론 생성을 위해 현장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으시는지, 어떻게 관심가지고 챙기시는지 궁금합니다.

허 준_ 저는 살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뵈려고 하고 연구를 통해서도 살아 보고 그렇긴 하지만 제 연구에 있어서는 부딪혀봐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에서 공부했던 것은 4년 간 공부방 지원활동 하면서 생긴 에너지로 살았던 것 같고, 박사논문을 쓸 때는 프락시스 연구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돈을 모아 반지하도 얻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대학원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런 에너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행신동에서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할까 질문하셨는데 '나는 현장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하는 것이 지금 저의 화두입니다.

지금도 동네를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 포항이 워낙 보수적인 동네라 그런 분들을 찾기 힘든데 대안학교 모임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상과 결합 되면서 공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해교육의 경우 6년간 연구해 왔지만 문해교육 학습자들과 만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일이죠. 사실 데이터로 만난 적은 있지만, 활동가들을 많이 알아서 카톡도 하고 만나서 많이 놀기도 하고, 공부방 때 만난 선배가 활동가로 있어서 현장에도 가지만 문해교육 학습자를 특별히 만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문해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잘 못 살아온 거죠.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를 만날까 고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영역, 정책영역 이런 고민들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실제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고민은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해오는 고민은 소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스스로가 소외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때만 되면 읽고 싶은 책이 생각나고, 제가 계속 학습 문화나 학습 감성,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애초 왜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고민을 계속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은 당장 저에게 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스펙 쌓기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순 없어요. 1, 2학년 학생한테는 연애도 하고 소설책도 읽어라, 봉사활동도 해라 말하지만 3, 4학년 학생한테는 '너 토익공부 했니?' 라고 묻게 됩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나에게 의미 있게 나의 삶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공부와는 우리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대학생, 직장인들도 그렇고 사회적 소외와 학습의 소외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저소득층은 일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소외상태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가 성과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니 평생교육의 길이 아름다운 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부생들한테 평생교육개론 수업시간에 "'평생학습' 하면 무슨 느낌이 드니?" 이런 얘길 하면 학생들이 한숨만 쉬며 "지금까지 지겹게 공부했는데 또 평생 공부하라는 얘기냐."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학습을 비판하는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또는 성장하기 위한-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학습의 회복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학습으로부터의 소외된 삶의 극복 문제에 결국 제 연구가 포커스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게 실천연구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문해교육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졸업장에 대한 욕구가 외재적 욕구일 수도 있잖아요. 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졸업장을 딸 수 있는 환상을 심어주는 또는 학습으로부터의 소외를 또 재생산하는 혼재의 접근들의 과정이 아닐까? 이게 제가 철학과를 나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힘든 부분이 있고 생산도 잘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_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이 무엇인지요?

허 준_ 제가 평생교육은 잘 모르겠고요. 제 논문 보시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평생교육학이라면 한숭희 교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뭐랄까 저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든 회사에 취직하든 교육학을 공부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지요. 제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도 있고, 국제적 가치나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도 있고, 그것과 구별되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내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지금처럼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성장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돌봐주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사회적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지역문화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면 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핵심적 가치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저를 되새기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가치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굶주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사회 속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제 제자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유선애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 자 에 게 들 다

평생학습,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이희수 교수(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GHRD대학원장)

이희수 교수님은 글이나 강연을 통해서만 알았지 지금까지 저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토요일에 이희수 교수님이 대학원생 중심 20여 명과 함께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방문하시면서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시간이나 여건상 진지하게 긴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데 이번 방문단은 시설 견학뿐 아니라 그날 진행된 강좌를 함께 수강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다른 행사('책읽는 지하철'. 「와」 제37호 참조) 취재가 있어 이때 함께 하지 못했기에 차제에 이희수 교수님과의 인터뷰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성원 관장_ 지난번에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방문하셨는데요, 일종의 수업의 일환으로 기관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이희수 교수_ 수업의 일환은 아닙니다. 방학 때마다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거든요(웃음). 지난 겨울방학 때는 예산에 원로교수님이 계시는 문화센터를 다녀오고 평생교육시설을 한 곳 다녀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수원시평생학습관, 그리고 화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성원_ 그럼 학습관을 오게 된 것은 경기권 루트를 구성하시다가 오신 거네요?

이희수_ 그런 것도 있고 특별히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웃음) 평생학습관의 희망을 제작한다고 해서 방문해보았습니다. 같은 것도 시민단체가 운영하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사들이 하는 것과-영역이나 단체가 여러 곳이 있지만- 시민단체가 할 때는, 옛날 추억의 정부미가 일반미로 바뀌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웃음). 방문해보니 포멀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디자인부터가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의 민간위탁 문제

정성원_ 전국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곳이 은평구, 수원시, 안산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한 지역으로 보면 아직 극소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민간위탁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민간이 좀 더 잘해서 콘텐츠와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민간위탁을 좀 더 촉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_ 은평구는 명지대학교라는 기존 대학이 위탁을 받은 것이고, 안산도 안산대학교가 위탁받은 것이죠. 그러나 수원은 대학과는 달리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것이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약간은 형식적 교육기관이라면 시민단체는 정식 교육기관보다는 상당부분 더 유연하고 자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장과 국가 간의 건강한 긴장단계를 조성할 수 있는데-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니- '위탁'하면 우리는 쉽게 '민영화'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민영화라고 보기 어렵죠. 시민단체가 반드시 돈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물론 비영리이지만- '대학성인교육주식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안 되면 잘 들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 평가를 받는데 유리하거나, 대학 재정에 기여가 되거나, 대학 평판도나 지역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이 다 되더라도 재정적 도움이 안 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대학과 시민단

체, 순수 영리기관이냐에 따라 같은 위탁이라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성원_ 사람들은 보통 민간이라고 하면 대학과 시민사회단체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보는데 교수님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속살을 보시네요. 최근에 인천 남동구청에서 내년도 평생학습관을 만드는데 직접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수원이나 은평의 사례를 평가하고 '민간에게 갔더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 민간에게 갈 수 있지만, '민간에게 갔어도 별반 새로운 것이 없더라.'라고 평가 된다면 직영으로 가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희수_ 민간 위탁이 처음은 광명시였는데, 초기에는 농협 건물에 박성대 씨(현 경기도의원), 김수정 선생 등 몇 사람이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 했습니다. 그 때는 직영이었죠. 그러다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돈이 들어오고 조례도 만들고 번듯한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고민에서 대학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회대학교죠. 그 다음에는 서강대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처음에 튼튼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공적 운영 경험이 축적되고 이 정도면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니까 민간 위탁해도 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바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두 곳 모두 사립대학인데 공공성 면에서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영이 되었죠. 지금은 형식은 직영이지만 운영 책임자 면에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의 상당부분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부 경영은 영입한 관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면 형태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x축, y축으로 나누어서 직영과 민영, 공공성과 시장성으로 설정해보면 좌표 설정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저에게 로드맵이 있다면 일단 투자와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적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전문, 비영리로 하는 곳이 와서 해보고 하는 방식 등의 절충적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라도 완전 영리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은 왜 다들 공적 기관, 공립을 더 원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게 가면 "밑지고 장사하는 곳은 없다."라는 말처럼 밑지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뭔가는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공적으로 하면 뭔가 남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효율성 때문에 축적된, 감소된 비용은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민간은 시장성을 지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과 시민단체는 좀 다르니까요.

평생학습기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정성원_ 사실 여기서 수익 발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설사 수익이 발생해도 희망제작소로 가져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희망제작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측면이 큽니다. 다양한 혁신과 실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를 많이 했거나 평생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경험에서 한 도시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공공적 가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이 희망제작소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이죠. 과욕일 수도 있겠고, 실험과 도전에 한 번 나서보자 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과오 없이 가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희수_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이른바 제도권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너무 실내체육관 중심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내부에서 전통적 교실 모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도 여전히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 관에 교실 같은 강의실에서 교사를 대신하는 강사나 평생교육사가 성인학생을 대상으로 짜여진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사회적 모델을 전달해 주고 먹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 운영했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평생학습관 밖에 마을을 던져주고, 수원을 던져주고, 이것을 한번 평생학습 관점에서 경영·기획해볼 때 기존 제도권은 이게 잘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합니다. 기존에는 교과서 모델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활동성이 떨어졌는데 희망제작소와 같은, 마을 운동했던 분들이 오니까 우리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밖을 디자인 한다, 이런 스케일이나 관점, 활동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담으로 평생교육사의 죽음, 활동가의 탄생이란 말을 합니다. 이제는 활동가 세상이다. 활동가는 달리 말하면 운동가인데 우리는 너무 평생교육법 상의 제도에 안주했다.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다. 평생교육사가 아니라 활동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_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국제포럼에서 교수님께서 평생교육사들은 활동가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희수_ 저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야성도 떨어진다, 그럼 당신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운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GHRD대학원장실에서 만난 이희수 교수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마련과 실행

정성원_ 교수님께서 1, 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깊숙이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차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이희수_ 지금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고 3차에도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편입니다.

정성원_ 1, 2, 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그러니까 한국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인프라나 앞으로의 종합계획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수님이 작업들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희수_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성원_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한국 평생교육의 설계자 역할을 하신 셈인데, 3차는 미래계획이라고 보고, 1, 2차를 보면 교수님의 계획이랄까 구상들이 좀 구현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이희수_ 구체적 평가는 3차 계획을 보면 성과분석이 다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면 좋을 듯 하고요. 2차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것이 저의 말보다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만 신경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은 건수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 계획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 가끔 써먹는 곳이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탈 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로드맵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정도입니다. 옛날의 경제발전5개년계획처럼 그렇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계획에 구속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이 5개년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반영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다 1년 단위 예산이니 그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모르는 형편이기도 하고…

그러나 적어도 1차 계획에서는 평생학습 축제나 평생학습도시 같은 것들은 진행되고,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수원도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기획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기본법 체제를 얘기합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마 경제계획원 모델일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대로 되거나 그것대로 성과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지형도나 정책적 지형도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떠한 계획도 5년까지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성원_ 정치지형으로 놓고 보면 중장기 계획들이 차근차근 실현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네요.

이희수_ 그것이 또 정권하고 기회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좋은 것이 5개년 계획이 이번 정부와 시작과 끝을 같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직업발전개발 5개년계획 이런 것이 있었는데, 문민정부 때 잘 만들었지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만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냥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HRD'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라, 대신 '인재'라는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개발부도 없어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 되다 보니까 법 자체가 있어도 무의미해지는데, 그런데 하물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5개년이라는 것이 그것대로 되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배경을 잘 모르고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_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2차년도 진흥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인가요?

이희수_ 평생학습도시는 1차 때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도시와 축제를 만들라고 할 때 김경회 당시 국장님이 이것을 보더니 '이것은 매우 좋은 것 같다. 이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기본계획 발표 전에 이미 진행을 했었죠. 기본계획은 그 다음 해 1월인가 2월에 발표가 되었고,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눈에 띄어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가지고 광명, 진안, 유성 세 곳을 선정해서 그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1차 때부터 계획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원_ 저는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서 이 정책이 나온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희수_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책이나 사업이 법이나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 부처의)국장만 돼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득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실질문맹률에 관한 연구

정성원_ 교수님께서는 실질문맹률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수_ 그것은 OECD 때 했던 것인데 정책적인 분야입니다. 그 당시는 교육개발원에서도 '문맹'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할 연구가 없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상을 주기도 하는데 무슨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죠. 다행히 OECD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다, 그곳에서 수준별로 하는데 우리도 OECD 국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도 단순 리터러시 스킬literacy skill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라이프 스킬life skill 이라고 한다, 이런 면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할 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도구를 가져다가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접촉창구는 교육개발원의 통계본부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대로 가신 분이 접촉창구를 하면서 우리도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분담금을 3~4억인가를 내라고 하더군요. 우리 예산에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연구비도 없는데… 그래서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OECD에 분담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 세미나에 참석할 돈도 없었으니…

정성원_ 그럼 그 연구가 완성이 안 된 것인가요?

이희수_ 연구는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많이 낮게 나왔죠. 그래서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문해교육도 들어가고, 지금 문해교육 예산이 20-30억이니 몇 십억으로 늘어난 셈이죠. 옛날에는 단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 소외계층, 취약계층에게 복지관, 도서관에서 하는 문해교육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단위로 천만 원 많으면 이천만 원 이렇게 프로그램 베이스로 나누어준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정책적으로 되어서 문해교육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가 시발점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1990년도가 유엔이 정한 세계 문해교육의 해인데, 1990년도에 최운실 원장님의 연구가 있고, 한국문해교육협회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후 10년이 침체기였습니다. 그 다음 2000년에 OECD연구를 해서 다시 문해교육 부활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자는 과학적으로 마이크로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을 설득할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해교육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것이 촉발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성원_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개요를 봤는데 저는 문맹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교육에 대한 경고라고 읽었습니다. 교육이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문맹자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자 라는 수준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오고, 교육체계랄까 내용도 좀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 이후의 후속작업 같은 것이 안보여서 좋은 연구가 묻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수_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법도 바뀌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죠. 거기서 중요한 개념은 리터러시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리터러트literate하다, 수준이 레벨이 다를 뿐이다. 대학 나온 사람 한테는 주로 레벨 5라고 하고, 대학 나온 사람도 심지어는 레벨 2나 3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문맹, 문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해자이다. 단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도구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정성원_ 대학을 졸업해도 오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대학 졸업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요구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희수_ 저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매경에 증권 관련 것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문에서도 섹션에 따라서는 1리터러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문맹자고 나는 문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문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옛날에 유네스코에서 쓰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문학에 대해서는 리터러트하다, 그러나 수학에 관해서는 꽝이다'라는 것으로 서로가 아량을 베푸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이 제가 만든 용어인데 "문해는 복수다." 즉, 단수 개념이 아니다. 리터러시즈literacies 라고 합니다. 환경 문해, 경제 문해, 컴퓨터 문해, 기술 문해, 생태 문해 등등. 중앙대학교에서도 문해교육 차원에서 이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공대 학생들을 뽑아 놓았더니 학생들이 대차대조표 하나 못 읽더라- 우리학교에서는 교양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회계를 다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리터러시입니다. 우린 회계 리터러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평생학습 리터러시라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공부를 하더라도 무언가 기초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티베이션motivation이든, 기본적인 날리지knowledge든. 그것이 아마 리터러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을 연결한 새로운 실험에 대한 구상

정성원_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과 연구 역량을 쏟는지 궁금합니다.

이희수_ 직함이 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다 보니 기업교육이나 기업HRD 이런 쪽 강의를 주로 하고, 박사논문 지도할 때는 인적자원개발을 하지만, 요즘은 주로… 우리는 따로 전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뭔 전공을 시방 말하냐(웃음). 석·박사 표기전공을 말하냐, 석·박사 표기전공은 교육사회학이지만 내용은 제가 미군정기 성인교육의 정치사회에 대해 썼으니 성인교육으로 말하기도 하고, 논문 제목으로 말하기도 하고, 표기전공으로 말하기도 하고… 제가 교육개발원 근무 당시 가장 많이 한 것은 e-러닝 교육정보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저를 교육정보화하는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다가 평생교육을 2~3년 했더니 이번에는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고, HRD를 했더니 "HRD로 또 바꾸었대." 이렇게 수군대더군요.

저는 내용 영역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 영역적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영역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지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략론 같은…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성남시를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시에 살았었고 지금도 누님이 살고 계신데, 하나의 콘셉트으로 하나의 도시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실험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평생교육과 관련된 진흥원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한강 르네상스를 한다고 한강에 많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흉물로 바뀌고 있는데, 한강을 다니다보면 왜 저것을 제대로 안 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이 그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이 애물단지인가 보물단지인가. 구조조정을 통해 많이 퇴출 시켜야 하는데 출구를 못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대학을 어떻게 평생교육시설로 리사이클링 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잉여 농산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잉여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도 그 운명이 될 것인가. 그러기 전에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창조경제, 창조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간 교육자원을… 대학이 무너지면 분명히 지역기업도 안 들어오고 대학이 무너지면 그 지자체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차원에서 해야지 만날 구조조정으로 없앨 것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하나 인수를 해서 '대안적 평생교육대학'을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4050, 6070 세 세대가 하나의 대학 캠퍼스 내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복지관이 있고 공장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 그래서 에듀케이션education, 웍work, 레져leisure, 웰페어welfare가 같이 다 돌아가는 것. 문 닫을 대학을 싸게 인수해서 그것을 협동조합처럼, 다섯 사람만 모이면 된다던데-대학법인이 안 되면- 협동조합을 해서 이사장을 한번 해보든지 조합장을 해보든지. 대안적 대학 모형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_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할까요(웃음).

이희수_ 캠퍼스를 하나 마련하고 기업교육까지 다 인수를 해서 정말 최고의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습니다. 병원도 들어오고, 여행사도 들어오고, 복지관도 들어오고, 그러면 60대 할아버지가 20대에게 강의도 해주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간격도 없어지고. 우리는 너무 실험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원래는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이었는데 대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기존 학교교육 제도와 닮은꼴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늘 실험소이고 대안인데…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그런 것을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원_ 교수님의 구상을 구현하려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결합되고 뜻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랜드한 구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지요?

이희수_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는 있지만 실업자인 사람들을 모아서 "조금씩 출자하자."라고 하고,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2~3년 내로 많은 대학이 쓰러질 것인데 지자체와 같이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성원_ 지자체에서도 고민일 텐데, 말씀 드린 대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방안과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이희수_ 정부 지원을 받고 좀 한다면… 학생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더 좋은 것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연어처럼 회귀본능이 있으니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북아시아 쪽에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프로그램만 좋다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너무 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원_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희수_ 거기서 하나를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누구나학교를 가지고 가고 싶네요. 제 책상 앞에 꽂혀있는 프리 유니버시티free university 이념과 같더군요. "Anyone can teach, anyone can learn."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무형식 학습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이 한국판 자유대학 또는 벽 없는 대학이더라. 그것이 수원에서…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작명소를 차려도 될 것 같네요(웃음).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유선애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 자 에 게 듣 다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허하라

송병국 교수(순천향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청소년을 표현할 때 언필칭(言必稱) '미래의 동량'이라고 합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며 도도하게 흐르듯 그들도 언젠가는 국가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저하된 것처럼 개별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은 발달했지만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그것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능력은 턱없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경쟁적 조건과 환경이 오히려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의 성장과 발달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멘토 역할을 해 오신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청소년상담학과, 교무처장)를 만나러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관하여

정성원 관장_ 최근에 교무처장이 되셨는데 교무처라는 게 대학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바쁘시겠네요.

송병국 교수_ 제가 관리하는 교수만 700여명이 넘습니다. 교수 관리뿐 아니라 수업, 졸업, 입학, 성적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사실 매우 바쁜 편입니다. 교무처의 학사관리, 학점관리, 학생상담 등 학생 관리도 신경 많이 써야 하고요.

정성원_ 캠퍼스가 아담하지만 조용하면서도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네요.

송병국_ 오시는 분들마다 학교가 깨끗하고 아담하고 괜찮다고들 하십니다. 기숙사가 3천 몇 백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약 45%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짓고 있고요. 아마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이 정도 투자하는 곳을 거의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성원_ 45%면 대단히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건데, 캠퍼스를 가꾸고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애정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병국_ 제가 자랑을 하자면요, 우리학교 설립자는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총장이세요. 그런데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립자는 다 훌륭하다.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는데 아들이 최고 경영자로 와서 시원찮으면 교수가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더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으면 남을 더 짓누르려 하고, 그러다보면 갈등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총장님은 구성원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 대학 구성원들은 CEO가 똑똑하고 인품이 좋고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화합해서 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2세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성원_ 순천향대는 처음에 병원을 설립하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신거죠?

송병국_ 돌아가신 설립자가 내과 계통의 명의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졸업하고 연대 세브란스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지역의 의사를 양성해야겠다고 해서 순천향병원을 만드셨고,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70년대 중후반에 이곳에 터를 닦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과대학을 만드는 게 꿈이었죠.

한때는 순천향대가 JP 학교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간접적인 지원은 있었을지 몰라도 JP와는 무관합니다. 헌데 학교명은 김종필 씨가 작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자에 박식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옛말에서 순천을 따오고, 흥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향, 마을, 그게 순천향입니다. 의사는 하늘의 뜻을 따라 질병을 고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게 의사가 아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 역할을 해라, 그런 의학도를 양성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천향대학의 평생교양학부

정성원_ 오늘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시간이 있어서 인문대학 건물에 가 봤는데 평생교육학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평생학습중심대학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송병국_ 일반대학을 보면 평생교육원이 하나의 부속기관입니다. 대부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교양과정, 취미과정을 운영해서 돈벌이 하는 데가 많은데 정부에서도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만들고 합니다만 사실 평생교육이 캠퍼스 내에 메인 조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이 정규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성인을 모아서 평생교육학부에서 학적도 관리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그냥 듣는 것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설계에 맞춰 과목을 듣게 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원_ 학점과도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송병국_ 시간제 학생을 대상으로 바로 대학이 학위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지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그런 대상자들을 모아 대충 학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학위를 딴다고 해서 그 대학 학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

점은행제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로 나갑니다. 그러니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네 학생이 아닌 것이지요.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우리 대학 이름으로 학위가 나가지만 그런 경우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정성원_ 평생교육학부의 애초 기획 목표에 비해 현재까지의 모습을 평가하신다면요?

송병국_ 저희는 평생교육시간제 학생도 꽤 있는 편입니다만… 초기에는 시간제 학생을 지원하고 성인학습자로 구성된 학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평생교육원 원장을 하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을 맡게 되다 보니까 제 후임자는 말을 못 꺼내기도 하고… 성인학습자를 정원의 몇 퍼센트 뽑아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반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정원미달 되는 학교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계획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겠지만 저는 평생학습대학을 만들려고 하였지요.

평생학습대학은 모듈식의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는 학과를 정해 놓으면 안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10~15명 단위로 맞춰 교육을 하면 경직된 조직 보다는 유연한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_ 조직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긴 한데, 장의 의지에 따라 대학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요?

송병국_ 거기엔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의 포인트가 변하지 않습니까. 대학의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온도차가 있고 속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학부의 경우에는 학칙과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회까지 다 통과 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고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약간 느려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정성원_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송병국_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입니다. 이것은 대학 자체만이 아닌 '대학,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장은 시민사회 단체장 또는 지자체장이 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인데 대학은 만들긴 쉬어도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없애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학정책 관리자들을 만나면 "대학을 없애기보다 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라. 지금처럼 경쟁 논리로만 가면 수도권 대학만 남는다. '대한민국에 가면 모든 시골에도 대학이 있더라' 이런 평가와 '대한민국에는 서울 중심의 대학만 있더라' 이런 평가 중 어느 것이 좋으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전국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한계가 있지만 지방대학이 센터의 역할을 하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은 지역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순천향대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수도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다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이야말로 대학이 지역과 연계해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키key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오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정을 듣는다, 이것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하고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다만 하숙하고 음식 사먹는 게 지역사회 기여가 아니지요. 대학 평생학습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_ 한국판 커뮤니티 칼리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겠죠.

송병국_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옳다는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뀔 것입니다.

정성원_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태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움직임의 실체가 아직은 요원하고 부재한 상황이잖습니까?

송병국_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성원_ 학생 장사에 익숙한 대학의 관점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병국_ 30~40년 일한 교수한테 얘기하면 당황해합니다.

진로교육을 하게 된 계기와 대한민국의 진로교육 현실

정성원_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평생교육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성인학습론 등등으로 나와 있던데 교수님의 주된 관심 분야는 어떤 것인지요?

송병국_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진로개발입니다. 사실 대학 오기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7년 있었는데 그때 진로교육 전담 연구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였습니다.

정성원_ 80년대에 진로계획을 전담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것 아닌가요?

송병국_ 89년 그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자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니세프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것을 보고 '일과 직업의 세계관이 0점이다' 라고 판단해서 수혜 프로젝트 3개를 주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제가 진로교육에 관해 전담하게 된 것이지요. 유니세프의 선견지명으로 그 당시 억대의 진로교육사업을 후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니세프에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라 농학자가 될 꿈을 가졌는데 사실 적성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수할까 고민하던 차에 농촌사회교육을 배우는 과가 있어 거기 들어가 교육학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농촌사회 교육학 석·박사를 졸업하고 교육개발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유니세프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교육전문가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업 교과서를 제작하고 그 교육과정을 처음 만든 게 저였는데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사회교육을 하다 보니 평생교육학회 일도 하게 되고 말석을 차지하여 심부름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도 여전히 저의 관심분야는 진로개발이고, 대상이 청소년도 좋고 성인도 좋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과 끼를 계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_ 얼마 전까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으로 재직하셨잖아요. 그 기관의 핵심포커스가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어떻게 계발할까 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요?

송병국_ 죄송한데 제 자랑인 것 같아서…(웃음) 지금이야 사람 30명이 넘는 큰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처음엔 건물만 달랑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 색깔까지 다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청소년 1인 1스포츠, 1인 1악기 다루기, 1인 1클럽 활동하기(자기 특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는 꿈을, 지역사회엔 활력을' 이런 모토를 걸고 초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스쿨을 운영해서 감성·아이디어를 갖게 하고, 중등학교 학생들은 비전스쿨을 운영해서 리더십·자기 미래 등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임 직전에 아산시 진로멘토 100인을 구성해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보통 중소도시에서는 수도권 탐방을 많이 하는데 아산의 청소년들이 진로를 이해하는데 수도권 다녀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의 발전을 위하고 아산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산에서 직업을 갖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로멘토를 서울에서 비싼 인력을 끌어오기보다 지역사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진로멘토 100인을 구성한 것이고요.

←
온양온천역사에서 개최한 다문화캠페인 청소년활동
(출처: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정성원_ 아산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비전과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직장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중소도시 일반은 청소년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와 지향이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을 등지게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요?

송병국_ 아산의 청소년들 99%는 서울 명문대를 지향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아산을 떠나는데 관심을 둔다고 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마저 똑똑한 아

이들이 아산을 떠나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학교에서 관심두지 않는 학생들, 결국 아산에 남을 그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익을 남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어떤 분이 따지시길 "서울의 유명한 강사 불러다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똑똑하고 특출한 인재양성소,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산에 존재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_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시설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하셨는데 관장님의 이러한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병국_ 처음에 근무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 덕이지요. 저는 관장으로서 기본 방향을 잡아준 것뿐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정성원_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박근혜대통령 공약 중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이 교육분야 공약 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공히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병국_ 나무도 자칫 옮겨 심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선 그에 따른 배려와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상시간 5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러나 학창시절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되돌아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서울에 가서 "스카이 입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준비해야 가능합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스카이 못가는 99%는 실패입니까? 어차피 스카이 입학정원은 1만명입니다. 스카이 못 가는데 연연하지 말라. 스카이 위주의 교육을 정립하면 모두가 실패자가 됩니다. 스카이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지요.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임기가 5년이다 보니 그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시간을 들여 정착시켜야 할 것도 빨리 먹다 취해서 다 토해내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성원_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라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런 교육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임기 안에 성과 내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송병국_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는 찬성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빨리 가는 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급하게 하다보면 마치 그 정책 자체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걸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이해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암초가 발생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정책 전체가 욕먹는 결과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원_ 한국 사회에는 스카이 중심의 서열화된 교육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스카이 가야한다는 경쟁중심의 교육체계, 이데올로기가 교육계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직업교육, 진로교육이라는 게 부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송병국_ 지금 우리 세대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부자나 높은 지위나 화려한 삶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이 있고, 가치로운 삶이 있다'라는 관점이 퍼져서 유능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좋다는 생각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돈과 사회적 지위로 등치시키지 않고 다양한 대안이 많이 생겨나면 부모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선생님이 스카이 중심의 사고가 잘 안 바뀌는데 이것도 점차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성원_ 진로교육이 균형감 있게 가려면 학교정책,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되어야하는지요?

송병국_ 학교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빵집을 하든, 카센터를 하든, 농사를 짓든, 다양한 직업 속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업의 세계는 다양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가치

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여전히 실천은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제 아들이 "아빠는 강의할 때와 집에 와서 얘기할 때가 왜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도 그런 문화에서 크다보니 젖어 있는 것이죠.

정성원_ EBS「도전 직업체험」프로그램에서 멘토 역할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느끼신 점이 있다면?

송병국_ 정말 달라진 게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선호하는 직업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서 일단 마음에 듭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중학교 2학년들은 세상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직업을 즉흥적으로 선택한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깜깜한 방에서 물건 짚는 것과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세상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경험 없이 어느 한 순간의 느낌, 쏠림으로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선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기진로 선택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공교육에서도 필요하고 부모의 관점과 영향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직업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해진다'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학기제가 그나마 청소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들

정성원_ 저는 평생학습기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만 비판적, 성찰적으로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지역적 조건과 무관하게 비슷한 프로그램만 돌리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개선되어야 할 측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송병국_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보세요. 예를 들면 전남 고흥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사가 광주나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갑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 결국 다른 데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평생교육사는 분배된, 파견된 평생교육사입니다.

한편 서울에는 각종 지도사가 넘쳐나는데, 지방에는 청소년 기관에도 사람이 없고, 청소년 지도사 구하기 힘들고, 지도사에 대한 이해도 약하고,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 1년 이내 자꾸 사람이 바뀌는 실정에서 지역 관련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양성되겠습니까? 생태환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없앨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인적자원 발전을 위해 국가가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인정해주고, 사립재단에게 운영권과 인사권을 주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립대도 예전과 달라 정말 악덕이 아니면 함부로 부정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면 못하죠.

정성원_ 평생학습과 관련 있는 학자나 시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송병국_ 평생학습이라는 게 참 광범위 하죠. 연령이나 영역, 산업도 다 다양합니다. 지금까진 평생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곧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젠 실천하는 사람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교육, 학습 이런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일부에서는 사업, 이익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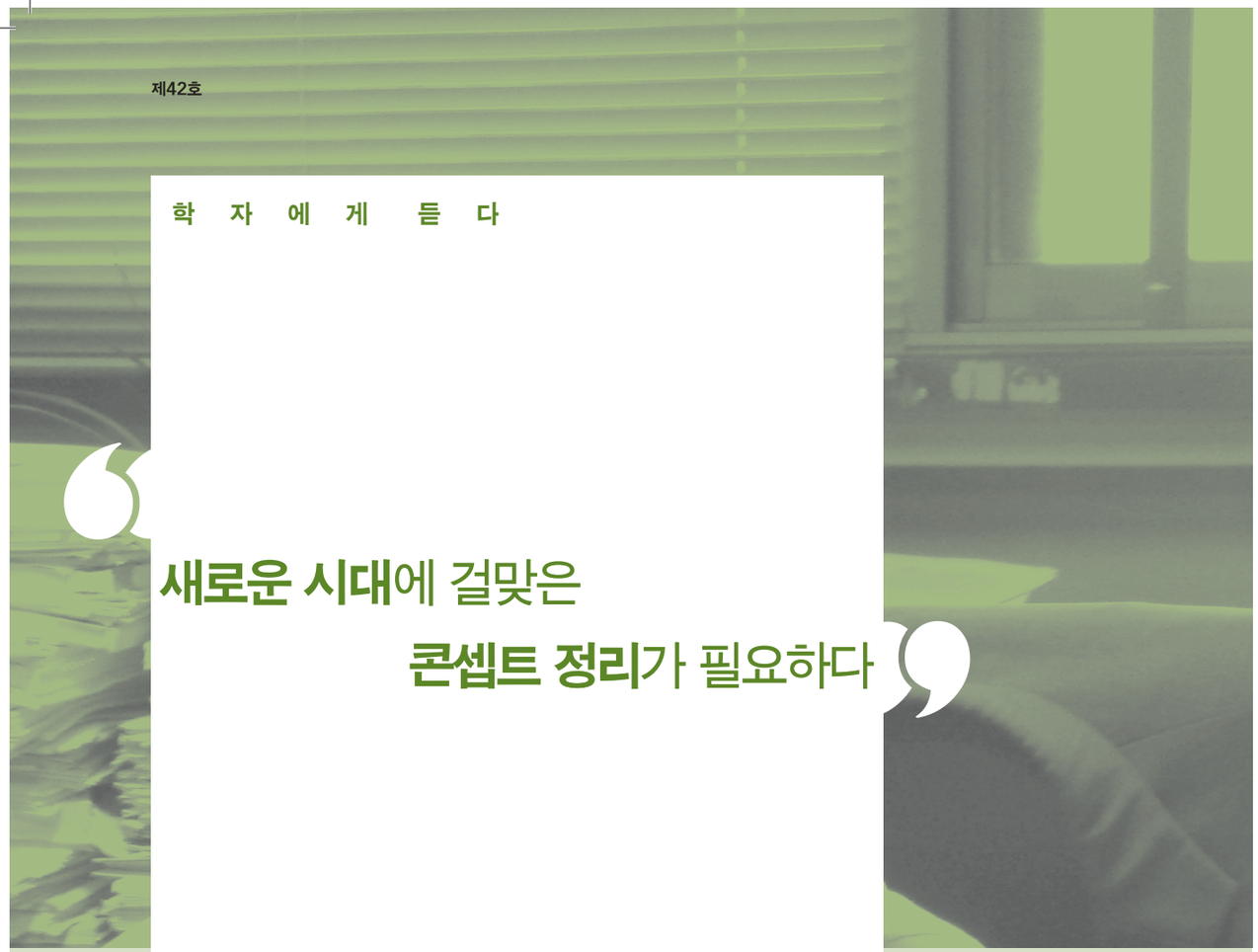
정성원_ 이전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요?

송병국_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대학 선배이기에 형님, 동생으로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어서 수원시평생학습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아예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오늘 관장님 만나서 인터뷰한 것을 알면 좋아할 것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정성원_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유선애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 자 에 게 듣 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셉트 정리가 필요하다

김진화 교수(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평생학습과 관련한 교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이 선정과 섭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 주변 인물이나 웹 서치를 통해 조금씩 범위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희가 가진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매회 차별화된 주요 의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고민은 한층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에는 동의대에서 후학양성과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김진화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특히 김진화 교수님은 현장의 실천가들, 평생학습을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속 깊은 소통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 본인 연구를 담금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에의 입문 동기

정성원 관장_ 교수님께서 학부에서 농촌사회교육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평생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평생교육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습니까.

김진화 교수_ 입문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학부의 농촌사회교육에 들어갔을 때가 입문이라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될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전에는 한국이나 일본은 사회교육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대학을 선택하면서 보니 사범계는 너무 아동청소년 중심이어서 자연스럽게 성인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성인이 학습에 참여하고 그들도 뭔가 역량을 개발하거나 기회를 가져야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대적 요구였던 것 같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학부 이후에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만 왔다고 생각한다. 여기(교수 연구실)에 있는 책들 중 학부 때부터 사용했던 책들도 있다. 교육의 주체자인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면서 (박사 학위)전공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공되어지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그것에 대해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플래닝planning에 대해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쪽으로 꾸준히 연구를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으로 단독 저술을 낸 것은 제가 처음이다. 그 이후에도 단순히 책만 낸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그 보람이랄까. 그런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이다.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이 연계되어서 최근에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 '프로그램은 지식이다, 프로그램은 일종의 지식의 결정체이다.'라는 것이다. 그 지식이 과학이나 학술 지식이 아니라 생활지식이나 문화지식까지 아우르는 지식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프로그램은 지식이다, 그런데 지식이 인간을 떠나서 지식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을 강조하다보니 인간, 삶 그 자체를 강조하고 인식하게 되고, 최근 3~4년 전부터는 평생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의 버전도 3~4차례 바뀐 것 같다.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의 생각은 평생교육의 주체자가 누군가라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평생학습자'라는 것이다. lifelong learner. 그것을 이야기 하면서 학술지에도 발표를 했는데, 평생학습자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시청자나 소비자라는 용어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없던 용어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면서 나온 현대인의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자도 현대인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이 미국이나 호주, 영국 같은 곳의 교육청 프로젝트 같은 것을 보면 그 내용에 '우리 아이들을 평생학습자로 키우자.'라는 슬로건, 모토들이 있다. 즉, 저는 평생교육으로 입문을 해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것이 인간,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고, 인간의 주체성을 생각하다가 현대인의 속성, 평생학습자로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도 재미있다.

평생교육사의 직업적 비전

정성원_ 평생교육사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보통 직무 개념이나 법률적 개념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를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개념으로 평생교육사를 정의하는지요. '평생교육사는 무엇이다'라는 교수님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김진화_ 저는 학자로서, 우리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평생교육사라고 생각한다. 학자가 실천가 파트너를 갖지 못하면 학문적 독신자로 사는 것과 같다. 앉아서 책만 봐서는 안 되고 실천영역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실천영역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평생교육사이다. 교수로서 내가 접하는 사람은 학생이고 일반학습자이고 평생교육사이다. 학생들에게 평생교육사가 무엇이냐고 질문 하면 대개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생교육사란 현대인의 평생학습 생활화와 전략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률적 정의도 아니고 학문적 정의도 아닌데 뭔가 쉽게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전략화. '생활화는 삶 속에서, 생의 주기에서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략화는 그 결과를 가지고 각자 삶의 깊이나 인생의 심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사이다.' 라고 생각한다.

정성원_ 후학을 양성할 때 평생교육사의 어떤 점을 강조하시면서 양성을 하시는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겠지만 커리큘럼으로 가르칠 수 없는 교수님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진화_ 직업인으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직업적인 직무나 역할, 스킬, 기술은 어느 직종에서나 중요시하고 커리큘럼에 반영되어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시대적인 아이템이고 새로운 시대적 전환의 과정인 것 같다. 예전에는 평생교육의 철학적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면, 이제는 직업적 비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을 막연히 인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비전도 필요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인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직업으로써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평생교육사 입장에서 보면 직업적 비전이고 평생교육계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사에 대한 거시적 직업 담론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기능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시대에 평생교육사인가라는 거시적 자격 담론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사의 직렬화에 대해

정성원_ 교수님께서는 평생교육사의 직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김진화_ 그것을 생각한 것은 평생학습 기능의 공공성 차원에서 제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평생학습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공공성은 공익성과는 다르다. 공익적이면서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왜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이 남고 여력이 있는 사람만의 사치스러운 정책인가. 이랬을 경우는 공공성에 두지 않고 사업성에 두어도 될 것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공공성 측면에서 직렬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이야기하다보면 평생교육을 다른 직무를 하던 기존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느냐는 것과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는 영역도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관용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정신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영역의 비전과 공공성을 가지고 간다면 완전히 다른 사회복지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다. 평생교육적인 패러다임과 담론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 토대나 맥락이 어우러진 것 같다. 부산 같은 경우 16개 자치구 중에서 평생교육학습팀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미 12개이다. 전국 지자체로 보면 58%가 평생학습도시이고, 68%가 평생교육 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평생교육의 기능이 공공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직렬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형성시킨다. 사회복지라는 시스템이 27~28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회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 된 것이다. 사회복지 시스템 이후에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평생학습 시스템이다. 계속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인류 역사의 진전을 보게 된다면 하나의 케이스가 필드가 되고, 필드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낸다. 케이스가 모이고 필드가 인정받기 시작하면 사회 시스템이 된다. 사회 시스템이 되면 독립적인 예산도 편성되는 것이다. 사회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라이프롱 러닝 시스템lifelong learning system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정성원_ 직렬화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 분야가 직렬화된 것은 시대적 가치와 동시에 효과의 즉각성과 가시성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즉각성이나 가시성도 떨어지고 양적지표로 해석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과 시스템이 가야하고, 결국 제한된 예산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때 국가가 평생학습에 대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직렬화 문제로까지 밀고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단순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그 수보다 더 많은 현장 사람들이 있는데, 직렬화라는 부분은 제한된 제도적 측면이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이 직렬화 문제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힘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비해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득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과 이것이 전체 사람들의 강력한 욕구인가 라는 것에서 동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김진화_ 그것이 사실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 또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공통된 숙원사업인가,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도 직렬화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다 공익적인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교육은 투입을 했을 때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초중고에 투입을 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는 것은 상급학교에 가는 것이다. 궁극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가시적인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제도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단계 시스템이 없다면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했을 때 미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았지만 인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 제도 시스템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체크하고 포인트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 국가정책이 평생교육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특화된 대상을 갖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를 갖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다. 평생교육에 그 부분이 약하긴 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은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회 시스템적으로 단계적으로 거를 수 있는 것만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정성원_ 저도 직렬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예산을 반영하고 공무원 티오TO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지금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 요구가 높으면 정부에서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평생학습의 경우 개인적 욕구는 있겠지만 국민적 열망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니까 직렬화를 하자고 제안하는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뱀처럼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화_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요구도, 저도 부모님 간병비로 한 달에 280여만 원을 쓰면서 5개월을 보낸 적이 있다. 엄청난 비용이다. 예전에 이것은 가정 개인의 문제였지 국가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영역을 국가가 건드려주면서부터는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직장인들이 핀란드처럼 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 5년 후에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대준다고 한다면,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적 욕구와 염원이라는 것도 충분히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든다면 내가 학습을 받는데, 내 돈 내고 받는다고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움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뭔가 성장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의 욕구로 발현되기 충분할 것이다. 욕구라는 것이 잠재된 것도 있고, 밖으로 발현된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간병인을 고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해도 국가에게 요구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무르익으면서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생기고, 그런 욕구를 발현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로서의 철학

정성원_ 저희 평생학습관 직원 중 한 명이 평생교육을 공부할 때 교수님 책으로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교수님을 꼭 뵙고 싶어 했는데 일이 있어서 오늘 함께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제게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교수님이 쓰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 개발』이라는 책의 저자가 교수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분들과 함께 공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책을 내게 되었는지요?

김진화_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교육철학이자 꿈이다. 저는 서울대에서 공부했는데 지방대에 내려와 있다.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우리가, 교수가 똑똑하고 잘하는 학생들만 끌고 갈 수도 있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동기화시키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교육하고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통 다른 곳들은 출판을 하면 거의 교수 혼자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저는 대학원을 운영하면서부터 한 가지 바뀐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 논문에 관여한 사람은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연구자라는 것이다.

정성원_ 그것은 그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메리트이겠네요.

김진화_ 그렇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그런 꿈과 기회를 심어주지 않고서 그 학생들을 평생교육 학문과 실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나 혼자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책에 이름이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보조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조자가 어디 있겠는가. 보조자가 없으면 본질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름을 넣는다. 심지어는 그 책에 석사 졸업한 친구 이름도 있다. 사실 논란도 있었지만 나는 아니다. 내 교육철학은 아니다. 석사가 되었든, 학부가 되었든 그 학생이 열정을 쏟았다면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학술지, 발표 이런 것에 단독연구는 대폭 줄었다. 내가 책임자이면서 제자들이 다 들어간다.

정성원_ 그것을 통해 교수님의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는 것 같다.

김진화_ 대학원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부족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평생교육에서 느끼는 열정, 암기해서 논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쏟아서 통찰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대학원생은 열정과 사랑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과학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와 실천의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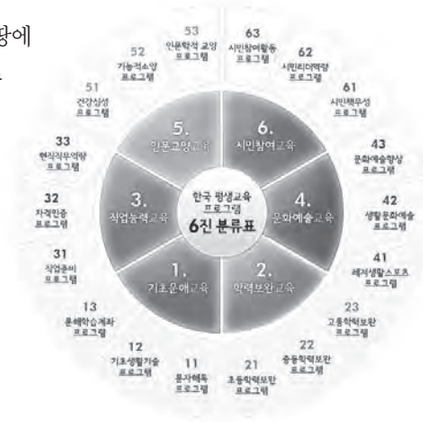
정성원_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실 때 교수, 혹은 연구자가 실천과 매개되지 않는 것은 학문적 독신자라고 표현하셨죠. 교수님은 다양한 연구, 발표, 책을 출판하셨는데 교수님은 현장과 어떤 매개를 통해서 만나고 같이 호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진화_ 한국의 학문 풍토는 두 가지인 것 같다. 외국의 콘셉트이나 개념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외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맥락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현장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시시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것과 현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학술적으로 개념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현장의 사실을 학술적으로 개념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의 어려움이 있다. 자꾸 비디오만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중요한 개념 하나만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생교육 영역이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의 사실이나 실천가들이 사용하는 명칭이나 용어에 관심이 많다. 그 명칭이나 사업명이 너무 진부하다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을 약간 왜곡시킨다던가, 간섭현상을 일으킨다면 과감하게 제안을 한다.

단적인 예가 '학습동아리'이다. 학습동아리를 영어로 말하면 스터디서클이다. 저는 학습동아리라는 말을 쓰지 않기를 권유한다.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해야 한다. 영어로 보면 '스터디서클'과 '러닝서클'은 다르다. 스터디는 형식화된 지식이나 이와 같은 것들, 이미 체계화된 지식을 스튜디오 안에서 오직 그것만 몰입하는 스튜던트인 것이다. 그것은 공부서클인 것이지 러닝서클이 아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본인이 학습하고 찾아가면서 새로운 원리를 만들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닝서클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 서클lifelong learning circle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이라는 말과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에 대한 현상을 모두 다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은 교육입니다' 라고 말하면 시대적인 맥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분하려고 한다. 세련되게 개념화를 시켜서 현장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자'라는 것도 현장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그냥 학습자가 아니라 평생학습자라고 권하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천원리와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네이밍naming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인류역사는 리네이밍renaming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땅에 고조선,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땅에 똑같은 민족인데 리네이밍이지 않는가. 수원시평생학습관도 그냥 수원시교육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원시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인 맥락성이 들어가면서 리네이밍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리네이밍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출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웹사이트)

6진 분류표의 개발과 아쉬움 그리고 지식시민

정성원_ 6진 분류표는 교수님께서 의뢰를 받아서 개발하신 건지요?

김진화_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다. 제가 미국에 연구년으로 1년 갔을 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도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대학원 연구팀과 같이 했다. 사실 원래 하고 싶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든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요나 대상이나 목적을 8,900개 모았다. 그것을 모아서 이쪽으로 수렴시킨 것이다. 그래서 분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았다.

이것을 하면서 분류가 과학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수생식물, 육생식물, 양서류 등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것들이 분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연구하기 위해서 분류한 것이다. 즉,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카인드kind가 아니라 디그리degree라는 것이다. 우리가 남자, 여자를 분류해 놓았지만 그것은 지금 보니 디그리이지 않는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분류라고 하면 카인드로, 카테고리로 딱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연속선상인 것이다. 중간에 끼는 것이 있다. 6진 분류표에도 분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분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과학의 출발이 분계학이다. 교육학은 인과론적 관계를 좋아한다. 이런 분류 계층에 속한 어떤 원인이 이런 결과를 내는가 이미 분류가 된 상태에서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은 아직 분류가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정책 제도적으로 사용(계좌제, 통계 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 표(A4로 정리되어 있는 6진 분류표)도 제가 제작했다. 국가기관에서는 연구보고서만 제작을 하고 보고서에 활용했던 표 정도만 활용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곳에 컨설팅을 가면 액자로 만들어서 준다. 이것의 순서도 있다. 사람이 글을 깨우쳐서(기초 문해)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학교에 가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학력보완) 직업을 구하고(직업능력) 퇴직해서 문화예술 생활을 즐기고(문화예술)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인문교양을 쌓고(인문교양) 본인이 쌓은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시민참여) 이와 같은 철학이 있는 것이다.

정성원_ 저도 6진 분류표 활용에 있어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보통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기관에서 매년 6진 분류표에 근거한 프로그램 통계를 조사 발표하잖습니까.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인문교양이나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오고 시민참여 분야의 경우에는 거의 1~2% 내외로 나옵니다. 아마 내년에 조사를 해도 유사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야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편중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지 형식적인 통계치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함의,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나와서 전국의 평생학습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6진 분류표가 좀 더 활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화_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6진 분류표, 6개로 나누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인문교양에 모집단의 퍼센트가 원래 클 수가 있다. 또 어느 영역의 모집단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많다는 단순 경향만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시민참여교육 영역도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서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백성에서 국민 그리고 시민이 되었는데 시민을 지칭하는 절대적 가치가 민주이다. 그래서 민주시민인 것이다. 그 이후는 무엇일까? 한국의 민주와 일본의 민주의 개념이 다르다. 한국은 반독재나 북과 대치되는 것에 대한 민주인 것인데, 일본의 민주는 주민자치의 의미가 강하다. 지금 한국에서도 주민자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국민-시민(민주시민, 자치시민) 그 이후가 무엇일까. 저는 지식시민으로 보고 있다. 지식시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인 시민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 주체자가 사회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푸코의 철학에서 푸코가 쓰는 중요한 세 개의 개념이 거번govern, 거버넌스governance, 거번멘탈리티governmentality이다. 이것은 바이오 파워BioPower이다. 이것이 지식시민과 연계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식시민을 요청하는

것이다. 제가 부산에서는 주장을 해서 「지식시민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지식시민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과학지식이나 학술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식, 재능기부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식시민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목공일을 잘한다고 하면 목공에 대한 스킬이 있는데 이것도 지식인 것이다. 수원에서도 누구나학교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시민인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관점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푸는 것을 좋아한다.

정성원_ '지식시민'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개인이 공공적 영역에 어떻게 응대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시민적인 권리라는 것이 획득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법으로 보자면 지식사회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식시민'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식사회에 걸맞게 사람들이 지식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치지향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식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진화_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 재능기부도 공적인 영역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응대하는 것이다. 시민강사제도를 한다든가, 평생학습동아리를 서클정도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적 영역이나 자치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작게 본다면 네이버나 다음의 지식인 같은 경우, 저는 한국의 대단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독특한 것이다. 구글과 야후 같은 경우와 다르게 한국의 포털은 지적 자산들이 다 있는 것이다. 본인이 사회제도 시스템 속에서 한계에 부딪쳤던 것들을 다른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식시민이 하나의 미시적으로 할 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평생학습형 일자리 문제

정성원_ 평생학습계 내부에서도 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 문제를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문제라서 향후 학습형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화_ 제목은 정확히 말하면 평생학습형 일자리이다. 이것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평생학습형 일자리라는 것이 평생학습으로 사업체를 창업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평생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근로형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이 직접 지식활동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마을의 평생학습 활동가).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 서비스 일자리-명강사가 있다. 며칠 전 워크숍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을 개념화시켜야 한다. 기존에도 평생학습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긴 생겼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전략적으로 모델화하고, 시범사업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에서 분명히 일자리 개념도 바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일자리 속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일자리는 실적이 하나도 안 잡힌다. 콘셉트 개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콘셉트 개념화 시킬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전제는, 현상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일자리가 지금 존재하고, 생겨나고, 앞으로 더욱더 생겨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학습형 일자리의 개념도 정립 되어야 한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에서, 예를 들어 마을 코디로 명명하면 어느 일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번지수가 없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넣을지 번지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노동부 사업, 교육부 사업, 안행부 사업 등을 조사해서 직업 명칭들을 뽑고 정리하는 것이다.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김진화 교수

정성원_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년실업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인턴사원, 행정인턴 등 단순보조형 일자리를 만들어 예산만 낭비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평생학습형 일자리는 실효성이나 파급력 측면에서 굉장히 진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달성을 중요 공약으로 걸기도 했고 최근에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탑-다운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MB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실 내용은 부실해지고 '취업률', '창업률' 등 양적 데이터로만 잡히는 결과가 도출될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자리가 공급의 과소로 발생되는 측면인가' 라는 의문점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을 이수시키면 그 분들이 마을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를 하고 일정한 수강료를 받게 될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경쟁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영역도 존재하겠습

니다만, 시장 사이즈로 본다면 대체적으로는 과잉경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화_ 좋은 지적이다. 그것을 제로섬으로 볼 것인가, 포지티브섬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제로섬이라고 하면 기존 일자리, 노동시장이 있는데, 너무 많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러면 나눠먹기식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지티브섬은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일자리를 찾는 영역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스, 기제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일자리는 기업과 공공분야에서 만들어주어야 하고 민간이 개인의 것을 창출하는 것이었는데, 개인이나 소집단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고 국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 개인이 만드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네일아트'이다. 누가 이것이 일자리가 될 줄 알았나.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미 샵까지 만들 정도가 되었고 경쟁의 과다가 만들어질 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로도 확장되고 있다. 확장된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의 소스·동력이 기업·국가에서 개인이나 학습자로 변하고 있다.

정성원_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의 이번 연구결과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형 일자리를 강조하고 위에서 실적을 요구하게 되면 좀 더 쉬운 방식의 접근, 이를테면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한 시장으로의 배출 경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것은 결국 시장과다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평생학습관에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혹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각자 알아서 생존을 도모하도록 기존 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장을 창출하도록, 그것도 혼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크게 보면 수원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 기존 시장보다는 신규 시장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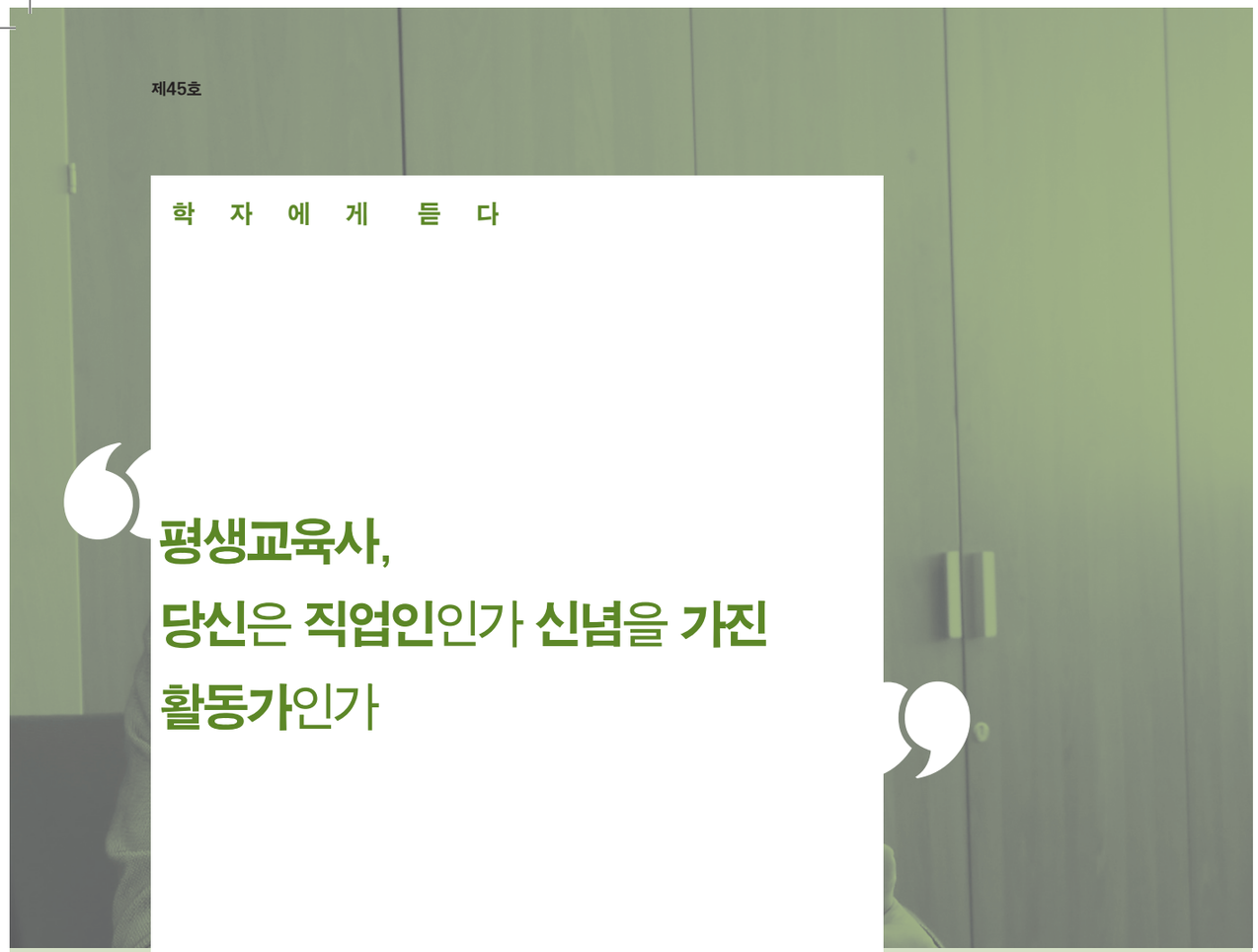
김진화_ 그래서 개념을 잡고 모형을 잡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강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그것은 변종 산업국가 인력 일자리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배치-활용이라는 패러다임이 있다. 학습을 시켜서 배치하고 고용하는 산업국가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일자리 패러다임이 모두 이런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배치하고 고용한다는 이것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40년, 100년 전에도 있었다.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교교육을 벗어난 평생교육만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것만은 아니다. 직업기술교육의 전통적인 관행을 벗어난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3~4년 전만 해도 고용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기술기능만을 직업으로 보고 꽃꽂이나 장애인 돌보미 교육은 직업교육으로 보지 않았다. 직업기술교육시설도 학교교육시설도 산업국가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조건과 학력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패러다임이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바뀌었다. 이제는 바리스타 과정도 지원해준다. 예전에는 어림없었다. 즉, 전통적인 직업기술에서도 내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생겼다. 이런 내용적 패러다임 변화를 기존의 직업기술교육에서 다 포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이 생기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미 직업교육 분야도 평생교육 분야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원_ 마지막으로 현장의 사람들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화_ 현장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힙스터hipster라는 말이 있다. 힙스터는 외로움이 있는데, 현장의 분들이 힙스터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사회, 시민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 우리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면 희망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응집력을 키워서 함께하고, 함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평생교육 예산까지 독립적으로, 섹터로 갈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다. 현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접목하길 원하는 평생교육사들도 있고, 전공자들도 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출항을 했으니, 스마트하게 지혜를 발휘하면 결국에 한국의 평생학습호가 갈 방향을 잡고 속력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 자 에 게 듣 다



평생교육사, 당신은 직업인인가 신념을 가진 활동가인가

양병찬 교수(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저희 수원시평생학습관 초기 시절,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학습관 운영을 위해 조언과 자문을 주실 분을 물색하던 중 학계에서 눈에 띈 분 중의 한 분이 양병찬 교수님이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공공적 역할 그리고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를 넘어 운동적 시각으로의 접근 등 평소 양병찬 교수님의 발언과 행동이 저희를 공주대학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 신뢰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두 번째로 공주대학교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날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장 4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와」 제44호(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상 공통의 관심영역이 아닌 부분은 편집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장시간에 걸쳐 성실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양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원 관장_ 학부전공은 영어교육이신데, 어떻게 평생교육을 하시게 되셨나요?

양병찬 교수_ 교육학으로 바꾸었는데, 교육사회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사회교육을 전공하셨는데 특히 일본 사회교육 쪽을 많이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교육을 하게 되었죠.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취직도 못하는 전공을 왜 하느냐고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문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송병국 교수, 김진화 교수 등)과 친구처럼, 선배처럼 지냈습니다. 보통 학회가 크면 그러지 않는데 저희는 아주 조그마한 학회여서 그랬지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심화와 자기계발에 관해

정성원_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심화가 필요한데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의 한 축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들이 훨씬 더 많은 자기계발과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자기 변화·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병찬_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계발 지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생교육사가 아니지요. 본인이 활동가로서, 프로파간다propaganda로서,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직업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신념을 가진 활동가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장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평생교육사가 별로 없을 때에는 선별도 굉장히 우연히 되지만 자기책임이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평생교육사들이었습니다. 일하기 매우 어려웠겠지만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그 공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가 늘어나면서 얼마나 그런 헝그리 정신이 유지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히 직업인다운, 직업인스러운 그런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진입해서 확장시킨 사람들과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의 격차, 관료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도 현장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료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평생교육사가 공무원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 직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유지할 것

인가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관이든 진흥원이든 그 사람들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 사업과 활동이 전개되고 시민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계발 자체를 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더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연수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가면 매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일 겁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모두 레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앉아서 얼마나 힘들까요. 똑같은 것을 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연수를 거의 안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 전에도 했어요." 평생교육사만이 아니라 자기 기관의, 지역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전문화되고 공공화되어서 시민들과 만날 때 훨씬 더 힘 있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이 정교하게 그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지 일반 평생교육기관하고 충돌도 줄어들고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과의 역할분담도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학습시키는 곳, 우리들이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곳이라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원_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자기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한번 조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샘플로라도 한번 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떤 부분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제시되어야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단위, 혹은 학회에서 학자들의 연구와 현장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하고, 현장사람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또 한 발짝 전진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찬_ 지역 시군구 학습관에서는 인력의 문제나 업무량의 문제 부분에서 따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역 진흥원에 평생교육사 필수요원 5명은 모두 배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진흥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배치를 했음에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현상일 것입니다. 연수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성큼성큼 가면서 이벤트적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진흥원에 CPU센터 같은 것이 조그맣게라도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진흥원은 조사 등의 활동은 하고 있지만 연구 섹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과 조사나 연구를 우리 대학이 위탁받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구조사나 기관조사 같은 것은 그곳에서는 업무 맥락에서 조금 생뚱맞지만 우리는 늘 하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하고, 연수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이지만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지역의 대학이나 어떤 연구 그룹이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만 뭔가를 하기에는 내부 인력의 문제 등이 있고 양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대학원에 평생교육 전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학위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런 곳에서 실천적 의식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을 받아들이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원이 충분히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양병찬 교수

학생들의, 실천현장에 계신 분들의 욕구를 풀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한참 걸릴 것입니다. 아카데믹에서 배운 사람 또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을 해석하고 진화시키는 역할, 테크닉을 비롯한 관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학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을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장이 생기면서 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현장과 연구, 학계가 계속 조응하면서 변증법적 발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대학원을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교수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평생교육사의 자기계발론이 아니라 평생교육 연구자의 자기계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자의 자기 정체성

정성원_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의 연속이니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이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은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지역의 의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측면에 이미 도달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시각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자기 기관 운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병찬_ 그렇지요.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사의 직무자체를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자, 평가자로, 프로그래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의 시야가 좁습니다. 일본의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교육전문가로서의 관점이 강합니다. 시흥의 이규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역 코디네이터로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역량을 왜 키워주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교육, 주민조직화가 매우 중요한데, 주민조직화나 지역개발 같은 것을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들어가니까 거시적 접근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 전공이 대학별로 조금 분화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은 HRD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커뮤니티 경향이, 어떤 곳은 문화가, 이렇게 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것이 꼭 프로그램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어지고 다양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란

정성원_ 교수님이 예전에 쓰신 글을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 중심의 프로그램 배치들이 많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 시의원들에게 몇 개 프로그램을 했는지, 몇 명이 왔는지 등을 보고하는 등의 평가지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취약한 조직에서는 어찌되었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이 판박이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배치되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병찬_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학습자수가 제일 중요하고 프로그램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눈도 양적지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질적 지표나 사례적 가치, 실험적 가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꽤 오래 갈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평가 등이 평가지표로 들어올 것이고,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몇 개 강좌를 하는지, 몇 명이 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습자의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심층적이고, 또 지역의 욕구나 필요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둘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무원이라면 평가지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충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이 견딜 만큼 현금화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도 하고 학습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것에 실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관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평생교육 현장의 진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인근이 저소득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어른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십니다. 제가 처음 회의 때 이곳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으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니, 저희 제자도 있고, 평생교육사들이 저에게 전공 평생교육원장이 오니까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주에 교육지원청에 가서 방과 후 사업비 1,500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애들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 그 해(2012년)만 7,000만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도떼기시장 같았습니다. 주말만 되면 엄청난 아이들, 학생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성인의 경우는 강좌 개설만 하면 잘 진행되는데)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컸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양한 대상과 프로그램을 한다는 평가를 지역에서도 받고 공공에서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넘어서, 안 팔리는 상품만 찾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직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은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와도 '아, 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이건 적게 왔어, 폐강시켜야 해.'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틈새가 있고 의미 있는 부분, 학습자의 품이 많이 드는 욕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발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정성원_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양병찬_ 어려운 질문이네요(웃음).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프로그램 개발수업을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쉬운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수업 때 프로그램 개발, 기획을 하며 서로 토론하면서 가치 있는 프로그램, 주제와 대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즉, 어려운 대상과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환될 때, 그들에게 평가를 할 때, 가장 앞에 두는 평가는 '어떻게 그들이 주체화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는가' 입니다. 프로그램은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임파워먼트가 제일 큰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 열풍에 대해

정성원_ 3차 기본계획에도 인문학이 중요하고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문학이 일종의 마켓 개념이 되어서 굉장한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편적으로, 표피적으로 볼 때 '인문학=유명강사의 강좌'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유명인 중심의 강좌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이면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인문학이라고 해서 강좌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반짝하는 강좌 중심으로 가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단편적인 것 말고 3개월짜리 긴 호흡의 인문대학 강좌도 만들기도 합니다만 열풍이 불고 있는 인문학 붐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 (좌)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우)

양병찬_ 말씀하신 인문학 트렌드, 실무자의 압박,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고 거부반응도 있습니다. 인문학이 평생교육계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50년대-『차타르부인의 사랑』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에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 익스트라 뮤랄 클라스(extra mural class, 학교밖 수업)라고 대학 강좌 바깥의 교외강좌, 대학교수가 아닌 교외강좌 강사가 유명한 대중 문학 등을 선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고전문학에서 전환할 때 평생교육이 위치지어 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고전적인 인문학이 대학에 갇혀 있다가 대학 언저리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유명인 강좌는 대중강연이고, 지역의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로 이미 평생교육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대중강연이 평생교육의 적이라고 수업을 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틀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교감도 없고, 본인을 성찰하지 않고, 멋있는 코트를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려면 굉장히 밀도 있게 강사와의 거리가 좁혀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정도 거리까지 좁히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학습동아리 같은 것들도 거기에 굉장히 잘 결합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문학을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하니까 더 대학다운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료로, 저가로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다음주부터 고전인문학을 진행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했었는데 기복도 심하고, 그분들은 그냥 들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인문학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 읽고 남이 읽어주는… 그래서 이번에 바꾼 방식이 한 분이 전체 강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고전이든 서양인문학이든, 우선은 거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열 분이 시리즈로 서양의 역사, 철학, 동양철학 등을 옴니버스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4주를 같이 가고, 온 사람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책을 읽고 독해를 해보면 어떠십니까?'의 질문에 2/3가 반대를 했습니다. 본래 인문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취지를

잘 아시고, 평생교육사들이 들어가서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금 짧게 오픈으로 한 후 학습동아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궁리를 해도 될까 말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근본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공주라는 12만 명 규모의 작은 도시,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학습자 수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 인문학은 또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설하고 그분들이 와서 흩어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것인데, 지속가능한 구조로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학습동아리들이 된다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신규학습자의 확충문제

정성원_ 평생학습계에 기존의 학습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신규 학습자는 늘어나지 않고 기존 학습자가 숫자만을 늘리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규 학습자의 가장 기본, 중요한 풀 중의 하나가 저학력, 저소득일 텐데, 저희 학습관도 신규 학습자보다는 기존 학습자 중심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프로그램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인지, 기존 학습자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다른 기관도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평생학습계가 늙어가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 늙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병찬_ 늙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 일본의 공민관을 떠올리면 위기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청년 학습부터 시작해서 왕성했던 공민관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일본의 학자들, 실천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틈새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젊은 주부들의 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훨씬 적은 공민관들이 많고, 저는 그렇게 외부자로 보지만, 내부자로 일본의 고바이 신지라는 교수님이 "일본 공민관은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학습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소득층,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늙어버린 패턴, 학습 패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있어서, 순례자들도 있고 빈익빈부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리치Outreach 하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마을회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선 맛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맛을 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방식이 더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거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주대 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려면 시간 제약, 교통수단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제약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마을회관에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행복학습센터도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평생학습대상을 받은 남양주 같은 경우는 매우 심플합니다. 1,2,3. 그 중에서 학습 등대가 포인트입니다. 10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고 그곳에 교육적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낸다는 것인데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의 평생학습마을처럼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헬스클럽을 마을학교로 바꾸는 등의 방식들이 평생학습관이나 중심기관에서 그런 것이 계속 촉진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60~70년대에 '3층 구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공민관 3층 구조라는 것,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적으로 교양, 여가에서 좀 더 상위개념으로 대학 개념 같은 층위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 하나 개념은 거점 공민관, 권역 공민관, 마을 공민관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마을 공민관에서 욕구를 충족할 것과 거점 공민관에서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빨리 자리 잡지 않는 한 학습자의 고정화, 늙어가는 평생교육은 더 빨리 늙어갈 것입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직원의 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온 것만을 카운팅 하면 공무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이 왔지만 비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속성별로 보면 이분들은 계속 안 오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계속 안 오고 장애인은 조금씩 늘고 있다 등의 것을 의식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대간의 격차와 통합을 위한 학습

정성원_ 리터러시 스킬literacy skill이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한숭희 교수님은 "산길을 걷다가 낭떠러지를 만난 것과 같은 막막함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봤습니다. 세대 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인데, 문맥이 이해되지 않고 세대 간 소통이 안 되면, 한 사회의 흐름이 이해되지 않으면, 일상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신규 학습자의 확장일 수도 있고, 리터러시 스킬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확장해서 그분들에게 걸맞은 방식으로 어떻게 학습을 같이 진행할 것인지, 한편으로는 방치되고 있는 영역인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양병찬_ 세대 간의 격차와 함께 갈등, 통합의 문제 등이 정치적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고, 사회교육은 정치와 교육의 중간이라고 충북대 오광호 교수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활동과 실천을 통해서 만나고 토론하고, 토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만을 가지고 접근하니 그런 기회를 많이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으로만 하면 분명히 못 만날 겁니다. 의사소통하자고 하는 강좌들이 쏟아지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 그래서 어르신이 탁구 치러 오시고… 동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교육활동도 있고 문화활동도 있고, 마을만들기도 있고, 그것간의 연계가 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삽니다. 공사가 워낙 많아 도떼기시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처음 시작할 때 대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그냥 친척처럼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하여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음악공연도 하고 마을밴드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오케스트라 같이 하면서, 동네에서 뭔가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 그 중에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활동이 지역에서 자꾸만 늘어나게 하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치, 세대 간의 의견 이런 것으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같이 계속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누가, 누구의 것으로 확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대 시민교육

정성원_ 5개년 계획에도 시민참여교육, 시민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시민도 개념적 범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리터러시 스킬이 낮은 분도 있고, 다문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뭉뚱그려서 '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접근하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의 프로그램, 강좌 중심으로 가면 효력도 없을 것 같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되는 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구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 그런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사점이랄까 도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병찬_ 시민교육 수업에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저희가 시민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교육이 맥락이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다시 네이밍을 해서 차별적으로 이건 시민교육, 나머지는 시민교육이 아니라는 이런 선명성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고, 주로 시민단체 중심의 진보적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시민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막 쓰이는 거죠. 넓게도 쓰이고, 평생교육만큼 넓은 의미로 시민교육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재해석 될 것인가, 재창조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태교육이든 공동육아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주체성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한다면 그것은 시민교육의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좌로 듣는 것과는 다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회, 좋은 동네를 지향하면서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실천적 주제를 본인이 찾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의 시민교육과 멀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교양교육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를 들면 저희의 경우 동화 구연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 과정이고 어떤 면에서는 주부들의 직업과도 연결되어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분들이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자신들의 역량으로 그 친구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습동아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학습이라고 보이지만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민참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넓은 의미로 시민교육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 활동의 원동력

정성원_ 교수님이시기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주 업무이신데, 학생들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현장 곳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요한 의제에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현장과 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의 기반, 그 이유와 동력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교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양병찬_ 저는 학위논문을 쓸 때 까지는 연구실에만 있었습니다. 논문자체도 역사연구를 해서 현장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현장을 보는 선생님들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대학에 처음 발령을 받고 무턱대고 문화원도 찾아가고 여성회관도 찾아갔는데 홀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교육사나 전문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지역의 경험을 쌓으면서 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천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도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현장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배워 오고 현장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학습의 매개가 됩니다. 일본은 현장 없는 교수가 없습니다. 조금 유명한, 열심히 하는 교수들은 모두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과 연구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차 변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현장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연구로 현장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만나서 친근한 사람들에게 들은 것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와 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천적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연구적 실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 자 에 게 듣 다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정민승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수원시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양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습관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평생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개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풍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그 결론이 프로그램 공급의 양적확대로 귀결되어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평생학습기관의 고민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정민승 교수의 논지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그것입니다. 또한 방송대는 초기 모델처럼 학력보완이나 직무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삶을 위한, 존재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방송대를 조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민승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노동교육을 통한 교육학 입문

정성원 관장_ 학부는 신문방송학과이신데 교육학으로 전공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민승 교수_ 학부를 졸업할 즈음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4학년 때 성남지역에서 야학과 후속소모임을 조직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야학을 계속하면서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청소년 교육을 기획하였는데, 야학과 청소년 교육이 맞물리면서 교육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교육을 한다고 할 때 원칙이 무엇인지, 다른 교육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료를 쭉 찾다 보니 노동교육을 공부할 수 있겠다 싶은 전공이 서울대에 있더군요. 그래서 김신일 교수님을 찾아가서 노동교육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준비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석사논문은 영국의 노동교육의 형성에 대해서 썼었지요.

정성원_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정민승_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의식 전환입니다. 석사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가 우리가 영국에서 실패한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의 노동교육은 맑시즘에 기초한 교육을 시키던 러스킨 칼리지Ruskin College와, 다소 아카데믹한 성향의 노동교육협회WEA의 두 지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WEA가 성공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핵심이 학습자 중심성에 있다는 것이지요. WEA에서는 노동자인 학습자들이 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철저히 지킨 것이죠.

그래서 교육학에서의 진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여성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96년 즈음에 천리안의 여성학 동호회에 가입하고서 제가 놀랐던 것이,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너무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어린 친구가 저에게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했던 일이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삶의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진보적인 것을 단지 사회정치적 이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개인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논문을 통해 여성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보자, 그런 생각을 했지요. 사실 한 사람 안에서도 의식의 편차는 상당히 크잖아요. 어떤 부분은 보수적이고 어떤 부분은 진보적이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진보적이지만 남녀관계에서는 보수적이고, 나이 위계에서는 권위적이라거나… 이런 식의 각 생활 영역별, 각 삶의 원리상에 있어서 보수성과 진보성이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은 그 편차를 좁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여성들의 의식 전환 과정을 보면서, 내 안에서의 통합성을 높이는 일, 즐거움과 결합된 진보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한 영역이 지나쳐서 다른 영역을 치면, 삶이 힘겨워진다고나 할까요.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새로운 의식의 형성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정민승 교수

정성원_ 방송대의 일반적인 개요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승_ 저는 방송대가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인 스테이터스status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거기 공부할 만 한 곳이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방송대 다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겼어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방송대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도 학력주의적 위계를 가지고 있지요. 서울대를 정점으로 쭉 서열화되고 결국 방송대는 말하자면 인도의 불가촉천민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고등교육 이야기할 때, 방송대 등록금이 40만원이 채 안되는데도 등록금을 동결하고, 반값등록금 논의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방송대에 대한 국고 지원은 서울대의 1/10이죠. 지금은 법인화가 되었으니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서울대가 방송대 학생수의 1/10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1/100을 주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원격 고등교육이기 때문에 5년제가 합리적인 것인데도 결국은 사회에서 '4년제'를 강조해서 교육체제를 바꾸기도 했죠. 고등교육이 평생교육보다도 우위에 있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적 개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생교육적 관점이 확장되면서 방송대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제 졸업자가 25%를 넘어섰는데요, 이것은 방송대의 구조 자체가 변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학생들도 자긍심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제가 들어온 10년 전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성원_ 제가 자료를 보니 45세 이상 재학생이 2003년에는 8.5%, 2013년에는

22%로 늘어났고 학사 소지자도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애초 설립 초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직무능력이나 혹은 학위 보완 같은 개념이었다가 지금은 인생을 재설계한다든지 자신의 학습 선택의 폭 중의 하나로 선정을 해놓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대가 평생학습이 확장되면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요?

정민승_ 원래는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문교부가 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를 앞두고, 재수생 대책문제의 일환으로 일본의 사립대학 통신학부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설치 위원장이었던 서울대 사범대학 서명원 교수님과 방송대 초대 학장이신 김종서 교수님은 국가의 의도와 달리 국립 방송대의 설립 취지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방송대 입학 자격을 두고 문교부와 서울대 측의 의견도 엇갈렸고요. 문교부는 입학 자격과 관련하여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제한하려 했지만, 어쨌든 서울대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고졸 학력이면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개방형 입학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교육개혁이었죠. 그리고 1972년 3월 개교 후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방송대 입학생 중에 미취학 청소년이나 재수생의 비율은 극히 낮았으며 교사, 행정 공무원, 은행원 및 사무직 종사자, 주부 등 성인학습자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첫 해 경쟁률은 무려 5:1이나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적 기능을 처음부터 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자격이나 학위 이런 차원의 기능을 주로 했던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즉 자기 삶을 다시 보면서 제2의 인생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지요. 학위보다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결과 "방송대 와서 나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답한 졸업생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타인에게 방송대 취학을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85%나 됩니다. 나 스스로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주변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방향이 한국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지속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

정성원_ 배움이 주는, 학습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것이죠.

정민승_ 재입학률이 엄청 높습니다. 방송대에서 10개 이상의 학위를 따고 재입학한 사례도 있고요. 올해의 경우도 9만 8천 명의 입학지원자 중에 방송대 출신은 7.5%를 차지했는데, 50대 이상의 경우만 따져보면 입학생의 20%는 방송대 출신들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 대학 내부에서는 "방송대 마니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정성원_ 졸업하고 또 다른 걸 공부하고 계속 이런다는 거죠?

정민승_ 한번 졸업해보니 이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다 학비가 36만 원이니까 학원 한번 등록하는 비용으로 한 학기 다닐 수 있고, 그러다보니 중독이 된 달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성원_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비교해서 대학이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정민승_ 특정한 학과를 다닌다는 것. 즉, 전문적 지식을 갖춘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2년에서 4년이라는 '긴'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 관련 기관에서 하는 단기적인 평생교육을 하다가 오는 주부들이 많이 있는데,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만족의 기반은 제 생각엔 인식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특정한 지식의 형식을 익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인식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대는 적어도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죠. 게다가 학생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의 문제도 중요하죠. 수강생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습동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구성원들 삶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란?

정성원_ 지금 학교에서 원격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정민승_ 아시다시피 방송대는 원격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개 혼자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교 당국이 쉽게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교육매체로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도입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매체연구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매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격교육 전반을 봐야한다는 의미에서 원격교육연구소라고 이

름을 바꾼 것이죠.

또 하나는 학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국립대학이고 규모도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려할 요인이 많은 것이죠. 방송대는 인적 구조가 다른 학교와는 반대입니다. 다른 학교는 교수가 행정직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는 2013년 현재 교수가 147명, 직원이 698명입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비전을 가져 나가고 설계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계속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교수학습지원의 역할, 정책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원격교육의 한계와 블렌디드 러닝

정성원_ 원격교육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대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보니 블렌디드 러닝으로 2012년에 32개 과목, 2013년에 62개, 2017년까지 150개 교과목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송대 입장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교육 환경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정민승_ 그것은 사실, 방송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까 방송대가 평생교육의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사를 보면 역설적이지만 방송대는 끊임없이 4년제 대학으로 가고자 노력해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나 학사제도도 그렇고 기존 대학의 전통적인 모델이 그대로 방송대에 이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 이후 인터넷매체의 도입과 학생수 감소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급속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학생수가 워낙 많아서 위기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버대학이 등장하고, 각 대학에 이러닝e-learning이 도입되고, 평생학습중심대학 같은 고등교육을 평생교육화하는 사업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고등교육이 평생교육으로 간다는 것으로 전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학생층이 줄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대학들이 하고 있는 학위-비학위과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지요. 그 결과 프라임칼리지Prime College라는, 22개 학과와 연결될 수 있는 비학위 단과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라임칼리지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평생교육적 사업들을 조직의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원_ 방송대가 가진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민승_ 방송대는 등록금도 저렴하고 학위를 못 가진 분들이 많이 다니죠. 즉, 민중·서민의 대학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학습을 조금만 촉진해주면 놀라울 정도로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의 경우 스터디가 전국에 있고 스터디를 관장하고 촉진하는 학생회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대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알아서 학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완전한 학습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들은 촉진자가 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출석 수업을 할 때 학생회를 모으고, 그 학생회 임원을 모아 격려해주고, 출석 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 수업 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학생회에서 스터디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등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동기부여만 되면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말이죠. 자기 돈을 쓰면서 남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품앗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 행복한 성장을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국단위의 평생학습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대 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정성원_ 교육학과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라는 것이 있던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게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정민승_ 사실 대학에 대한 주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지식전달이나 축적만 하고 그것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제가 없다는 것이죠. 2003년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제안했는데, 우리 과의 경우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었던 시점이라서 그런 제안이 흔쾌히 수용되었던 것이죠.

경진대회는 매년 1월에 대회를 여는데 3개월에서 1년까지 생각보다 오랜 기간 학생들이 준비를 합니다. 매년 대회를 마칠 때 주제가 공지되면 각 지역대학에서 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방송대는 기획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도 있고 정말 학점만 따는 학생도 있어요. 편차가 큽니다. 뛰어난 학생의 경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알게 되고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따기도 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경진대회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원_ 경진대회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지역별로 출품을 하는 건가요?

정민승_ 지역대학은 광역에 13개가 있고 36개의 학습관이 있습니다. 출품된 작품은 지역대학 학생회에서 1차적으로 거릅니다. 전국적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대학 학생회를 기초로 해서 공지와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본부에 올라온 작품을 보고 교수님들이 그중에서 본선에 오를 7~8개를 선정합니다. 대회에서는 본선작들이 PT를 하는 것이고요. 대개 300여명 정도가 함께 모이는데 그것이 거대한 교육의 장입니다. 7~8편 모두에 대해 상세한 평을 해주고,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줍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는 통과의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원_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사례는 다른 곳에서는 없고 오직 방송대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민승_ 그렇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결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송대 평생교육 사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졸업생은 거기서 나름의 교육을 받고 정보공유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많은 수를 커버하려고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에는 좀 더 많은 실천가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방송대는 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대가 평생교육의 발이고, 그 발이 튼튼해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정성원_ 교수님께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정민승_ 제가 아니라 우리 과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웃음). 한마디로 학점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죠. 학점에 너무 목을 매면 평생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점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자신의 삶과 학습이 결합되고 학습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잘 안되게 마련입니다. 즐기면서 학습하는 것은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 과의 캐치프레이즈가 "배워서 남 주자" 입니다. 오티 때는 항상 "여러분은 국립대 학생이기 때문에 매우 싼 값에 학습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새롭게 익힌 지식을 남한테 나눠주는 그런 소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것 즉, 시각의 지평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배워서 출세하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자는 철학은 삶의 안목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조하는 것은 글쓰기의 중요성입니다. 방송대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너무나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수용만 되고 표현이나 발산이 되지 못하면 심리적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소통과 성장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글쓰기나 자기표현, 강의도 직접 해보는 등 그런 프랙티스practice들을 해볼 것을 많이 권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나름대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성장해가면서 우리 사회를 평생학습화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명시화하는 것일 뿐이죠.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착목해야

정성원_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에 보면, 교수님은 "평생교육이란 게 사람의 변화에 착목해서 가야하는데 프로그램 제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거나 성찰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정민승_ 어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지만 평생교육도 선형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이 개입하지요. 평생교육도 확장을 거듭한 것은 아니었지요. 특히 질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자본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평생교육의 양적인 팽창을 이루어왔다고 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평생학습의 동력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인적자본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평생교육 정책의 확장이 정당화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가적으로나 기업의 차원에서나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적 리소스resource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시민운동적 차원에서만 평생교육이 논의되었다면 이렇게 확산될 수 없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은 평생에 걸친 개인 성장의 관점을 취하죠. 그런데 그런 '나의 성장'은 외부적인 관점, 즉 경제적 관

점, 정치적 관점, 제도적 관점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을 인적자본으로 보면 내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에 착목하면서 나를 규정해 내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에서 말한 성과사회가 그런 것이죠. 내면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긍정의 신화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한마디 덧붙인다면, 사회에서 평생학습에 대해 주어지는 압력, 문화적 코드, 그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사람들이 현재 살면서 느끼는 소외나 자괴감, 좌절이나 고통을 '그 사람의 인생'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해진 양적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정성원_ 평생교육은 당연히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현재는 약간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승_ 지금의 학교교육은 내면은 공허한 채 성과에 집착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길러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입시가 그렇고, 학부모가 그렇고… 입시와 학부모를 그렇게 몰아가는 사회체제가 있는 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평생교육은 정말 혁신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고 방과 후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들이 부처중심주의적으로 하다 보니 학교는 학교 따로,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을 완전 다른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사실 평생교육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고리도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동시적으로 변화해야 학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평생교육사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상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정한 자아, 참 자아라는 것이 평생교육의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제도적인 관점, 입시 관점에서 피폐화되는 현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학습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했던 평생교육사들이 척박한 학습의 코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역할 차원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코드를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이런 변화들과 평생교육이 맞물려야 하는데 평생교육사가 자격이다 보니, 평생교육도 자꾸 제도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평」 편집장으로서의 생각

정성원_ 학회지는 현장과 너무 괴리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현장과 담론의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러면서 평생학습을 핵심 영역으로 하는 정기 간행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간행물 「교육비평」에 교수님이 편집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민승_ 「교육비평」은 원래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발간된 잡지인데, 너무 목소리가 강하다 보니 그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교육담론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자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재구성 되었지요. 편집장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맡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편집위원장을 하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과성을 극복해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자는 것과 학교를 조금씩이라도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우선 분과성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학은 분과학문으로 지나치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분과성을 극복해야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회지를 보면 방법론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법론에 집착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진 논문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정책이 바뀌고 왕따 문제에 변화는 있는 건지, 아이들이 왜 특정 드라마나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교사들간에 세대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을 요청하죠. 평생교육도 그런 취지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학교의 변화는 정말 평생교육에서도 중요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적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0대 20대에게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해주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물려줘야죠. 그러려면 정말로 좋은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와 같은 새로운 실험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그런 현상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적인 사례를 배우고, 새로운 실험을 또 다른 곳에 써보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순환고리가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교육비평」은 아주 작게라도 그런 기여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성원_ 방송대 설립에서부터 지금의 질적인 변화가 생긴 요인, 그리고 평생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의 의지와 철학, 평생학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방송대에 입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민승_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유선애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혁신에서 배우다

2

p.92 DIY	DIY 대학 운동	내가 스스로 디자인 하는 나만의 대학	31호
	P2PU	수강자들이 함께 만드는 대학	42호
	DIY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	38호
	메이커 페어Maker Faire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다 창작자이며 생산자이다	30호
p.112 예술과의 결합	프리존Free Zone	발랄한 일탈이 허락되는 길거리 공간	32호
	인사이드아웃프로젝트	표정으로 말하는 메시지와 소통의 힘	33호
	Learning To Love You More 프로젝트	일상에서 예술하기	35호
	디자인과 교육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34호
p.136 인터넷 플랫폼과 네트워크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공유	40호
	기술 변화와 미래교육	다양한 변화, 확인하고 실현하기	39호
	43싱즈43 Things	일상을 공부로 바꾸는 메커니즘	28호
	더 시티2.0The City 2.0	당신의 꿈의 도시를 제작하라	41호
	코드 아카데미	미래 세대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44호
p.166 새로운 교육방법론	게임과 학습	사회악과 가능성, 그 경계에서 학습의 방법을 찾다	36호
	SOLE자기조직학습환경	인간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43호
	트레이즈 스쿨Trade School	공짜가 아니다. 물물교환에서 오는 비금전적 가치의 힘	27호
	언신투어즈UnseenTours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29호
p.192 미래 사회 교육	Roots of Empathy공감의뿌리		46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37호
	네스타Nesta	사회적의미를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47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45호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대학
DIY 대학 운동

대학교육의 상품화, 엘리트화, 보수화 등에 반기를 들고 나만의 대학, 소위 'DIY 대학'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이 제공하는 고정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스스로 설계한 자기만의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자들, 이들이 바로 DIY 대학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 버리지 않도록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주도 학습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를 제공하는 〈에듀펑크스 가이드Edupunk's Guide〉, 다이나믹한 도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언칼리지UnCollege〉 등 대학교육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대학 밖 대학을 꿈꾸는 사람들

- 순수한 배움에 대한 열정과 희열로 가득 찬 지성의 장이 아닌 스펙 쌓기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대학의 위상
- 도전적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자기 창조적 배움이 아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액자화 된 지식의 축적만을 요구받는 학생들
-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 만들기를 중시하는 대학 당국 및 교수들
- 지식 사회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상아탑이라는 온실 속에서 점점 정체되고 보수화되어 가는 대학 분위기
- 학벌 및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특권적 엘리트 계층의 지속적 배출 및 계층 간 격차 심화에 일조하는 대학 시스템
- 개인의 다양한 욕구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 프로그램만이 제공되어 개인의 선택의 폭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고등교육의 현실
-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

에듀펑크스 가이드Edupunk's Guide

"에듀펑크 학습자는 기존 대학의 룰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기존 대학의 틀 안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관심사의 소유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부양 및 직장 생활 등으로 풀타임 학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의 학습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그냥 싫어서일 수도 있다."

에듀펑크스 가이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종합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는 교육 관련 글을 주로 쓰는 미국 작가인 애냐 카메네츠Anya Kamenetz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1년에 전자책 형태로 출판되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http://edupunksguide.org/로도 구축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깔끔하면서도 참조하기 쉽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 관련 단체, 네트워크, 아이디어 등 다양한 학습 관련 정보 섹션

- 자기주도 학습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목록 : 인성 및 적성검사, 경력 개발 및 관리, 대학 학위 및 전문 자격증 검색 등과 관련한 정보 목록
- 정규 대학 과정, 대학 학점 인정 과정, 맞춤형 대학 과정 등 학위 취득 관련 정보 목록
-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및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학습 관련 정보 목록 : 학습 자료(예: 텍스트, 동영상, 강의 등),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예: 학습 동아리, 경험 공유 플랫폼, SNS 등), 참여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단체, 혁신적 교육 벤처 등과 관련한 정보 목록
- 평판 관리 및 네트워킹 관련 정보 목록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 노하우 7가지를 알려주는 섹션

-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법
- 학습 계획을 작성하는 법
- 온라인상에서 학습하는 법
- 학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법
- 멘토를 구하는 법

- 학위, 자격증, 수료증 등 증명서를 획득하는 법
- 평판이나 명성을 관리하는 법

에듀펑크 학습자들의 생생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섹션

본 가이드를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간단 퀴즈 섹션

↗
에듀펑크스 가이드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7가지 기본 노하우'를 소개하는 웹페이지

언칼리지UnCollege

"언칼리지는 대학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바꾼다. 언칼리지는 급속한 환경 변화(기존의 대학은 절대 적응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010년 데일 스티븐스Dale J. Stephens에 의해 시작된 언칼리지는 대학 밖에서의 진정한 학습을 꿈꾸는 비영리단체다. 대부분의 교육을 집에서 받은 홈스쿨러인 스티븐스는 잠깐 동안 대학에 다닌 적이 있다. 이 때 대학에서 가르치는 소위 '학문적 지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된 배움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칼리지를 시작했다.

언칼리지는 대학 밖 또는 대학 내의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정보와 노하우를 소개한다. 그 방대한 학습 정보 목록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또한 '언칼리지 갭 이어The UnCollege Gap Year'라는 1년짜리 유료 프로그램도 제공하는데 그 구성 내용이 상당히 다이나믹하다. 10명의 참가자가 첫 3개월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지내며 기초 학습 수행 및 나만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3개월은 해외에서 살아보고, 세 번째 3개월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네 번째 3개월은 인턴십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 학습 활동으로는 인문학 공부,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학, 프로그래밍,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공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 신문에 기사 기고하기, 개인 웹사이트 만들기, 서비스 및 육체노동 해보기, 내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등 그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다. 1만 3천 달러(1천 5백만 원)라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수긍이 가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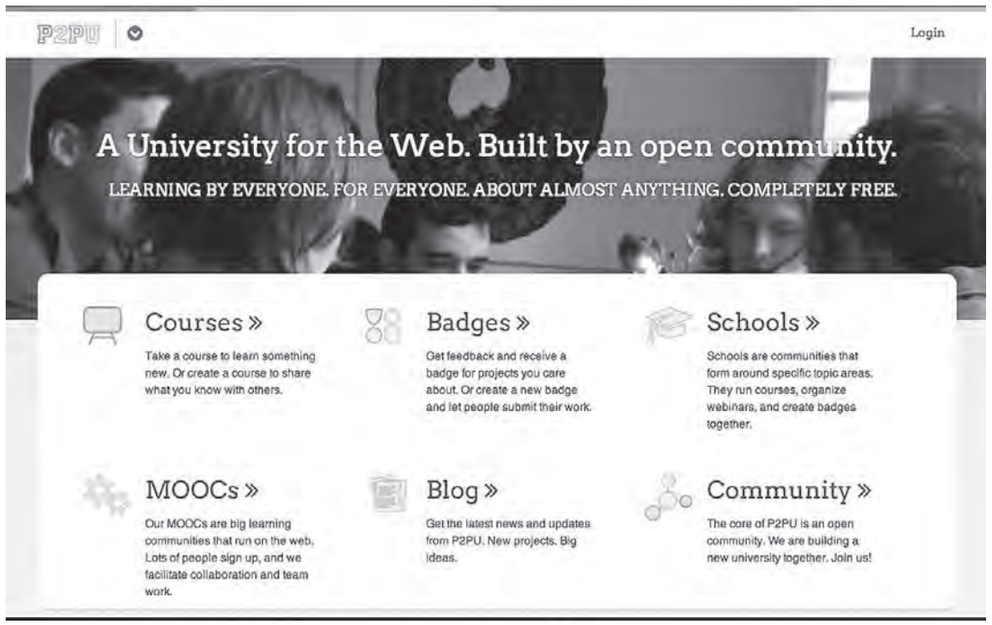
→
언칼리지의 로고와 갭 이어 프로그램 로고

멘토마브MentorMob와 제트티시ZTC, Zero Tuition College

그 밖에, 서로의 학습 리스트learning playlists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학습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사이트들도 있다.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자 할 때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유용한 학습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마브MentorMob〉http://www.mentormob.com, 나만의 대학 공부가 가능하도록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소개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제트티시ZTC, Zero Tuition College〉http://www.ztcollege.com 도 눈여겨볼 만하다.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수강자들이 함께 만드는 대학
P2PU



〈P2PU〉의 홈페이지를 갈무리한 화면

대학도 P2P로 가능하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온라인을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이었던 소리바다를 아는 사람은 P2P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개인과 개인 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소리바다의 경우 개인끼리 파일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P2P서비스로 이야기 되었다.)
대학도 P2P로 만들 수 있을까?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와 스승이 없이 또래 간 학습 체계를 통해 대학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곳이 바로 〈P2PUPeer to Peer University〉 https://p2pu.org 라고 할 수 있다. P2PU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구이나 스스로는 '커뮤니티'라고 소개하고 있다.

P2PU는 스스로 제도적인 장벽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조직하고,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의 성취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풀뿌리 열린교육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고등교육과 다른 평생학습 모델을 만들려고 하며, 온라인을 통해 접근이 열려있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양질이지만 비용이 적은 교육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P2PU의 3가지 가치와 또래 학습

P2PU는 이를 구현함에 있어 3가지의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개방성, 학습 공동체, 또래 학습 이다.

1) 개방성Openness P2PU는 개방성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콘텐츠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학습모델과 기술까지 열려 있어 누구나 이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모델 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학습 공동체Community P2PU는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배구조 역시 이를 반영한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조직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측면에 관여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모든 의견에 귀기울여 양질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3) 또래 학습Peer Learning P2PU는 또래들끼리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이며, 누구나 배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생이자 학생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의 학습뿐 아니라 타인의 학습에도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P2PU가 말하는 '또래 학습'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자.
P2PU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연결하여 각자가 아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고, 그 둘 모두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
P2PU 홈페이지서 갈무리한
또래 학습 설명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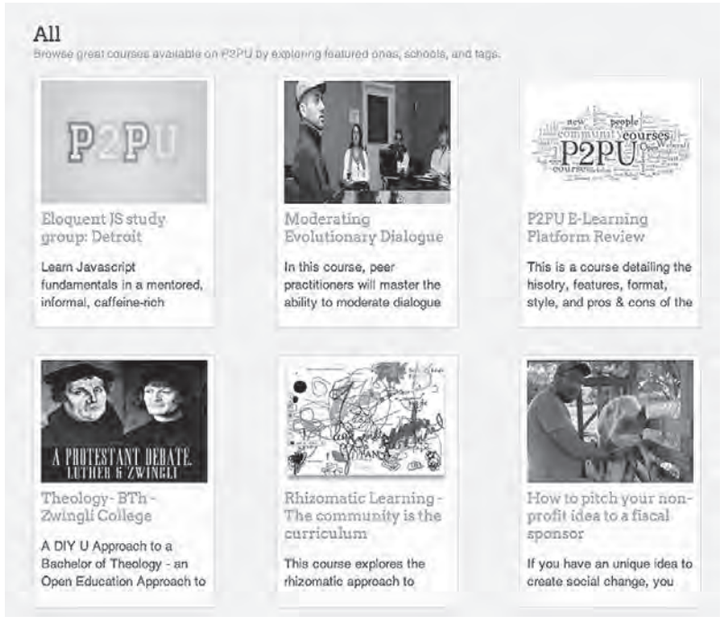
1) 모든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는 헤드라인 작가일 수 있고, 누군가는 협상가일 수 있고, 누군가는 전시 디자이너일 수 있다. 코스에 참여하는 누구나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전문성이란 학위와 직업으로 인증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빵을 굽는 것조차도 전문성의 한 영역이 아니냐며 반문한다.

2) 사람들이 연결되고 공유됨으로써 배운다: P2PU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나누도록 요청된다. 강좌나 학교의 모든 과정의 경우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자신들의 작업의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요청된다.

3)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뱃지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누군가 프로젝트를 개설할 때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개설한 사람에게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점, 의문점, 우려점으로 나뉜 피드백을 받아봄으로써 개인들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대화를 통해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P2PU의 강좌와 스쿨

그렇다면 이런 가치와 원칙을 실제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 P2PU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현재 개설된 강좌들은 200여 개를 훨씬 넘는다. 강좌들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제도권 대학에서 개설된 강좌도 간혹 보이곤 한다. 개설된 강좌는 개별 페이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강좌에 대한 기본 소개와 마련된 콘텐츠, 토론 내용, 참여하는 수강자와 강좌를 개설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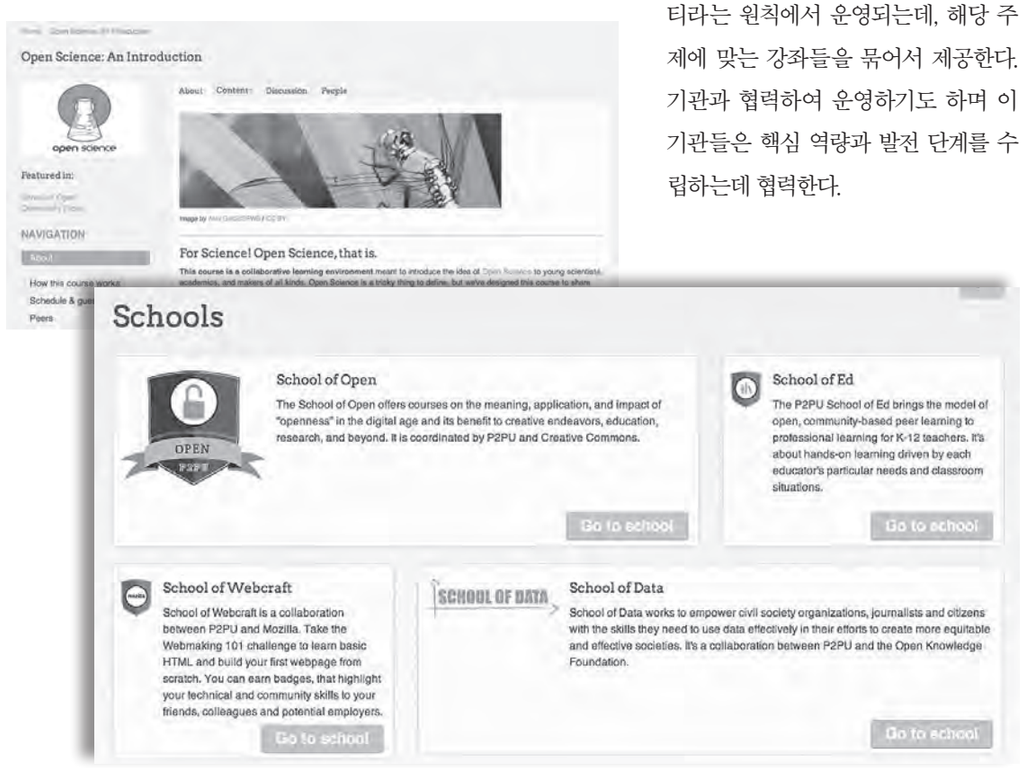


←
P2PU의 강좌 페이지에서
갈무리

↙
P2PU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한
Open Science 강좌의 페이지

↓
P2PU의 스쿨들

강좌들을 좀 더 큰 테마로 모아서 일정한 영역을 지어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스쿨'이라는 개념이 탄생한다. 스쿨 역시 개방성과 또래 학습 커뮤니티라는 원칙에서 운영되는데, 해당 주제에 맞는 강좌들을 묶어서 제공한다.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이 기관들은 핵심 역량과 발전 단계를 수립하는데 협력한다.



현재 6개의 스쿨이 마련되어 있는데, 각 스쿨은 아래와 같다.

- **데이터 스쿨**(School of Data, Open Knowledge Foundation**과 협력**)
- **교육 스쿨**(School of Ed, K12 Handhelds**과 협력**)
- **수학의 미래 스쿨**(School of the Mathematical Future, Planet Math**와 협력**)
- **오픈에 관한 스쿨**(School of Open, Creative Commons**와 협력**)
- **사회혁신 스쿨**(School of Social Innovation, Citizen Circles**과 협력**)
- **웹 기술 스쿨**(School of Webcraft, Mozilla**와 협력**)

아직 다양한 스쿨이 개설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랄까. 또한 기술적인 주제들의 스쿨과 강좌가 많은 것이 조금 아쉽다.

P2PU는 MIT와도 협력하여 파이선Python과 창조적 학습 및 데이터 기술을 다루는 온라인 공개수업(MOOC,Masive Open Online Course)도 운영하고 있다.

P2PU의 실험과 도전,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까?

공유를 통한 상호 학습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P2PU는 인터넷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콘텐츠들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있고, 보상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뱃지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명예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와 교수가 없는데도 지식을 공유하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제도권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상호 학습과 또래 학습이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살펴볼 만한 사례라 생각되며, 지역 안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새로운 주제의 새로운 스쿨을 만들고 발전해 갈 수 있는 학습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참고해 볼 만한 사례이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공유하는 상호 학습 체계를 만든다고 할 때, 독특한 전문성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와 관련하여 기여할 수 있는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이 점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역 시민과 주민들의 관심사를 잘 담아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뱃지 시스템과 상호 피드백에 있어서는 작은 지역공동체 단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덜 매력적일 수 있고, 줄 수 있는 피드백의 질과 양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 외에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보상과 조언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그룹이나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성하고 이들을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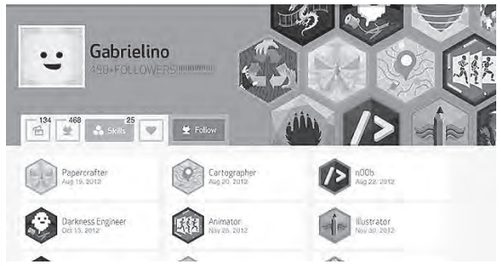
이런 실험을 통해 좋은 강좌가 만들어 진다면 만들어진 강좌들을 P2PU에 업로드하여 이를 학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삼는 것도 한 가지 활용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온라인 활용 능력과 강좌 운영자의 온라인 활용 능력이 뛰어나야 하겠지만.

글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
DIY

가브리엘리노Gabrilelino는 25개의 기술을 보유한 아이이다. 페이퍼크래프터(종이로 물건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애니메이터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도 꽤 만들 줄 안다. 장난감 기술자이면서도 다크니스 엔지니어라는 이색적인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미 13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베테랑 메이커인 그의 포트폴리오는 450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이게 사실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영상 http://player.vimeo.com/video/61163937 과 가브리엘리노의 포트폴리오 https://diy.org/gabrielino 를 살펴보시길)



↑↗
영상과 포트폴리오에서 갈무리

가브리엘리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공교육 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경험을 되짚어 보면 과학상자 조립하기, 고무동력기나 글라이더 조립하기 등 과학 시간에 경험한 만들기와 미술 시간에 경험한 만들기를 제외하고는 만들기가 교육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과서와 글자로 기록된 지식에 대한 학습이 점점 강조되어 왔고,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에는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우스워지는 일이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최근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 그리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를 증명해 주는 운동과 같은 흐름들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아이들은 창작자로 태어난다.

첫 번째는 바로, 메이커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Maker Education Initiative, http://makered.org 이다. 메이커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는 메이커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했던 메이커 미디어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설립한, 아이들을 위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메이커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는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만드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만드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에 더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합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젊은 창작자young maker를 육성하기 위해 가족, 지

메이커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메인 화면
↓

도자, 교육자, 멘토, 조직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메이커 콥스Maker Corp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일련의 창작 활동과 만드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캠프나 단기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 청사진 보고서http://dmp.nysci.org/#news/51는 만드는 사람Maker, 만드는 것을 위한 공간,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기 페어 등 다양한 움직임이 크고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젊은 이들이나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공 커뮤니티나 사적인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이런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만드는 행위Making'가 가지는 효과와 힘에 대해 주목하는데, 만드는 행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협업을 지향하며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보고 있다. 만드는 행위는 깊은 수준의 참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과 협력, 호기심 유발을 동반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으로 구성된 STEM 교육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기관과 교육자들, 부모들에 의해 청소년들을 위한 '메이커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으며,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가이드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이 보고서를 번역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창작을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날 때 창의력이 발현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바로 〈DIY.org〉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DIY.org는 가브리엘리노에게 다양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온라인 커뮤니티로 아이들이 자신의 창작품과 창작결과물을 공유하고 현대 사회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며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DIY.org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을 통해 배운다'고 믿고 있으며 DIY.org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직접 아이들이 시도해봄으로써 어떤 직업이든 해볼 수 있고 '되어 볼 수 있는(가브리엘리노가 페이퍼 크래프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다.

↑
DIY.org 홈페이지 메인화면

DIY.org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자크 클라인Zach Klein은 DIY.org를 창업하기 이전에는 영상 재생 및 공유 서비스인 비메오vimeo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는 '누구나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DIY.org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DIY.org를 처음 만들 때에는 소셜네트워크가 결합된,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스크랩북을 지향하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리는 활동을 하는데 이 결과물이 냉장고 문 앞에 잠시 걸려지는 정도 밖에 공유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상에 잘 기록하고 저장해두면 아이를 위한 멋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특별히 그는 온라인 공간이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개성을 키우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 활동을 장려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세상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힘을 보탤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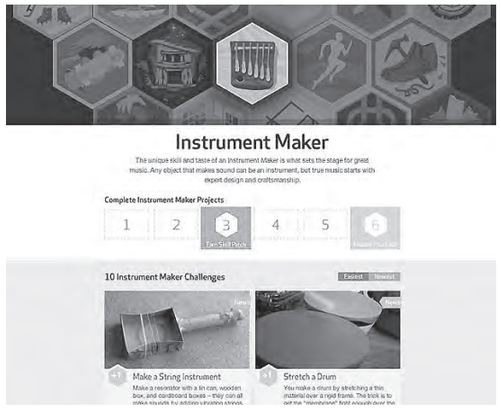
※참고: http://www.fastcodesign.com/1669805/vimeo-co-founder-starts-diyorg-an-online-social-scrapbook-for-k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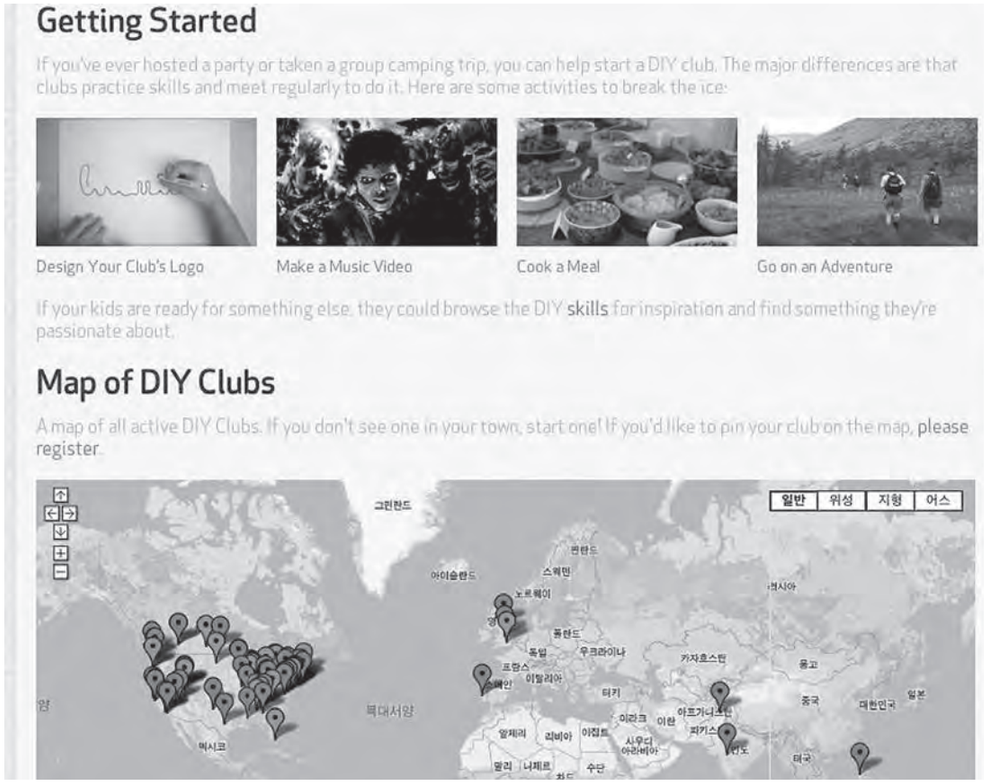
초기 DIY.org는 아이들이 했던 활동과 작품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포트폴리오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었다. 그리고 여기에 소셜네트워크 속성이 결합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쌓이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DIY.org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이사야 삭슨Isaiah Saxon은 "오늘날의 소셜네트워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네트워킹하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었고, 아이들이 보유한 각각의 기술을 영웅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이야기 한다.

※참고: http://bits.blogs.nytimes.com/2012/05/20/disruptions-a-beacon-to-silicon-valley-from-a-start-up-for-children/

DIY.org는 현재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클럽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 총 91개의 스킬Skill이 등록되어 있는데, 스킬은 세상을 만들어 온 다양한 방법들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직업 개념을 포함하기도 한다. 애니메이터, 건축가, 우주비행사, 운동선수, 개발자, 뒷뜰 농부, 빵 굽는 사람, 양봉, 자전거 기술자, 생물학자, 블럭 만드는 사람, 식물학자, 캠핑하는 사람, 요리사, 화학자, 옷 만드는 사람, 춤추는 사람,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탐정, 영화감독, 기업가 등 정말 다채로운 스킬들이 즐비하다. 각각의 스킬은 몇 개의 하부 챌린지Challenge로 구성되는데, 챌린지는 해당 스킬을 배우기 위해 시도해야하는 일련의 작업들로, 성공하면 '딱지'를 얻어 자신의 보유 능력과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양한 스킬들이 올려져 있는 모습(좌)
악기제작자 스킬의 챌린지들(우)
↓





DIY클럽 지도.
대한민국은 아직 등록된 클럽이 없다.
당신이 1등으로 등록해보면 어떨까!
↑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해

메이커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와 DIY.org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 교육의 혁신에 있어 필요한 것은 바로 '만드는 힘의 회복'이 아닌가 한다. 단순히 '이색적인 경험으로써의 만들기'가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STEM 교육에 있어서 만들기가 효과적이다'라는 차원을 벗어나, '만들기'라고 하는 행위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만들어 가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두 가지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만드는 힘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학습하며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시켜 갈 또래나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글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다. 창작자이며 생산자이다

메이커 페어Maker Faire

↑
메이커 페어의 로고와 마스코트
(출처:www.makerfaire.com)

메이커 페어Maker Faire는 무언가를 궁리하여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제다.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등 전문가에서부터 동호회 회원, 학생, 직장인, 주부, 어린이 등 아마추어까지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들기에 대한 열정과 상상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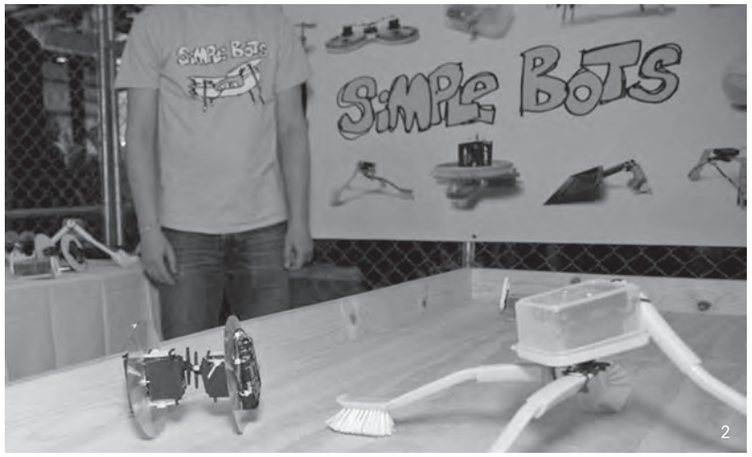
DIY(Do-It-Yourself,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정신에 입각해 그저 만들기를 즐기는 이들에게 메이커 페어는 소중한 공간이다.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 및 노하우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메이커 페어 말고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메이커 페어를 통해 창작자나 관람자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얻고 창작에 대한 열정도 키운다.

메이커 페어는 만들기 관련 잡지인 「MAKE」를 발행하는 〈Make Media〉라는 회사에 의해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그 후 메이커 페어는 미국 내 여러 지역과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2012년에는 행사 참여자수도 크게 증가하여 메이커 페어의 대표격 행사라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메이커 페어에 무려 16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2013년에는 미니 메이커 페어 Mini Maker Faire라고 불리는 지역사회 기반 소규모 메이커 페어가 전세계 60여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메이커 페어는 기본적으로 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만들기에 관심을 두고 시작되긴 했지만 과학, 공학, 퍼포먼스, 공예 분야에서의 혁신적 실험 및 창작 활동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통 주말 이틀 동안에 걸쳐 진행되는데 가족 단위 참가자가 특히 많다. 관람료는 샌프란시스코 행사의 경우 성인 30달러(약 34,000원), 학생 20달러(약 22,000원), 어린이 15달러(약 17,000원)이다.

상상력과 재미, 놀라움으로 가득한 메이커 페어의 창작물을 만나보자.

1



2

1
재활용 자재로 만들어진 불을 내뿜는 공룡
(출처: www.treehugger.com)

2
집 안 서랍 여기저기 굴러다닐법한 재료를 모아 만든 로봇
(출처: www.treehugger.com)

3
생산에 있어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3차원 프린터(3D Printer)(출처: PERLINK "http://www.treehugger.com" www.treehugger.com)

4
비상 시 태양열을 이용한 음식 조리가 가능한 레인지(출처: eehugger.com" www.treehugger.com)

5
재활용 종이로 만든 스마트폰 스피커
(출처: www.treehugger.com)

3

4

5

구글에서 'Maker Faire'로 검색하면 수많은 관련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이긴 하지만 현장의 생생함을 듬뿍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길.

메이커 페어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되살린다. 모든 것이 구입 가능한 편리한 소비의 시대지만 인간은 다시 생산을 원한다.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만들기의 즐거움, 생산과 창조의 기쁨을 느끼길 원한다. 제품 사용이나 예술품 감상이 주는 2차적 간접적 감흥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온전한 감동 말이다.

사실, 과학 및 기술의 발달, 지식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예전 우리 선조들보다 출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다.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손쉽게 구입 가능하고, 사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업들이 어찌나 눈이 밝은지, 우리는 뭔가를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진다. 기계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편리해져 인간이 버튼만 살짝 눌러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 고장난 기계는 친절한 서비스 기사분들이 알아서 다 고쳐주신다. 또 굳이 고장난 물건을 고쳐가면서까지 써야 할 필요성도 잘 못 느낀다. 그냥 새로 사면 되니까.

원래 도구란 인간의 능력을 보조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요즘 시대엔 내가 도구의 주인인지 도구의 노예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내가 주체적으로 도구의 기능을 정하기 보다는 도구가 주는 편리함과 기능에 나를 맞추고 의존적으로 끌

↑
다양한 체험 워크숍이 마련되어 신나는 창작 경험을 실제로 해 볼 수 있다
(출처: www.makered.org)

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든다. '편함'을 추구하고자 내 능력을 점점 무력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용해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메이커 페어와 같은 움직임은 풍요와 소비의 시대에 우리들이 간과했던 창조성과 주체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촉매재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다.

메이커 페어는 산업화 및 분업화로 인해 거대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무언가를 생산하긴 하지만 전체 과정을 통제할 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이 도구로서 소모되는 느낌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온전한 창조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나 요즘 3D 프린팅, 오픈소스 디자인 등 제조 관련 기술의 발달 및 공유 방식의 변화로 대규모 공장이 아닌 집에서도 소규모로 누구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DIY 제조 시대가 도래할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 생산의 패러다임에 큰 변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언론, 출판 등에 있어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것처럼 제조에 있어서도 개인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커져 생산에 있어서도 민주화가 도래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하신 분들은 6월 서울 대학로로 가보자. 2012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2013년 6월에 2번째 메이커 페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http://www.make.co.kr/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발랄한 일탈이 허락되는 길거리 공간
프리 존Free Zone

길을 가다보면 다양한 표지판들을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거리의 표지판들은 주로 규제 및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

일상에서 주로 마주치게 되는 거리의 표지판들

그런데 만약 길을 걷다 다음과 같은 색다른 표지판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

(출처: Rosan Bosch 웹사이트 www.rosanbosch.com)

이 색다른 표지판들은 덴마크의 예술가인 로잔 보쉬Rosan Bosch가 진행한 거리 프로젝트 "프리 존(Free Zone, 자유 구역)"의 전시물이다. 생긴 형태로 보면 일반적인 거리 표지판과 유사하지만 프리 존 표지판이 지시하는 행동은 포옹하기, 명상하기, 디스코 춤추기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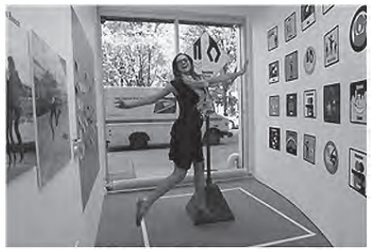
보쉬는 표지판 주위 바닥에 흰색 테이프를 둘러 프리 존, 즉 자유 구역을 만들었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표지판에 지시된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지만 프리 존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허용된다.

→
프리 존 표지판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 맨 위 왼쪽부터 포옹하기, 명상하기, 디스코 춤추기, 소리지르기, 손 흔들기 (출처: Rosan Bosch 웹사이트 www.rosanbosch.com)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을 행동을 거리에서 직접 해본 시민들은 의문이 생긴다. 과연 공공장소에서 해서 될 행동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무엇일까? 왜 어떤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 걸까?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 대다수가 따르는 행동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비판 받아 마땅한가? 보쉬는 시민들이 프리 존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여장남자로 변신하기
(출처: Rosan Bosch 웹사이트 www.rosanbosch.com)

프리 존 프로젝트는 2009년 6월 예테보리를 시작으로 부다페스트, 코펜하겐, 이스탄불 및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기본 컨셉은 유사하지만 각 도시 별 사회·문화적 특성 및 이슈에 따라 전시되는 표지판의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뉴욕에서 진행된 프리 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건강 및 비만 문제에 중점을 두어 뉴욕 거리를 신체 활동량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뉴욕에서 진행된 프리 존 프로젝트.
맨 위에서부터 점프하기,
거수도약운동(PT체조)하기,
쇼핑백들어올리기
(출처: Rosan Bosch 웹사이트
www.rosanbosch.com)

시민 참여형 예술 전시라 할 수 있는 프리 존 프로젝트는 장난스러운 농담처럼 가볍게 진행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가벼운 체험을 통해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굳게 믿고 따르던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에 대해 의심해 보고, 소수자의 삶이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본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새로운 공간 활용 방식은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을 좀 더 다채롭고 활력 넘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표정으로 말하는 메시지와 소통의 힘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 프로젝트

우리는 표정으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출처: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www.insideoutproject.net/en/best-of 이하 사진 출처 모두 동일)

이 얼굴 사진들은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뒤집기/드러내기)」이라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인사이드 아웃은 프랑스인 예술가 JR(제이 알, 이하 JR)이 시작한 시민 참여형 글로벌 예술 프로젝트로 JR이 2011년에 테드상TED Prize을 수상하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테드TED는 '널리 퍼뜨릴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강연회로 매년 한 명을 선정하여 소원을 들어준다. 그 사람에게 10만 달러(약 1억1천만 원)를 수여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상을 수상한 JR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나 이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잊고 있거나 일부러 모른 채 하거나 숨기고 싶은 진실을 드러내어 우리 모두 함께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turn the world INSIDE OUT'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JR이 생각해 낸 방법은 바로 '이미지'였다. 이미지에는 때때로 말보다 훨씬 강렬한 메시지 전달력과 소통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얼굴 표정만으로 표현해 이를 사진을 찍어 프로젝트 사이트에 디지털 파일로 올리면 이를 가로 90cm x 세로 135cm 크기의 흑백 사진으로 출력해 우편으로 되돌려 보내준다. 그러면 이 대규모 사진을 지역 내 적당한 공공장소에 풀로 붙여 게시하면 되는 것이다. 개별 참여나 집단 참여 모두 가능하다. 2013년 5월 현재까지 약 15만 장의 사진이 출력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9천 곳의 장소에 게시되었다.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세계 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 근처에서 진행. 총 1,161장의 사진 게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한 번 들어보자.

↑
인종, 민족적 다름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내 모든 젊은이들이 조화롭게 하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물의 유리창에 사진 부착. 총 96장의 사진 게시

→
북극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적 산업 개발에 반대하여 '북극을 구하자'라는 주제로 북극에 거대한 감시의 눈을 형상화함.
총 4,000장의 사진 게시

↖
'우리는 모두 뉴요커(New Yoker)다'라는 주제로 맨해튼 한복판에서 진행. 즉석 사진 촬영 및 출력이 가능한 사진트럭을 활용.
총 5,907장의 사진 게시

↖↑
말라위(Malawi,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공화국) 어업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어부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과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함

↑↗
베네수엘라에서 진행한 것으로 자식이 살해당한 어머니들의 슬픈 얼굴을 통해 죽은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 총 312장의 사진 게시

러시아 내 탄압받는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즉 성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진행. 총 51장의 사진 게시
↓

↑
아프가니스탄이 단지 슬픔과 절망으로 점철된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웃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국 시민들에게는 평화에 대한 갈망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 총 200장의 사진 게시

내 표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저 대중 속에 휩쓸려 그들과 같은 표정을 짓는 것에 안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인사이드 아웃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표정들을 만나며 '내 안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배움이란 내 안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내 목소리를 찾고 내 표정에 책임 있는 주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참고자료 :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다.

-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insideoutproject.net/en
-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참여 가이드라인 http://www.insideoutproject.net/sites/all/themes/insideout/documents/Group_Action_Guidelines.pdf
- JR의 2011년 테드 상 수상 강연 http://www.ted.com/talks/jr_s_ted_prize_wish_use_art_to_turn_the_world_inside_out.html
- 테드 상 수상 후 1년 뒤 다시 테드 강연회에 선 JR http://www.ted.com/talks/jr_one_year_of_turning_the_world_inside_out.html
-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됨. 관련 내용 소개 및 예고편 http://www.insideoutproject.net/en/the-movie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일상에서 예술하기
Learning To Love You More 프로젝트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명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가 한 말로 인간은 창조적이며 누구나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주입식 교육과 입시 경쟁을 통해 획일적 모습의 성공을 꿈꾸며 산업 발전의 일꾼으로 성장한 우리들에게 나만의 독창적 시각으로 사물을 새롭게 보고 내 목소리나 몸짓으로 무언가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어떨까?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 없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면 예술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미란다 줄라이Miranda July와 해럴 플레처Harrell Fletcher는 예술가로서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면서 가장 신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바로 그 순간 진정 새로운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뜻밖의 깨달음을 얻은 후 두 사람은 「Learning To Love You More나를 더 사랑하게 되기」라는 웹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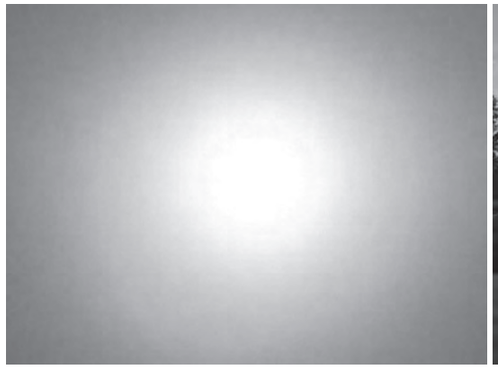
프로젝트 내용은 간단하다. 줄라이와 플레처가 웹사이트에 과제를 제시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그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결과물은 과제에 따라 사진, 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단, 참여자들은 가능한 정확하게 제시된 과제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진부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줄라이와 플레처는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참여자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각 과제가 의도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70개의 과제에 8천 명 이상이 참여하며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줄라이와 플레처가 제시한 과제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들이다. 비교적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과제도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과제 9 : 누군가의 주근깨나 점을 연결해 별자리 그리기
(상세 가이드라인 : 누군가의 몸에 있는 주근깨나 점 등을 볼펜을 이용해 연결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별자리는 추상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뭔가를 닮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의 몸에 그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팔뚝에 그려진 별자리
(출처: http://www.learningtoloveyoumore.com/
이하 사진 출처 동일)

과제 27 : 태양을 사진에 담기 (이하 상세 가이드라인 생략)



과제 30 : 낯선 사람들에게 손을 잡게 한 뒤 그 모습을 사진에 담기

과제 32 : 나를 울렸던 영화의 한 장면 그려보기

「자이언트(Giant)」의 한 장면(좌) 「아이 엠 샘(I am Sam)」의 한 장면(우)

과제 33 : 다른 사람 머리 땋아주기

과제 53 : 과거의 자신에게 충고하기

15살의 라이엄에게 보내는 조언	"남자아이들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그들에게 게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개의치 말기를. 만일 그 아이들이 너를 거부한다 해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한바탕 웃고 넘어가렴."
15~6살 무렵의 웬디에게 보내는 조언	"제발 좀 먹어라. 너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너무 예쁘고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렴. 특히 네 팔뚝은 너무 말라빠졌으니 제발 살쪘다고 우는 소리 좀 그만해라. 멍청하게 다이어트 하지 말고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과제 63 : 응원의 게시물 만들기

당신은 꼭 찾아낼 거예요(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아래)

이 외에도 일상적이지만 미처 잘 생각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과제들이나 재미있는 과제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 등 그 내용이 다채롭고 흥미롭다.

몇 가지 예

나의 과거 및 현재 생활을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과제

- 과제 10 : 자신의 하루를 전단지로 만들어보기
- 과제 14 :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써보기

죽음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과제

- 과제 31 : 죽음을 앞둔 사람과 시간 보내기
- 과제 51 : 죽은 뒤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설명해보기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과제

- 과제 2 : 이웃 사람들의 노래나 연주를 녹취해보기
- 과제 20 : 두 가족의 합동 가족사진 찍어보기
- 과제 35 : 내가 뭘 하고 다니는 것 같은지 가족에게 물어보기
- 과제 39 : 부모님이 키스하는 모습 사진 찍기

타인이 처한 상황 및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

- 과제 3 : 어린아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만들어보기
- 과제 13 : 범죄가 일어난 후의 순간 재연해보기
- 과제 59 : 전쟁을 겪은 사람과 인터뷰해보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과제

- 과제 34 : 항의 팻말을 만들고 시위하기
- 과제 61 :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과제 62 : 교육적인 내용의 공공 게시물 만들어보기

큐레이팅 과제

- 과제 8 :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공공장소에 전시해보기
- 과제 28 : 사진 앨범 편집해보기
- 과제 43 : 부모님 댁에 있는 작품들로 전시회 해보기

공예, 미술, 행위 예술 관련 과제

- 과제 16 : 종이로 침대 모형 만들어보기
- 과제 46 : 레이몬드 카버의 〈성당〉 그려보기
- 과제 47 : 누군가를 울렸던 영화의 한 장면 재연해보기 등 공예, 미술, 행위예술 관련 과제 등 그 내용이 다채롭고 흥미롭다.

이러한 지시적 과제를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게 된다. 또한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타인과의 소통도 좀 더 원활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표현'과 '소통'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좀 더 예술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Learning To Love You More나를 더 사랑하게 되기〉
  웹사이트 http://www.learningtoloveyoumore.com/
- 동명의 책도 출판됨. 한글로도 번역되었으며 한글판 제목은 『나를 더 사랑하는 법』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디자인과 교육

교육의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

'현재의 교육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그것이 학교 안의 교육이든, 학교 밖의 교육이든—이 가지는 문제와 한계가 자명하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교육, 좀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쉴 수 없습니다. 교육은 왜 새로워져야 할까요? 왜 늘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기대 받게 될까요? 그것은 교육이 우리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함께 어우러지는 삶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나아지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켄 로빈슨Ken Robinson은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강연으로 교육에서 '창의력'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진행된 TED강연에서 그는 학교, 즉 현재의 교육제도가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딜 가든 동일한 교육체계로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고 주로 머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는 공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과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버린 공교육에 대해서 강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의 과제들에 대해 아이들이 그것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창의력, 상상력을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 참고: http://www.ted.com/talks/ken_robinson_says_schools_kill_creativity.html

미래 사회를, 다음 세대를 더불어 살아가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가꾸어 가는 일은 학교 안의 교육 뿐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 모두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단어에 걸쳐 있는 나는 어떤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에게 펜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은 행동과 실천 사례가 있다면 댓글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공유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디자인!

'혁신'이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우선 기존의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 날 때, 낯선 것들과 조우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 잘 연결지어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둘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첫 번째 살펴볼 거리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 영역을 선택했다.

디자인과 교육의 혁신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3가지 범주가 있다고 본다. 에밀리 필로톤Emily Pilloton은 "변화를 위한 디자인 교육"이라는 제목의 TED강연에서 그것을 1) 교육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Education, 2)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기Redesigning Education, 3) 교육으로서의 디자인Design as Education 이라는 3가지로 정리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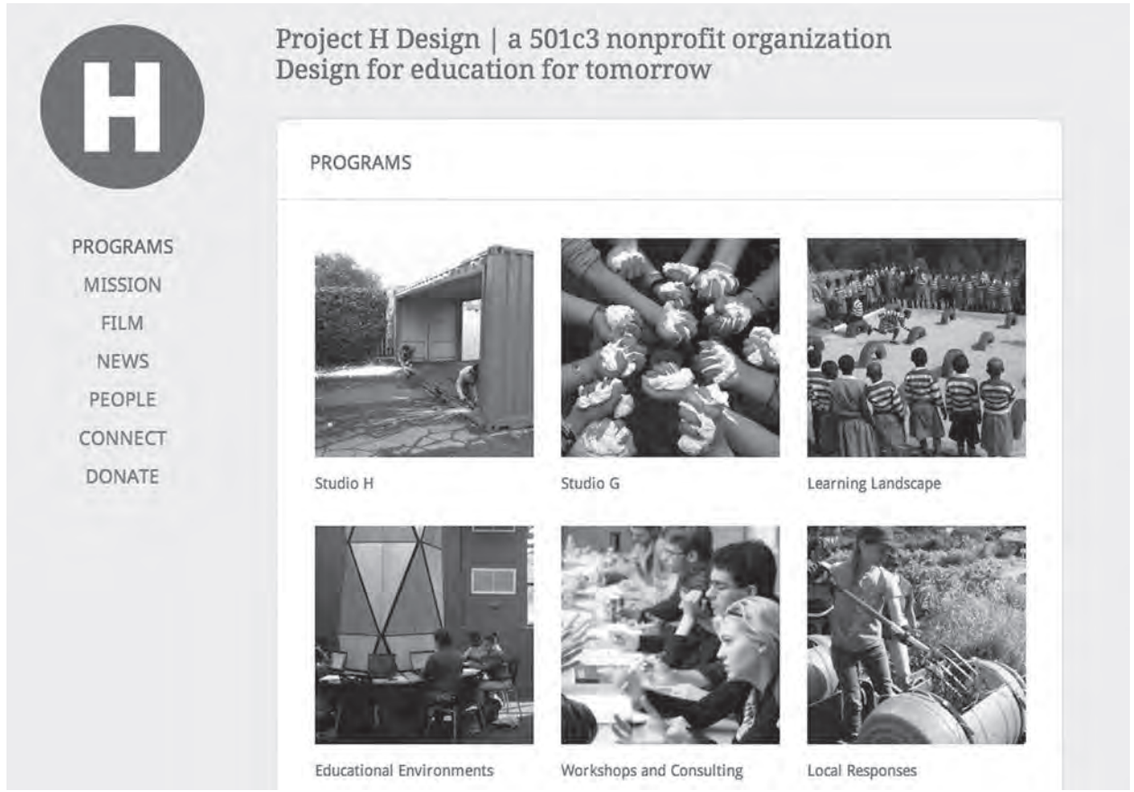
※ 참고: http://www.ted.com/talks/emily_pilloton_teaching_design_for_change.html

※ 참고: 에밀리 필로톤의 강연 내용을 한글로 자세히 정리, 설명해 준 글 http://www.koreahealthlog.com/4530

프로젝트 H 라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던 에밀리 필로톤은 시골지역으로 공교육 시스템이 척박한 노스캐롤라이나 버티 카운티의 한 학교와 함께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3가지 범주의 활동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 우선 '교육을 위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는 학교의 공간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활동을 경험했다. 컴퓨터 실습실 공간을 다시 디자인 하는 것, 그리고 러닝 랜드스케이프Learning Landscape라고 하는 놀이터를 디자인함으로써, 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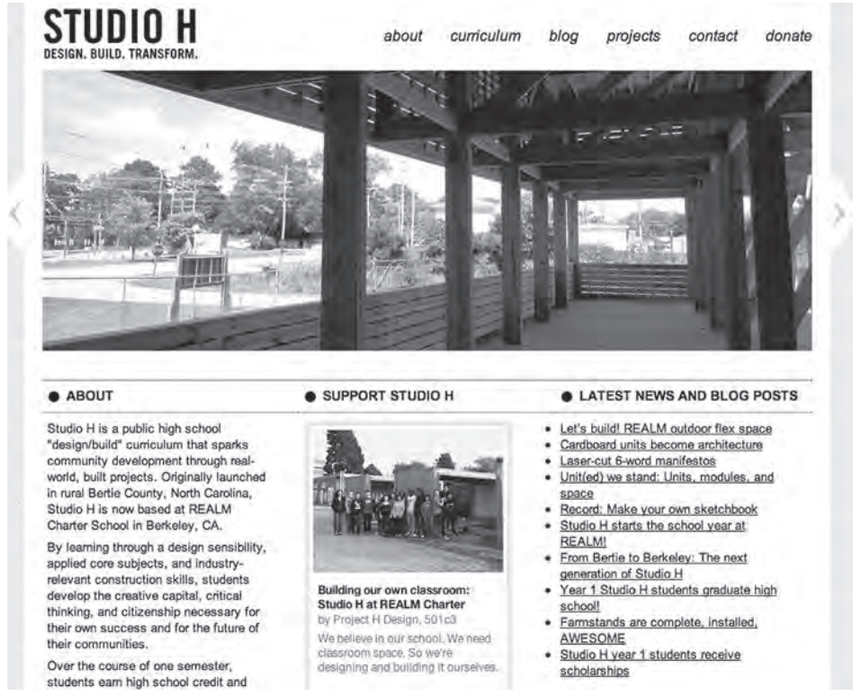
통한 학습의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경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함께 해결 과정을 풀어가는 것이다.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범주의 활동으로는 교육 시스템 전체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한 커넥트 버티Connect Bertie를 예로 든다. 파란 모양의 점으로 된 스티커를 통해 주의를 끌고, 공교육 체계에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던 캠페인을 통해 교육 시스템에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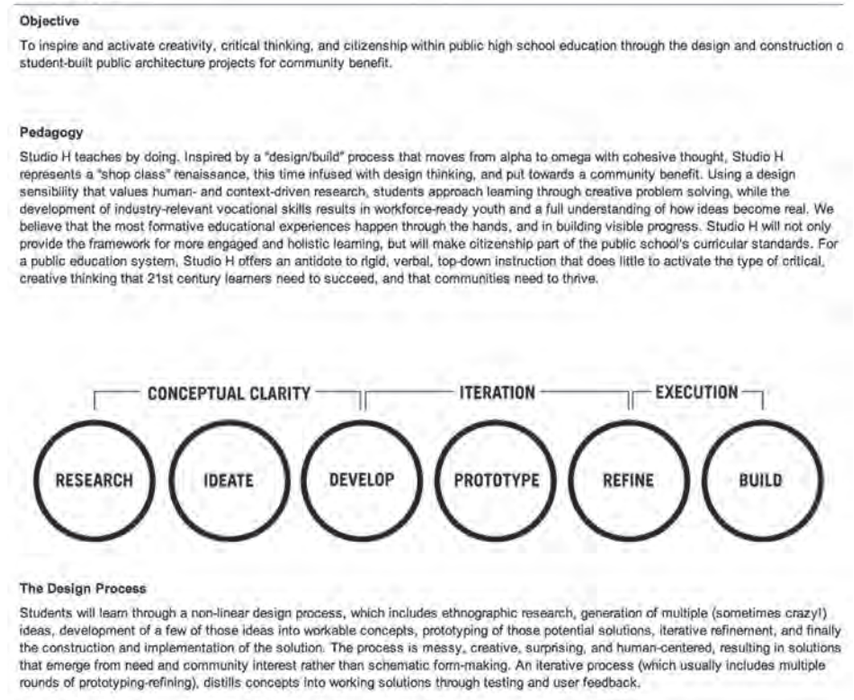


↑
프로젝트 H의 웹사이트: http://www.projecthdesign.org. 디자인을 통해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들어온다.

에밀리는 세 번째 범주인 '교육으로서의 디자인'이 가장 즐거운 경험이라면서 「스튜디오 H」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을 소개한다. 그녀는 교육으로서의 디자인은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가 반영되어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
스튜디오 H의 블로그
http://www.studio-h.org



→
스튜디오 H의
커리큘럼 갈무리

스튜디오 H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탐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발전시키고, 실험적인 모델을 만들어 도입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 디자인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디자인 사고를 습득 및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문제 해결 방법을 알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게 되니 놀라운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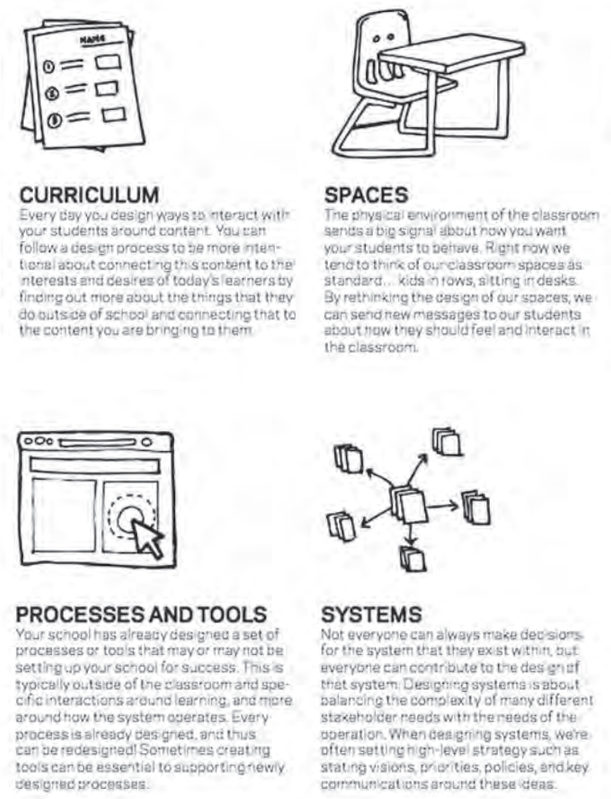
디자인 사고, 그것을 나의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에밀리와 같은 실험과 시도를 어떻게 각자의 교육 현장에 접목해 볼 수 있을까? 디자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for Educators〉를 참고해 볼 만하다.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웹사이트: http://designthinkingforeducators.com. 디자인 사고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와 실제적인 방법을 담은 툴킷을 배포하고 있어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의 웹사이트에는 '디자인 사고'를 "지역사회, 교실 안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디자인 사고란 누구나 좀 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종의 마인드셋Mind-set이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행동을 취하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한다. 이들은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들이 매일 매일 새로운 디자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문제들은 교사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과 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 중의 하나가 '디자인 사고'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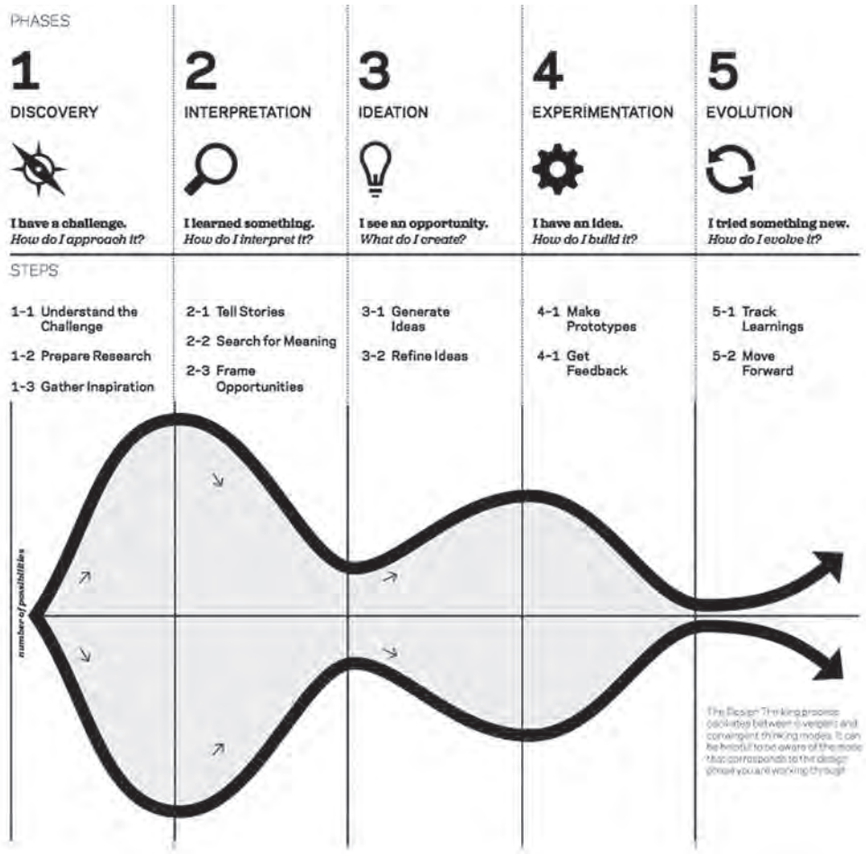
그 디자인 사고를 행동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디자인 과정Design Process'이다. 디자인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잘 조직된 접근 방법으로, 교육 커리큘럼이든 공간, 교육 도구든 더 나아가 교육 시스템이든 교육 현장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선생님 개인 차원, 학교 교직원 차원, 자치구 차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용하여 학생들과 교육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본 사례들도 존재한다고 소개한다.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웹사이트에서 갈무리. 교육 현장의 어떤 문제든 '디자인 사고'를 통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IDEO는 교육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배우고 디자인 툴킷을 통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자 5가지 단계로 구성된 툴킷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활용하는 디자인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해 교육 현장에 맞게 정리한 이 툴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1. 발견하기|Discovery : 문제와 도전 영역에 대해 이해하고 조사하기
2. 해석하기|Interpretation : 1단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하고 해결의 기회를 모색하기
3. 아이디어 내기|Ideation : 2단계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정의하기
4. 실험하기|Experimentation : 고안한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고 피드백 얻기
5. 개선하기|Evolution : 배운 것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툴킷에서 갈무리

툴킷을 따라 실제적인 '디자인 사고'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데, 준비단계에서 함께 할 팀을 구성하고 알맞은 공간을 선택하고 필요한 준비물과 재료들을 잘 갖추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또 팀과 함께 문제 영역을 이야기 하고, 디자인 사고 과정을 진행할 실제적인 일정을 잡아서 실천해 보기를 주문한다. 툴킷은 현재 영문으로 작성되어 2.0버전이 배포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1.0버전이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 참고해볼 만하다(http://che.yonsei.ac.kr/departments/design/lab_jech.php). 2.0버전도 현재 한글로 번역 중인 움직임이 있으니(참고: http://story.pxd.co.kr/700) 조만간 2.0버전도 한글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변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여러분의 교육 현장, 교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디자인 사고를 시작하고 적용해보면 어떨까?

글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공유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영상을 통한 학습, 영상을 활용한 정보와 지식 전달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도 교육 테마의 채널http://www.youtube.com/education이 별도로 생길 정도인데, 인터넷 영상은 유희의 도구로 치부되던 예전과는 꽤 다른 양상이다. 아이튠즈Itunes를 통해서도 세계 다양한 대학에서 공개한 강좌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학습과 지식이 가능한 영상 컨텐츠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만나 제공될 때 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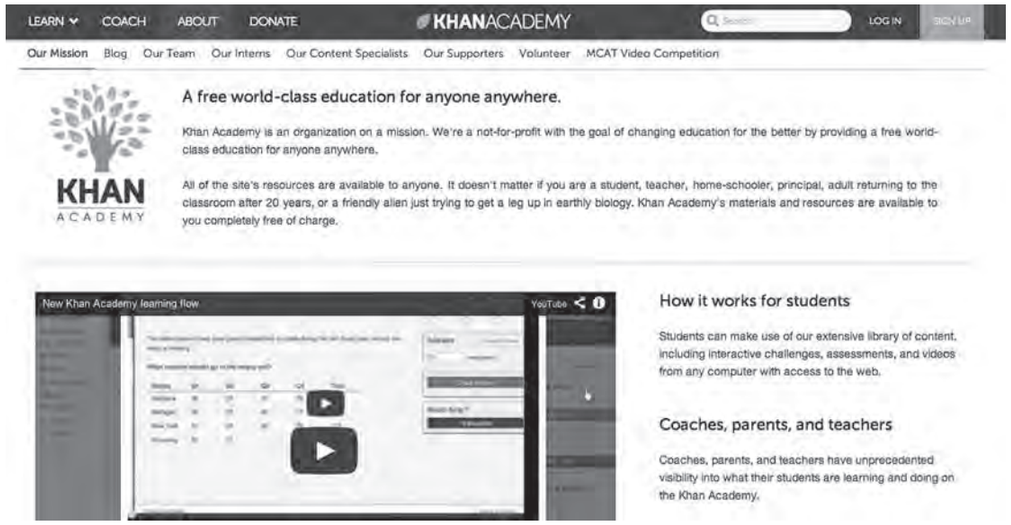
사실 영상과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라고 하면 인터넷 강의, '인강'이 원조격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몇 가지 사례들은 인강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다. 교실에서의 수업을 그대로 녹화하고 복제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멀티미디어의 장점을, 학습과 정보 습득을 돕는 차원으로 극대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는 것 자체로 재미를 준다. 듣기 싫지만 대학과 진로를 위해서 들어야만 하는, 여전히 공부를 하기 싫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달리, 재미도 있고 계속 보고 싶고 열혈 구독자로 만들어 버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

영상을 통한 교육의 변화, 칸 아카데미

영상을 활용한 학습의 효과성이 가져올 수 있는 사례는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헤지펀드 분석가였던 살만 칸Salman Khan은 먼 곳에 사는 사촌들에게 수학 원격 과외(?)를 해주던 차에 학습을 보조할 용도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촌들은 영상을 통해 공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공개된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도 살만 칸의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 참고: TED 발표 "살만 칸: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상을 이용합시다"
http://www.ted.com/talks/salman_khan_let_s_use_video_to_reinvent_education.html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칸의 영상을 학습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 칸은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라는 비영리기구를 만들게 된다. 칸 아카데미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 등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학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다.



↑ 칸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http://www.youtube.com/user/KhanAcademy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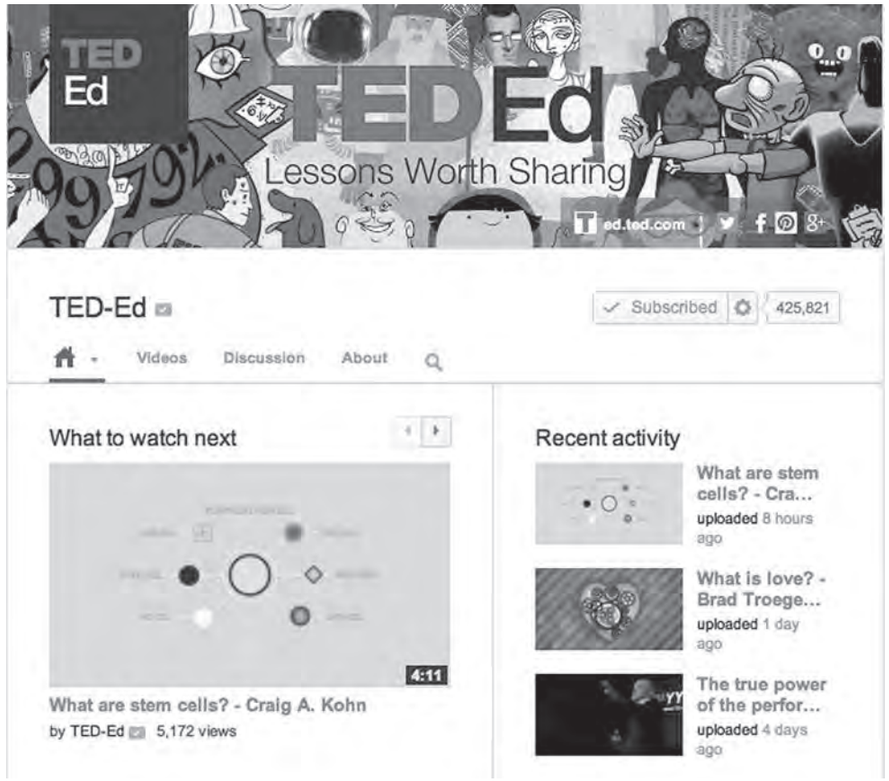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을 영상으로 공유하다, TED-Ed!

TED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것이 미션이라면, TED-Ed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교훈Lesson을 퍼뜨리는 것이 미션이다. TED-Ed는 TED의 영상 중 교육적 가

치가 있는 영상들과 지식·정보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들을 모아서 온라인 사이트http://ed.ted.com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예술, 경영·경제, 디자인·엔지니어링·기술, 의료, 문학과 언어, 수학, 철학과 종교, 심리학, 과학과 기술, 사회학, 교육, 생각과 배움이라는 카테고리의 교육용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TED-Ed는 가르칠만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레슨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방문자들의 참여로 진화되어 가는 온라인 사이트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터에 대한 추천도 받고 있는데, 지식과 교훈을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잘 전달해 줄 역할을 할 애니메이터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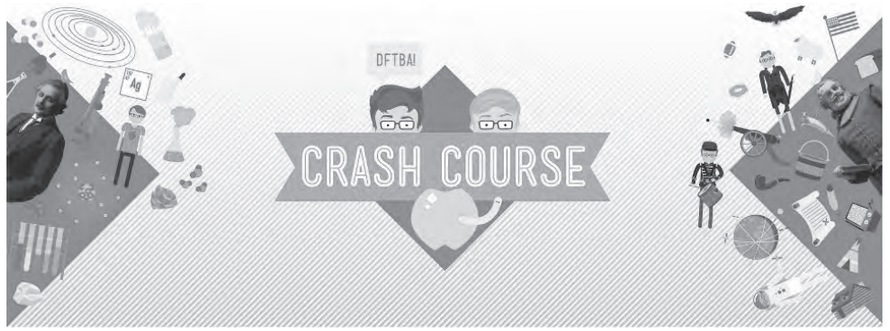
→
TED-Ed 유튜브 채널
에서 갈무리



강의의 틀을 깨다, 크래쉬 코스!

크래쉬 코스Crash Course는 존John과 행크 그린Hank Green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세계사와 생물에 관한 영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영문학, 생태학Ecology을 다룬 후 최근에는 미국사와 화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화학이,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미국사가 업로드 된다. 2006년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현재 9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4억 8천 건 이상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
크래쉬 코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갈무리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영상은 세계사 첫 번째 강의. http://youtu.be/Yocja_N5s1I 를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과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 요소들이 돋보인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은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물리학 등 다른 과목을 다뤄 줄 수 없는지 문의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끌고 있다. 우리 주변의 교실에서 선생님께 너무 재미있다며 다른 과목도 가르쳐 달라고 떼쓰는 학생을 본적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 미닛피직스!

미닛피직스MinutePhysics는 헨리 라이히Henry Reich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 어려운 물리학의 개념들을 손그림으로 그려진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도 폭넓은데 슈뢰딩거의 고양이 생각 실험부터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급 물리학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많지만, 유튜브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그가 처음일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참고: http://nyunews.com/2013/04/07/cicconet-13/

미닛피직스는 현재 1억 건 이상의 조회수와 17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닛어스MinuteEarth라는 자매 채널과 스페인어 채널로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닛피직스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보인 영상은 http://youtu.be/9eKc5kgPV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판 크래쉬 코스, 미닛피직스의 등장을 기다리며

유튜브 채널에서 이들 외에 또 다른 교육적인 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콘텐츠는 많지 않다.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선은 좋은 영상 콘텐츠들을 번역해서 학습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과 영상 미디어 제작자들의 만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D-Ed에서 좋은 콘텐츠를 공모하여 영상화 했던 시도들도 참고해볼 만하다. 좋은 콘텐츠와 좋은 영상 제작자, 작업자가 만나 다음 세대를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글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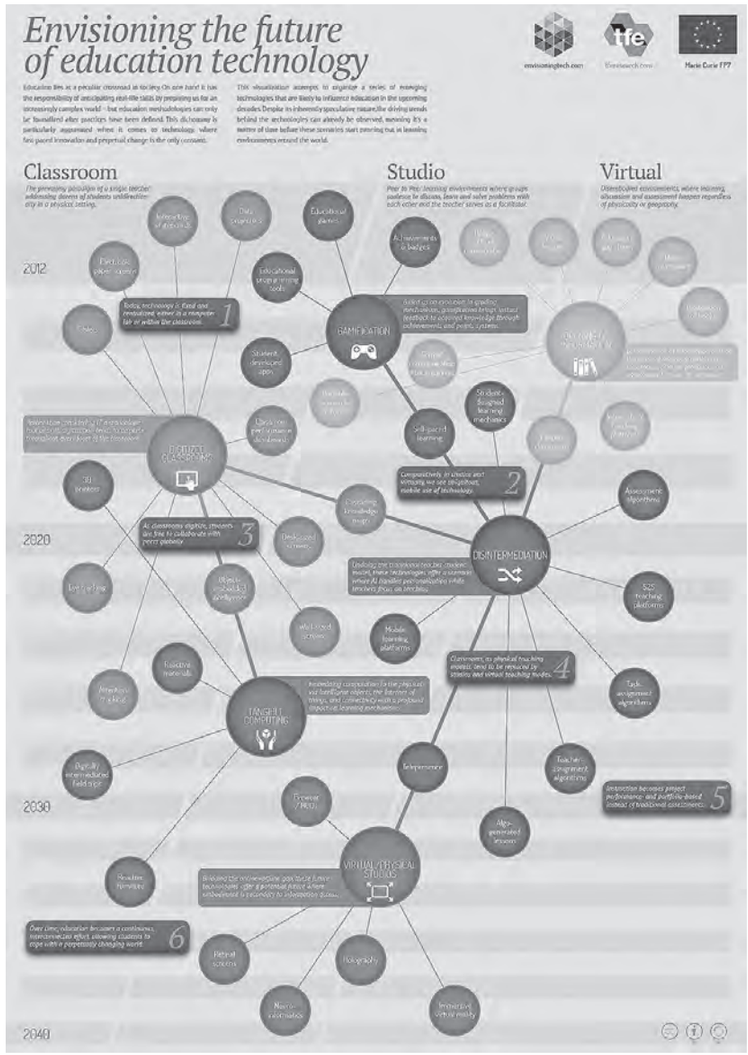
기술 변화와 미래 교육
다양한 변화, 확인하고 실현하기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뜻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술 이해도가 빠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무장되어 최초로 생산된 제품과 신기술들을 남들보다 먼저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함)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다투어 발표되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수많은 첨단 기술의 작동 방식이나 향후 영향력 등을 일일이 따져 물을 시간도 없거니와, 사실 시간이 있다 해도 그 복잡함과 난해함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수의 첨단기기나 시스템을 꾸역꾸역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그 훌륭한 기능과 멋진 디자인에 매료되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대중적 소비심리에 편승해서.

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교육 및 학습의 모습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요즘 '스마트 교육'이니 '미래 학교'니 하는 말들이 자주 들리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교육 및 학습의 첨단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들을 부담스럽다고 외면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마침 교육 관련

기술적 변화가 가져올 미래 모습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깔끔하게 시각화 해 놓은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
교육 기술의 미래 상상하기(Envisioning the future of education technology)
(출처: http://envisioningtech.com/education/)

위 그림은 학습 환경 연구 및 디자인 단체인 〈티에프이 리서치TFE Research〉와 기술 전략가인 미셸 자파Michell Zappa의 공동 작업 결과물이다. 티에프이 리서치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http://www.tferesearch.com/에서, 미셸 자파 관련 궁금한 점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인비저닝 테크놀러지Envisioning Technology〉의 홈페이지 http://envisioningtech.com/ab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실 교육은 줄고, 스튜디오 및 가상 공간에서의 학습은 늘고

이 그림은 현재로부터 약 30년 후인 2040년까지 예상되는 교육 관련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 공간 측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실Classroom 중심 교육의 비중은 점차 줄고 스튜디오Studio 및 가상공간Virtual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교실Classroom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한 명의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학습 욕구나 스타일 또는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과 내용을 강의 위주로 전달
- 스튜디오Studio
  학습자들 간 자율적 논의, 학습,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배움이 이루어짐. 이 때 선생님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직접 지도·지시보다는 조력의 역할을 수행
- 가상공간Virtual
  물리적, 지리적 제약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공간

현재 교실 공간에서의 교육 기술 활용 형태를 보면 고정적이고 중앙집권적 성격이 짙은 편이다. 하지만 교실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유비쿼터스화 및 모바일화가 진행되고, 학습자 간 상호 연결 및 협력의 정도가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의 교육 방식이 선생–학생 간 관계 중심에서 학생–학생 간 관계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스튜디오 및 가상 공간에서의 학습 모델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강의식 교육 보다는 →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식 학습
- 시험을 통한 전통적 평가 방식보다는 →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
- 특정 시기와 장소에 국한된 교육 보다는 → 평생에 걸친 학습자 간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 방식의 학습

6가지 변화의 모습

또한 상기 그림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교육 기술의 변화 모습을 6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각 주제는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화 1. 게임화Gamification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임과 연관된 개념을 교육에 활용. 예)포인트 및 배지 시스템을 통한 학습 성취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및 보상하기

- 교육용 게임Educational games
- 교육용 프로그래밍 툴Educational programming tools
- 학습자 개발 앱Student-developed apps
- 학습 성취에 대해 보상Achievements & badges
- 자기보속 학습Self-paced learning

변화 2. 정보 공유Opening of Information

학교 및 교실 밖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학습자들이 어디에서든 학습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Online school communities
- 비디오 수업Video lessons
- 교육용 앱스토어Education app stores
- 공개 강좌Open courseware
- 디지털 서적Digitization of books
- 실시간 온라인 대화 채널Formal communication #backchannels
- 휴대용 학업 관련 정보Portable academic histories
- 학교 간 교수 플랫폼Inter-school teaching platforms
- 역(逆) 교실Flipped classrooms : 비디오 수업 및 온라인 공개강좌 등의 발달로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강의를 듣고 학교에 등교.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대신 이전에 숙제로 해 오던 문제 풀이 및 과제 수행 등을 선생님의 좀 더 개별화된 지도와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

변화 3. 교실의 디지털화Digitized Classrooms

교실에서의 기술 활용이 단순히 독립된 기기 몇 개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환경의 디지털화로 수업 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침.

- 데이터 프로젝터Data projectors
- 양방향 스마트보드Interactive whiteboards : 학교나 영상회의 시에 사용되는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디스플레이 장치. 대형 터치스크린 같은 것으로 컴퓨터와 접속되어 있어 디스플레이와 웹 접속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
- 전자종이 스크린Electronic paper screens : 종이처럼 접거나 둘둘 말 정도로 유연하고, 일반 액정 화면과 같이 자유롭게 쓰고 지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
양방향 스마트보드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Interactive_whiteboard_at_CeBIT_2007.jpg)

→
휘어지는 전자종이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3/e20120329130558120180.htm)

- 태블릿 PCTablets
- 학습자 성과 관리 시스템Classroom performance dashboards
- 단계별로 계열화된 지식 연계 체계Cascading knowledge maps
- 책상 크기 스크린Desk-sized screens
- 벽면 크기 스크린Wall-sized screens
- 내장 지능Object-embedded intelligence
- 시선 추적Eye tracking : 학습자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 무의식적인 시선의 흐름을 포착하여 학습자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관심 추적Attention tracking

변화 4. 탈 중개화Disintermediation

1명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과거의 선생-학생 간 일률적 강의 방식을 탈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자기주도 학습 메커니즘Student-designed learning mechanics
- 평가 알고리즘Assessment algorithms
- 학습자 간 교수 플랫폼S2S teaching platforms
- 모바일 학습 플랫폼Mobile learning platforms
- 과제 부여 알고리즘Task-assignment algorithms
- 강사 배정 알고리즘Teacher-assignment algorithms
- 원격 현장감Telepresence :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 또는 가상의 장소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통신 회선으로 컴퓨터를 원격지와 연결하여 가상현실 공간 중에서 통신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신체적으로 가 있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 우주 공간이나 깊은 바다 속과 같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장소에서 경험하거나 행동하는 기술

↑
대면회의를 대신하는 실물 영상 크기의 영상회의
(출처: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5373)

-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수업Algo-generated lessons : 학습자의 학습 관련 방대한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 이는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 및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구현 가능

변화 5. 감각 가능한 컴퓨팅 Tangible Computing

일상적인 사물에 제 각각의 역할에 부합되는 컴퓨터 기능과 네트워크 장치를 넣어 물체 간, 그리고 물체와 인간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3D 프린터3D printers
- 반응성 물질Reactive materials
- 디지털 매개 현장 학습Digitally intermediated field trips
- 반응성 가구Reactive furniture

→ 스마트 안경(좌)(출처:http://blog.naver.com/jhoonsarang?Redirect=Log&logNo=130160448596)/ 비행기 전면 유리에 표시된 운행 정보(우)(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jsG_rvyLnYQ)

변화 6. 가상적/물리적 스튜디오 Virtual/Physical Studios

정보 접근성을 높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간극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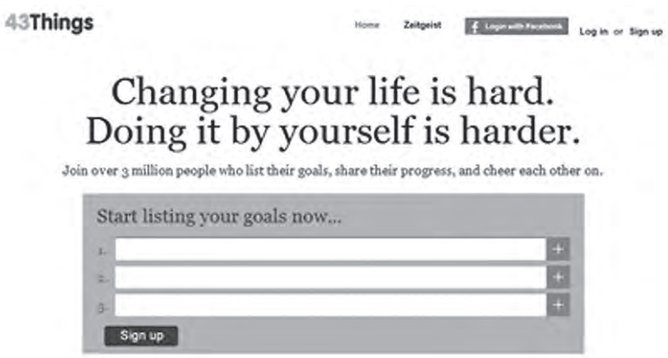
- 안경류/헤드업 디스플레이Eyewear/ HUDs : 관련 정보가 안경 및 전면 유리에 나타나도록 설계된 전방 표시 장치
- 망막 스크린Retinal screens
- 신경정보과학Neuroinformatics : 인간 두뇌의 구조를 밝혀 개인별 뇌 구조에 최적화된 학습 제공을 가능케 함
- 홀로그래피Holography :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입체 사진술
- 몰입형 가상현실Immersive virtual reality :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몰입형 가상현실은 그 중 한 종류에 해당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일상을 공부로 만드는 메커니즘
43 싱즈43 Things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인생 역전

"인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혼자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여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는 3만 여명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지금 작성해 보세요."



→ 43 싱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문구

43 싱즈는 온라인 목표설정 커뮤니티다. 사용자는 43개까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바쁜 사람들에게 43개 이상의 목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작성된 각 목표 마다 그와 관련된 진척 상황이나 과정 중에 든 생각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외에도 블로그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목표에 코멘트 달기, 또는 '응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대방의 목표 달성을 지지해주기 등의 기능이 있다. 또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 뿐 아니라 이미 달성한 목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달성된 목표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결심을 한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다. 43 싱즈는 이러한 우리의 약한 의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다. 목표를 공표함으로써 나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좀 과장해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인생 역전이랄까?

내가 원하는 43가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43 싱즈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표 1위부터 20위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목표를 희망한 사람의 수다.

- 1위: 살 빼기(41,644명)
- 2위: 책 쓰기(31,003명)
- 3위: 미루지 말기(30,330명)
- 4위: 연애하기(27,203명)
- 5위: 행복하기(24,808명)
- 6위: 문신하기(21,982명)
- 7위: 목적지 없이 여행 떠나기(21,494명)
- 8위: 결혼하기(21,300명)
- 9위: 해외여행하기(21,016명)
- 10위: 물 많이 마시기(20,263명)
- 11위: 북극 오로라 관찰하기(19,103명)
- 12위: 스페인어 배우기(18,108명)
- 13위: 저축하기(16,361명)
- 14위: 사진 많이 찍기(15,410명)
- 15위: 기차 안에서 키스하기(15,162명)
- 16위: 내 집 장만하기(14,040명)
- 17위: 기타 연주 배우기(13,800명)
- 18위: 새로운 친구 사귀기(13,789명)
- 19위: 마라톤에 도전하기(12,757명)
- 20위: 프랑스어 배우기(12,720명)

정말 소소한 것에서부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까지 희망하는 내용도 참 다양하다. 또한 43 싱즈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신하기', '물 많이 마시기', '북극 오로라 관찰하기' 등 다소 생경한 목표들도 눈에 띈다.

이번엔 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목표만을 모아서 알아보자. 43 싱즈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유사한 사이트인 "마이 피프티my50"에 정리된 내용을 소개한다. http://www.my50.com/categories.php?category=education

- 이력서 작성 및 업데이트 하기
- 경력 목표 정하기
- 내가 좋아하는 일 찾기
-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시작하기
- 무사히 졸업하기
- 대학 학위 따기
- 다른 사람의 학습 도와주기
- 외국어 배우기
- 새로운 것 배우기
- 매해 새로운 기술이나 주제 한 가지씩 배우기
-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 구구단 12단까지 외우기
- 악기 연주 배우기
- 수영 배우기
- 배우고 싶은 것의 목록 작성하기
- 사표 쓰기
-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 춤 배우기
- 정원 가꾸기 배우기

- 인테리어 디자인 배우기
- 노래 배우기
-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하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에 대한 열망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된 내용보다 개인별로 작성된 목표 목록을 기웃거리는 것이 더 재미있긴 하다. 아무래도 각자의 개성이 담긴 문구들로 표현된 목표 목록이라 그런지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온다. 생생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길. http://www.43things.com

그리고 43 싱즈나 마이 피프티 같은 사이트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기획으로 고민하는 평생학습 담당자에게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지도…

일상의 작은 변화가 바로 학습이다

43 싱즈를 단순히 목표를 수립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학습 사이트로 볼 수도 있다. 보통 교육이나 학습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 지식을 습득하거나 학원 등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움이란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반복되는 일상에 내 몸을 맡긴 채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살기보다는 나와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고 내 일상에 필요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 버리지 않도록 매일 매일 정성들여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43 싱즈는 목표 설정과 실천을 통해 내 몸에 깊숙이 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내가 꿈꾸는 일상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어 줄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소소한 습관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의 합이 만드는 일상의 변화를 체험해 보기 위해 꼼꼼하게 내 일상을 한 번 계획해 보는 건 어떨는지…

"인생은 짧다.

충실하게 사는 삶을 바로 시작해라.

(Life is short, so start living yours to the full.)"

– 출처: 마이 피프티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당신의 꿈의 도시를 제작하라
더 시티 2.0The City 2.0

당신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만약 당신이 꿈꾸는 도시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바꿔 줄 공간이 있다.
바로 "더 시티 2.0(The City 2.0)."

더 시티 2.0은 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자신이 꿈꾸는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의견 피력, 우수 사례 및 방법론이나 필요 자원 공유, 구체적 활동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및 진행과정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는 시민 네트워킹 및 실험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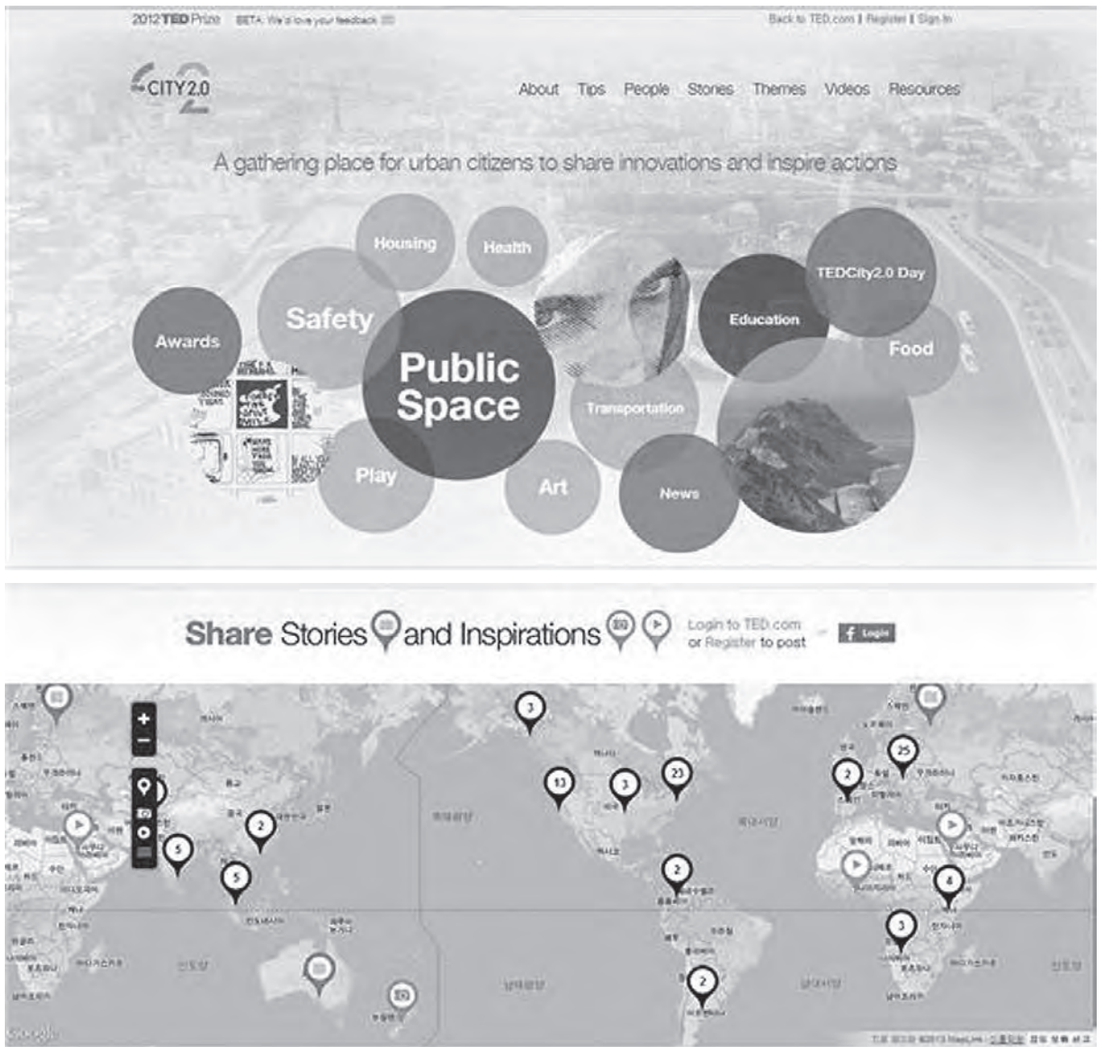
더 시티 2.0은 2012년 테드 상TED Prize을 수상한 아이디어이다. 테드TED는 '널리 퍼뜨릴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강연회로 매년 한 명을 선정하여 소원을 들어준다. 수상자는 테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특정 인물이 아닌 더 시티 2.0이라는 아이디어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더 시티 2.0의 소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좀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이고, 건강하며, 영혼적으로 충만하며, 풍요롭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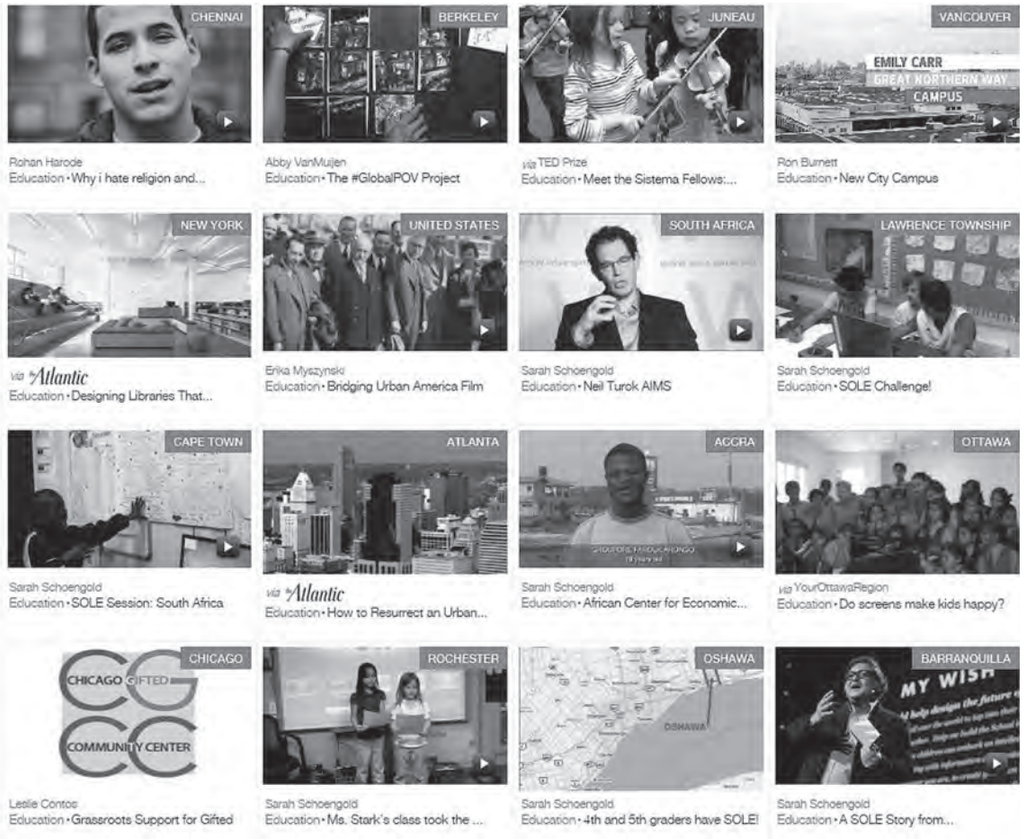
-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 줄이기
- 탄소 배출량 줄이기
- 자연친화적 일상 만들기
- 창업 및 도전정신 지원하기
- 교육 혁신하기
- 건강한 삶 영위하기

↑
테드 상을 수상한 더 시티 2.0의 소원 영상 갈무리
(출처: http://www.ted.com/pages/prizewinner_city2)

더 시티 2.0의 꿈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예술, 교육, 음식, 건강, 주택, 놀이, 공유지, 안전, 교통 등 도시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보가 공유된다.



↑
더 시티 2.0의 홈페이지(http://www.thecity2.org). 전 세계 시민 및 단체들의 아이디어, 이야기, 프로젝트가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 주제별 내용 확인 및 세계 지도 상에서 현재 공유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
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야기들.

이와 함께, 2013년 9월 20일에는 미래 혁신 도시를 주제로 '테드시티2.0TEDCity2.0'이라는 테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뉴욕에서 진행된 이 컨퍼런스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1 : 시민 재정의 하기Redefining Citizen

발표 내용 : 극빈층의 독창성, 테러리즘, 21세기 시민의식, 미래 도시의 주역 재정의, 여성 및 모두를 위한 안전, 도시 운동의 한계 극복

세션2 : 도시에서의 경험 재구성하기Reinventing Urban Experience

발표 내용 :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위한 무질서한 지역 확장 및 부적절한 도시 정책 비난, 크라우드crowd 방식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경험 재구성, 거리 철학자의 도시 경험 재구성, 시를 통한 도시 경험 재구성

세션3 : 도시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the City

발표 내용 : 보행자 우선 거리, 시각장애자의 눈으로 세상 다시 바라보기, 뉴욕의 쓰레기에 대해, 거리 음악가의 공연, 정의로운 도시 만들기, 주택 개발과 도시, 지속성을 위한 그린 디자인

세션4 : 지형도 다시 그리기Redrawing Geographies

발표 내용 : 보행자의 활동 스타일 재설계, 남반구의 미를 북반구에 소개, 지역의 전통적 공예 및 재료를 활용한 미화 작업, 도시의 역사 및 기억 재조명, 슬럼가의 고유한 커뮤니티 문화

테드시티2.0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중계되어 전 세계 시민들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었다. 강연자의 발표내용은 http://new.livestream.com/tedx/cityenglis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TEDx'라 지칭되는 지역의 자체적 테드 컨퍼런스가 48시간 진행되었다.

또한 『City 2.0: The Habitat of the Future and How to Get There』라는 책을 출간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고, 아름답고, 활력으로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
책 『City 2.0: The Habitat of the Future and How to Get There』의 표지 (출처: http://www.ted.com/pages/tedbooks_library#City20)

테드 컨퍼런스는 그 강연 내용의 참신성 및 우수성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다. 특히, 더 시티 2.0은 단순한 강연 형태의 학습을 넘어 플랫폼 형태의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킨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꿈과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 실천 사례를 모아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 매우 협동적이고 역동적이다. 소수 엘리트의 기획이 아닌 집단 지성과 실천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나간다. 개인의 학습과 사회적 실천이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조화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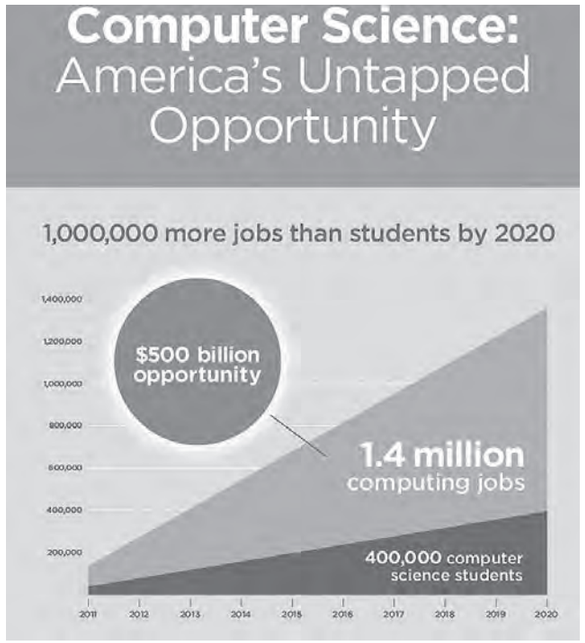
코드 아카데미
미래 세대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자바스크립트Java Script, 루비Ruby, 파이썬Python, PHP, API, HTML, CSS… 이 단어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꽤나 웹과 컴퓨터 언어에 대해 잘 아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인터넷을 하고 생활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하지만 갈수록 인터넷이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이런 용어는 아마 필수 상식으로 취급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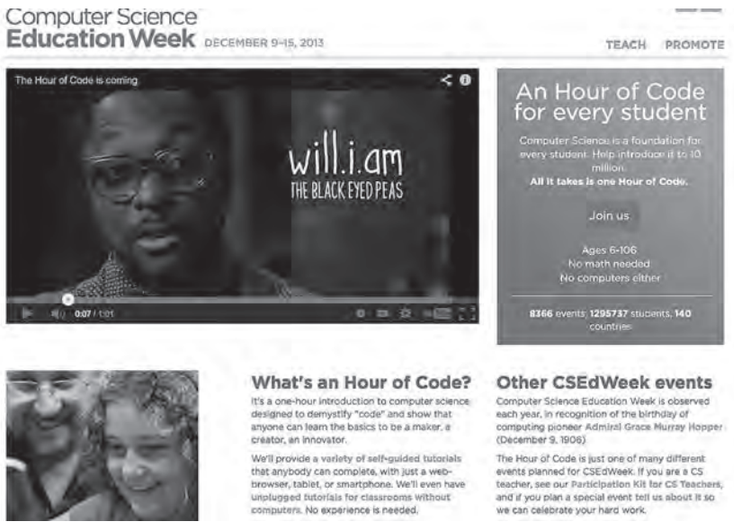
다가오는 '코드Code'의 시대!

비영리 기구인 Code.org는 2020년경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보다 백만이나 더 많은 컴퓨터 과학 관련 일자리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과학이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기초학문이 되어간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컴퓨터 과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컴퓨터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접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성이거나 백인이라는 점도 이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래서 Code.org는 매년 '컴퓨터 과학 교육 주간' 캠페인을 개최하는데, 2013년에는 12월 9~15일 주간을 컴퓨터 과학 교육 주간으로 갖고 한 시간은 학생들이 '코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간을 마련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Code.org에서 제시하는 미국 내 컴퓨터 관련 직종에 관한 인포그래픽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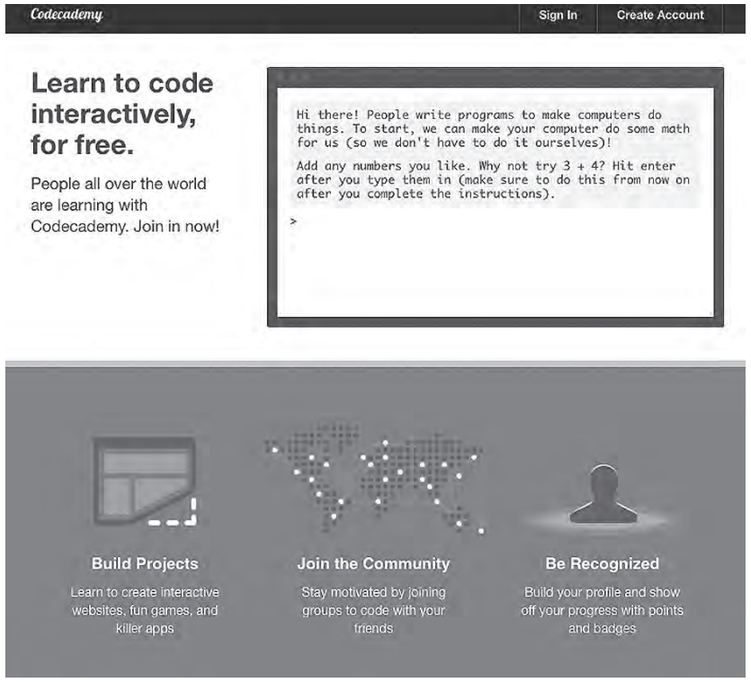


→ 컴퓨터 과학 교육 주간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갈무리 http://csedweek.org

기술과 시장,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가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나날이 빨라져 가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술과 사회는 인터넷, 디지털기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디지털 세계를 살아갈 디지털 원주민들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알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문자를 읽고 쓰는 것만큼 필수적인 능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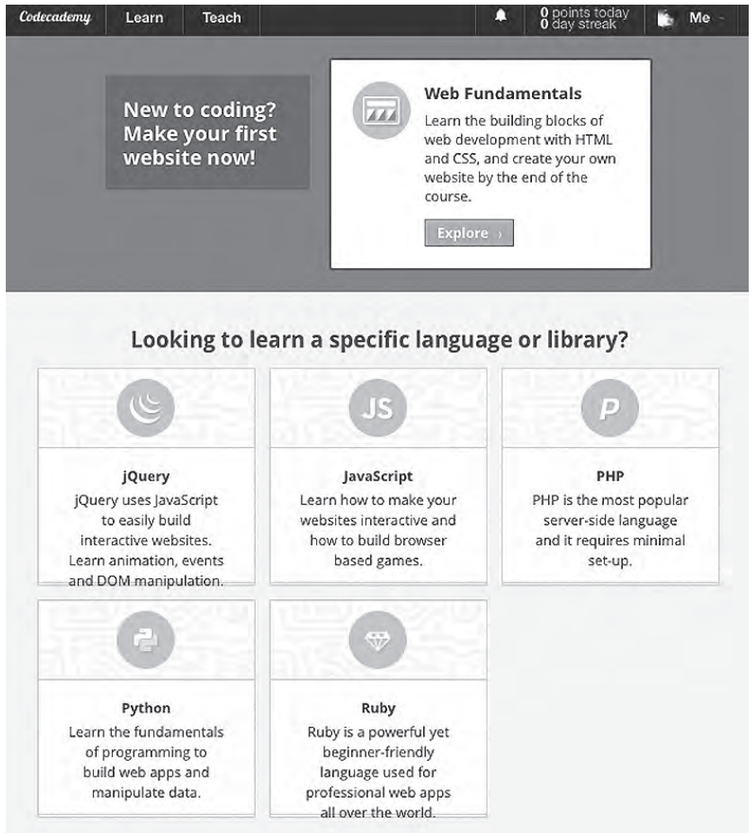
'코드'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코드 아카데미Code Academy〉

다가올 미래를 위해 '코드'라고 불리는 컴퓨터와 웹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커뮤니티, 교육 공간들이 등장하고 있다. 학원처럼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곳도 있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오늘은 그들 중 〈코드 아카데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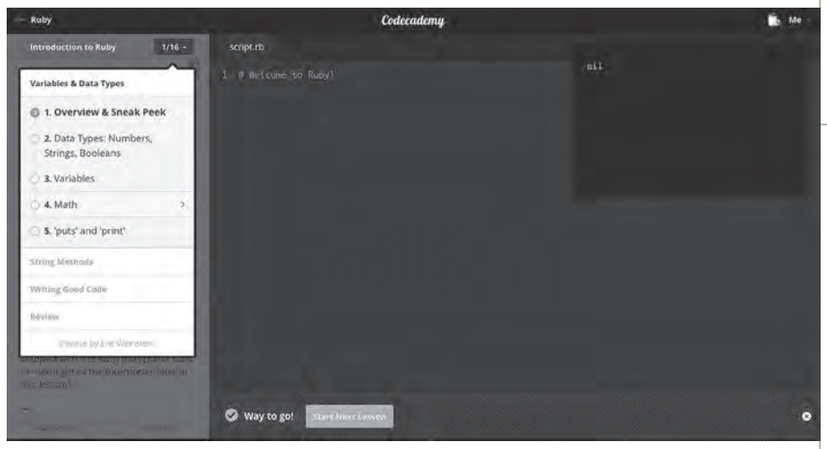
코드 아카데미는 스스로를 '교육 기업Education Company'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교육기업과는 다르며, 미래를 위한 최고의 온라인 학습 경험을 만드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고 차별성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코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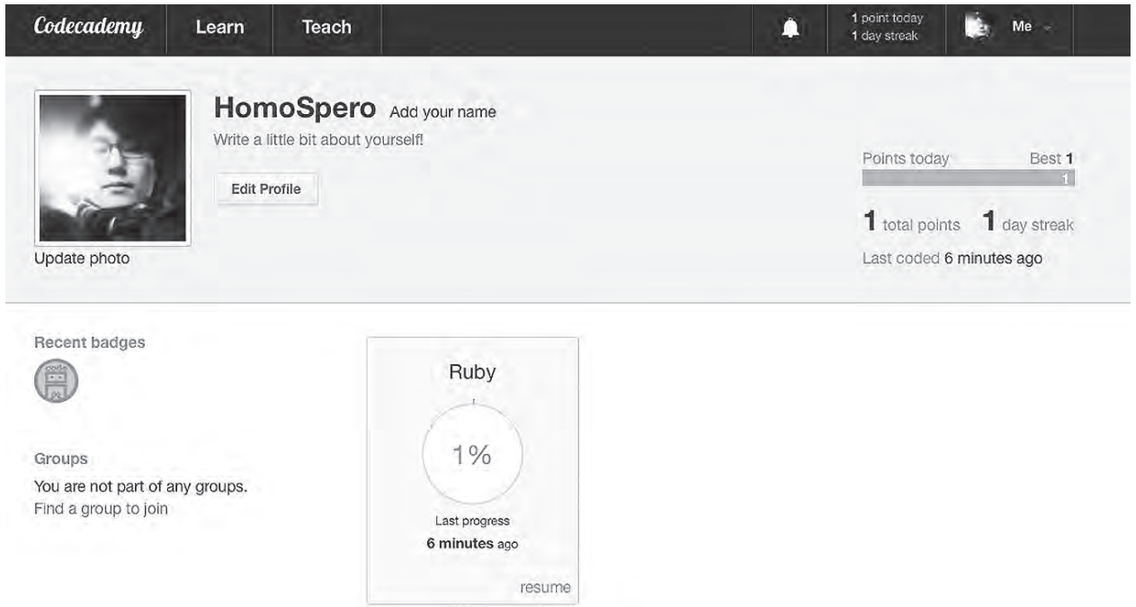
코드 아카데미는 대학생이던 자크와 라이언이 2011년에 설립했다. 자크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몇 개의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언은 엔지니어로 13살부터 애플리케이션을 꾸준히 개발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자크는 사람들에게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를 촉진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라이언과 함께 만들게 되었다.



코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코드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뉜다. 웹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HTML과 CSS, j쿼리, 자바스크립트, 피에이치피, 파이썬, 루비라고 불리는 언어들을 배울 수 있으며, 각 과정은 단계별로 가이드 되고 직접 해당 언어의 코드를 입력하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과정의 진척 정도와 나의 수행 정도는 별도의 대시보드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Ruby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의 화면 모습
↓





↑
나의 코드 학습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코드'를 배움으로써 달라지는 것들

코드 아카데미는 코드를 배움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케냐의 마르다 츄모라는 여성은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매일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코드아카데미를 통해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턴십이 끝날 무렵 우분투Ubuntu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코딩을 배워 현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 직업을 바꿀 때 코드 아카데미를 통해 코딩을 배운 것이 주요한 전환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스토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자크는 코드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적인 도움을 코드 아카데미를 통해 제공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도 당장 효용이 있겠지만, 코드를 배우는 것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증가할 것은 분명한 효과이리라.

코드 아카데미는 코딩을 배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초에는 코드 이어Code Year라는 캠페인을 통해 2013년도에 코드를 배울 만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코드 아카데미를 통해 코드를 학습할 것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코드를 배울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나 또래들끼리 코드를 학습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다.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만드는 것

코드 아카데미는 교육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나 현재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교실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코드 아카데미는 그런 회사들과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만들고 있노라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일종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지식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코드 아카데미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듯, 코드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미 수천 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몇 백만 개의 강좌를 수강했으며 그 과정에서 몇 백만 줄 이상의 코드가 입력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웹 커뮤니티가 있다. 생활코딩 http://opentutorials.org/ 이라고 하는 웹 사이트로 페이스북 그룹 커뮤니티도 있다. 영어라는 장벽으로 코드 아카데미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탐구해보면 좋을 사례라고 생각된다.

글 이상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게임과 학습

게임을 즐기는 세대에게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학교에서의 배움과
공부는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나.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배움과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즐거워서 하고 싶은 것'
이지 않은 것 같다.

게임 세대. 공부가 게임이었다면?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말·휴가 여가 활용에 있어 2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한 활동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활동(26.2%)이다. 데스크탑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미래를 주도할 다음 세대는 게임을 일반적으로 즐기고, 게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이리라.

게임을 즐기는 세대에게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학교에서의 배움과 공부는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나.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배움과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즐거워서 하고 싶은 것'이지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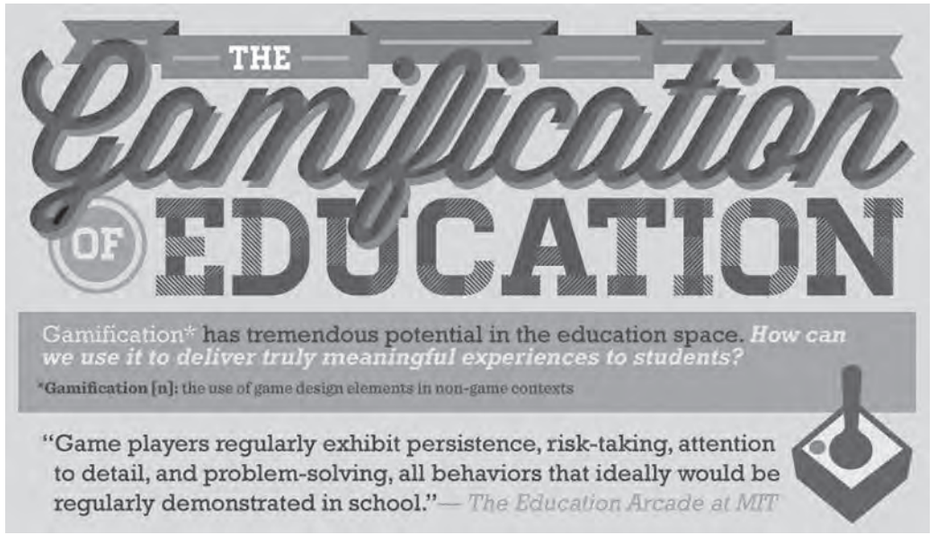
만일 공부가 게임처럼 즐겁다면?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게임, '사회악'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등 게임이 큰 사회 문제로 조명되고 있고 학교폭력의 주범인 듯 논의되고 있지만, 세계의 한 켠에서는 게임의 교육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기능성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게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주류로 대접 받고 있지 못하다. 게임의 교육적, 긍정적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볼 만한 논의들은 아래와 같다.

1) 교육의 게임화Gamification

2009년 발간된 MIT의 교육 아케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노력,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문제 해결 능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준다고 한다. 게임은 또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개인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주어 적절한 배움을 제공할 수 있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이런 게임의 속성을 교육에 적절하게 도입한다면… 아마도 놀라운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 (출처: http://www.knewton.com/gamification-education/)

2) 퀘스트 기반 학습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퀘스트 기반 학습Quest Based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보이스 주립 대학Boise state university 크리스 하스켈Chris Haskel 박사는 전통적 교육과 게임을 통한 퀘스트 기반 학습의 차이점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에서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단선적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정을 요구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면, 퀘스트 기반 학습에서는 개인별로 다양한 발전 경로를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가 더 잘 되며 개인의 발전 속도와 수준에 따라 알맞은 경로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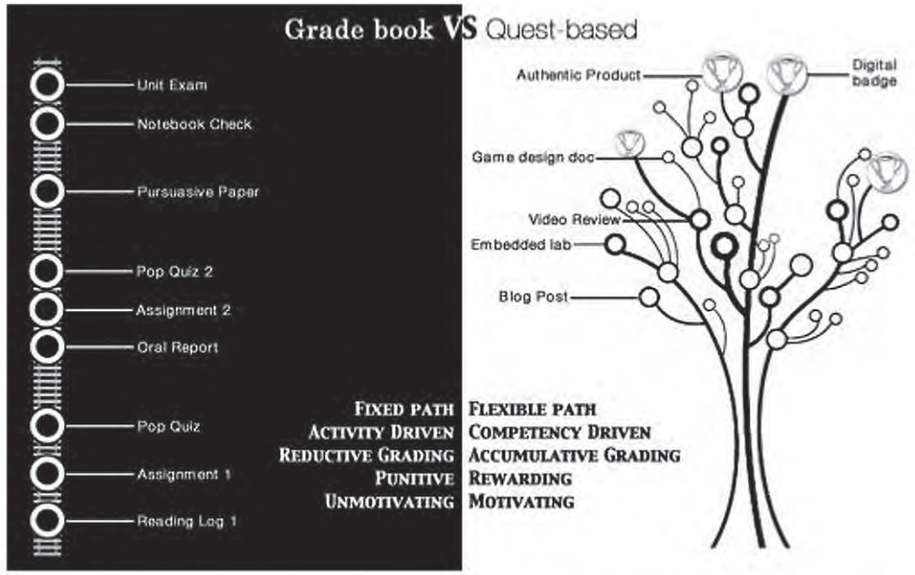


Figure 1. Traditional linear gradebook approach to learning vs. non-linear quest-based learning

↑
(출처: http://issuu.com/loraevanouski/docs/qbl-whitepaper_haskell-final?e=2087038/1776411)

3) 사회 변화를 위한 게임

『누구나 게임을 한다』의 저자이며 게임 디자이너로 활동해온 제인 맥고니걸Jane Mcgonigal은 게임을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4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 즉각적인 낙관주의Urgent Optimism : 어떤 문제 상황에서 성공에 대해 합리적인 희망을 가지고 즉시 도전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킴.
- 사회 관계망 형성Social Fabric :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해 강한 유대관계를 경험하게 됨.
- 더 없이 행복한 생산성Blissful Productivity :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
- 웅대한 의미Epic Meaning :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장대한 서사 구조 안에서 장엄한 임무에 연관되는 것을 좋아함.

이런 특성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큰 의미를 발견하고 생산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 제인 맥고니걸의 TED 강연
http://www.ted.com/talks/lang/ko/jane_mcgonigal_gaming_can_make_a_better_world.html

게임, 교육에 어떻게 접목해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게임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해볼 수 있을까? 몇 가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시도들은 비디오 게임 자체를 교육에 활용하는 형태, 게임 속성을 갖춘 웹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그리고 게임의 요소를 교실 안으로 반영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1) 비디오 게임 자체를 교육의 도구로

(비디오 게임을 교육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들은 이미 다수 존재하며 시장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역이다.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관련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번 글에서는 생략한다.)

2) 게임 속성을 가진 웹 플랫폼을 통한 교육

게임 자체는 아니지만 게임이 가지고 있는 레벨과 포인트 시스템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언어 학습을 돕는 사례로 듀오링고Duolingo를 살펴볼 수 있다. 듀오링고는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어 등의 학습을 제공하는데 웹, 앱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로그인을 하면 내가 학습하고 있는 언어와 단계를 표시하는 마이페이지가 제공되며, 각각의 단계는 퀴즈를 풀듯이 제공되어 쉽게 쉽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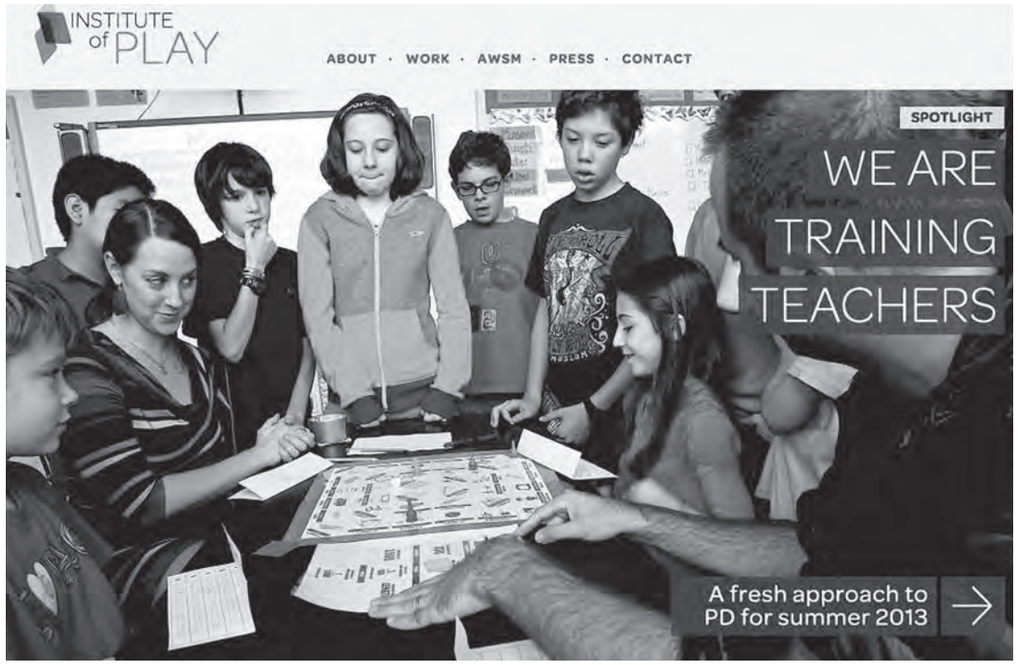
↑
듀오링고, 다양한 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duolingo.com/)

→
태블릿에서 듀오링고 앱을 실행했을 때 모습. 단계별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듀오링고는 친구 등록과 팔로우 개념 등 소셜미디어적 속성도 반영하고 있어 언어를 학습할 때 꾸준히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3) 교실을 놀이 공간으로 : 게임 같은 학습Game-like Learning

앞의 유형들에 해당하는 사례는 기술적인 의존도가 높은 교육이므로 실제 바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육 활동가들이 보다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사례로, 교실 안에 게임의 요소를 도입한 학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실험을 하는 곳인 놀이 연구소Institute of Play의 '퀘스트 스쿨Quest School' 실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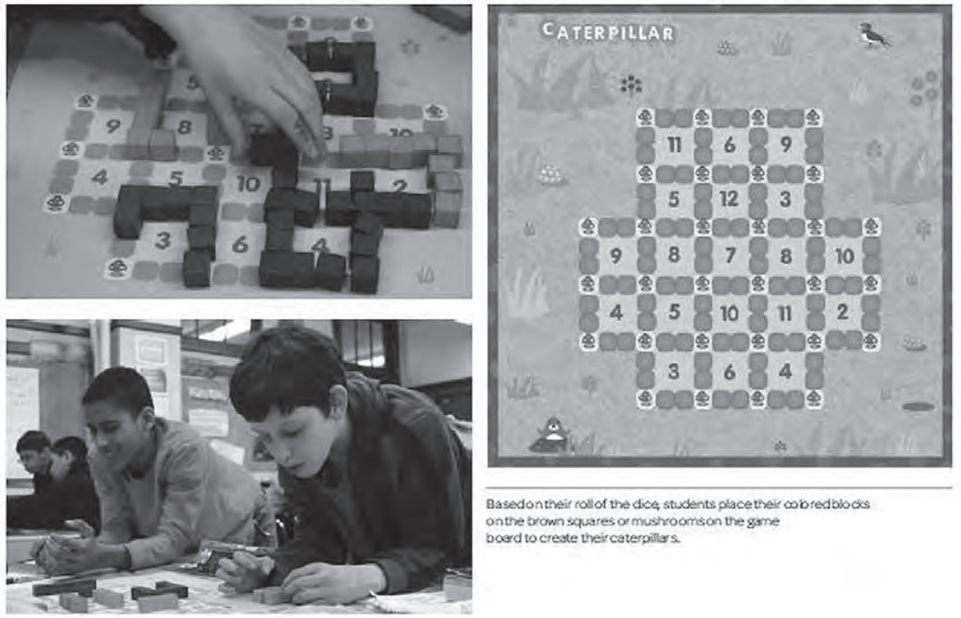


(출처: 놀이 연구소 http://www.instituteofplay.org, 이하 출처 동일)

놀이 연구소는 뉴욕시와 협력하여 실제 게임과 놀이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립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교실은 아래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게임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실제 학습이 진행되는 현장 사진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캐터필러Caterpillar라고 하는 게임이다. 일종의 보드게임으로 학생들이 '빈도frequency'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이다. 학생들은 주사위를 던져 결과에 따라 색칠된 나무 블록을 보드 위에 세워 애벌레caterpillar를 만들어 간다. 가장 긴 애벌레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여 그래프를 그려 간다. 교육자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게임을 이어가는 것을 모니터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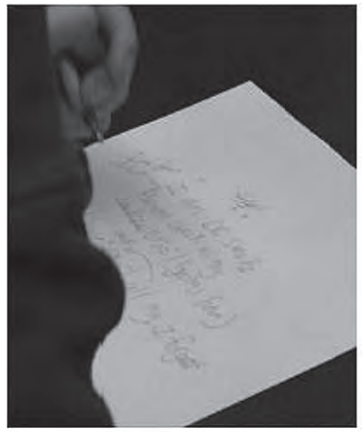


애벌레를 만드는 게임을 통해 '빈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모습

또 다른 사례로는 '스몰즈 박사 게임'이 있다. 생물 시간 학생들은 스몰즈DR. SmallZ 박사로부터 작은 쪽지를 받게 된다. 스몰즈 박사는 한 여성을 구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 관련 지식을 잊어버렸다. 학생들은 스몰즈 박사의 쪽지 메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여성을 대신 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함께 찾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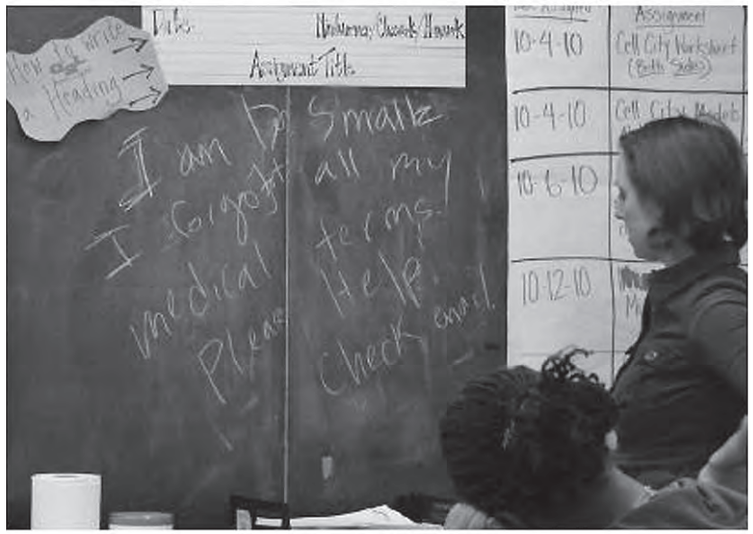
게임의 긍정적 요소,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내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게임의 요소에 맞춰 설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용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놀이 연구소에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퀘스트 러닝 학교Quest Learning School와 커리큘럼 디자인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도해 보자.



As a class, students work to puzzle out a message from Dr. Smallz spread across different postcards.

Students read the microscopic postcard from Dr. Smallz.



The teacher and whole class (above) finally decode his message.

→
스몰즈 박사로부터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여성을 구하기 위한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

1. 게임 같은 학습의 7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교육 활동에 특별히 적용할 만한 원칙은 무엇일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놀이 연구소는 게임 같은 학습에 대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모두가 참여자이다.

2) 변화는 계속된다.

3) 배움은 실행할 때 일어난다.

4) 피드백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5) 실패는 되풀이되면서 재구성된다.

6)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7) 놀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게임 같은 학습의 7가지 원칙
↓

The Seven Principles of Game-like Learning:

Everyone is a participant
A shared culture and practice exists where everyone contributes, which may mean that different students contribute different types of expertise.

Challenge is constant
A "need to know" challenges students to solve a problem whose resources have been placed just out of reach.

Learning happens by doing
Learning is active and experiential. Students learn by proposing, testing, playing with, and validating theories about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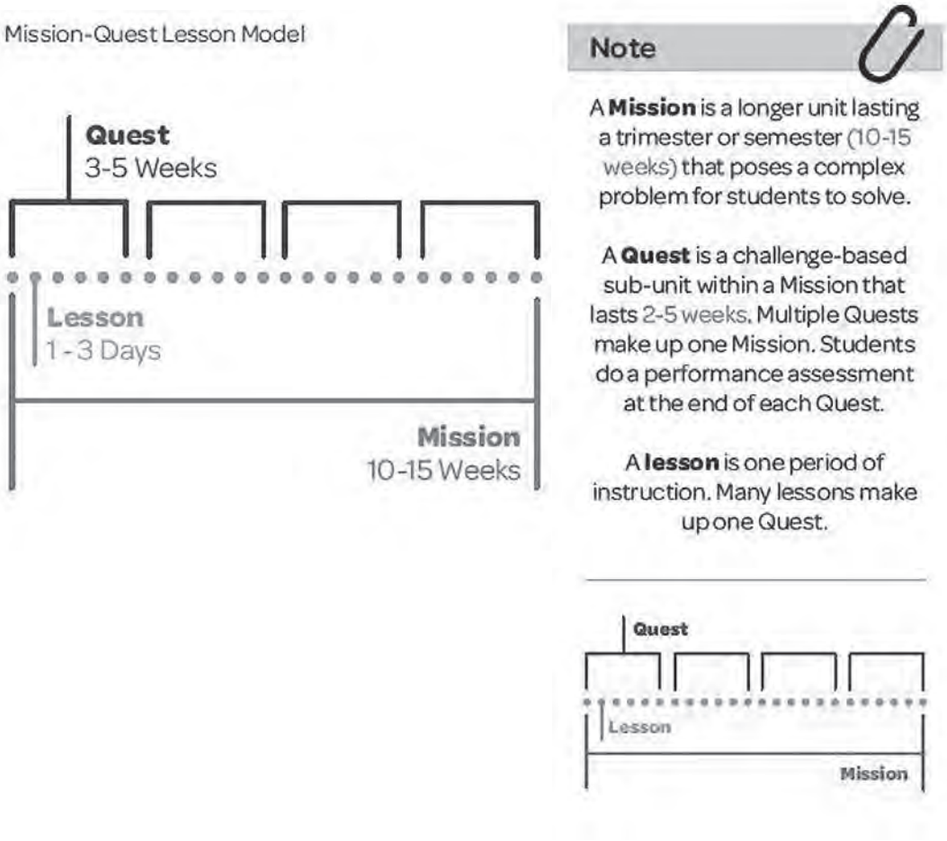
Feedback is immediate and ongoing
Students receive ongoing feedback on their progress against learning and assessment goals.

Failure is reframed as iteration
Opportunities exist for students and teachers to learn through failure. All learning experiences should embrace a process of testing and iteration.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Students can share their work, skill, and knowledge with others across networks, groups, and communities.

It kind of feels like play
Learning experiences are engaging, learner-centered, and organized to support inquiry and creativity.

2. 미션과 퀘스트, 레슨의 개념을 확인하고 교육 과정을 각 개념에 맞게 구성해 보자.



Note

A **Mission** is a longer unit lasting a trimester or semester (10-15 weeks) that poses a complex problem for students to solve.

A **Quest** is a challenge-based sub-unit within a Mission that lasts 2-5 weeks. Multiple Quests make up one Mission. Students do a performance assessment at the end of each 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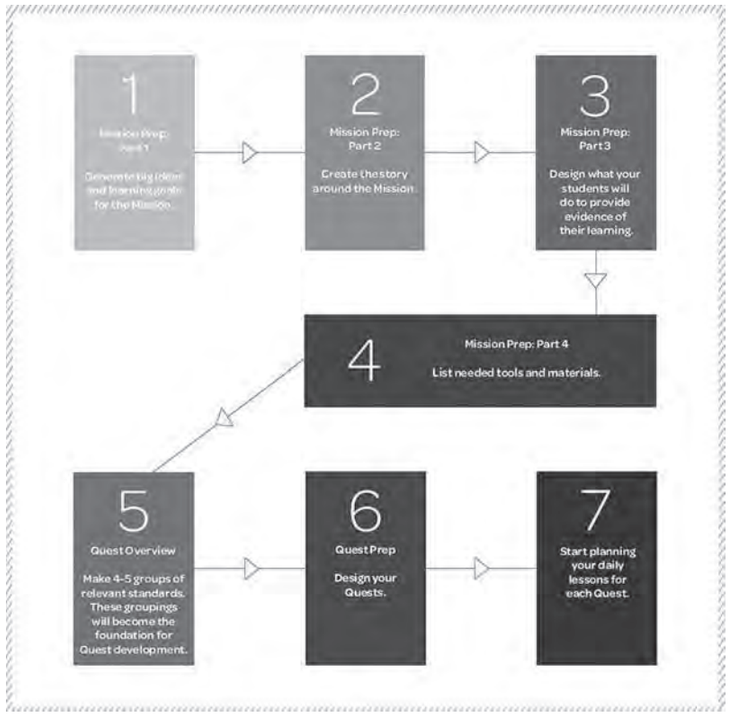
A **lesson** is one period of instruction. Many lessons make up one Quest.

게임 같은 학습은 3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가장 상위 개념은 미션이다. 10-15주 정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미션이 되겠다. 미션은 몇 개의 하부 단위인 퀘스트로 이뤄지는데 2-5주 지속되는 단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퀘스트는 다시 몇 개의 레슨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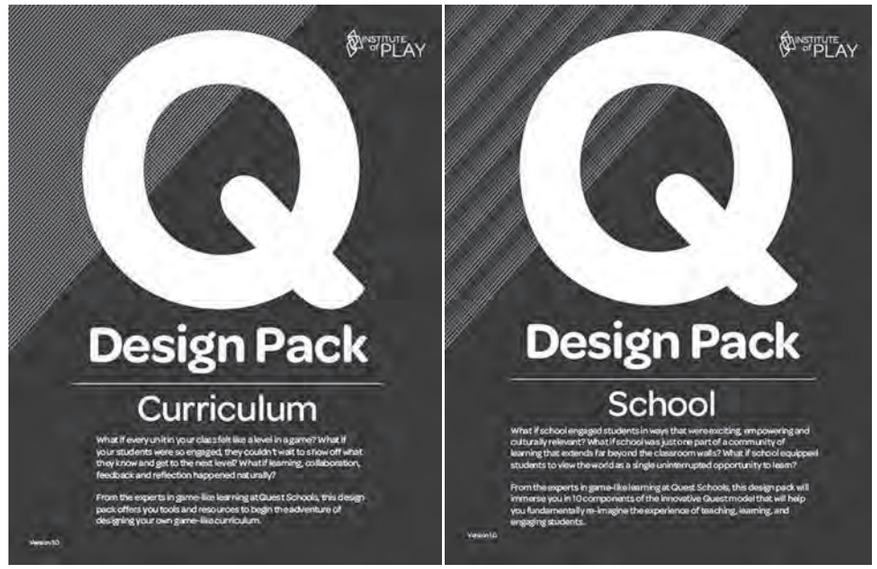
3. 게임 같은 학습을 디자인 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각 단계별 시트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작성해보자.

미션과 퀘스트, 레슨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7단계의 과정이 게임 같은 학습을 디자인하는 과정이 된다.

가장 먼저 미션을 설정하고 이 미션을 준비하기 위해 1. 학습을 위한 목표와 큰 틀의 아이디어를 고안, 2. 미션을 둘러싼 스토리 생성, 3.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설계, 4. 필요한 도구와 재료 목록 작성의 순서로 미션을 준비한다. 그 다음으로는 5. 퀘스트를 설정한다. 관련된 기준들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퀘스트를 개발한 후, 6. 퀘스트의 세부 내용을 준비한다. 그리고 7. 그 퀘스트를 다시 매일 진행될 레슨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완성된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놀이 연구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가 시도한 경험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경험에 대한 댓글 공유도 언제든 환영이다.



→ 놀이연구소 자료: (출처:http://www.instituteofplay.org/work/projects/q-design-packs/)

글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인간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SOLE Self-Organized Learning Environment
자기조직 학습 환경

무지한 스승

"나는 신이 '혼자서 스승 없이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는 인간 영혼'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 조제프 자코토(Joseph Jacotot, 1770~1840, 프랑스 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1940~, 프랑스 철학자)의 책 『무지한 스승』은 조제프 자코토의 사례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코토는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네덜란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는 프랑스어-네덜란드어 대역판으로 된 책 한 권을 건네주고 학생 스스로 언어를 터득하고 사고하도록 이끈다. 우연히 시작된 이 실험은 기대 이상이었다.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한 바를 프랑스어로 써보라고 했다. 학생들의 프랑스어 구사 수준은 놀랍게도 거의 작가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다.

자코토는 이 실험을 통해, 학생을 해방한다면, 즉 학생이 그의 고유한 지능을 쓰도록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은 학생의 지능이 쉼 없이 자발적 의지를 통해 실행되도록 강제하는 자라고 말한다.

능동적 앎에 대한 자코토의 발견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증명해 낸 사례가 있다. 단, 자코토의 실험과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와 함께 배울 때 더 잘 배운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그리고 함께 배우는 아이들

수가타 미트라Sugata Mitra는 영국 뉴캐슬대학의 교육공학 교수로 'Self-Organized Learning Environment(이하 SOLE), 즉 자기조직 학습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2013년 테드 상TED Prize을 수상했다. SOLE은 전통적 교육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문제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협조해가며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학습 방식이다. 이 때 선생님의 역할은 탑다운top-down식 가르침이 아닌 격려와 감탄을 해 주는 것이다.

SOLE이라는 개념은 1990년 후반 미트라 교수의 '벽에 난 구멍Hole in the wall' 실험에서 태동되었다.

→
미트라 교수의 '벽에 난 구멍(Hole in the wall)'관련 2012년 테드 강연 영상 (출처: http://www.ted.com/talks/sugata_mitra_the_child_driven_education.html)

미트라 교수가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 사용하느라 애를 먹고 있을 때 그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그의 6살 난 아들이었다. 미트라 교수는 그의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친구들의 아들들도 모두 그의 아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도 출신인 미트라 교수는 인도 뉴델리 빈민가의 아이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신과 자기 친구들의 아들들만 예외적으로 똑똑하고 인도 빈민가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미트라 교수는 뉴델리 빈민가 벽에 구멍을 파고 컴퓨터Hole in the wall를 설치해 그 곳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다. 얼마 후 그 곳 아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영어로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컴퓨터도, 그리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는데 말이다. 뉴델리가 도시라 주위에 누군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외지고 고립된 시골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심지어 한 아이는 좀 더 빠른 속도의 컴퓨터와 좀 더 성능 좋은 마우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정도다.

→
미트라 교수의 '벽에 난 구멍 (Hole in the wall)' 실험 모습(출처: SOLE Toolkit)

미트라 교수의 도전은 인도,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에서 계속되었다. 2002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한 그룹의 아이들은 말을 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받았다. 처음에 아이들의 강한 억양 때문에 컴퓨터가 아이들의 말을 받아 쓸 수 없었지만, 미트라 교수는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자신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알아내도록 격려했다. 두 달 뒤 아이들은 중립적인 영국 억양을 갖게 되었고, 그 중 한 여학생은 교환통신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7년 인도 남부 칼리쿠팜에서는 12살짜리 아이들이 컴퓨터로 DNA복제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지 실험했다. 이 실험에서 미트라 교수는 DNA복제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22세 여자 회계사에게 아이들의 뒤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 주는 역할을 맡겼다. 미트라 교수는 그것을 '할머니 방식'이라고 한다. "할머니 방식으로 하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 내면 '어머, 와! 어떻게 그걸 했니? 다음 페이지는 뭐지? 내가 너만 한 나이였을 땐 그걸 못했을 거야'라고 말해 주세요." 이 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이해 수준이 50% 상승되었다.

SOLE, 스스로 학습 환경을 조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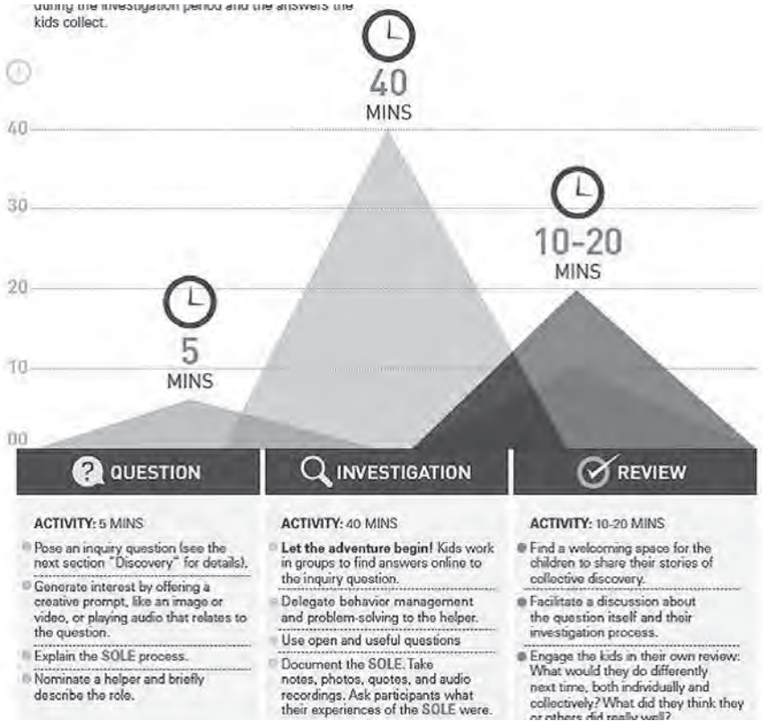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미트라 교수는, 아이들은 그룹 활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 배움을 설계하여 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성인의 역할은 단지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SOLE 개념을 정립했다.

SOLE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미트라 교수는 'SOLE Toolkit(툴킷)'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자기조직학습환경Self Organized Learning Environment'을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본 개념, 설계 및 운영 방법, 문제해결 팁, 우수 사례 등을 친절하게 담고 있다. 다음 웹페이지에서 SOLE Toolkit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ted.com/pages/sole_toolkit

SOLE을 구축할 때 가장 핵심은 '위대한 질문Big Question'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SOLE 과정은 크게 세 부분, 질문Question → 탐구Investigation → 검토Review로 나뉘는데, 처음 5분은 탐구적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다음 40분 동안 학생들은 그룹 활동을 통해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다. 이 때 선생님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도우미'를 정해 학생들의 행동관리와 문제해결을 위임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문제해결활동은 노트, 사진, 인용구, 오디오 녹음 등을 통해 문서화하도록 한다. 마지막 10-20분 동안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발견한 답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생님은 질문 자체와 조사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협동적으로 활동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한다. SOLE 과정별 시간 배분은 질문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미트라 교수는 테드 상금으로 받은 백만 달러(약 11억 원)로 인도에 학습실험실learning laboratory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는 SOLE 개념에 기반하고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이 곳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이버카페safe cyber café'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SOLE 진행 과정 예시: Question(질문) →Investigation(탐구) →Review(검토) (출처: SOLE Toolkit)

→
미트라 교수의 2013 테드 상 수상 강연 (출처:http://www.ted.com/talks/sugata_mitra_build_a_school_in_the_cloud.html)

할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

미트라 교수는 전통적 교육 시스템이, 영국이 식민 제국 시절에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개발한 교육 방법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즉, 원활한 관료주의적 행정과 표준화된 생산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인력 부품을 양성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서로 똑같은 방식으로 읽고, 쓰고, 셈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학습에 있어 컴퓨터의 역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미트라 교수는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머니'의 존재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미트라 교수는 수백 명의 영국 할머니들을 자원활동가로 활용하여 전 세계 SOLE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이들은 주로 퇴직한 선생님들인데, SOLE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전통적 선생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인터넷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 주는 것이다. 전통적 교육 방식은 시험과 처벌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두뇌가 작동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움에 굴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할머니 방식인 격려와 감탄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미트라 교수의 주장은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 환경 하에서 그들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생님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SOLE 시스템이 정규 학교 교육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인간정신의 힘을 믿을 수 있는 용기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간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있어, 표준화된 생산과 관료주의적 행정에 적합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개발된 전통적 교육 방식은 그 유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인간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해 본 기억이 없어서일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자율적 배움을 허용할 자신이 없다. 선생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학생들은 그저 꾸역꾸역 받아먹고 기계적으로 저장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는 자율적 학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규율과 복종에 근거한 수동적 학습에 많은 부분 얽매여 있는 듯하다.

배움이란 학습자의 자기 동력을 원천으로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위의 사례들이 우리 스스로 이 묶인 사슬을 풀고 해방되어 진정한 배움의 기쁨과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참고자료

- 테드TED의 수가타 미트라 사이트 http://www.ted.com/pages/prizewinner_sugata_mitra
- 「선생님이 없어야 학생들이 더 빨리 배울 수 있다?What if students learn faster without teachers?」, CNN기사, http://edition.cnn.com/2013/02/27/opinion/ted-prize-students-teach-themselves/
- 「SOLE을 통해서 본 미래 교육의 비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웹진, http://210.93.97.138/edutech/2185
- 책 〈무지한 스승〉에 대한 소개 글
  - 네이버 책 정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5235133
  -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91831575

트레이드 스쿨
Trade School

물물교환으로 운영되는 학교.
트레이드스쿨은 소위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다.
무엇이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때 수업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함께 작성한다.

수업료, 돈으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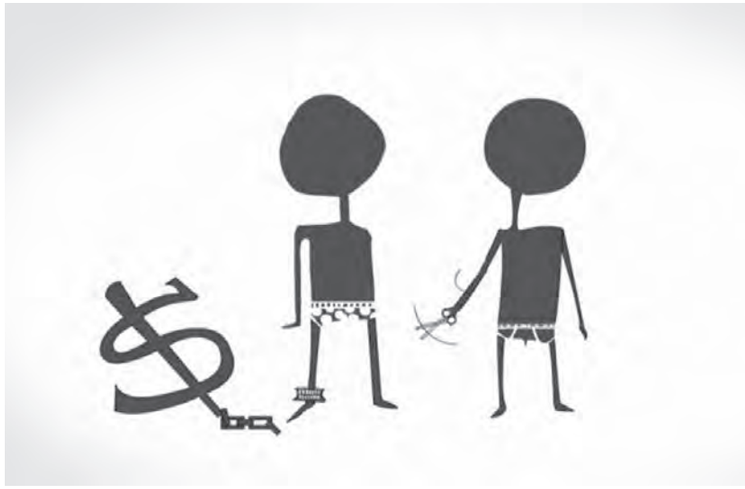
Trade School(이하 트레이드스쿨)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강사를 위해 특별한 수업료를 준비해야 한다. '나는 왜 비이성적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A씨가 학생들에게 수업료로 요청한 것은 2가지 아이디어다. 지난 2주 동안의 결정 중 잘한 결정 한 가지, 그리고 과거 5년을 돌아봤을 때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결정 한 가지. 한편, '예술가를 위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강사 B씨가 수업료로 받고 싶은 것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조언이나 돈이 무한정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림의 떡 같은 아이디어다. 트레이드스쿨에서의 수업 진행이 처음이 아닌 B씨는 트위터 개인지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법, 록밴드 추천 등을 수업료로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트롬본으로 연주하는 세레나데, 치즈 한 덩어리, 양말 한 켤레, 초콜릿 등을 수업료로 희망한 강사들도 있다.

트레이드스쿨은 소위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다. 무엇이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때 수업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함께 작성한다. 강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물건이나 아이디어, 경험 등 무엇이든 수업료로 가능하다. 돈만 제외하고 말이다. 수업의 주제는 뜨개질, 인물 사진 찍기 등과 같은 구체적 활동에서부터 백일몽이란, 유령 사냥의 기초 등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도 포함한다.

화폐교환에서 느낄 수 없는 물물교환의 맛

3명의 상상력으로 2010년 뉴욕의 한 상점에 딸린 작은 공간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된 트레이드스쿨은 기대와 달리 큰 히트를 쳤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 10개국 15개 도시로 퍼져 나갔다. 돈이면 다 되는 화폐 만능의 시대에 물물교환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학교라니… 트레이드스쿨에 참석한 한 강사는 물물교환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람에 대한 선의와 호의,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저녁 식사에 초대한 친구가 식사 후 돈을 내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덧붙인다.

수업에 참석한 한 참가자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트레이드스쿨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관심사가 비슷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업료를 내는 느낌이 참 좋아요. 사실 수업료가 15달러였다면 신청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강사님을 위해 벨기에산 고급 맥주 한 병을 가져올 용의는 충분히 있었죠. 사실 트레이드스쿨을 통해 제가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것도 기꺼이 가져올 수 있어요."



(출처: http://youtu.be/AzLKikpF6-E) →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

트레이드스쿨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학교다. 트레이드스쿨이 진지하고도 엄격히 지켜가고자 하는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트레이드스쿨은 강사와 학생 간의 물물교환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이다.
- 트레이드스쿨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비금전적 가치의 힘을 믿는다.
-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적 기술, 경험적 지식에 동등한 가치를 매긴다.
- 누구나 뭔가 제공할 것을 가지고 있다.
- 우리는 사람과 아이디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 트레이드스쿨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 우리는 책임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권력의 축적을 경계한다.
- 우리는 강압이 아닌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
- 트레이드스쿨은 항상 학습하고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조직이다.

사실 원칙을 세우기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엄격히 지켜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 물물교환 등의 가치에 영감을 받아 트레이드스쿨을 처음 시작했던 3명의 설립자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개인적 자원으로만 소유하기 보다는 그들의 가치에 공감하여 해당 지역에서 트레이드스쿨을 시작해 보고 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해 낸 보물 같은 보고서는 http://tradeschool.coop/start-a-tradeschoo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트레이드스쿨의 원칙에 맞도록 해결하고자 애쓰며 몸과 마음으로 용기 있게 터득해 낸 몇 가지 실천적 노하우를 소개한다.

- **강사 선정의 문제**

: 트레이드스쿨은 강사를 선정하지 않는다. 강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 99%가 수업으로 채택된다. 제안된 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드백을 제공하고 강사들과 협조하여 수업 내용을 개선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고 믿으며, 특정 그룹이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다.

- **다양성 확보의 문제**

: 트레이드스쿨의 수업에 동질적 사람들, 예를 들어 소위 '교육받은 백인 예술가'만이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한다. 트레이드스쿨이 진정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레이드스쿨은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단체와 네트워킹 하며 좀 더 광범위하게 열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스쿨이 지향하는 가치는 상호존중의 문화이며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에 맞설 때만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강사의 희망목록**

: 이따금 강사 중에 받고 싶은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둥, 뭔가를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둥, 돈으로 달라는 둥의 여러 이유로 말이다. 이럴 때는 다른 강사들의 희망목록을 예시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강사가 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수업 후 청소를 돕게 한다든지, 수업 운영을 돕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물교환의 장으로 꼭 끌어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드스쿨은 교환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 **공간 확보의 문제**

: 2010년에는 설립 멤버 중 한 명이 디자인 작업을 해주고 물물교환으로 상점에 딸린 작은 공간에 대한 한달 사용권을 받아 교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물물교환을 통한 공간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간을 임대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금도 받게 되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다시는 이런 큰 금액을 부탁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공간 확보 경험을 통해, 심지어 뉴욕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비어있는 작은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 또한 남는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잉여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2년에는 어떤 문화 단체의 공간 기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트레이드스쿨에 대한 입소문이 나서인지 무료로 공간 사용을 제안하는 단체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안을 무조건 수락하지는 않는다. 공간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될 때만 수락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드스쿨은 상호존중과 호혜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이다.

- 웹사이트 구축의 문제

: 각자의 지역에서 트레이드스쿨을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보고서의 '5.The Software' 섹션을 참조하시길.

관계 맺기의 연습이 필요한 시간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려 든다. 모든 것을 돈벌이로 둔갑시켜 상품화하는 시대. 이제는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만 한다. 사실 주고 받을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괜히 아쉬운 소리 할 일도, 감정을 소비할 일도 없다. 소위 '쿨'한 관계다. 이러한 관계는 말이 좋아 관계지 사실 관계의 단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 헛헛한 감정을 채워보기 위해 우리는 지갑을 활짝 열고 소유를 위한 소비에 열을 올린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얽히고설킨 관계를 절단 내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법.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연습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에게 트레이드스쿨은 훌륭한 훈련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과도한 해석일까?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언신투어즈 Unseen Tours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역사적인 명소나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둘러보는 일반적 관광 상품과는 달리 노숙인의 눈에 비친 런던 거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경험담과 함께 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여행이다.

노숙인이 인솔하는 듣도 보도 못한 여행

언신투어즈는 노숙인이 인솔하는 런던 도보 탐방 프로그램이다. 역사적인 명소나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둘러보는 일반적 관광 상품과는 달리 노숙인의 눈에 비친 런던 거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경험담과 함께 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여행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진진한 런던의 길거리 역사와 소외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대안적 컨셉의 언신투어즈는 2010년 8월 〈사크 마브 이벤츠Sock Mob Events〉라는 사회적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크 마브 이벤츠〉는 〈더 사크 마브The Sock Mob〉라는 자발적 시민 모임에 의해 설립되었다. 〈더 사크 마브〉는 노숙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줄여 소외된 소수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약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노숙인과 말문을 트기 위해 양말이나 음식 등을 가져온 것에서 '사크(Sock, 양말) 마브(Mob, 사람들의 무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모임은 인터넷을 통해 약 400명의 자발적 시민 네트워크로 확대되었고, 이 모임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언리미티드UnLtd〉라는 사회적기

업 지원 단체로부터 4만 파운드(약 7천만 원)의 후원을 받아 〈사크 마브 이벤츠〉라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언신투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언신투어즈와는 별도로 〈더 사크 마브〉는 자발적 시민 모임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임 만들기 온라인 사이트인 〈Meetup(http://www.meetup.com/thesockmob/)〉에서 신청 가능하다.

↖↑
'이전에 못 봤던 투어'라는 손팻말을 들고 관광객을 기다리는 노숙인 가이드(좌)
잘 알려지지 않은 런던 뒷골목을 탐방하는 모습(우)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언신투어즈

언신투어즈는 금요일에는 오후 7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시작된다. 투어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지만, 참가자들의 질문이 계속되거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기도 한다. 금요일 투어는 사전 예약이 필수며, 토요일과 일요일 투어는 사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5명 이상의 그룹이 주중에 신청하는 경우 그들만을 위한 투어 예약도 가능하다. 투어 예약은 https://www.sockmobevents.com 에서 가능하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각 투어마다 2명의 여유분을 남겨둔다는 점이다. 투어 요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 투어에 참여하는 노인이나 환자의 보호자 등이 무료로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투어 요금은 일반적으로 10파운드(약 1만7천원)이며,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7파운드(약 1만2천원)다. 티켓 판매액의 약 80%가 노숙인 가이드에게 돌아간다. 60%는 투어 가이드에 대한 수고비인데 노숙인의 선택에 따라 매주 또는 매월 지급되고, 20%는 교통비와 통신비로 지급된다. 나머지 20%는 보험료, 마케팅 비용, 자원활동가의 식비 및 교통비 등 단체 운영을 위해 쓰인다. 또한 노숙인에게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즉, 언신투어즈의 대부분의 수익금은 노숙인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립을 돕기 위해 쓰인다고 보면 된다.

거리의 시민이 들려주는 6인 6색 런던 이야기

언신투어즈의 런던 여행 코스는 모두 다섯 구역으로 나뉜다. 템스강변 골목 구석구석을 훑는 런던 브리지London Bridge 투어, 이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쇼디치Shoreditch 투어, 거리의 예술가들로 북적대는 코번트 가든Covent Garden 투어, 거리 상점이 밀집된 다민족 커뮤니티인 브릭스톤Brixton 투어, 빈티지숍 및 벼룩시장으로 유명한 브릭레인Brick Lane 투어. 이 투어의 가이드를 맡은 사람들은 헤이즐Hazel, 헨리Henri, 비브Viv, 리즈Liz, 비니Vinny, 잔John 이렇게 6명이다. 이들은 현재 노숙인이거나 이전에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각자 주로 거주하는 구역에 대한 가이드를 맡고 있다. 언신투어즈 사이트의 '미트 더 가이즈Meet the Guides' 메뉴를 클릭하면 가이드 각자의 자기 소개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sockmobevents.org.uk/meet-the-guides

이 6명은 가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자원활동가로부터 투어 가이드를 위한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단순히 가이드를 위해 필요한 내용 암기 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괴로움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의 관계 형성을 더 중요시 했다. 자원활동가가 노숙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노숙인은 투어 가이드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원활동가는 노숙인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는 노숙인 가이드가 단순히 신기한 구경의 대상으로 투어 참가자들에게 비춰지기 보다는 사회에 공헌하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관계의 연습을 통해 노숙인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투어 가이드로서의 책임감도 키울 수 있었다.

언신투어즈의 6명의 노숙인 가이드

여기 6명의 노숙인(현재 또는 예전에 노숙인이었던) 가이드들의 자기 소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투어 가이드로서의 활동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런던 거리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또한, 투어 가이드로 나선 이후에 노숙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수입이 늘어 주거 환경이 나아지기도 하고, 저널리즘을 공부해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시를 쓰는 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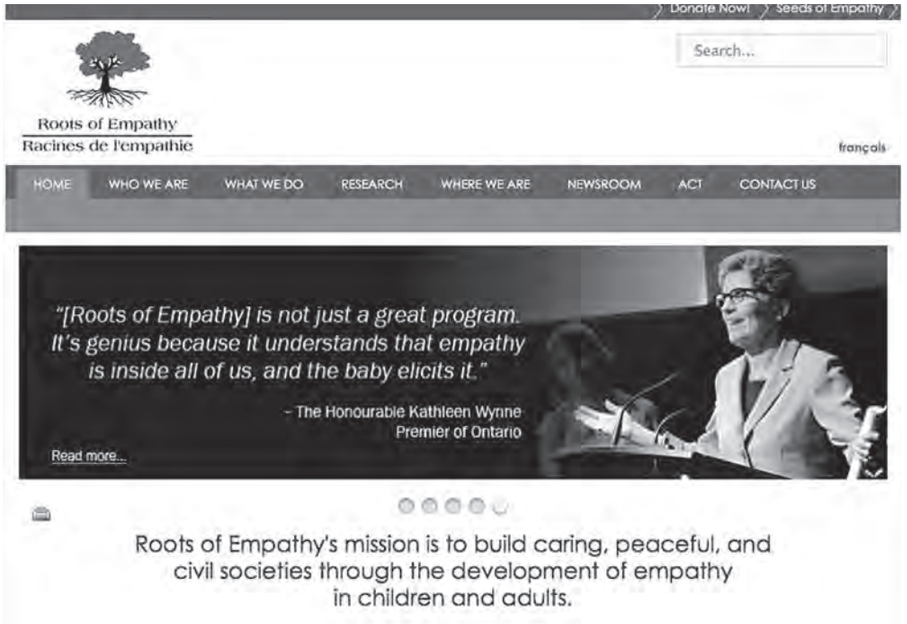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정말로

그 누구보다 런던 거리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런던의 노숙인들. 그래서인지 노숙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재편된 런던의 모습을 경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언신투어즈를 신청한다. 매년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런던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의 신청도 많지만,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런던 거리의 속살이 궁금한 영국 사람의 신청 비중이 더 크다. 런던 거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노숙인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지리학과 대학 교수가 투어에 신청하는 일도 종종 있다. 또한 호주, 루마니아, 싱가포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폴란드, 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언신투어즈를 벤치마킹하고자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노숙인은 환영 받는 존재가 아니다. 함께 있기 보다는 피하고 싶은 존재다. 아무 것도 가진 것도, 나눌 것도 없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이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다. 참 아이러니하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말을 그저 상징적 구호쯤으로 여겼었는데, 언신투어즈는 그 말을 현실에서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언신투어즈는 우리의 두터운 편견과 선입관을 한 꺼풀 걷어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Roots of Empathy
공감의 뿌리



↑
공감의 뿌리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출처:http://www.rootsofempathy.org/en/)

다음 세대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에서도 사람들간의 관계는 여전히 주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 관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든 아니든, 또 다른 기술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든,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할 것이다. '소통'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에 대한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자라나는 세대가 소통을 잘 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교육은 '공감'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갖는 혁신적인 힘은 2010년 국내에 소개되었던 캐나다 교육운동가 메리 고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엄마가 이뤄낸 '공감 교육'. 메리 고든이 1996년 설립한 단체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통해 서로 돌보며 평화로운 시민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다음 세대가 책임 있는 시민의식Responsible Citizenship과 아이의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양육Responsive Parenting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괴롭힘이나 폭력의 정도를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향상하여 공감의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다. 메리 고든은 "교육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평화 구축 기관"이라고 말한다.

↑
공감의 씨앗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출처:http://www.seedsofempathy.org)

아기와 부모 + 훈련된 강사 + 교실과 학생들 = 공감

〈공감의 뿌리〉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단체의 이름과 같은 '공감의 뿌리'라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의 씨앗'이라는 프로그램이다. '공감의 뿌리'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며, '공감의 씨앗'은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1년간 3주마다 영아와 그 부모가 한 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있다. 공감의 뿌리에서 훈련을 받은 강사는 가족이 방문하기 전, 가족 방문 시, 가족 방문 후의 3단계로 구분되어 9개의 주제를 가지고 총 27번 교실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만난다. 가족이 방문하기 전 학생들은 훈련된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소그룹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읽는 것에 대해 학습하고 아기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등 아기가 방문하는 것을 준비한다. 가족이 방문하는 3주차에 아기와 아이 부모님은 30분에서 한시간 가량 함께 하는데, 이때 공감의 뿌리 강사는 학생들에게 아기의 발달 과정과 성장에 대해 관찰하도록 조언을 주며 아기의 감정에 대해 설명 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업에서 아기는 선생님이자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여 반응하도록 돕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공감의 뿌리는 이것을 정서적 리터러시Emotional Literacy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읽어내고 타인의 감정을 보다 잘 읽어내는 경험을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아이들의 경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줄어든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사랑은 두뇌를 성장시킵니다.

학생들은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이 두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아이의 발달 과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두뇌의 발달 과정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아이의 두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다른 입장과 관점에 대한 차이를 받아들이게 되며, 사람마다 다양한 기질이 있다는 것도 습득하게 된다.

공감의 뿌리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12가지 정도의 새로운 인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 리터러시, 다양한 관점과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 두뇌 발달에 대한 이해, 10대 임신 예방, 기질에 대한 이해,

조화를 이루기, 남성성에 대한 양육,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차이에 대한 이해, 영아의 발달과 안전에 대한 이해, 폭력에 대한 예방 이다.

존중과 공감의 태도를 지닌 훈련된 강사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공감의 뿌리를 통해 훈련을 받는다. 강사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해주는 가족과 친밀하게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을 전공한 사람, 의학을 전공한 사람, 사회복지나 상담,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은퇴한 교육감, 경찰관 등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강사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자. 강사는 1) 교실 안에서 전문가답게 활동해야하며, 2) 학교 교사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3) 교실과 학교에 존재하는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4) 참여하는 가족의 문화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야하며, 5) 아기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해하고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6) 공감의 뿌리 교육이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공감을 마스터하는 날을 상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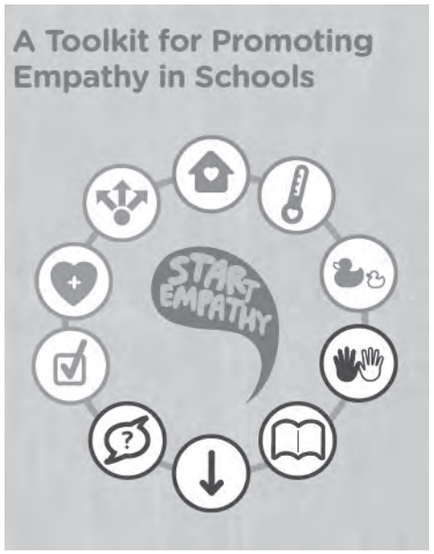
공감 교육이 시사하는 바와 가지는 유익성이 분명한데, 이를 내가 속해있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학교에서의 공감 교육의 중요성과 성과가 드러나면서 공감 교육이 많은 학교

에 적용되는 것을 돕기 위해 아쇼카에서는 "스타트 앰퍼시Start Empathy"라는 일종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쇼카 펠로우와 교육영역 파트너들과 함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툴킷을 마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에게 공감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어디서부터 공감 교육을 시작할지 모를 교육자들에게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툴킷 소개 페이지: http://startempathy.org/blog/2013/03/what-works-road-map-unleashing-empathy-schools)

툴킷은 3단계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단계는 바로 준비단계, 참여단계, 적용 및 실행 단계이다. 10개의 항목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정서적인 역량 향상하기, 사례로 이끌기, 그룹 놀이, 스토리텔링,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입해보기, 집단적 문제 해결, 공유가치와 차이점 발견하기, 지속적인 장려, 행동으로 옮기기'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툴킷은 공감 교육으로 향하는 사전 준비단계에서 공감이 활발히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고 주문한다.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신뢰에 기반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숨겨져있던 공감을 끄집어 내는데에 핵심이다. 또한 공감은 고립된 상황에서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교사나 교장선생님, 부모나 친구들에 의해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사전 준비단계의 마지막 요소는 각자의 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 단계에서는 그룹 놀이, 스토리텔링,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입해보기, 문제 해결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공감을 육성하는데에 한가지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야 한다. 공감은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한 놀이터에서 시작되므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형성하고 다듬어갈 수 있는 그룹 놀이가 유효하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자신을 대입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게 함으로써 함께 성취를 맛보게 하고 이를 통해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적용과 실행 단계에서는 공유 가치와 차이점에 대해 발견하기, 지속적인 장려, 행동으로 옮기기의 3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공감은 타인에게서 공유된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 뿐 아니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예상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개개인이 친사회적 행동과 태도들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마지막 요소로써 학생들에게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친사회적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폭력과 왕따 등 자라나는 세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교육의 미래에 '공감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교감과 상호 이해, 돌봄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인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져가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과 실험의 사례들도 더 많아지기를.

글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프로젝트 담당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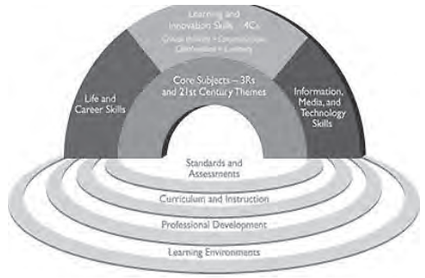
21세기는 세계화의 확산, 정보통신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디지털화, 복잡성, 상호의존성, 급속한 변화의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지식·네트워크 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에 따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국제기구, 컨소시엄 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의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는 미국의 교육실천가, 대학교,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형성한 컨소시엄으로, 2004년부터 21세기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필수 역량은 기초 과목과 21세기 학제간 주제 관련 역량Core Subjects and 21st Century Themes를 기초 역량으로 하고 학습 및 혁신 역량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정보, 미디어, 기술 역량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생애 및 경력 개발 역량Life and Career Skills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4대 역량 영역들은 각각 하위 역량 요소들을 포함한다. 또한 단순히 필요 역량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 즉 평가시스템Standards and Assessments, 교수-학습 활동Curriculum and Instruction, 교원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교육 환경Learning Environment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의 이러한 역량 프레임워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가 제시하는 4대 역량 영역별 하위 역량 요소도 참고로 함께 소개한다. 4대 역량 영역 및 하위 역량 요소에 대한 상세 정의 및 관련 참조 자료는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_Definitions.pdf 또는 http://www.p21.org/over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의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요소(무지개 부분)와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아래 부분)으로 구성 (출처: http://www.p21.org/)

Ⅰ. 기초 과목과 21세기 학제간 주제 관련 역량 Core Subjects and 21st Century Themes

- **기초 과목**

  ①국어English, reading or language arts ②외국어World languages ③예술Arts ④수학Mathematics ⑤경제학Economics ⑥과학Science ⑦지리학Geography ⑧역사History ⑨사회 및 윤리Government and Civics

- **21세기 학제 간 주제**

  ①세계화 이해Global awareness ②금융, 경제, 경영, 창업 관련 문해력Financial, economic, business and entrepreneurial literacy ③시민사회 관련 문해력Civic literacy ④건강 관련 문해력Health literacy ⑤환경 관련 문해력Environmental literacy

Ⅱ. 학습 및 혁신 역량 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①창의 및 혁신 능력Creativity and Innovation

②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③소통 및 협업 능력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Ⅲ. 정보·미디어·테크놀로지 역량 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①정보 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②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

③ICT 문해력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Literacy

Ⅳ. 생애 및 경력 개발 역량 Life and Career Skills

①유연성 및 적응성Flexibility & Adaptability

②진취성 및 자기주도성Initiative & Self-direction

③사회성 및 다문화성Social & Cross-cultural skills

④성과창출 및 책임감Productivity & Accountability

⑤리더십 및 책무성Leadership & Responsibility

〈유럽연합(EU)〉의 '유러피언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The European Framework for Key Competences'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러피언 커미션European Commission〉은 교육 제분야의 이론가, 실천가들과 함께 유럽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 역량을 연구하여 2006년 말에 발표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핵심 역량은 8개이다.

①모국어 활용 의사소통Communication in the mother tongue

②외국어 활용 의사소통Communication in foreign languages

③수학 역량과 과학 및 기술에서의 기본 역량Mathematical competence and basic compete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④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⑤학습력Learning to learn

⑥사회적 및 시민적 능력Social and civic competences

⑦기업가 정신Sense of initiative and entrepreneurship

⑧문화적 인식과 표현Cultural awareness and expression

이 역량들은 서로 독립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려 있다. 특히 언어, 수리 및 디지털 관련 역량은 모든 배움에 있어 기초가 되는 역량이며, 학습력은 제반 학습 활동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반이 되는 역량이다. 각 역량에 대한 상세 정의는 http://ec.europa.eu/dgs/education_culture/publ/pdf/ll-learning/keycomp_en.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역량은 구체적인 하위 지식, 스킬, 태도 등으로 정의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이 공히 중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창의력Creativity
- 진취성 및 주도성Initiative
- 문제 해결력Problem-solving
- 위험 관리Risk assessment
- 의사 결정력Decision-taking
- 건설적 감정 관리Constructive management of feeling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미래사회 학습자의 핵심역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연구'를 위해 OECD, UNESCO,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이 제시한 학습자 역량 모델을 조사하였다.

→ 미래학습자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출처: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data/dt_research.jsp?bbsid=board01&gbn=view&gp=2&ps=10&sp=&sw=&ob=sor1&ix=21077&orderkey=2)

구분	학습내용
OECD CERI (DeSeCo, 2006)	•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 이질집단과 상호작용하기(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큰 맥락 안에서 행동하는 능력, 핵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능력, 권리, 이익, 한계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OECD 공동연구 (강명희외, 2007; 강명희, 2009)	• 인지적-이해수준(세계의 이해) : 수학, 과학, 탐구기술, 추론능력, 정보처리, 성찰적 사고 • 인지적 수행수준(세계에의 실천과 변화) : 도구활용, 자원활용, 판단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초인지 • 정의적-이해수준(자신의 이해) : 자기개념,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불확실성 포용, 에러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정의적-수행수준(자신의 실현) : 주의력, 정직, 책임감, 신뢰성, 몰입, 목표설정, 혁신 및 지속성 • 사회문화적-이해수준(공동체 참여가치 인식) : 언어, ICT활용, 의사소통기술, 다문화이해, 시민의식 • 사회문화적-수행수준(공동체내 참여 및 개선) : 차이에 대한 인정 및 존중, 공동체 의식, 팀웍, 리더십 • 〈IT활용 핵심 역량〉 • 인지적 영역(정보수집, 지식구성, 지식활용, 문제해결) • 정의적 영역(자기정체성, 자기가치관, 자기주도성, 자기책무성) • 사회문화적 영역(사회문화적 소속감, 사회문화적 수용성, 사회화능력, 사회적실천력)

구분	학습내용
ATCS (Binkley et al., 2010)	• 생각하는 방법(창조성 및 혁신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메타인지) • 일하는 방법(의사소통, 협력(팀웍)) • 일을 위한 도구사용(정보 리터리시, ICT 리터러시) • 세계시민으로의 삶(로컬-글로컬 시민의식, 일과 직업,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UNESCO (Farstad, 2004)	• 언어숙달하기, 타인과 함께 일하기, 문제해결력, 수리력,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 ICT 활용능력, 학습역량
ALL(2005)	• 독해력, 문서이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ICT 활용능력
Gordon Row-land(2004)	• 판단력, 창의력, 구성력, 주의력, 모호함에 대한 포용성, 에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서비스와 책임감, 체제적 사고
한국교육개발원(2004)	• 기초문해력(읽기, 쓰기, 셈하기) • 핵심능력(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시민의식(국가정체성,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책임의식, 정치 및 참여의식, 민주적 절차, 법) • 직업특수능력(산업별, 직종별 업무수행 능력)

본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다. 역량 별 상세 정의는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래 사회 학습자의 핵심역량 (출처: 상동)

역량 모델 정립을 통한 비전 제시가 필요한 때

지금까지 살펴본 역량 모델들을 보면, 21세기 지식·네트워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역량들이다. 먼저, 산업 사회 하의 기초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언어 및 수리력 외 정보통신 및 미디어 등 기술 관련 활용 능력이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초 역량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또 하나의 역량은 바로 학습력이다. 지식 및 스킬의 유효기간이 급속히 짧아지는 요즘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노동부가 최근에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생의 65%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고 한다. 진로 및 경력 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과 능력이 필요하고, 불변의 진리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창의성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세계화, 디질털화로 인해 국가, 사회, 조직, 개인 간 상호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는 네트워크 시대에 소통, 협력, 시민의식 등 사회적 역량도 강조되고 있다.

위에 소개한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나만의 역량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를 규명해 보는 작업은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자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목표를 명확히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체론적(holistic)인 역량 모델링을 통해 평생학습이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삶을 균형적으로 충만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네스타Nesta
사회적 의미까지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
네스타의 '10가지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디어' 관련 키워드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를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곧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물 주고받기.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선물 아이템을 결정하기란 적잖이 고민되는 일.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소개한다. 특히 사회적 의미까지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응용해 볼만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니 눈여겨보시길…

〈네스타Nesta〉라는 영국의 비영리 혁신 재단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네스타는 영국 사회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담론 및 방법론을 생산하고 동시에 참신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해 나가는 실천적 연구 단체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네스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상품 및 서비스 중 크리스마스 선물로 손색이 없는 아이템 10가지를 선별해 제안했다.

선물 하나. 아이들이 쓴 노랫말로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앨범

아이들이 만든 노래 앨범. 이 보다 더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을까? '셰어 모어 에어(Share More Air, 더 많은 선율을 나누세요)' http://www.ministryofstories.org/sharemoreair/는 8-13세 아이들 56명이 참여해 만든 노래 앨범이다. 아이들이 지은 노랫말에 전문 작곡가들이 멜로디를 붙였다. 이 앨범은 〈더 미니스트리 오브 스토리즈The Ministry of Stories〉 http://www.ministryofstories.org/라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창의적 글쓰기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예센터에서 만들었다. 이 센터는 지역 사회 내 작가, 예술가 및 교사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되는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하고, 국어 및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자존감 및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셰어 모어 에어' 앨범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이 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글쓰기 워크숍에 사용된다.

앨범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3Q0bnXaoUlg

→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share-more-air-album)

선물 둘. 어려운 이웃들과 크리스마스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특권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보통 많은 음식이 준비되기 마련이다.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버려지는 음식의 양도 줄이기 위해 〈푸드 사이클Food Cycle〉 http://foodcycle.org.uk/이라는 자선단체에서는 '밀즈 댓 매터(Meals that Mater, 의미 있는 한 끼)' http://foodcycle.org.uk/get-stuck-in/meals-that-matter/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음식을 마련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초대된 손님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기부금을 내는 것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푸드 사이클〉로 보내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 밀즈 댓 매터 프로젝트에 신청하면 프로젝트 취지, 레시피, 파티 진행 팁 등이 담긴 툴킷toolkit을 받을 수 있다. 단, 파티 음식 준비 시 유념할 점은 냉장고에 남아 있는 재료나 제철 먹거리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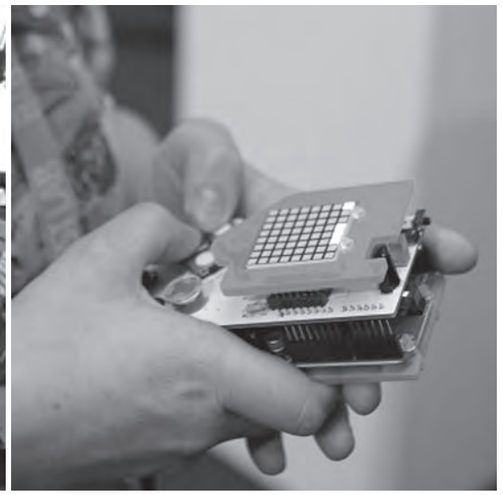
또한, 〈캐서롤 클럽(Casserole Club, 캐서롤은 오븐에 넣어서 천천히 익혀 만드는 요리로 한국의 찌개나 찜과 비슷한 음식)〉 http://www.casseroleclub.com/이라는 자선단체에 등록하면 이웃에 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당신이 요리한 크리스마스 음식을 나눠 줄 수도 있다.

←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donate-meal-christmas)

선물 셋. 이젠 사지 말고 빌려서 선물하세요

전기드릴이 필요한 아빠를 위해 또는 기타를 배워보고 싶어 하는 딸을 위해, 새 드릴이나 기타를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되는 경제위기 및 환경파괴의 시대에 맞서 빌려 쓰기 웹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웃 간 협동과 나눔의 전통을 되살려 개인적 과소비 및 자원낭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에코모도Ecomodo〉 http://ecomodo.com/, 〈스트리트 뱅크Street bank〉 http://www.streetbank.com/에 가면 필요한 물건을 빌릴 수 있다. 물건뿐 아니라 필요한 스킬을 빌릴 수도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김에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빌려주기 물품으로 등록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혹시 크리스마스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차나 버스 티켓을 선물하는 대신 카셰어링 티켓을 선물해보면 어떨까? 〈피플 후 셰어People Who Share〉 http://www.compareandshare.com/에서는 자동차를 공유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맺고, 친환경적이고, 여행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이다.



↑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borrow-gif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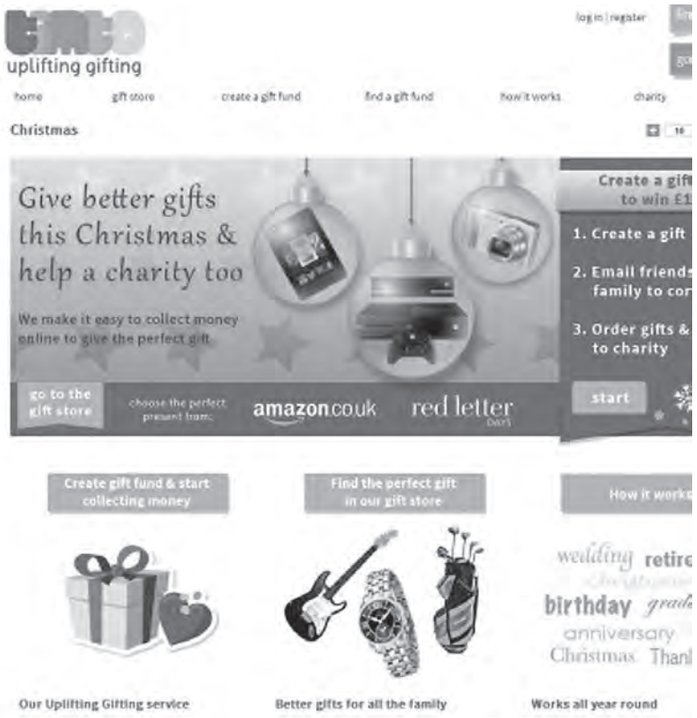
↗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don%E2%80%99t-just-buy-tech-build-it)

선물 넷. 소비의 즐거움이 아닌 만드는 즐거움을 선물한다

테크놀로지를 소비만 하지 말고 직접 제작해 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테크놀로지 윌 세이브 어스(Technology Will Save Us, 기술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http://technologywillsaveus.org/라는 단체는 DIY 조립용품세트를 제공한다. DIY세트에는 조립방법에 대한 설명서 및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전기,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배울 수 있다. 내 친구에게 스피커, 음성합성기, 휴대용 게임기 등을 직접 만들어 즐기는 기쁨을 선사해 보면 어떨까?

선물 다섯. 선물을 받는 기쁨 더하기 나눔의 기쁨

연말연시, 특히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때이다.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요즘 〈팀토Timto〉 https://www.timto.co.uk라는 단체에서 선물을 주고받



는 과정에 기부 단계를 추가해 나눔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다. 팀토 웹사이트에 들어가 선물을 받을 사람(본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그 사람에게 줄 선물 목록(아마존 등과 연계된 목록에서 선정함), 기부금을 보내고 싶은 자선 단체를 선택한다. 그 다음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그 선물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돈이 다 모아진 후, 전체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지정한 자선 단체로 보낼 것인지 결정한다. 특히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는 기쁨뿐 아니라 기부 문화와 나눔의 기쁨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share-your-christmas-list-and-give-back)

선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열

- 주변에 사회 혁신을 꿈꾸며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지인이 있다면, 네스타에서 발간한 〈크리에이티브 엔터프라이즈 툴킷Creative Enterprise Toolkit〉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듯하다.
- 런던에 있는 〈영국 국립극장The National Theater〉은 이 무대에서 공연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을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극을 영화로 제작해 지역 극장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연극 입문을 권유해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티켓이 안성맞춤일 듯하다.
-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까지 한 물건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게임을 통한 물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디자인된 설계도면의 직접 제작을 가능케 하는 3D프린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 자전거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사랑 받을 수 있는 선물 아이템. 바로 자전거 자물쇠. 영국에서는 2012년 한 해 약 50만 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자물쇠 제작 공모대회가 열렸다. 자물쇠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제작 비용, 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승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꼼꼼히 선정된 자전거 자물쇠, 완소 선물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 네스타가 개최한 미래 신소재 관련 컨퍼런스에서 빛을 발하는 페인트가 소개됐다. 가장 돋보이는 선물을 찾고 있다면, 이 반짝반짝 빛나는 발광 페인트를 사용해 나만의 크리스마스 카드나 공예품을 만들어 선물해 보면 어떨까? 선물 제작 시, 전기기술 및 관련 첨단기술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도 있다.

각 선물 아이디어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

→
(출처: http://www.nesta.org.uk/news/nestas-christmas-gift-list)

사회적 선물을 통한 관계의 질 향상하기

선물이란 보통 사적인 관계에서 호의나 호감의 표시로써 주고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에 소개된 선물처럼, 사회적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나눔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보는 건 어떨까?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고학력 시대, 무능력한 우리의 자화상

고학력, 고스펙의 시대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걸까? 〈나부터 교육혁명〉의 저자 강수돌 교수는 '숙련된 무능력skilled in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한다. 즉, 가방끈이 길수록 주체적인 삶의 능력이 도리어 오그라든다는 거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양한 '삶의 기술'들을 체득하지 못한 채 헛똑똑이 같은 삶을 영위하는 전문 기능인을 부르는 이름이란다.

오랜 시간 학교에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삶을 통찰할 능력도, 능동적으로 삶을 구성할 자신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진단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요즘 학생들은 어떤 대상의 맥락을 짚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대개 즉흥적이고 파편적인 단어와 구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중략) 시각의 폭주에 휘둘리다 보면 아주 짧은 단위로 명멸하는 스펙터클에만 길들여져 버린다. 장면들을 연결하는 내러티브의 능력은 점차 저하된다. (중략) 지식 검색과 프리젠테이션이 횡행하는 시대에는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진다. (중략) 전체적 맥락을 짚기보다는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감정의 적나라한 노출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 이 땅의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억압적이면서 소외된 계급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시를 위한 전쟁터에 내몰리고 거짓된 표상의 덫에 걸려 청춘을 다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 파울로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계발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가. 남이 얼마나 앞서 갈까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옥죄고, 결국 구성원 모두가 안달함을 미필적 고의로 전이하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사육'되길 바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 – 이계삼 외, 『교육: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안』

> 그저 학교에 십수 년간 붙잡아 놓고 공부로써 경쟁시켜 놓으면 십수 년 뒤에는 그들의 기대대로 '낮은 사고력과 쓸데없는 애국심'으로 치장한, 절대로 지배자에 맞서 단결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 – 조너선 코졸, 『교사로 산다는 것』

> 우리 시대의 대학은 놀라울 정도로 균질적이다. 모든 학문이 동일한 욕망과 비슷한 능력의 주체들을 생산해 낸다.
>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

> 내부에서 나오는 생명에의 호소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적 척도를 자신의 욕구로 내면화해서 그대로 투사하는 인정욕구의 길을 간다.
> – 고미숙,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한편, 다행히 목표가 있어 이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도 잦은 스트레스와 왠지 모를 공허감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 욕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기에 목표에 도달한다 해도 절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 끝없는 갈증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공허감만 기다리고 있을 뿐. (중략)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소모하는가? 단지 남과 같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불필요한 짐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청춘을, 아니 인생 전부를 온전히 탕진하고 있지 않은가? (중략) 삶의 행복이 경제적 안정만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경제적 자립은 삶에 대한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 고미숙,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한국 학생들. 하지만 시험 준비를 위

한 획일적, 경쟁적 교육의 결과는 내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성찰해 보지도 못한 채 자본의 욕구를 나의 욕구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단지 지적 능력의 보완이나 정보 습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각의 군림, 감각의 폭주를 거스를 수 있는 공부, 내 몸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나보다 훨씬 폭넓게 강렬하게 살았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부, 생명의 역동성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부, 생사를 가로지르는 원대한 비전을 탐색할 수 있는 공부, 새로운 시대를 예감할 수 있는 공부, 한 시대의 통념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할 수 있는 공부, 마주칠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부."
>
>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공부

이러한 공부는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배움을 통한 성장이란 타자를 대면해야만 가능하다. 나와는 다른 사람과 마주쳐야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타자와 만나야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육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주체적 행위이다. 공동체 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자와의 만남은 수많은 '너'의 존재를 통해 '나'라는 개별적 존재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인식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
> – 이계삼 외, 『교육: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안』

타자(他者) 및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내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존재, 혹은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타자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의 표현을 빌려 정의하자면 타자는 "나와는 이질적인 삶의 규칙을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정의에 고개가 아직도 갸웃거려진다면 일본의 사상가이자 문예평론가인 가라타니 고진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타자에게 말해진 언어가 사회적이고 대화의 형태를 띠며 다성적 특성을 가지려면 그 타자가 어떤 공통된 일련의 규칙들을 공유하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공동체'에서의 대화는 단지 독백일 뿐이다." – 강신주, 「강신주의 철학으로 세상 읽기: 6.공공성과 타자의 존재」, http://news.donga.com/3/all/20101222/33434596/1

> 타자와의 관계는 공동체와의 전원적이고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며, 우리가 타자의 입장에서 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와 유사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공감도 전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우리에 대해 외재적인 것이다.
>
> –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 또는 소통에 있어 우리는 '대화'가 아닌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레비나스는 나와 타자를 '동일자the same'와 '타자the other'로 나누어 설명한다. '동일자'는 자기는 물론 자기 근처의 남들도 자기와 같아야 한다는 '동일성'을 지향한다. 이 '동일성'은 사실 여러 다채로운 군상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가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 똑같은 것을 대한다는 것은 예전의 방식을 현재의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규범까지 '동일화' 시켜 그 안에서 살아간다. 자연과학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간과 사회에 적용시킨다. 질서정연한 사회다. 세상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동일성의 배열'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 대상을 분절시키고 배열해서 규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통하는가?
>
> 근대인들은 대체로 '동일성을 강요' 하는 것 속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서 그 규칙을 따르면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제외시키고 소멸시킨다. 유럽이 문명과 비문명을 나누어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대하던 식민지 정책의 태도가 바로 동일자가 지향하는 동일화의 길이다. 서구의 근대적 사고에서 '인격적 개인'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서 '이성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이들이 합의를 도출하여 균형을 맞추면 서로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서양의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이 틀에 맞지 않는 존재는 다 내쳐진다. 이런 문제의 대상은 광기, 정신병자, 소수자 등이며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언급은 서구 문명에 대한 자기비판이었다.
>
>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찾다 보니 주요하게 부각되는 개념이 '타자'이다. '타자'는 '동일자'의 틀에 잘 안 들어오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 '타자'는 서구의 근대적 입장에서 자유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는 타자로써 매우 불편한 존재이다. '타자'의 영역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보인다. 그래서 '동일화'의 세계는 '유한의 세계'이다. 테두리를 벗어나면 '타자'의 영역이고 '무한으로서의 타자'의 세계이다. 무한은 끝이 없다. '타자'의 특성은 '무한'이다.

– 진보성, 「타자의 얼굴과 환대의 윤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98130618230938

대화란, 혹은 논쟁이란 무엇일까? 난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해오던 논쟁이 나를 정말로 피폐하게 고갈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그건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도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논쟁을 하면 할수록 반짝거리는 "승리감"과, 내가 "진리" 속에 있다는, 또 그 진리를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내 그 안도감은 권태와 피로로 바뀌어갔던 것이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논쟁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 논쟁을 한다는 것. 즉, 그곳에선 상대방을 논파하고 내가 가진 교조(혹은 진리, 혹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쟁을 통해 즉 상대방 주장과의 "마주침"을 통해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나를 생산해내는 것이야말로 "논쟁의 이유" 였던 것이다. (중략) 이전과 끊임없이 다른 나를 창조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중략) 자신의 동일성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화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자신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혹은 논쟁은 바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논쟁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겨서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하고, 나도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 유일환, 「구 좌파와의 논쟁, 그리고 기독교…」 http://blog.jinbo.net/minjung/i/entry/170)

타자와의 마주침이 없이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 본인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고 또한 그 한계를 넘어서 본인의 사유의 지평을 확장할 수도 없다.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의 저자 사사키 아타루는 타자와의 만남을 "읽을 수 없는 것을 읽는다"라고 표현했으며, "어차피 읽히는, 읽히는 것밖에 읽지 않는, 읽지 않아도 이미 안다며 얕보고 읽지 않는 안일함이 죽음을, 한없는 죽음을 낳는다."라고도 했다.

이러한, 동일자와의 관계 맺기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수동적 위치에 있던 이들이 '기쁜 능동 촉발'을 가능케 하는 신체로 변이하는 것이다."

– 고미숙,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평소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만 어울리는 것은 함께 삶이 아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함이나 만족을 느끼지만, 그러한 방식의 관계 맺기는 우리가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계에서는 타자로부터 자기의 한계를 볼 수 없다. 따라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친근하고 익숙한 관계가 아닌 고독자the singular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독solitude은 고립isolation과 다르다. 고립은 아픔을 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기 둘레에 벽을 쌓고 괴로움에서 이탈을 도모하는 것이다. 반면, 고독은 어떤 자극, 지식, 체험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의존, 예속, 순응을 내던지는 것이다. 고독은 모든 것을 회의하고 질문하는 것이며, 강렬하고 능동적인 활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 유일환, 「공동체에 관한 세 가지 물음」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CkQFjAA&url=http%3A%2F%2Fwww.geocities.jp%2Fyokopo1234%2F201201wsSGdp%2Fa5wsSG_ilhwan_original.pdf&ei=u-GLUs-_K8fIlAWm2oDQDg&usg=AFQjCNFWRWEBN_c2g-E3MVsk2n1YWX9hsA

이렇듯 "타자를 통해 세계와 우주라는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배움이다. 따라서 우정과 배움은 분리될 수 없다."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배움 말고 대체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타자와의 접속을 통해 배움의 관계를 조직하여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즐기며 삶의 경이와 비전을 발견해 가는 삶을 사는 것.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학습하고, 지식·기술·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망educational webs 형성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 일리히, 『학교 없는 사회』

진정한 공부는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이다. 천하를 품을 수 있는데 대체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참고자료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북드라망
- 이계삼 외, 『교육: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안』,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조너선 코졸, 『교사로 산다는 것』, 양철북
- 고미숙,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휴머니스트
- 강신주, 「강신주의 철학으로 세상 읽기: 6.공공성과 타자의 존재」, 동아일보 기사
- 에마뉘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 진보성, 「타자의 얼굴과 환대의 윤리」, 프레시안 기사
- 유일환, 「구 좌파와의 논쟁, 그리고 기독교…」
- 유일환, 「공동체에 관한 세 가지 물음」
- 이반 일리히, 『학교 없는 사회』, 생각의 나무

글 정선영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p.218 사회적 자본과의 만남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9호
	코자자kozaza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경제를 위하여	43호
	위즈돔Wisdome	지혜와 지식,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장	24호
	영화나눔협동조합	영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32호
p.250	롤링다이스RollingDice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된 공동체	23호
책을 통한 만남	뚝뚝도서관	건물도, 책도 없다.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도서관	29호
	책 읽는 벤치	책 공유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46호
	책 읽는 지하철	세상에서 가능 조용하고 지적인 플래시 몹	37호
p.274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살아 있는 책과의 생생한 만남	41호
마을과의 만남	지리산문화공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25호
	일본시부야대학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28호
	마쓰도시(松戸市)의 변화	베드타운에 들어온 이상한 예술가들	39호
	해방촌 빈집, 빈가게	공유, 자치, 환대의 지구 마을 만들기	40호
p.300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읽기'와 '마을 찾기'의 여정	41호
시니어와 학습의 만남	NPO법인 간다(神田)잡학대학	공유의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산다	22호
	시니어大樂	자신의 삶이 활동의 원천이 된다	23호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시니어가 시니어를 서포트 하는 곳	24호

새로움과 만나다

3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과 성장 신화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을 선출할 무렵에 우리는 매년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라는, 이명박 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은 7·4·7공약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747이 무슨 보잉 707처럼 하늘을 나는 여객기를 연상하게 만들어 그 공약이 마치 대한민국을 행복의 나라로 편안히 인도할 것만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내놓는 공약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유권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생각만큼 활발히 돌아가지 않고 불황의 골이 깊어지자 747공약은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더불어 성장담론의 위세도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수출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체계, 다시 말해 세계 경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2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은 추억의 '제7광구'에서 석유가 콸콸콸 터지지 않는 이상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선에서 선거 공약 하나로 당선될 리는 만무합니다만, 경제의 활성화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을 이명박 후보는 잘 파고들었고, 대한민국은 결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길 희망했던 이명박 후보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당연히 낙수효과를 방패막이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은 더욱 강화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대단히 미약한 결과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성장 담론에 종언을 고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온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당선 이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를 논외로 친다면 이로써 질긴 생명력을 가졌던 성장 신화의 빛이 많이 퇴색될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사(修辭)에는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자랑스러움이 담겨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압축고도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에는 양가적 가치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보통 일, 이백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된 산업화 과정을 수십 년으로 압축하다 보니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손발을 옥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라는 신화를 에너지 삼아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닌 성숙입니다.

압축고도성장에 따른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적 연대의식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 지수를 높이게 되었고, 이는 위 신문기사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도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무형의 자본'을 말하는데 상호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소통, 규범,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푸트남과 후쿠야마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규정하는데 후쿠야마는 한국을 '저신뢰 사회',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이 매우 부족한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신뢰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자본"이라면서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 확충을 박근혜 정부 140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와 정책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작년 8월경 사회적 자본 확충을 대전의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동안 차분하게 준비를 해 왔고 올 3월에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연속성과 역점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역

시 단위에서 이 문제를 시 운영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 사회적 자본 담당 민찬기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시의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텐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대전시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은 2012년 7월에 염홍철 시장님이 독일 연수를 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염 시장님이 독일 연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 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2013년 1월에 시청 내 전담부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사회적 자본 담당 민찬기 씨

행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는 의회의 특성상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례는 2013년 2월 28일에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조례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지만 이번 사회적 자본 조례는 시민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논의는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 것인데요. 콜로키움에는 학계,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있고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조례안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시민의 대표가 의회에 조례 제청을 하였고 의원 중 한 명이 발의한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즉 콜로키움 논의의 결과물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도 그렇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이 발의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콜로키움을 운영했을 때 민간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자본 조례는 부산 해운대구가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대전에서는 단지 조례 제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단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초', '최대' 이런 수식어를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광역시에서 최초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도 이미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부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5년 단위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지원센터 설치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시행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구체화시키는 사업 단위는 어떻게 편재되는지요.

대전시에서는 지난 5월 14일 〈사회적 자본 확충 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는데요.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대전시 부시장이 맡게 되고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15명, 시의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큰 정책 방향은 시에서 구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를 갖추었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만들어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 연구센터〉는 지난 3월에 만들어졌는데,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있었던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없고 대전발전연구원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은 계속될 텐데요. 대전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시민이 신뢰와 협력, 소통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는 기관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전시 소속의 행정라인은 자치행정과 사회적 자본 담당(일반적 기준의 팀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이며 시 산하 위원회 기구로 〈사회적 자본 확충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사업을 구현시키는 기관으로는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분석, 사회적 자본 확충 중장기 전략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합니다.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올 가을 중구 대흥동에 설치될 것이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과 민관 협력 증진, 자료 수집 및 홍보,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육성, 마을활동가 발굴, 주민 컨설팅 등을 전개하게 됩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갈 지원센터는 옛 도청자리 인근 132평 정도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조직은 센터장 포함 2개 과에 인력은 센터장 포함 6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데, 위탁 운영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대전시 소재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 사업의 구상은 무엇인지요.

사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이 학습을 통해서 지역을 재생시키고 기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범위가 이것보다 더 넓다고 봐야죠.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152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진 단계는 가장 먼저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공간적 부분들, 다음으로 사람에 집중(프로그램)하는 것, 이렇게 3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각 실, 과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공무원 내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과정에 녹아내려야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 안에서 칸막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핑퐁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시정의 모든 것들이 시민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연관성이 조금만 있어도 모든 업무를 다 맡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편이죠. 우리 부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올 4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사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토론식 교육을 했고, 자치구에서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이 이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이죠. 조직을 바꿔도 잘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오래된 관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리더의 추진력도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퍼져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시민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를 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들을 위한 캠페인성 운동을 지금 구상 중인데요. 지원센터가 올 10월에 설립되면 구체화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어쩌면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오버랩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는지요.

일전에 대전시 5개구 교육 참가자들과 서울 성미산이나 부산 반송마을 등을 직접 견학한 적이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 어디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 체계를 3단계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콜로키움에서 첫 번째로 제안한 사업이었고, 추진 주체는 일단 관에서 먼저 주도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 모이자 사업, 2단계 사업: 해보자 사업, 3단계 사업: 가꾸자 사업.

근본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사업과 목적, 취지는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와 한국 선진화포럼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콜로키움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콜로키움 운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에서는 장만 펼쳐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에서 주도했다, 저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평생교육입니다. 최근 대전시민대학이 오픈했는데요. 저희는 이와 연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226개가 선정되었는데, 기관 대표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필수교육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생학습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연계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대학에 대해 잠깐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강좌의 양과 규모가 엄청난 수준이더군요. 헌데 지역 여론을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 평생교육 독점화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우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대학이 생김으로 해서 향후 공멸이냐, 독점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숨어있는 수요층 발굴이 되고 있는지도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규모의 시민대학은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빈 공간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단체장의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하반기 계획을 보니 미술로 이해하는 사회적 자본 전시회 같은 것도 계획 중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매개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이응로 화백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자본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응로 화백은 동백림사건의 고초를 겪은 세계적 화가이신데 대전 목동교도소 수감 중 교도소 안에서 밥풀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셨죠. 이번에는 이 화백님의 '군무' 이런 것들을 통해 접근을 하지만 앞으로는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음악, 문학제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랄까, 목표는 무엇인지요.

사회적 자본은 세계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봅니다. 지나친 경쟁, 이기주의, 소득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은 결국 관계망 형성을 통해 나타난다고 봅니다. 대전 시민 모두에게 이러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 만들기가 되었건, 미술이 되었건, 음악이 되었건,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정책이 시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참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밭 레츠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위에서 후쿠야마 교수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아픈 지적이지만 문제는 왜 그런 사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인종과 국가를 떠나 처음부터 저신뢰 사회인

곳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류 역사가 상호 믿음 없이는 애초에 생존하기가 어려웠기에 사람들은 높은 신뢰와 협력 속에 살아왔습니다. 긴 역사를 따져보면 저신뢰 사회는 그야말로 극히 미미한 최근의 현상일 뿐입니다.

결국 저신뢰는 사람 본연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연유하는 바가 큰 문제입니다. 거의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청탁, 그리고 재벌 회장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하는 사법현실, 한번 밀려나면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람들은 지연과 학연과 각종 연줄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 사회와 법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국가 사회의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자본 활성화 사업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되거나 정신 개조운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자본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호흡을 요하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노력과 의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성장에서 성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의 노력이 비록 향후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대전시의 노력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성과에 따라 평가를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도 그 자체로 이미 박수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전에서는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형태가 매우 자연스럽고 특히 민의 참여와 역동성이 있기에 여러 가지를 기대케 합니다. 부디 지치지 않고 꾸준하길 기원합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경제를 위하여

코자자kozaza

우리 동네 중고 명품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중고 명품'을 파는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만만치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고서도 몇 년째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적자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일테고요. 트렌드에 민감하여 좀 더 핫한 브랜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상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고 그 숫자가 만만치 않게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공급가가 올라갈 경우 수요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유한 계급론』에서 언급한 것을 계기로 '베블런 효과'라 불리기도 하는 이 현상은 상류계층이 자신

의 허영과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형태의 일종인데 어느 언론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9.1%는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이유의 68.2%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상실감, 존재의 결여를 비싼 상품의 소유로 채우고자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아무리 넘쳐난다 한들 "샤넬을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은 패션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여성지의 문구 한 방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 멋지고 독특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비싼 아이템의 소유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타인과의 차별을 부각시키려는 욕망, 이런 소유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더욱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의 공유라는 모델을 선보인 에어비앤비 AirBnB

사람들이 사는 집. 그 사는life 집이 어느 순간 사는buy 집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별나고 독특하게 주택이 살아가는 공간을 뛰어 넘어 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 되어 버렸고 한국 사회 수많은 모순의 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은 월세에 허덕이는 사람, 치솟은 전셋값에 이리저리 이사 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비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택은 강렬한 소유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집을 소유가 아닌 공유하자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틀어진 욕망의 세상을 향한 선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의 단단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이윤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집 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선보인 것은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라는 조직입니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이 조직은 지난해 기준 192개국 3만 4천여 개 도시에 30만 개 이상의 객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가치가 2조 7천억 원으로 평가될 만큼 이제 벤처를 넘어 실물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떨치는 회사가 되었고 지금도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사도 처음엔 창고에서 시작했듯 에어비앤비도 시작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대학 동창생인 브라이언 제스키와 조 게비아는 사업의 꿈을 품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지만 사업은커녕 아파트 월세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파트 빈방을 빌려주어 1,000달러를 벌게 되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꿈꾸는 사람들

미국에서 에어비앤비의 성공이 한국에서의 성공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독특한 운영과 경영 그리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지언정 결국 소유를 넘어 공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기반이 동일하다면 한국판 에어비앤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조직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오늘 소개 할 〈코자자〉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아이를 재울 때 관용처럼 쓰던 말을 따온 이 회사 이름은 참 정겹습니다만 이제 시작 단계인 조직에게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코자자〉를 만든 조산구 대표의 경우 먼저 이력이 눈에 띕니다. 1988년 KT에 입사 후 1994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졸업 후 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솔루션 개발업체를 창업하여 활동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KT를 거쳐 LG 유플러스로 자리를 옮겨 상무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서비스 개발 업무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의 전략적 제휴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조산구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웹과 관련한 가장 최신의 정보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도 매우 민감하고 정통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안락함이 간난신고의 초기 벤처를 제대로 견뎌낼 수 있는 맷집 측면에서는 조금 취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질문을 이렇게 툭 던져 보았습니다.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

대표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처 프로젝트가 있으면 심사위원석에 앉아 평가하고 코멘트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프로젝트 심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잖습니까. 서비스 오픈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깨에 힘이 좀 빠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요(웃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옛날 것은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사무실도 내지 않고 큐빅이라는 웹 에이전시 공간을 빌려서 일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는 평가하고 말로 떠들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실행하는 입장이니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울 것은 비우고 낮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락함을 박차고 광야에 나선다는 것은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큰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기 참 쉽지 않다, 단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은 과거를 가지고 현실을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기도 했지만 큰 변화를 빠르게 움직여서 기회를 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변화는 '미친' 변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나올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미쳤기 때문에 제가 미쳐야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전에 300개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셨다는 대표님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먼저 공유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고 나니 공유경제라는 주제가 확인된 것인지요.

후자입니다. 먼저 큰 트렌드를 보고 변화를 파악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웹2.0이거든요. 사람이 참여하고 오픈하고 공유하면서 피플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모바일이 생기면서 온라인

의 행태가 오프라인 상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온라인의 피플 파워가 오프라인에서도 엄청나게 증대할 것이다. 그러면 웹2.0이 삶2.0으로 옮아갈 것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2.0이 중요하죠. 경제2.0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 하면 쉐어 이코노미죠. 결국 큰 흐름을 먼저 봤고 그래서 피플 파워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면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먼저 시장 사이즈도 커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대인데 그들도 잠잘 곳, 특히 호텔이나 기존 숙박 외의 곳에 대한 기대욕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은 35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숙박 쉐어만 하면 돈도 벌고 외국인 숙소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숙박시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또 민간 숙박을 통한 민간외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 하우스 푸어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사업적으로도 돈도 벌 수 있는, 큰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큰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웹의 엄청난 기술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제 소유 대신 공유 그리고 효용성 측면으로 사고가 바뀌고 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조업 보다는 여행업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 교차점에 저희 〈코자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민박 혹은 민박 중개 사이트와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민박이라고 하면 시골의 민박정도인데요. 질이 어떤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등등에 대해 판단 내릴 정보도 거의 없고 또 환경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 중심의 방을 통해 접근하는데 이 모델이 가능하게 된 것은 호텔 말고 다른 곳에서 자고 싶어 하는 게스트의 욕구가 있고, 호스트 입장에서는 빈방이 있는데 경기도 안 좋으니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호스트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마침 페이스북이나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해서 호스트의 그런 우려와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의 프로필 등을 통해 게스트를 확인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전적으로 호스트가 컨트롤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훨씬 덜 수 있고 게스트의 요청에 호스트가 수용을 하면 그때 게스트에게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게스트의 사용 후 24시간 이후에 호스트에게 지급합니다. 이것은 호스트가 미리 돈만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하거나 혹은 게스트가 사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중간에서 〈코자자〉가 매개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보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게스트의 경우 예약한 집을 이용한 후에 리뷰를 남기거나 레이팅rating 등 집에 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이 확산되면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민박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선순환 마켓 플레이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트 확보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요.

현재는 2,300개 정도 룸 확보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차별화 포인트로 한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웬만한 한옥은 거의 다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 방 등록하세요'라고 무차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수 있는데 테마별로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잘하고 있지만 그들이 글로벌하게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서울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사업 모델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데 그 모델들을 잘 파악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만의 특장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옥 중심의 전략을 짜셨는데 경영 측면에서 보면 한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게스트의 최대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옥은 70채 정도, 객실로 하면 280~300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한옥 중심의 전략을 짠 것은 에어비앤비와의 차별화도 있었고, 또 한옥은 도시민박법과 달리 이미 합법적이고, 세 번째는 그분들은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방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옥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옥 중심의 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코자자〉에서는 본래의 숙박 공유 사업 이외에 구글과 손잡고 한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코자자〉가 구글에서 인정한 에이전시가 되어 한옥의 내부를 촬영하여 구글 맵에 등록하면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평면도가 아닌 360

〈코자자〉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한옥 모습(출처:www.kozaza.com)

도 파노라마로 한옥의 맵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비즈니스 포토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전세계 수백여 개의 박물관, 문화 시설 및 문서 보관소와 협력하여 세계 문화유산의 온라인 전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자자〉에서 한국 카테고리 중 한옥을 담당하여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익적 활동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박과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법률적 문제도 있지 않나요.

법률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적 문제만 놓고 봐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거든요. 아마 좀 더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공유경제 모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도 아마 미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의 존재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공유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면 그것에 조응하는 법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유의미한 호스트 변화가 좀 있는지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획 등록이 많았습니다. 아직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도 좀 사정이 나아진 게 처음엔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코자

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코자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방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2의 창업이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공유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코자자>를 통해 예약을 하면 전화번호, 이메일, 페이스북 아이디, 은행계좌 등을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신뢰가 가능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기타 정보를 통해 누가 오는지, 성별은 어떤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하고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대중적 활성화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경험을 통해 단정짓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게스트는 한옥 중심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요.

저희가 한옥도 하고 게스트 하우스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저희가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한옥을 중심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다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오히려 게스트하우스 문의가 더 많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모텔뿐이 없는데 모텔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싸고 시설도 좋으니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케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한옥 중심의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후로도 한옥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유경제 도시'라는 선포도 했는데요. 이런 공유경제에 대한 행정적, 직간접적인 지원 같은 것이 있는지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공인한 공유경제 조직인데요. 이처럼 서울시가 인정한 회사라고 하는 신뢰 같은 무형의 지원도 있고, 한편으로는 크진 않지만 재정 지원이나 행사 전시 지원 그리고 전철역의 일부 공간을 희망광고라는 이름으로 저희 같은 공유기업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홍보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제2의 창업이라는 정신으로 새롭게 정비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력을 높이고 콘텐츠를 제대로 구축하는 등 그야말로 기본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숙박 중개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숙소에서 지역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쇼핑, 교통, 행사 등 게스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행도 소셜 트래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트래블 컴퍼니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휴가 때 모로코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그때 모로코 현지인의 주거지에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정서를 경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도 유명 관광지 중심의 보는 문화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게 체험해 보는 단계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게스트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호스트의 유의미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물경제에서 아직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도 별로 없기도 하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가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남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거부반응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군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지만 유의미한 공유경제 시스템에 한 번씩 참여를 해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사고와 경험의 폭도 넓혀 가는 가운데 공유경제는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11월 중에 저희 평생학습관 직원들이 <코자자>의 한옥을 이용해서 워크샵도 하고 체험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지요.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지혜와 지식,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장

위즈돔Wisdome

풍경 하나.

뉴스란 단편적으로 풀이하면 새로운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통업자의 폭리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 소식은 수십 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해마다 몇 번씩 되풀이되어 보도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새해 첫날 눈이 내리면 서설이라고 해서 풍년이 들 조짐이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들판에 풍년이 들면 농민의 얼굴에는 근심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하는 금액은 변함이 없으니 오히려 뭔가 속는 듯한 기분에 영 찜찜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새해 첫날의 눈은 오직 유통업자만을 위한 서설인가 봅니다.

풍경 둘.

프로야구선수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비록 에러를 범해서 야유를 받기도 하고 중요한 찬스에서 헛방망이질로 타박을 받기도 합니다만 프로야구, 그것도 1군 선수로 뛴다는 것은 모든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의 열렬한 꿈과 희망입니다.

뇌의 정보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몸을 만들기까지의 고통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 아무리 빼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경기장 시설이 엉망이면 제 실력을 뽐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불순하면 관중들도 응원장으로 가기를 주저할뿐더러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시설이 좋지 않은 운동장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 버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는 평가가 무색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돔Dome구장 건설은 많은 야구인들의 로망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좋은 공간은 선수들의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더 많은 관중을 불러 옵니다. 따라서 돔구장은 단순한 야구장, 그 이상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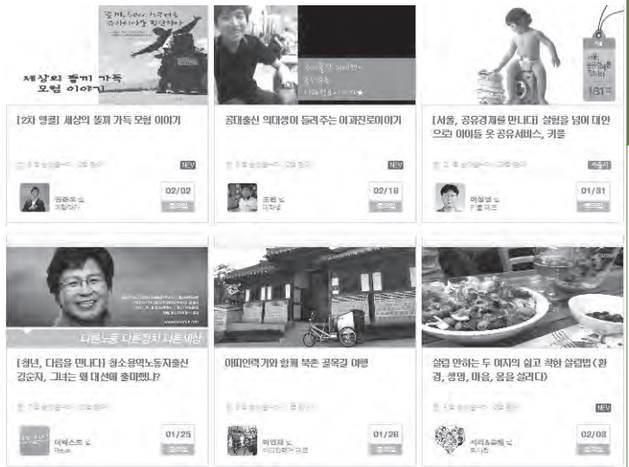
여기 또 하나의 유통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농산품이나 공산품 등 특정 물품을 유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그것도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익도 발생시키고 있으니 유통업체인 것은 맞습니다.

이 기관에 관심이 쏠린 것은 유통시키고 있는 대상의 특이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의 특이성만으로 이 업체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업체의 특징은 공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isdom과 Dome이 결합된 조어 Wisdome.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위즈돔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상엽 대표와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위즈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내가 관심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스토리와 콘텐츠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먼저 경험하고 지혜를 쌓아 올린 사람을 만나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공유할 수 있



위즈돔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 있는 각종 주제의 모임들.
(출처:http://www.wisdo.me/index.do)

는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P2P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즈돔이 아직까지는 좀 낯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고개를 좀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혁신은 왕왕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위즈돔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모임을 개설하는 사람을 위즈도머,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을 위즈도미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낯선 용어입니다. 아직은 멘토(강사)와 멘티(수강생)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용어가 위즈돔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억압할 경우 전복이 일어나기 십상인데, 과연 용어상 어떤 전복이 일어날지 자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시작은 양극화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이제는 검사 집안에서 검사 나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없잖아요. 이것이 왜 그럴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보와 기회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혹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신이 필요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일은 매우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강연이나 책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요. 게다가 그런 만남은 대체로 일방통행에서 오는 허탈감이 클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만남, 그것도 강연방식처럼 일대다의 한 방향 소통이 아니라 소규모의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공유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이후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즈돔 한상엽 대표

그래도 막상 대기업을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당장 창업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미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의 성장, 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을 해 보니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와 집을 쳇바퀴 돌 듯 오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삶이 너무 파편화 되면서 붕괴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수백만의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나름 파악하게 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처음 6개월 정도는 3~4인 정도의 소규모 모임,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내의 모임을 개최하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에서도 소규모의 밀도 있는 만남보다는 다중의 익명 속에서 지식이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이가 궁금합니다.

첫 달 오픈할 때에 22명의 위즈도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후 3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는 개설 수가 월 30~40개 정도 되었고 지난 9월에 월 100개 정도로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월 70~100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회원가입수와 유저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긍정적인데요. 저희와 유사한 아이템의 업체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위즈도머의 모임 개설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와 인연을 맺은 위즈도머는 약 400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요. 초기에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웹서핑 등을 통해 컨텍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약 30% 정도는 위즈돔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그리고 10~20% 정도는 저희의 컨텍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모임이 개설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에 대한 필터링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일종의 폐강되는 것이 있는지요.

처음 3개월 동안에는 거의 폐강이 없었습니다. 100건 중 1건 정도?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서는 90건 중에서 10~15건 정도 그러니까 폐강률이 10~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폐강에 대해 매우 걱정을 했는데 폐강률이 그리 높지 않은 듯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니 수치의 정확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원에서 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강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모임 개설을 요청할 때 내용과 접근 의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위즈돔을 이용하시는 분의 2/3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 자기 삶의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1/3이 대학생이나 주부 그리고 중고생까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신 분은 다시 재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중에서는 위즈돔이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오늘은 어떤 모임이 개설되었는지 체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의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타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멘토들의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위즈돔을 통해서만 만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위즈돔이 계기가 되었더라도 상호 연락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더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SK에서 주최한 제6회 사회적 기업 발굴 콘테스트에서
2등을 수상한 위즈돔

작년에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즈돔이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자립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위즈돔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틸 것입니다. 다만 서울공유경제기업으로는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까지 약 400명 정도의 위즈도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5000명 정도 아카이빙을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5000명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나이나 학력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 조언과 격려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스승, 친구, 선후배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속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만 위즈돔다운 행사 기획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BEP(Break Even Point,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계획이고요. 설사 위즈돔이 실패한다 해도 그것은 그 나름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관계가 유지만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지 않겠어요?

위즈돔에는 유명한 사람도 좋지만 동네 마을 버스 아저씨, 구멍가게 할머니, 세탁소 아저씨의 모습과 살아가는 이야기가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위즈돔은 그런 이야기가 모여 있는 공간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즈돔을 찾아가게 된 것은 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와의 유사성 때문이었습니다. 위즈돔은 비록 사기업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나 재능을 상호 공유시키고자 하는 기본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고민을 위즈돔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침투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사 혹은 멘토와 수강생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도 그렇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부한 강좌(모임)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유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위즈돔은 〈누구나학교〉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서두에서 '돔구장'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Wisdom + Dome의 조어에서 지혜보다는 돔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Net을 타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0과 1이라는 기호로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공간으로 물질화되면 아주 색다른 형태로 변주됩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응원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이 매개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공간이 갖는 특징이자 마력이기도 합니다.

사시사철 기온이나 기후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돔구장처럼 각종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언제든 편안하게 만나 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야구장에서야 응당 자기편만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만 지혜의 돔구장에서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영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영화나눔협동조합

내 젊은 날의 영화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영상교육을 하는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방학 무렵 8mm 영화 제작에 대한 강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가난한 대학생인 저에게 2만원의 거금이 수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던 『창작과 비평』 영인본을 친구에게 팔아 그 돈으로 강습에 참여했고 이후 학교에 영화 동아리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화 자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깊었던 것은 아닙니다. 80년대 격동기를 건너는 와중에 영화매체의 복제력과 파급력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누벨바그(Nouvelle Vague,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의 영화 운동)의 기수 장 뤽 고다르가 16mm 카메라를 16mm 기관총에 빗댄 표현에 매혹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상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상운동으로서의 영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셈입니다.

전 국민의 취미생활, 영화감상

영화를 즐겨 보진 않더라도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갤럽에서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등산'이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당시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점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에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한 취미는 독서, 음악감상, 헬스였고 5위가 '영화관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화감상은 등산처럼 힘겨운 육체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독서처럼 집중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푹신한 의자에 깊숙이 앉아 달콤한 팝콘을 먹으며 두어 시간 동안 꿈의 세계를 편안히 다녀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영화는 늘 즐겁게 소비되는 매체입니다.

영화 선택에 끼치는 요인들

아이언맨3는 현재 1,129개의 상영관을 확보하여 상영되고 있다.

영화를 업으로 삼거나 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화감상은 그저 취미일 뿐입니다. 대단히 높은 의지와 결의로 특정 영화 관람을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극장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인근 극장을 찾아 편안히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영관수는 2012년 말 기준 2,081개입니다. 그런데 「아이언맨3」가 1,129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다면 이는 5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복합상영관 스크린이 10개라면 그 중 5개의 스크린에서 아이언맨3를 상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더라도 매진이 되었다면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지는 2개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 보세요. 아이언맨3를 보거나 안 보거나.

'영화감상'은 단순한 취미일 수 있지만 '영화'는 단순한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종합예술로서의 영화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자본에 의해 특정한 영화만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편식을 해서 좋을 것 하나 없는 이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4월 고양시에서 결성된 '영화나눔협동조합'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의 발기인 대표이자 상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태 씨를 만났습니다.

먼저 영화나눔협동조합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이번 아이언맨3 상영관 독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영화 선택권이 좁거든요. 좋은 영화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판은 이미 산업 논리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같은 다양한 영화를 함께 보기도 하고 조합이 더 발전한다면 소비자들에 의한 영화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고양시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작년에 고양문화예술인네트워크 결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냥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죠. 그러다 뜻이 맞는 몇 명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영화라는 매개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형태는 협동조합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영화나눔협동조합의 최종태 씨

최종태 씨가 영화라는 매개를 생각한 것은 그의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이준기, 이문식 주연의 「플라이 대디」라는 상업영화를 만들었고 2012년 대종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충무로 감독입니다. 그의 두 번째 상업영화인 「해로」는 그에게 신인 감독상을 받게 한 작품이었지만 저예산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보니 그 흔한 홍보비도 변변히 사용하기 어려웠고, 해서 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을 샅샅이 뒤져야만 가능했습니다.

"해로로 인해 제가 그래도 대종상까지 받았는데 전국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서만 상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릉 출신이라 그쪽에 지인과 친지들이 많은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영화를 보려고 해도 강원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인 「서칭포 슈가맨」이라는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 영화는 전문가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열렬히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고양시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작년 12월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전에는 협동조합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아내가 협동조합에 관한 책 한 권을 사온 거예요. 그냥 무심히 읽다가 "야, 이거다" 싶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작년 말에 사실 패배적이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보였거든요. 그러다 주변 사람들과 협동조합에 대해 알음알음 조금씩 알아 나가게 되었고 영화라는 콘텐츠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화나눔협동조합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올 1월부터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10만 원을 납부하는 발기인 50명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10만 원이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더라고요. 문성근 씨는 스스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발기인으로 가입했고… 그래서 지금은 84명의 발기인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저희 조합이 정식으로 등록되면 조합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의 이사장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가 맡고 있고 정지영 감독님 등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 감독님은 본인의 사무실 일부를 조합 사무실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조합이 너무 영화인들로만 구성되면 안 좋을 것 같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영화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기도 했고요. 지금이야 영화인 참여도 많고 이사장도 영화인입니다만 이후에는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고 이사장도 시민 중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6일 고양 어울림영화관에서 열린 발기인대회 모습

대기업의 자본이 투자된 영화를 제작한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독립영화 및 다양한 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업영화를 만들 때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대기업 투자를 통한 상업영화 제작과 저예산의 영화 제작이라는 두 가지 극단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시스템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다른데 그렇다고 저는 두 가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에서의 영화는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으로서의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예술로서의 영화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화는 오락이자 예술입니다. 이 양자가 밸런스를 이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양쪽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 영화가 할리우드의 공세 앞에 속수무책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할리우드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몇몇 대기업에 의해 한국 영화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선댄스영화제를 통해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영화를 키워낼 뿐 아니라 역량 있는 감독과 배우들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자원이 다시 할리우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직 대기업의 자본 논리만 득세를 하고 있으니 한국영화의 미래, 젖줄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가 예산과 시스템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MB정부 이후 그 많은 영화제작기금도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다양한 영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충무로 파워'를 조사하면 강우석 감독이 1위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량 있는 개인이 파워를 지니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1위가 아닌 유일무이한 파워는 자본이 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상영관 수는 전국 1,851개입니다. 전국 2,081개 상영관 중에 대기업 상영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할리우드처럼 제작자본과 배급자본

을 법으로 엄격히 구분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CJ 돈으로 제작된 영화가 CJ 전국망을 통해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아무리 좋은 영화인들 관객의 선택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11년에 제작된 다양성 영화 중 48%는 개봉되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이런 영화의 산업 논리를 막아내는 진지 역할만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얼마 안됐습니다만 막상 해보니 정말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의 이념과 가치를 튼튼히 공유해야만 지속가능할 수도 있고요… 저희 조합 가입자 중 많은 분들은 단지 다양한 영화가 좋아서 가입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신경 쓸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상영 전에 다양한 교육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동네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좋은 점은 이렇게 영화를 매개로 만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런 토양을 기반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조합의 기본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조합 정관에 의하면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 영화의 활성화와 거대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좋은 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배급 사업이라든지 영화의 제작 지원 사업, 영화·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그리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등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배급이나 제작 지원 사업은 조합금 규모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매달 좋은 영화를 함께 선정해서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 제작자와 관객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교육 관련 영화를 상영해서 매달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영화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과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 발간입니다.

입시 위주의 체계 속에서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영화 리포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영작에 대한 별점 제도는 대체로 다 조작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널리즘 비평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젠 저널리즘 비평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조작'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출판계 베스트셀러 사재기 사건이 일어나듯 영화계에서도 그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신뢰할만한 기준이 없으니 일방적 홍보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슈머 리포트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영화를 매개로 한 조합이라 관심도 많고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겠네요.

고양시가 평균 연령대도 젊고 문화예술인도 많아서 토양은 참 좋은 편이에요.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예술관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 좋은 성과를 내야죠. 요즘엔 협동조합이 대세인 듯 한데 예전에도 벤처붐이 한창 일었다가 거품처럼 다 사그라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있어요. 멋지게 성공하진 않더라도 '어, 저런 모델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화에 관심도 많고, 작지만 영화 관련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모임들과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잘 엮어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황소걸음처럼 하나하나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고양시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 만들 생각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 흔쾌히 함께할 것입니다.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합원이 10만 명만 만들어지면 한국의 영화 문화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지요. 그런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갈 것입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사르트르가 남긴 말입니다.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Choice이 있고 그 선택이 모여 오늘의 나라는 실존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국 영화 시스템으로 좁혀 보면 그 의미가 무척이나 변색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아이언맨3」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양자택일 상황은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강요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당당하게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는 공산품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배우고 익히며 즐겁게 걸어갈 때 어느새 길은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길이란 무릇,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된 공동체

롤링다이스RollingDice

시이저의 주사위

1598년 11월 19일 경남 남해와 하동 사이의 해협 일대.

패색이 짙어지자 본국으로 빠져 나가려는 왜선 500여 척을 맞아 끝내 450여 척을 대파하고 기나긴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무렵. 소총에서 뿜어져 나온 한 발의 총알이 순정으로 들끓던 한 사내의 뜨거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다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극적 비장미를 한껏 높이면서 임진왜란이라는 대서사구조의 최절정에 다다르게 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경우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비장미를 풍기고 있는 유명한 말 중에 서양의 경우 시이저의 "주사위는 던져졌다"가 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 강 서쪽의 독일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인 갈리아를 평정한 시이저. 그의 승승장구를 경계하는 귀족들은 그에게 즉시 군대를 해산하고 단신으로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을 전합니다. 명을 따르자니 죽음이요, 거부하자니 참혹한 내전인지라 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칼을 높이 쳐들고 BC 49년 1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의 주사위는 놀이나 노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대단히 비장한 아이콘이 되어 버렸습니다.

롤링다이스의 주사위

시이저의 주사위에는 죽음을 앞에 둔 비장미와 엄숙미가 있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공동체의 주사위에는 놀이의 경쾌함과 발랄함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은 롤링다이스RollingDice, 직역하면 구르는 주사위입니다만 이들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주사위를 던져 백번째 칸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6이 새겨진 면이 나와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고속도로를 타고 한순간에 위로 올라갔다가 반대의 경우에는 뱀을 타고 한 방에 훅 가기도 합니다.

그럼 '롤다'가 원하는 주사위 면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들은 끊임없이 주사위를 던지긴 하지만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있기나 할까요?

'롤다'는 ○○이다

'롤다'는 학습을 통해 만난 8명이 좀 더 즐거운 생활을 위해 백만 원씩 출자하여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출판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롤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너무나 심심한 일일뿐더러 이런 규정이 오히려 롤다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언어가 아닌 롤다 멤버 스스로의 언어, 그들의 워딩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롤다 홈페이지(http://rollingdice.co.kr/)에는 각자 자기소개를 한 꼭지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아니 어쩌면 자신을 향한 출사표로 읽혔습니다.

롤다는 "전자책 출판으로 시작하지만" 아직은 "어디로 굴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살고 싶은 세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워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롤다에 대한 이런 개인적 믿음을 사회로 확장시켜 보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모두, 우리 동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확신을 물화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강요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 길이 모두에게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남겨 두고 싶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롤다 멤버 8인의 모습.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인터뷰의 주인공 제현주 씨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 20여 명을 한 출판사가 주최한 철학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3달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한 십여 명 정도가 남더

라고요. 그 멤버들과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출판사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니 5명 정도가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초에 멤버를 좀 더 확장해서 총 8명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책을 읽고 토론을 하다 보니 멤버들 간에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더 각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5월경에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평을 넓혀 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소비를 하면서 돈을 지출하는데, 차라리 출자를 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게 된 것이죠. 헌데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다 흔들어 직장을 그만 두고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롤다에서 지금까지 출판한 3권의 전자책

그러나 저희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압박 같은 것도 없었죠. 단지 공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롤다의 근무 형태는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롤다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각자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카페 같은 곳에서 함께 모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만 롤다의 경우 아예 사무실이 없으니 일반 기업과는 반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함께 모여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자책 출판이라는 업무의 특성도 반영되는 것이면서 롤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특별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템 중에 출판업을 선택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저희는 3년 동안 책을 통해 공부를 했고 책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들의 유력한 매개체인 책 그리고 그런 책에 대한 각별한 생각들이 모인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삶이 책을 통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를 복제하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출판을 경험한 구성원이 많이 있다는 요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판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롤다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소개글의 일부를 압축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조합원이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롤링다이스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을 나누어 한 사람만이 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둘째,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그 세미나는 매주 개최되고 있으며 이는 "함께 공부하지 않고서는 뜻을 나눌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일을 나누고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뜻까지 나누지 않는다면 조직의 부품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로 놀고, 일로 우리를 표현"하는 단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부하면서 일한다'는 소개글을 언뜻 보면 마치 경건한 수도사 생활 같기도 하고 도덕적인 프로테스탄트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본인들의 뜻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고 이해하면 될 듯싶습니다.

출판사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자책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거든요. 다행히 지금까지 3권 출판한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만 저희는 책 판매량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매량에 목표를 두면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꾸준히 책을 발행하다 보면 스스로의 자기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쯤 최소 2~3명 정도가 상근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상근을 하고 싶어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직 전자책 콘텐츠의 대부분은 기존에 발간된 인쇄물을 0과 1의 비트로 번역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다에서는 디지털 번역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전자책 소비 패턴을 고려해 분량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형식도 기존의 고답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상 세미나 방식'을 차용하여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래서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값도 주간지보다 싼 2,800원이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나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저희 내부의 일을 세분화하면 기획부터 시작해서 편집, 아이티 업무,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난이도로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굳이 그렇게 구분해야 할 필요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질 경우에는 기준을 새로 정리할 필요도 있겠지요.

롤다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측면만을 놓고 보면 롤다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들은 사무실 등의 고정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단지 저희 노동력을 투입해서 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지출되는 것이 없어서 모아놓은 조합비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전자책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각자 생계를 해결하면서 고정비가 없는 구조로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측면 말고 우리의 초심이 지속될 것인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당장 뭐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어떤 취미생활보다 지금의 롤다가 더 즐거운 일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조건이 변하거나 구성원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저희 공동체가 지속되기는 어렵겠지요.

롤다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공동체A Community Creating Communities"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롤다의 시선은 재정적으로나 가치지향적으로 썩 괜

찮은 출판사를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전투적이면서 혁명적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 자체도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닌데 그런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이라니.

그러나 롤다의 지향은 플랫폼의 자임이나 비장한 선언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현실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에 공명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결시켜 내는 일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로써 롤다는 엄숙함에서 비켜서면서 자신만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판사처럼 단지 책 출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출판을 매개로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시도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롤링 펀 나이트(『시민이 행복한 사회적 경제』 출간에 즈음한 대중 모임)는 일종의 시범 모델이었어요. 사실 얼마나 모일지, 이 행사가 잘 될지 고민도 되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런 고민과 지향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희들은 롤링 펀 나이트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이라는, 일종의 그랜드 비전 같은 것은 없어요. 그야말로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 다른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함께 하자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나 단체와의 연결이 저희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꼭 롤다라는 그릇 안에서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올해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는 것은 평생학습기관들의 지향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또 다른 전범을 보이고 있는 롤다만의 특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좌와 세미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강좌의 경우에는 오직 강사와 나의 관계만 도드라지지 나와 또 다른 동료와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강좌는 수강생을 피동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강좌를 들었지만 그 속에서는 또 다른 모임으로 연결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반 시민과 다른 특징이 있어서 롤다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세미나의 힘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메시지와 지식을 던지는 강사가 절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읽고 쓰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장 혹은 리더의 역할은 중요해요. 저자나 교수처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모임이 사담으로 흐르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반장이 있으면 그 모임은 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의 전달이 중심이 되는 강의 포맷 대신 소모임을 생성할 수 있는 포맷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80년대가 비장미를 바탕으로 한 투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발랄함을 내재한 개성의 시대입니다. 엄숙함을 바탕으로 한 사상의지의 결사체로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에 응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장한 시이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호모 루덴스Homo Ludens가 소중한 시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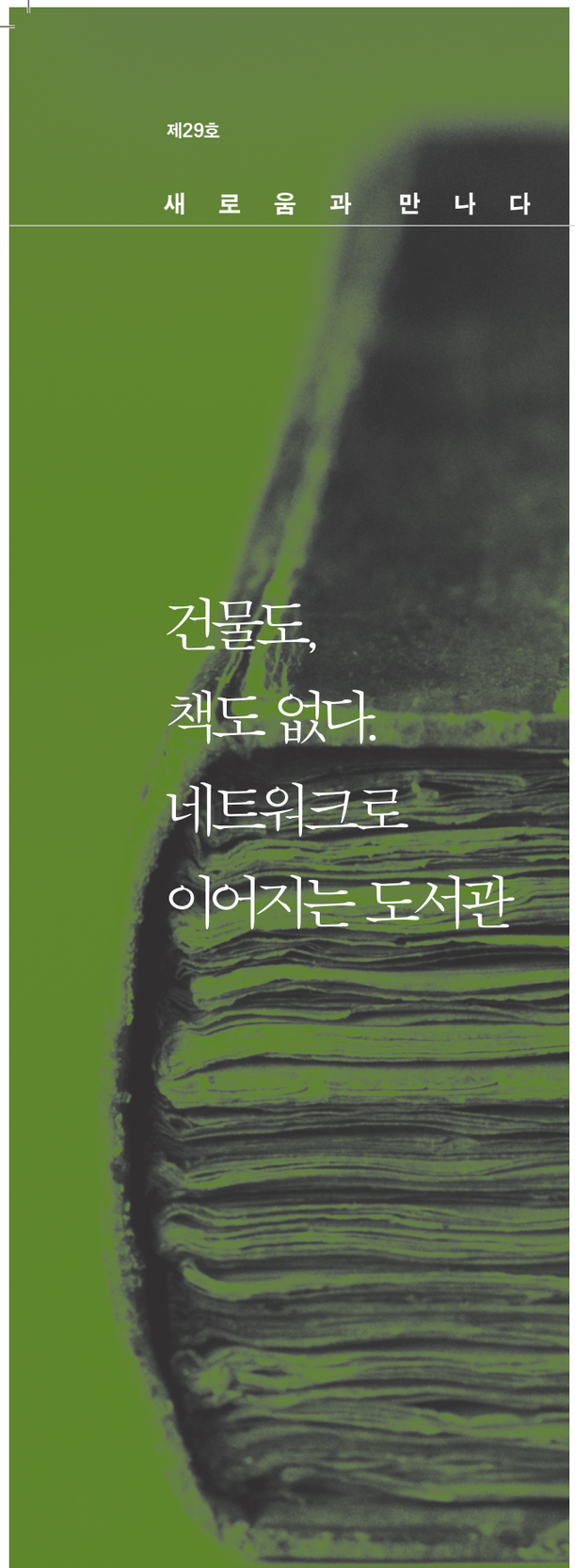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롤다'라 쓰고 '놀다'라고 읽습니다.

롤다는 세상이 가라는 길을 거부하고 기존의 세상문법으로는 해독이 어려운, 자신만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 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롤다의 사랑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점점 동심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롤다가 문을 연지 이제 6개월 정도. 아직은 실험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롤다는 언제까지나 실험중일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하는 공동체.

올해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롤다'의 '놀이'를 넘어 함께 '놀자'는 권유가 어떤 식으로 선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권유에 공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것은 롤다 공동체 구성원들일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이어질 롤다의 실험이여, 부디 굿 럭!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건물도, 책도 없다.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도서관

똑똑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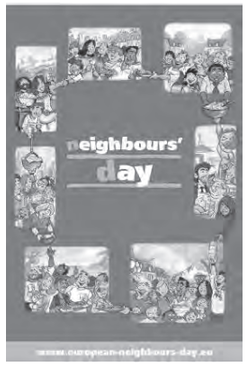
이웃은 없고 입주민만 있는 아파트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검색하면 1930년에 지어진 충정아파트라고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80년이 넘는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 왔지만 이젠 생의 마지막 단계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시원은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아파트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0년대입니다. 광풍처럼 몰아친 개발 시대에 유입된 도시 인구의 정착과 중산층의 편입 그리고 건설 경기의 부양이라는 국가 목표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 더욱이 부동산 필패신화에 근거한 교환가치로서의 아파트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위력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선호하는 재산목록 1호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한국을 둘러보고 깜짝 놀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저술할 만큼 한국의 아파트는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엄청난 번식을 거듭해 1975년도 1.9%이던 거주 형태 비중이 2010년에는 약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이제 한국인의 삶의 형태와 생활문화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가려면 단지 초입부터 경비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함부로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철골의 문은 이웃을 향해 결코 쉽사리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마을이 해체된 그곳에는 이제 이웃과 주민은 사라지고 오직 입주민만 덩그러니 외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이웃축제의 포스터

프랑스의 이웃축제

최근 들어 층간 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의 시신이 방치된 채 수개월 후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편화된 개인주의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의 17구 구의원인 아타나즈 페리팡 씨는 1990년 자신의 아파트에 독거노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것에 충격을 받아 1999년부터 이웃 간에 장벽을 걷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금요일에 '이웃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지만 사실 별 거 없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동별, 다세대별로 서로 음식을 싸가지고 나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가 이웃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웃 간의 포트락 축제이지만 파리 17구 구청에서 시작된 지 2년 후인 2001년에는 100만 명이 참가하는 프랑스 국가축제로 발전했고 10년 만에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북미와 일본 등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도서관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지역공동체 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모범적인 사례들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일상의 학습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꾼 시흥시 참이슬 아파트 단지가 그러하고 아파트 단지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아파트가 그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는 전범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열심히 땀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파주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도 아주 유쾌하면서도 희망찬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똑똑도서관'입니다. 이름도 아주 앙증맞으면서 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을 찾으려고 길을 나선 분이라면 필경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이 도서관은 네비게이션으로도 찾을 수 없고 구글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도서관

인문도시를 강조하는 수원시장은 OECD 기준인

인구 5만 명당 1개 도서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9개 도서관을 2017년까지 19개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운동장 한편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올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이란, 먼저 부지와 그 부지 위에 세워지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도서관에는 응당 각종 뜨끈 뜨끈한 신규 서적들이 서가를 빽빽하게 채울 것이고, 거기다 도서관을 운영할 신규 사서가 배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을 둘러싼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시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공급이 수요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새로 만들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재원이 소요되기에 무작정 많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돈 한푼 안들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네트워크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지금이야 촌스럽게 보이지만 70~80년대에는 하드커버에 금빛 반짝이는 글자가 박힌 각종 전집류를 비치하는 것이 방귀 좀 뀐다는 집안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전집류가 아니더라도 각 가정마다에는 자녀들 책부터 부모의 책까지 수십, 수백권의 책이 책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 책 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저의 집에는 먼지 쌓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번 본 이후 다음에는 별로 선택받지 않을 책들이 우리 집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안에 묵혀 있는 이런 책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나 아파트 단지는 이런 교환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해당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 잠자고 있는 책들을 등록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파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1,500세대입니다. 물론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각 세대별로 100권씩만 등록한다면 이 아파트는 15만 권의 장서를 갖춘, 웬만한 도서관보다 많은 지식의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부지나 건물 없이, 새로운 신간 도서 구입이나 사서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기적의 도서관'이 유행했습니다만, 이런 도서관이야말로 진정 '기적'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의 지식과 사람의 정이 함께 흐르는 도서관

이제 주민들은 책을 빌리기 위해 특정한 도서관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책을 보고 그 책을 등록한 집으로 향하면 됩니다. 바로 옆집일 수도 있고 옆 동일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똑똑"

"누구세요?"

"네, 00호 주민인데요,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서관에서 대출하듯 그렇게 사무적으로 책만 달랑 집어 들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빌리러 왔다가 봄볕 가득한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아이들을 화제로 혹은 장바구니 물가를 가지고 때로는 이웃 간의 공동체를 주제로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작지만 조금씩, 그렇게 굳게 닫혀 있던 문들이 서서히 열릴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실험을 하고 계신 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김승수 씨입니다. 비록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함축적인 의미와 내용이 너무 좋아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한 문화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김승수 씨와 아내

어떻게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연세가 있거나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제가 감사로 추천을 받았는데 하려면 차라리 대표를 하자고 생각해서 4대 1의 경쟁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니까 기존에 해 왔던 방식과 판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지요. 아파트의 여러 일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회장이 되신 후 다양한 시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아파트에서 재미있는 일을 찾았어요.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케이크를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케이크 받기 공모를 했습니다. 단순한 케이크이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으니 케이크를 꼭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단지 주변에 꽃 심기 등등을 했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대체로 회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는 일도 다반사고. 그래서 회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아파트 주민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회의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회의 내용도 좀 정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의 판공비가 월 40만원인데 이것으로 여러 사업을 한 셈이죠. 가족 이벤트도 하고 비록 작지만 동네 상권도 살리고 관심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 아이들 벼룩시장이나 가족 음악회 같은 것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파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입주민과 함께 진행한 오픈 컨퍼런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승수 씨는 먼저 아파트의 개선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90여 개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2011년 10월 25일 오후 8시부터 밤늦게까지 동대표와 부녀회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10개의 아이템이 선정되었고, 이것은 당연히 다음해 사업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승수 씨가 일반인에겐 좀 낯설지만 컨퍼런스라는 형식을 통해 자유로우면서도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불신과 루머, 그리고 뒷담화는 많아도 구체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풍토가 부재한 상황에 기인합니다. 결국 이런 공동의 경험을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이 커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었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아파트에 예전과 다른, 새로운 기운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 컨퍼런스 홍보 플랜카드(좌)와 주민 컨퍼런스 공고문과 포스터(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승수 씨는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12년 11월 6일, '더 체인지'에서 주최한 오픈 컨퍼런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승수 씨가 생각한 컨퍼런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어떤 사람은 어학을,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사진을, 그림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며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곳곳이 강당과 공연장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집도 멋진 나눔의 공간, 도서관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아파트의 마을학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취지에 공감한 입주민 십여 명이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이야기꽃을 피워 나갔습니다. 마을학교가 만들어지고 훗날 학교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날의 소박한 모임이 아마 삼국지의 도원결의쯤 되겠네요.

마을학교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마을 주민 모습

'똑똑도서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독창적 생각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도 도서관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보는 책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함께 네트워킹해서 공유하면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거죠. 옆집에서 책을 빌릴 때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고… 홈페이지에 방문 시간을 올린 후 가게 되고 또 같은 단지라는 최소한의 유대감이 있으니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책은 전부 동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권만 등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책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창 도서관 전용의 간단한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똑도서관'에서는 책의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책 공유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강좌랄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학교라고 하면 '수업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주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요리 같은 것이 많고요, 리본 강좌는 현재까지 3기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당 김쿡의 얼렁뚱땅 레시피'는 약 8회 정도 진행이 됐네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비전공자인데요 제가 데일리 드로잉을 그리니 주변에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이트에 일상의 그림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좌가 되었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동네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리빙 라이브러리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으로 하려고 해요.

리본 만들기 강좌는 아이들이나 남편이 잠든 밤 12시부터 3시까지 밤 모임으로 할 때도 있어요. 강좌이자 친목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공감을 하니 주부의 우울증이 힐링되기도 하지요. 이제는 엄마들이 그 모임을 많이 기다려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관 지원의 사업은 재정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고 보고해야 하고 예산·결산서 작성해야 하고… 저희끼리 하니까 오히려 부담도 없고 비용도 서로 1/N로 나누면 되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먼저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강좌들은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도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재미있고 즐거우니 그런 자발성과 참여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강좌를 듣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분도 계세요. 이제는 서로 가족들을 초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은 아빠들만의 모임도 고민하고 있어요. 술 먹고 소모적인 모임이 아니라 편하지만 우리 삶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의 마을 모습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새로운 희망이 움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파트는 장점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고 동별로 쉽게 홍보할 수 있고 또 아파트 방송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너무 부담주지 않으면서 힘을 빼고 천천히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똑똑도서관'은 이름도 정겹고 내용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무심코 다른 집 현관을 '똑똑' 두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똑똑도서관'은 시멘트로 뒤덮인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파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행보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김승수 씨와의 인터뷰는 지난 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은 인터뷰 직후 바로 기사화되는데 최근에는 먼저 게재해야 할 원고가 있어서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똑똑도서관'에 대해 듣게 된 지 이제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새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어떤 재미가 보태어졌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책 공유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광주 책 읽는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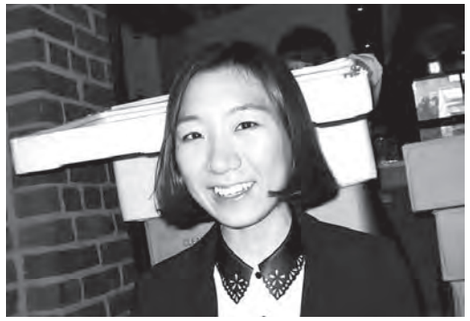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선물과 기습적인 선물

2013년의 풍성했던 달력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잎새처럼 딱 한 장만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그 한 장 남은 달력에 25일이라는 빨간색 숫자가 1년을 쉼 없이 달려와 피곤에 지친 직장인에게 위로의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양말 속에 선물을 주는 풍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린 시절 이른 아침 양말 안에서 선물을 꺼내는 기쁨을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예 양말을 꺼내 놓은 적도 없는 듯합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검열 때문이 아니라 양말도 몇 번씩 꿰매 신어야 하는 궁핍한 시대를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날 특정 시기에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라 관습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선물은 의외성이 있어야 기쁨이 배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 의외의 선물이 광주광역시 곳곳의 벤치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휴식이나 사색 혹은 육신의 피곤을 쉬게 하는 딱딱한 의자 위에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이가 편히 쉬면서 읽어 보라는 정겨운 메모와 함께 책을 가져다 놓았다면?

길을 가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벤치 위에 소박한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십중팔구 혹시 누가 잊어버리고 갔는지를 걱정하며 주변을 둘러볼 것입니다. 그러다 바구니 안에 있는 책에 눈길이 갈 것이지만 그때까지도 이 바구니의 정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벤치에 앉아 마음 편히 책을 읽어 보세요."라는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거나 그 선한 의지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어쩌면 기습적인 선물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벤치에 책을 올려두고 수첩이나 포스트잇 등을 통해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일의 명칭은 '책 읽는 벤치'(이하 책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의 시민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전남대 대학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탁아림 씨입니다.



책 읽는 벤치의 탁아림 씨

단 한사람의 선한 의지로 시작된 이 일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책벤은 벤치 하나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탁아림 씨가 1호 벤치지기가 된 이후 두 달여 만에 벌써 140여 명의 벤치지기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광주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탁아림 씨는 책벤 이전에 '책 읽는 고릴라'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약 45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책 읽는 행사를 갖거나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책벤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준비된 사업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전남대 도서관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탁아림 씨를 만나 그동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루일뱅크(ruilbank, 공원 벤치에 커다란 클립을 설치하고 잡지나 책을 꽂아두어 아무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 네덜란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네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이거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고릴라〉에 바로 글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비가 올 때는 어떡하지?", "지금 당장 시작하자", "아파트 부녀회를 만나러 가자",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 제안하자" 그런 댓글만 모아도 기획서가 될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광주재능기부센터에 찾아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음향기기 등의 지원을 받아 발대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책은 무엇입니까?

알렉스 김의 『아이처럼 행복하라』라는 사진집이에요. 헌 책방에서 구입한 책이지만 저에게 너무 강렬한 느낌을 준 책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책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벤치에서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과 함께 "담배로 속 태우지 말고 책으로 속 채우세요"라는 글귀를 적은 엽서를 같이 바구니에 담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막상 시작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벤치 주변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생 두 명이 그 책 바구니에 굉장히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 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 두 학생은 이제 '책 읽는 벤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무자가 되었어요(웃음).

그녀에게 운명적 간택을 받은 두 사람은 김종석, 김형준 학생입니다. 한 사람은 실무를 다른 한 사람은 홍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인데 김형준 학생의 경우 이 일을 함께 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직장을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영어공부를 하는 등등의,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이 너무 즐겁고 보람차서 이제야 진짜 대학생이 된 듯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아림 씨는 일이 있으면 수업도 빠진 채 일에 몰입하는 학생을 보면 스스로 즐기면서 사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성인이고 그 선택의 총체가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택지는 다양해야 합니다. 취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과장된 공포를 동반한 강요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경험과 제시 혹은 격려가 증발된 채 오직 당장의 현실 세계에서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의 고민 보다는 제대로 된 선택을 위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당당히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5일 첫 번째 벤치지기 탄생 이후 약 두 달 만에 벤치지기가 115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렇게 벤치지기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좀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본인의 책 천여 권을 기증하신 시민이 계신데, 그 책이 없어지거나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본 그분께서 '책 읽는 벤치' 라면 함께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여 방법이 쉽기도 하고 또 이웃과 나누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벤치지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6살 유치원생부터 60대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이 가장 많고 그 외 공무원, 교사, 치과의사, 자영업자, 주부 그리고 지방의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6살 유치원생이 참 부러워요. 지금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공유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것이잖아요. 또 하나 시청 공무원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공무원 조직은 보통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통제 받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은 별도의 허락 없이 시청에서 책벤지기 활동을 하신 거예요. 공무원 일반의 문화로 보면 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딱딱할 것만 같던 공무원들이 젊은이가 시작한 일에 다들 재미있어 하시면서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를 희망해 보기도 했어요. 예술, 문화라는 것이 꼭 돈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스스로 자기 삶,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그것이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저희 일에 대해 시민들은 다들 신기하고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책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되돌려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책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 바구니에 이런 메모도 들어 있었어요. "좋은 일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 따듯해지네요." 그래서 저희 벤치지기들은 희망에 차 있고 설렘 같은 것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책과 함께 엽서를 놓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쓰고 싶은 말을 쓰시라고 포스트잇을 가져다 놓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포스트잇에 친구인 듯한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연애편지를 써 놓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는 소통하자, 소통하자 말은 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회를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남기고 있어요. 자신의 취직, 미래, 로망, 응원과 격려의 글들. 이런 것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일이 공유 도시를 촉진하는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공유를 잇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책바구니가 참 다양하고 창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루일뱅크는 클립을 통해 얇은 책이나 신문을 공유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이나 참여 방법이 천편일률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희들은 공동의 사인물 외에는 모두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처음엔 바구니로 시작했지만 꼭 바구니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진짜 책꽂이를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 나무로 된 책꽂이나 파일집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큰 책꽂이를 등나무 벤치에 아예 고정시켜 놓으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별도로 주문해서 철가방 형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

평범한 바구니도 있고 철가방 형태나 눈과 비를 대비한 지퍼백 형태 등 다양한 바구니 모양

고 그 바구니 안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져다 놓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벤치 도서관의 관장이기도 하고 사서이기도 하신거지요. 남녀노소 직업 불문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쉽고도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벤치지기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0호 벤치지기를 기념해서 각자 5천원의 회비를 내고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이뤄지면서 마치 가족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전에 철가방이 불에 탄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자기 일처럼 속상해 하고 걱정을 했죠. 그리고 그런 공동의 경험을 함께 쌓아 나가면서 우정과 끈끈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책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벤치지기들이 가져다 놓은 책이 없어지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책 도난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대여를 해 간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부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이 사라지면 속상하기는 하지만 이 일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끙끙 앓으면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눔과 함께 비움을 배우고 있는 셈이지요.

이젠 겨울철이어서 벤치지기 활동이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실외는 정리를 하고 실내 벤치 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길 생각입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은 파일럿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기대 이상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는데요. 내부 정비를 통해 내년에는 한층 더 짜임새를 갖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벤치지기들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위해 월 1회 독서 모임을 할 계획이고요, 2014년에는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시민작가로 참여하여 광장 벤치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프리마켓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축제를 좀 더 이끌어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실내벤치 상황이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oursharingbench)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벤치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슨 특별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저는 벤치지기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각각 한명의 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책장 프로젝트'를 할 계획입니다. '책장'이란 단어 그대로 책꽂이이기도 하고,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을 읽는 장(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남대 뒤편 동산 쪽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 곳인데, 이런 곳을 의식적으로 더 활성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곳에 벤치 클리어링 행사를 하기도 하고 작고 소박한 음악회나 프리마켓도 열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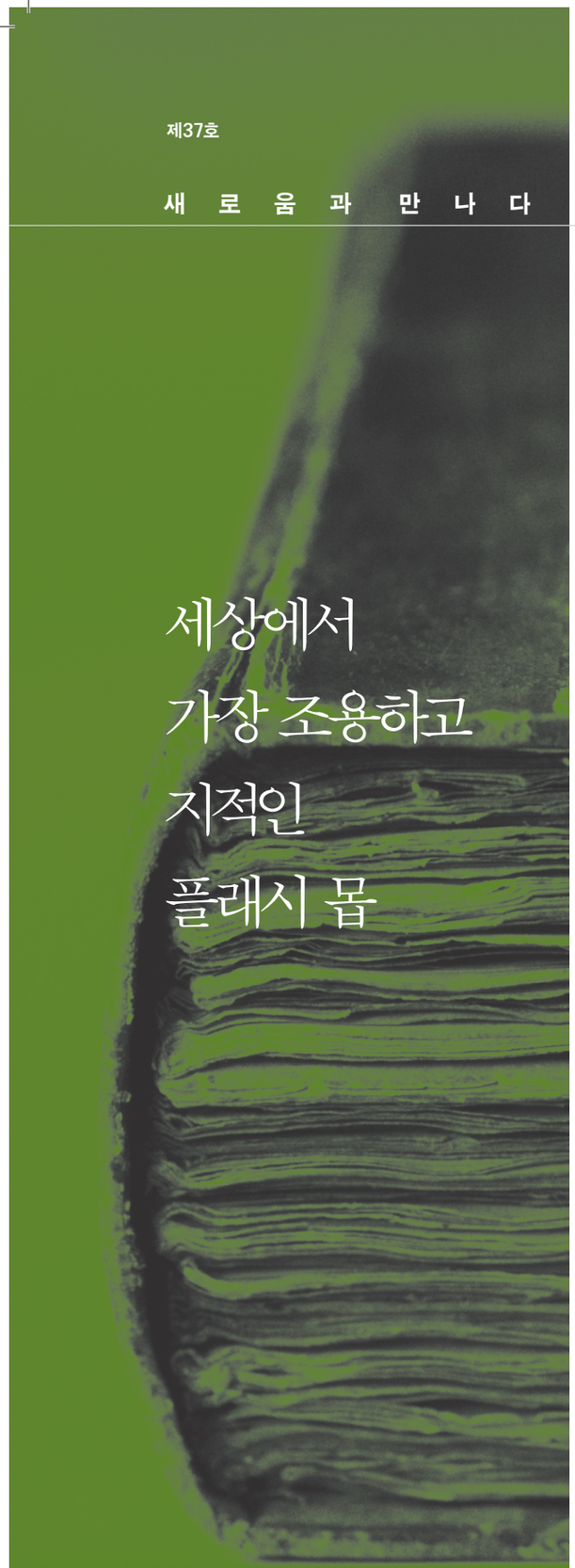
광주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행사나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시민참여가 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광주는 아직 더 채워야 할 빈 곳이 많습니다. 저희처럼 작지만 소박한 일들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생활 속의 문화, 삶 속의 문화로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탁아림 씨는 참 예쁩니다. 본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일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은 주위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즐기면서 하는 것은 승리의 방정식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부러운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벤에 대해 검색을 해 보면 많은 언론매체뿐 아니라 영상 인터뷰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지뿐 아니라 중앙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사화하기도 하였고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벤치지기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비단 언론 노출 때문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언론의 관심에 기반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일과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이제 프로젝트 아이템의 신선도만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이제부터는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치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는 호흡법과 근육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즐거움이기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더 넓고, 깊게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 벤치지기들이여 굿 럭.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지적인 플래시 몹

책 읽는 지하철

지상의 풍경을 바꾸어 놓은 지하철

1974년에 개통된 지하철. 이름은 비록 지하철이지만 이 지하철만큼 지상의 풍경을 극적으로 확 바꾸어 놓은 시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은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의 평당 가격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부동산 업체의 매물 정보도 '○○역에서 도보로 ○분'처럼 역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 평균 69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이제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철 안의 익숙한 풍경 혹은 낯설음

지하철에 탑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재빨리 지하철 안을 스캔합니다. 빈자리가 있는지 혹은 사람이 덜 붐비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이내 빠른 걸음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곤 잠시 고개를 돌려 보면 졸고 있는 사람,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은 단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객이 많든 적든 그곳에서 책을 보는 사람을 찾기란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아래 사진처럼,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전두환 씨가 자진납세할 만큼의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지난 7월 20일 '책 읽는 지하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독서하는 모습

만일 지하철을 탔는데 다들 책을 들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 '내가 잘못 탔나' 하며 전철 안을 살펴본다.
- 남이야 책을 읽든 말든 스마트폰을 꺼내든다.
-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가방에 있는 책을 슬며시 꺼낸다.
- '이거이 뭔 시츄에이션' 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책 읽는 지하철'의 구성과 운영

위 사진처럼 단체로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행사는 올해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7월 20일 행사는 7번째 시도인 셈입니다. 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을 도중에 탑승하게 되면 자리를 잡기도, 책을 펼치기도, 함께 모여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을 출발지로 하는 2호선 열차가 하루 몇 차례 운행되는 것을 활용하여 텅 빈 지하철에 올라 단체로 자리를 잡고 책을 읽게 됩니다. 올 1월에는 80명 정도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 지난 7월에는 120명 정도가 부기(참가자 애칭)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운영은 볼런티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고 참가 신청과 주요 공지사항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ookMetro)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무국이나 흔한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슬림한 형태입니다.

이번 '와'에서는 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송화준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송화준 씨는 책과 관련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독서모임을 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독서모임 〈나눔나우〉를 운영하면서 서울 불광동에 소재한 '서울 혁신파크' 내 '서울 청년 일자리 허브'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랄까, 제가 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독서치료 목적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계기에 독서모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책이라는 것은 자기를 투영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나를 투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제 나를 드러내

는 것에 대한 학습,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책은 지혜의 보고라기보다는 세상 혹은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도 책이 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송화준 씨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플래시 몹 방식을 채용하게 되었는지요.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 것이 '책 읽는 지하철'이어서 그렇지 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 읽는 지하철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독서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책을 읽고 와야 하는 것이 장애라면 장애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과정 자체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임팩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책 읽는 지하철의 기획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독서모임도 하고 출판사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께 저의 구상을 내비쳤더니 양쪽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책 읽는 지하철은 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너무 가벼우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는데 처음엔 캠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캠페인이라는 말은 오히려 계몽적이기도 하고 재미를 반감시키기도 해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플래시 몹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벼우면서도 즐거움이 내재되어 있는 듯해서 이제는 플래시 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획의도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도 저희는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화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처음엔 '우리끼리(출판사와 독서 모임) 즐겁게 놀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초기부터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첫 번째 행사 때부터 8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 점점 참여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뭐 행복한 고민이겠습니다만, 주최 입장에서는 일종의 관리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1, 2회 때는 사전에 조를 구성해서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그 후 다시 조별 모임을 진행했는데 3회 때부터는 테마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3월은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책을 읽은 후 학교에 가듯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졌고 4월에는 봄소풍 개념으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비가 와서 소풍은 못 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 참여층인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만하면서도 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 작가를 생각하다 보니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와 함께하게 되었고 6월에는 도서 관련 가장 큰 행사인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전시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초기에는 독서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사람 간의 만남을 중요시했는데 4월부터는 행사 자체에 포커싱이 되어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홍보와 노출이 되었지만 본질적인 측면, 참가자 간의 소통에는 장애가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외부에 많이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책을 매개로 참가자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최초의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평택에서 중학생 40명이 단체로 참여를 합니다. 선생님이 기획을 하셔서 김유정의 『동백꽃』을 읽고 모임을 한 후, 대학로에 가서 동백꽃 연극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획의도를 제대로 구현하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간과 공간 등 기본 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참가자들이 채우는 것이죠.

단체로 책 읽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한 사람이 하품하면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도 따라하게 되듯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으니 처음엔 이질감에 쭈뼛하고 어색해 하지만, 책 읽는 모습에 동화되는 측면이 느껴집니다. 친구끼리 떠들다가도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거나… 저희 참가자 한 분이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책 읽는 사람이 앉아 가야 한다."며 끝내 사양을 하셨고 어떤 노약자분은 앉아 계시다가 "책 읽는 당신이 앉아라."하면서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독서가 아니라 읽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지하철은 참가자들에게도 많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 이제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잠자면서 이동하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 이젠 책을 읽어야겠다는 동기가 새롭게 부여된다고 합니다.

플래시 몹이라는 것은 군집행동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방식은 극히 일부의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메시지 확장성이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와 메시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지금은 참여자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는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메시지가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하철이 갖는 특수성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호선에서 그것도 한 달에 한번만 하고, 서울이라는 지역에 2호선 지하철만을 이용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은 2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이고 두 번째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을 벗어나 '책 읽는 부산', '책 읽는 광주'처럼 확산될 필요가 있고 교통수단은 지하철을 넘어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매체적 확장을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함께 책을 읽으면 즐겁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행사를 전문 사진사들이 와서 촬영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사진전이나 포토 에세이를 발간

해서 책과 관련한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본질은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비전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기 위해 나아갈 것이고 책 읽는 순간을 즐길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평상시에는 20~30분만 타고 가도 지겨웠는데 1시간 넘게 책을 읽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벌써 내리게 된 것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에 빼앗긴 즐거움을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비전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준 씨와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경에 모임 장소인 신도림역 출발 지하철 4-1번 탑승구에 섰습니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주를 이뤘고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구면인 듯한 사람들은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처럼 초짜에다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열차가 들어오고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지하철 세 량에 분산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갈피와 스티커를 나누어주던 운영진이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를 할 때쯤 서서히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참가자들은 각자 가져온 책을 펴 서서히 자신만의 세계로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가자 중에 가장 연장자인 듯한 안수길 씨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수길 씨는 『우주 속으로 걷다』라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 모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이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평소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것에 우려를 하고

'책 읽는 지하철'에 참여 중인 시민 안수길 씨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우리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해서 참가하게 되었다. 어차피 읽는 것이긴 하지만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 내가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선해서 좋다.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고민과 사고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책을 멀리하고 종합적 사고를 잘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균형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이젠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실내 온도는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 타는 승객의 반응을 살펴보려 부지런히 좌우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에게 특이점을 발견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승객의 반응을 발견하는 것은 기실 어려운 일일뿐더러 기실 허망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텝업」이라는 영화에는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에 맞서 플래시 몹을 통해 저항의

'책 읽는 지하철'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정확히 과녁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은 극적이기 보다는 비루함에 더 닿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독서하는 풍경이 익숙치 않은 모습이긴 하나 그렇다고 깜짝 놀랄 일도, 그것이 잠자고 있는 감성을 갑자기 깨우는 죽비도 아닙니다. '책 읽는 지하철'은 비록 플래시 몹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작심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시선은 시민들의 반응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즐겁게 참여했냐 이지 시민들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혹여 시민들이 그런 즐거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그것은 이 행사의 덤이자 결과물일 뿐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오히려 내적 동력을 심각하게 떨어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지하철'의 다양한 노력과 행위들은 즐거움으로 수렴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으로 지치지 않고 진행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살아 있는 책과의 생생한 만남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시나브로 사라진 살아 있는 책들

저는 70년대 후반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철없던 까까머리 중학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에 책을 놓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학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미모의 젊은 여선생님이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은 저는 어떡하든 선생님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 선생님이 국어 담당이셨기에 저는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소설, 수필, 시 등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전기 사정이 여의치 않던 시기에 전기가 끊기면 다락에 올라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관심이요 잃은 것은 시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환을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독서를 하려 해도 원하는 책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림살이도 빠듯한 형편에 원하는 책을 다 구입할 수도 없었고, 학교 도서관은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었으며, 기껏해야 서울에 몇 곳 도서관이 존재했습니다만, 마음 편히 쉽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대신 동네에는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의 스스럼없는 대화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학 다니는 동네 형, 어렵게 번 돈을 고향집에 부치는 버스 차장 누나, 술 한 잔 들어가면 "내가 육이오 때 말이야~"로 일장 연설을 하는 아저씨, 주전자 들고 막걸리 받으러 가면 가끔 동네 역사를 들려주던 양조장 아저씨,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입 다물 줄 모르는 정치 평론가 아저씨, 동네 주민들의 일상사를 죄다 까발리는 구멍가게 앞의 아주머니들.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육화(肉化)된 책들이 전해주는 내용을 들으며 세상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모아 나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비해 지금 도서관 시스템은 상전벽해입니다. 허나 도서관을 얻은 대신 우리는 살아 있는 책들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책들은 시나브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온 이야기를 다 하면 소설책 열 권이야." 사람은 저마다의 굴곡진 삶 속에서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굳은살 박힌 굴곡진 라이프 스토리의 대하 서사 소설이 아닌 특정 시기의 특정 영역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책보다 더 소중한 정보이고 지혜이며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책이며 걸어 다니는 책이고 휴먼북human book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책으로 등치시키면 그 휴먼북을 모아 놓은 도서관이 있을 수 있고 서적 대출 하듯 그렇게 휴먼북도 대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고 있는 사람, 기관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씨가 그 주인공인데 그분을 지난 6월 덴마크에서 만난 희망제작소의 남경아 교육센터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남경아 센터장

로니 애버겔 씨가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를 만든 배경과 계기는 무엇입니까?

휴먼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 십대 청소년이 밤에 칼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로니 씨와 코펜하겐 출신의 5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에게 가해진 잔인한 공격을 계기로 비폭력 청소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청년들은 〈Stop the Violence-폭력을 중단시키자〉라는 청소년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폭력에 반대하는 젊은 덴마크 청소년들을 모아 또래집단 교육을 실시하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결집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로스킬드 축제Roskilde Festival에서

〈Stop the Violence〉의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축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에 초점을 둔 사람들 간의 대화와 관계를 형성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 지금의 휴먼라이브러리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필요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타인에 대한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직업 선택과 관련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과 사회 구성원 누구나 본인이 속한 배경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학습, 공부가 책으로만 배우고, 학문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력자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휴먼라이브러리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덴마크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코펜하겐에서 휴먼북으로 만났던 아프리카계 뉴욕 출신 이민자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커피 한 잔만 사주면 어디든 간다'고 할 정도로 휴먼북과 독자와의 만남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휴먼라이브러리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의회, 공공도서관, 학교, 축제, 북 페어 등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전체에 몇 개의 지부가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 단체인 것은 확실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휴먼라이브러리와 관련한 행사뿐 아니라 상시적인 휴먼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로니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2011년경에 고려대학교 문화예술동아리인 쿠스파 KUSPA에서 연락하여 쿠스파에서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개최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에 공식적인 인터내셔널 파트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니 씨도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유럽 특성상 별도의 MOU체결 등의 형식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휴먼라이브러리가 추구하는 가치, 철학, 정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함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로니 씨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 남경아 센터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초 조사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공공기관, 도서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 휴먼라이브러리〉처럼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 대출을 하는 곳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연간 행사, 이벤트 행사에 그치고 있는데요. 저는 휴먼라이브러리 자체가 단순한 방법론 그 이상의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을 제대로 소개하고 전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제작소에서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로니 씨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초청 강연회를 내년 초에 개최해서 휴먼라이브러리와 관련한 가치와 철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휴먼라이브러리 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심포지엄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각종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웹페이지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상설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노원 휴먼라이브러리〉를 찾아가 양시모 관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노원 휴먼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0년 지자체 선거 당시 노원 시민사회에서 인적나눔네트워크를 제안했는데 당시 김성환 후보가 그 제안을 받아 공약화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김 구청장은 단순 이벤트가 아닌 상설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예산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제대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 2억을 지원 받게 되었고 구청에서도 운영비 2억을 지원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동안 약 100여 명의 휴먼북을 모집해서 2012년 3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운영 주체도 '운영위원회'라는 임의조직이기도 하고,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매우 열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와 관련한 조례가 상정되어서 저희를 상설조직으로 인정해 주고 그에 걸맞은 인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휴먼북 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주변의 권유나 추천 등을 통해 휴먼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발성과 추천 비율을 수치화 한다면 20대 80 정도 될 것 같네요.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 측면에서 휴먼북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신원조회를 의뢰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소개나 추천이 들어오면 일단 제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터뷰 형식으로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다 체크가 되고, 필요하면 관련된 분에게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지요. 사전 검증을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휴먼북 등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초기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발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지금까지 약 400분 정도가 등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직업군은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양시모 관장

떤 분들은 "1,000명 안 채우냐?"고 하십니다만 사실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류표에 의하면 현재 휴먼북은 19개 대분야 아래 84개 소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를 대체로 다 충족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건물 계단에 게시되어 있는 휴먼북 리스트

휴먼북 등록에 있어 별도의 전략적 분야가 있는지요.

일반 예상과는 달리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 분야의 분들을 모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분야 보다는 일반 직장 분야에서 멘토해 줄 사람을 더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IT 종사자처럼, 일반 직장인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을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워낙 본인들 삶이 바쁘기도 하고 해서 지역사회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아쉽지요. 그리고 간호사처럼 학생들 수요가 많은 직업군은 복수로 등록시키려고 더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용)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출에는 상시 대출과 특별 대출이 있는데요. 아직 대출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시 대출은 1주에 평균 5~6권 정도 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대출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주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출의 경우 상반기에 약 2,000회 정도 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400여 명의 휴먼북 중에서 년 간 전혀 대출이 안 되는 분도 약 150분 정도가 됩니다.

초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관심을 갖는 분들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실용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한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 80%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부나 전직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부는 아무래도 실용적인 살림살이나 생활의 지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휴먼북과 이용자 사이의 시간 조정에도 직원의 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등록된 분들이 일상적으로 결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개 년 간 3~4회 정도 봉사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도서관에서의 사서가 원하는 책을 찾아 주는 객관식 업무라면 저희의 경우에는 양자의 일정과 장소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식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담당자들은 일주일 내내 전화통을 붙잡고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휴먼북과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이나 경력의 다른 휴먼북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만남의 장소는 가급적 저희 기관 내에 있는 카페를 이용합니다만, 신원이 분명하고 믿을만한 분이면 그분의 직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휴먼북과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용자에 대해 주제와 일치하는지, 답변의 질은 어떤지, 친절도나 시간의 적정도, 주위환경 등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휴먼북도 지적인 봉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다가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인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에게는 상식이지만 타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이고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로 여기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도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회사로 오게 한 후에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속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개선 과제가 있다면…

제일 아쉬운 게 좋은 자원(휴먼북)을 모셔왔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 이용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휴먼북 모집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와 제대로 잘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상설화, 일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번 이벤트 식으로 하게 되면 '재능 나눔'은 될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소통 나눔'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짝 만나면 그야말로 연예인 만나듯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휴먼북도 소속감이 없고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게 되지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육체를 활용한 봉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지적자원 봉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잘 체계화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서포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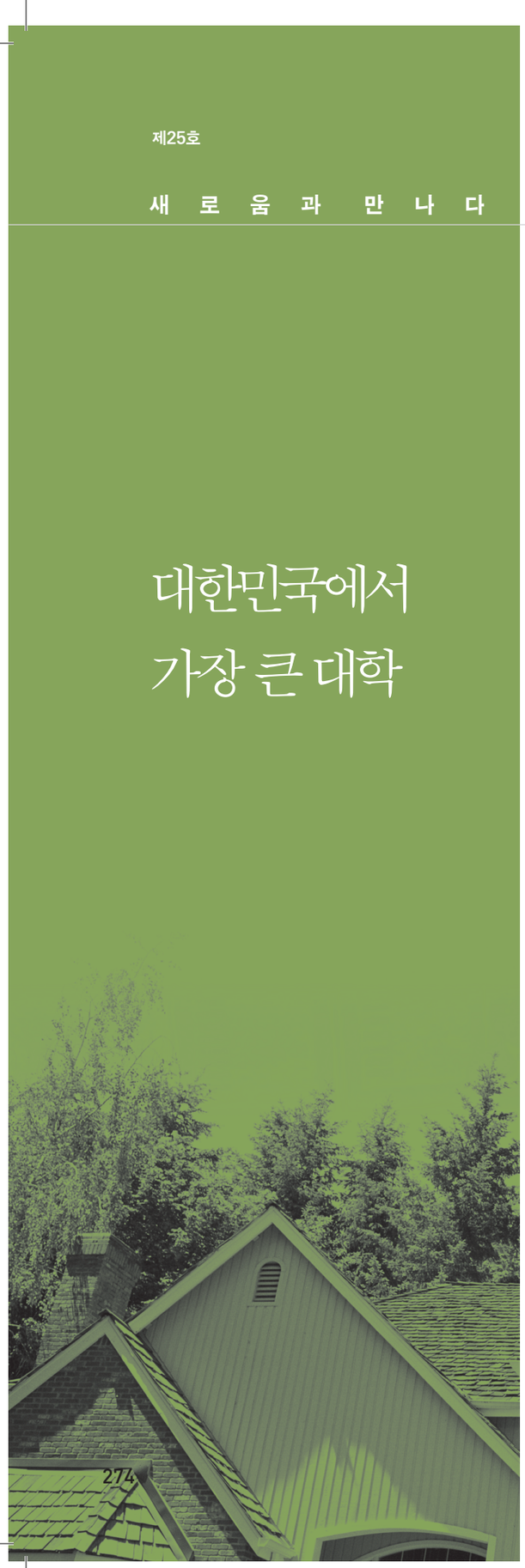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남편과 이혼한 후 남성 일반에 대해 불편함과 불안감을 갖고 있던 중년 여성이 재혼과 관련하여 휴먼북 대출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셔서 연결을 시켜드렸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단히 큰 만족감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논리와 학문과 각종 소스들이 널려있지만 정작 자신과 공감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따듯함'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냉철한 이론이 아니라 따듯한 공감과 연대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마을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 속의 마을은 단순한 공간 개념의 마을이 아니라 이런 공감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마을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줄 휴먼북 한 권, 대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지리산 문화공간

남원하면 생각나는 것

이번에는 좀 멀리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지리산 문화공간〉과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카페 〈토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남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십중팔구는 춘향이가 생각날 것이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뱀사골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남원하면 '실상사'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런 분이라면 아마 사찰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남원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고 계시거나 그도 아니면 귀농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계신분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논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있는 천년 고찰 실상사

실상사를 가보셨나요? 보통 사찰은 사바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산속에 그 터를 잡고 있습니다만, 실상사는 대개의 사찰 입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실상사는 옆에 지리산 자락을 끼고 있긴 하나 사찰은 그야말로 논 한가운데 떠억 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방문하였을 때는 농한기 들판의 고즈넉함이 물씬 풍겼습니다만, 봄 아지랑이와 파릇한 벼, 그리고 가을녘 황금색을 이루는 들판, 그리고 그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실상사. 실상사는 논 한가운데 가부좌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시사철 각기 다른 풍경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사가 한국 귀농귀촌 운동의 메카로 자리 잡은 것은 실상사의 이런 입지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97년 농민운동가 이병철 씨가 당시 주지스님에게 귀농운동 지원을 부탁드리자 도법스님께서 흔쾌히 실상사의 땅을 제공함으로써 실상사에 귀농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실상사가 속해 있는 남원 산내면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내면에 대한 입체적 이해

산내면에는 또 하나 소중한 시설이 있습니다. 실상사 작은학교가 그것입니다.

귀농을 결정하기까지에는 여러 고민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봉우리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 때 작은 학교는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학교는 귀농이 아니라 순수히 자녀의 대안교육을 위해 왔다가 아예 산내면에 눌러앉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내면 인구(작년 12월 기준) 2,132명 중 귀농인구가 약 380명 정도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고 귀농자들 때문에 산내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 그리고 좀 더 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품고 있는 산내면 그리고 천년고찰 실상사와 작은학교.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귀농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곳. 그리고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는 산내면

〈지리산 문화공간〉을 소개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면 단위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 초등학생 80여 명 중학생 50여 명, 한생명, 꾸러미 조합, 농장, 독서 모임, 요가 모임, 탁구부, 배드민턴부, 각종 봉사 모임 등 각종 모임과 만남이 풍성한 곳,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이 편안하게 모여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만한 공간,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만한 교육

공간,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휴식과 배움이 어우러지는 곳, 하고 싶은 것 꿈꾸는 것들이 실험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회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해도 부지 매입과 크고 작은 공사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선 수고로움과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인 혹은 소수의 참여 대신 다수의 참여를 통해 돌파를 했습니다.

건물 매입은 소수가 참여했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일부러라도 지인과 마을 주민의 출자,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를 통한 모금으로 참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습니다.

〈지리산 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메인 공간은 당연히 〈토닥〉입니다만 '토닥이네 민박집'과 '청소년 공간 재미'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청소년 공간 재미'와 '토닥이네 민박집'

청소년 공간은 토닥 뒤편 공터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만든 구조물입니다. 건물 내부는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만화와 도서, 그리고 테이블과 안락한 쿠션의자만이 심플하게 놓여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내면의 청소년들도 마땅히 갈만한,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꼰대적 규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을 자든, 숙제를 하든, 책을 보든, 수다를 떨든 이용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청소년 공간이 산내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면 토닥이네 민박집의 주 이용고객은 외지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닥이네 민박집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무니다

이 지면의 주인공은 당연히 인터뷰이입니다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란한 고대문명은 모두 강가에 터를 잡았습니다. 강을 생명의 젖줄로 삼아 당대 최고의 문화를 꽃피운 것입니다. 꼭 같지는 않겠지만 좁게는 산내면, 넓게는 지리산 산자락을 끼고 있는 마을들의 문화가 피어나고 번져 나가는 중심에는 〈토닥〉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공간은 공간 자체로 사람을 흡수하는 흡입력이 있는 것이고, 어쩌면 공간은 공간 자체로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산내면에는 지리산 둘레길이 처음 열렸던 매동마을도 품고 있고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토닥토닥 위로를 받고 싶어 찾아올 때, 혹은 조용한 곳에서 소규모 워크샵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일행도 다음날 아침 전주에 일정이 있어서 이곳 토닥이네 민박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토닥토닥 토닥이

〈토닥〉은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만 규모에 비해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나 외

조아신 씨(좌), 임현택 씨(우)

지인에게 준비된 식음료를 판매하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이곳은 주민의 훌륭한 극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공연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지식과 성찰이 오가는 공부방이기도 하고 그런가하면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규격화된 가방이 아니라 내용물에 따라 수 없이 자기 모습을 바꾸는 보자기 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오픈을 했으니 아직은 신생아 단계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지리산 문화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힘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까지에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할 듯합니다.

토닥이네 식구들

토닥에는 3명의 식구가 있는데 그 중 두 분과 인터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아신 씨는 거주지는 산내면이지만 주요 활동 기반은 서울이라(조아신 씨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플랫폼인 비영리단체 〈더 체인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내면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더 나이들기 전에 자신의 지역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최근 들어 삶의 무게 추를 확실히 산내면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4.19와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부산 시민의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부산 〈민주공원〉에서 활동하던 임현택 씨가 이곳에 터를 잡게 된 것은 순전히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도시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시골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 이곳 산내면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왔으니 그야말로 새내기입니다.

십여 년 훨씬 넘게 귀농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스스로의 학습공동체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하 특정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에 답변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변산공동체 같이 지역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사는 주거공동체가 아니라 각기 리(里)별로 산개하여 생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내면에는 귀농자를 지원하는 '한생명'이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모임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녹색평론 읽는 모임, 각종 스포츠 모임처럼 자발적인 모임이 있고 한편 한생명에서 장 담그기, 손뜨개질, 요가, 비폭력대화 모임, 판소리 등 생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귀농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운동 모임은 절반 정도 되고 청년회, 방범대 등 기존 모임에는 귀농자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 학습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발적 열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토닥을 생각하신 거네요.

천천히 둘러보면 귀농자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여유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다시피 했지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토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2년 바람개비의 북 콘서트 모임 모습(출처:토닥 홈페이지)

모든 조직을 하나로 묶어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과연 우리 상황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었고, 산내에는 들어오지 못한 교육 콘텐츠가 있다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산내에 '바람개비'라는 교육 관련 공부하는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관 신청을 하셔서 오픈 전날 교육혁명을 주제로 북 콘서트를 진행하셨습니다. 한 50여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아마도 산내에 이런 북 콘서트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공부와 문화를 진작하는 환경, 마당을 깔아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은 대학'처럼 저희도 이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지리산은 대학'이라는 개념의 다락(多樂)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숲과 길 관련 교육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지리산 둘레길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천편일률적인 안내가 아니라 좀 더 재미있고 전문적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생태나 길 등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2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기에 다락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지는 물음표이지만 1월부터 기타 강좌가 있었고, 지난주 마을신문 만들기 관련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필요하면 마을신문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토닥이 만드

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의 욕구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섭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데일리드로잉을 원해서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능력을 보유한 분이 마을에 계시면 제일 좋고 정 안되면 외부에서 모셔 와야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수원에서 하고 있는 누구나 학교도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을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 판소리 하는 사람 등등.

조아신 씨의 "도시에는 농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오랜 기간 활동가로 생활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골은 다릅니다. 대도시와 달리 이곳은 익명성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모두 얼굴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기에 서로 쑥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기획이나 운영이나 홍보하는 방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혀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지리산문화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얼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들고 녹여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귀농자와 원주민의 지혜와 능력을 서로 엮어주고 저마다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다락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문하면 아마 '청소년 공간 재미' 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리산 가는 길에 〈토닥〉에 들러 차 한 잔 마실 때 즈음, 마을신문 기자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그 인터뷰 요청에 사양 마시고 여러분의 따듯한 응원 한마디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마을

일본 시부야대학을 가다

30만평의 캠퍼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까지 손바닥만한 운동장에서 12년을 뒹굴다가 드디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니 이것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면 백양나무가 곧고도 길게 쭉 뻗어 있고 고색창연한 건물들과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공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정 곳곳은 최루탄 냄새가 배어 있고 마냥 낭만을 즐기기에는 시절이 하 수상하였지만 그래도 30만 평이 넘는 커다란 교정 곳곳은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역사와 철학과 시대를 공부하는 장소였고 가슴 부푼 새내기가 뛰놀기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캠퍼스를 가진 대학

일본 수도 기능을 하는 도쿄 23개 특별구의 인구는 약 880만 명이고, 다마 지역·이즈 제도·오가사와라 제도를 다 합친 도쿄도 인구는 약 1,300만 명

정도나 되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도쿄 23개 특별구 중에서 시부야라는 곳은 인구 20만 명 정도 규모의 그리 크진 않지만 쇼핑과 문화, 관광과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일본 최대의 레코드점이 있고 크고 화려한 백화점이 몰려 있으며 도시는 늘 청년과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화려함과 홍대의 젊음이 합쳐진 도시쯤 된다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런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의 캠퍼스보다 수십 배는 더 넓고 큰 이 대학의 이름은 시부야대학. 특이하게도 이 대학의 학장은 아주 젊디젊은 35살의 훈남 청년인데 더 특이한 것은 등록금도 시험도 학점도 졸업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졸업이 없는 것을 넘어 이 대학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いつまでたっても卒業しない. それがきっと, シブヤ大學の優等生です."

"언제까지나 졸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분명 시부야대학의 우등생입니다."

시부야대학은 일반적인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방통대 같은 온라인 중심의 학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시부야대학은 20만 시부야 지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부야 도시 전체를 통째로 캠퍼스 삼으며, "마을을 캠퍼스로"라는 기치 아래 만든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NPO입니다.

시부야대학의 훈남 학장 사쿄Yasuaki Sakyo

어린 시절 소아천식으로 고생한 사쿄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럭비를 시작하였고, 이후 와세다대학에서는 럭비부 주장까지 맡은 183cm의 당당한 체격과 훈훈한 외모를 갖춘

시부야대학의 홈페이지 http://www.shibuya-univ.net/

젊은 청년입니다. 평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던 그는 먼저 기업이 갖는 시스템과 장점을 이해하고자 무역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 2005년에 GREEN BIRD라는 NPO에서 1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 드디어 2006년 9월에 시부야대학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부야대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기한 분은 사쿄 씨가 아니라 시부야 구의원인 하세켄 씨인데, 구청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공감은 하였지만 일본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에 쉽사리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이때 사쿄 씨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한번 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2006년 9월에 메이지 신궁 회관에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야대학의 눈부신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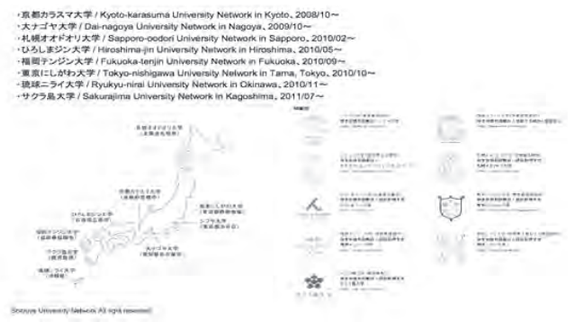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3년 안에 70% 이상이 문을 닫고 10년을 지속하는 조직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시부야대학은 어느 정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20번 이상의 수업이 진행됐고 강사로 활동하신 분도 7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실로 확보된 곳은 총 290곳이 넘으며 현재 16,000명이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 이

용객은 20~30대의 여성이며 직장인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부야대학의 안착은 이런 양적 지표 이외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좌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강좌가 예정 인원을 초과하게 되어 늘 추첨을 할 만큼 인기가 높고 수업 후 조사한 설문조사서에는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부야대학의 모델을 자기 지역에서도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속속 등장하여 일종의 자매교가 교토, 나고야, 삿포로 등 일본 전역에 현재 9개가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게이샤 수업, 쓰레기담당 공무원 수업, 방재 체험, 지역투어 수업



일본 시부야대학 자매교가 일본 전역에 8곳 분포되어 있습니다.

"シブヤ大學の場合, 生徒は, 先生にもなれます."

"시부야대학의 경우, 학생은 선생님도 됩니다."

시부야대학의 선생님은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와 마찬가지로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 강사분들이 아닙니다. 시부야에 거주하거나 시부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자기의 지식과 재능과 지혜를 다른 시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시부야에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이샤가 2명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게이샤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을 잘 아는 꼬마가 문화예술가가 만들어 준 모형버스를 타고 지역을 안내하는 강좌도 있고 쓰레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수업도 인기가 있었고 구청과 함께 방재훈련을 하는 현장체험 학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야대학의 경우 수업 개설 과정이 누구나학교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좌 코디네이터라는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합니다. 강좌의 시작은 코디의 기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끝나면 코디가 관련 강사를 섭외하고 수업 내용에 가장 걸맞은 장소를 물색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볼런티어와 함께 수업 전체를 관장하게 됩니다. 시부야대학에는 이런 코디가 약 20명 정도 있는데 일 년에 여러 개의 강좌를 만들어 내는 코디도 있고 년 간 한 개도 만들지 못하는 코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의 경우 한 강좌

당 4만 엔의 수고료를 받게 되는데 강좌 참여를 인연으로 볼런티어 활동을 하다가 코디네이터 역할에 관심을 가져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코디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경력자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부야대학의 사쿄 씨와 인터뷰 약속을 하고 찾아간 날 마침 불행하게도 사쿄 씨가 고열과 감기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묻고 배우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좀 아쉬움이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시부야 대학의 사쿄 학장

시부야대학이 다른 사회 교육과 다른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 교육이란 가르치는 입장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집니다. '시민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업이 기획되지요. 그러나 시부야 대학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상징적인 존재로 시부야 대학에는 수업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스스로 한 사람의 학생이 되어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 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수업을 기획합니다. 그 점이 다른 사회 교육과의 차별성입니다.

지금까지 시부야대학이 걸어온 길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요.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NPO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자립해 지속적인 활동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시부야대학도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일본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상황도 예년에 비해 매우 나빠졌습니다. 시부야대학은 많은 부분이 기업의 협찬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수입이 모두 끊어진 것이지요. 그 때 수업수를 줄인다든가, 새로운 교실들을 개척하면서 힘들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 때를 계기로 보다 나은 재정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도 모색 중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부를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시부야대학의 재정 상태 등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부야대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매달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통 수업 참가 신청자 수가 정원의 몇 배에 이릅니다. 또한 수업 후 앙케이트를 읽어 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볼런티어로 수업 진행을 맡고 있는 스텝들이 시부야대학 덕분에 매일 매일의 삶이 즐겁고 충실해졌다고 말할 때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시부야대학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비스 지역의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 몇 몇 지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부야 대학을 계기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행정과 지역 기업,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자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처럼, 시부야대학이 지금까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만나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시부야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부야대학의 미래에 대한 구상은?

지난주에 '우리 모두 꿈꾸는, 이것이 시부야의 미래상!'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시부야 대학이 시부야 지역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부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시부야의 미래상을 그리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부야대학의 역할은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자신은 시부야대학의 미래상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역시 지역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시부야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일본은 여러 면에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좀처럼 밝은 화제를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인지 계속 질문을 던져가는 과정에서 시부야라는 지역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데 우리 대학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부야라는 지역은 일본에서도 다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보 발신력과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본 사회의 차세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시부야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부야대학이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시부야대학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각지에서도 자매교라는 형태로 시부야대학을 모델로 삼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같은 일본 내부라 할지라도 같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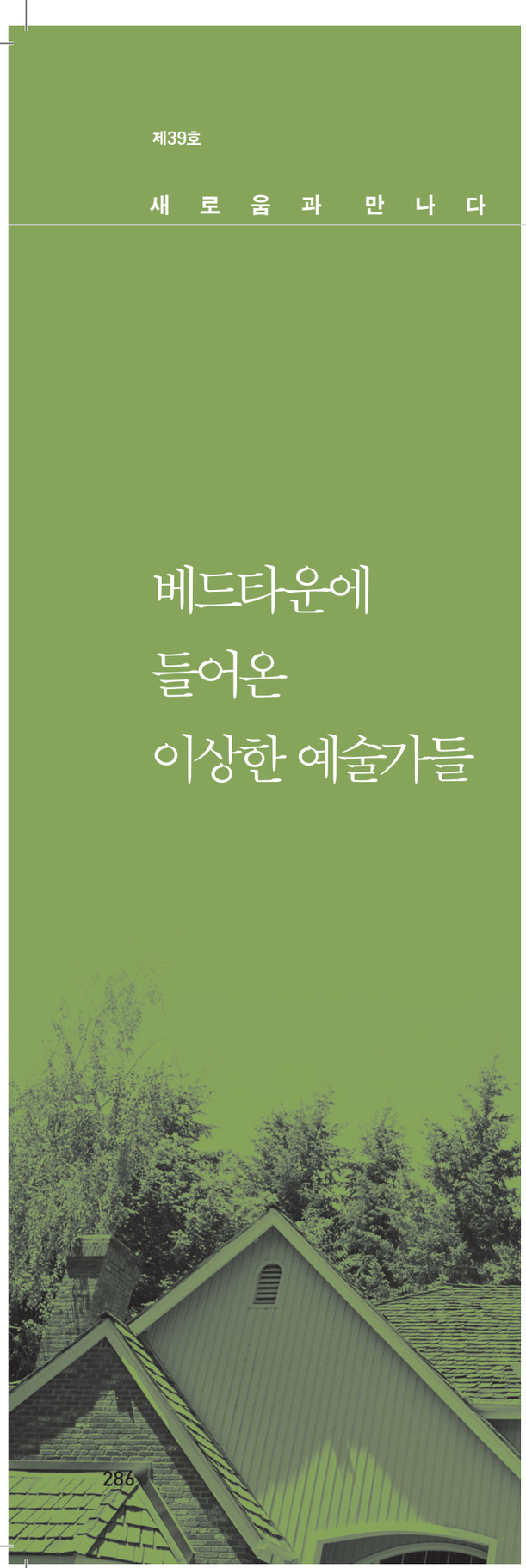
따라서 설령 마을이 캠퍼스라는 같은 컨셉을 가지고 수업을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내용의 수업이 있다면 좋겠는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시부야대학이 있으면 좋을지 그 지역의 일원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쿄 씨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단지 다양한 강좌에 있지 않습니다. 강좌는 어쩌면 매개물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강좌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이것이 사쿄 씨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현재 30여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합창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60~70대 노인들과 20~30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시부야대학 자체가 커다란 커뮤니티인 셈입니다.

철저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연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시부야대학.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업과 공공부문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지역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부야대학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베드타운에 들어온 이상한 예술가들



마쓰도시(松戸市)의 변화

도쿄 도심에서 열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면 지바현 마쓰도시(松戸市)에 도착한다. 최근 2~3년간 젊은 예술가, 창작가, 운동선수, 나아가 사회 공헌에 뜻을 둔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도쿄 도심을 탈피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그리하여 마쓰도역 반경 500m 구역을 스스로 '매드시티MAD City'라 이름 짓고, 창의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간다.

인구 50만 명인 마쓰도는 수도권 베드타운 중 하나다. 마쓰도역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역을 둘러싼 5~7층 빌딩가에 빈 사무실이 있는 것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고령화되는 주민, 쇠락해가는 상권 등 도쿄 근교 여느 베드타운 도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시가지를 조금 걷다 보니 전면 유리창에 'MAD City', '탈(脫)도쿄 부동산'이라고 쓰인 작은 창고가 나온다. 이곳에서 데라이 모토카즈 씨(35)를 만났다.

마쓰크리에이티브 사무실

데라이 씨는 일본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청년 사회적 기업가다. 25세에 비영리법인 '컴포지션Composition'을 설립한 그는 도쿄 도심 시부야에서 공원과 빌딩 관리를 위탁받아 이들 공간을 청년 예술가를 위한 그래피티 캠퍼스와 거리 농구장으로 개방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랬던 그가 2010년 왜 지방 도시 마쓰도로 활동의 거점을 옮겼는지 궁금했다. "도쿄 도심은 돈 없는 젊은 예술가에게는 제한과 규제가 너무 많았다. 거리 예술 같은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때마침 지인의 소개로 마쓰도 시를 알게 됐다는 것. 도쿄에서 접근하기 편리하고 역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에도가와 강이 나타나는 마쓰도 시는 비어 있는 사무실과 낡은 건물로 인해 적적함까지 감돌았다. 그러나 "그 적적함이 내게는 오히려 자유로 다가왔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날 이후 그는 셔터를 내린 낡은 점포와 오래된 민가, 빈방 투성이인 낡은 아파트를 찾아 나섰다. 임대료가 싼 만큼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공간으로 자유롭게 DIY하고 개조할 수 있으며, 이웃과 시끌벅적한 파티를 열거나 워크숍·전시회 등 이벤트를 벌이는 일도 가능했다. 데라이 씨에 따르면, 이런 매력에 이끌려 지난 3년간 이곳으로 이주한 청년만 약 70명에 이른다. 그와 함께 매드시티 투어에 나섰다.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에 그려진 큰 벽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벽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할 때 함께 이주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RE 씨가 그려준 벽화라고 한다. 매드시티 공동 아틀리에 1호라는 '옛 하라다 쌀집'에도 들렀다. 고층 아파트 사이에 홀로 남아 있던 100년 넘은 이 민가는 오늘날 영상작가·화가·사운드 디렉터 등 현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12명이 입주한 공동 작업실로 변모했다. 1층 가게에 입주한 아트디렉터 스즈키 미호 씨는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예술교실을 연다고 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RE 씨가 지진피해 복구를 염원하며 작업한 벽화(좌)
'매드시티' 제1호 공동 아틀리에가 된 옛 하라다 쌀집(우)

지역 자치조직을 재건하는 게 시작

다음에 들른 곳은 매드시티 제1호 맨션이다. 지은 지 40년 된 이 맨션은 데라이 씨가 보러 왔을 당시 20호 중 11호가 비어 있었다고 한다. 주인에게 관리를 위탁받은 이 맨션은 복고풍의 커뮤니티 하우스로 재탄생했다. 매드시티에 둥지를 튼 아티스트 등 다채로운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지금은 만실이 되었다. 방 한 개는 커뮤니티 룸으로 개조해 입주자들이 홈 파티 등 이벤트를 벌이는 장소로 쓴다.

역 앞 광장에 위치한 빈 빌딩 7층에 '팬클럽 FANCLUB'이라는 이벤트장도 개장했다. 평일에는 양초 작가 노나카 켄이치 씨가 공방 겸 카페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매드시티 입주자들과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워크숍, 라이브 공연, DJ클럽, 영화 상영 등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브라질과 에콰도르에서 유기농 커피를 공정 무역으로 수입하는 친환경 커뮤니티 카페 '슬로우 커피 Slow coffee'의 개업 1주년 파티가 열렸다.

버려진 건물이 커뮤니티 하우스로 재탄생했다

마을이 활기를 띠면서 주민들도 달라졌다. 지난해 6월에는 매드시티 주변 11개 마을 자치회장과 지역 청년, 아티스트들이 모여 '마쓰도 마을만들기 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역 앞 중앙공원에서 라이브 연주회를 열거나 빛 축제의 일종인 '101인 라이트 드로잉' 행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한다. 〈NPO법인 H.O.W〉의 지원을 받아 에도가와강 하천 부지에서 주민들의 야외 결혼식을 열고, 역 앞 식당가 도로의 차량 출입을 막고 연회를 벌였다. 다양한 예술 활동과 생활 이벤트가 개최되어 역 인근 공원과 하천을 찾는 주민도 갈수록 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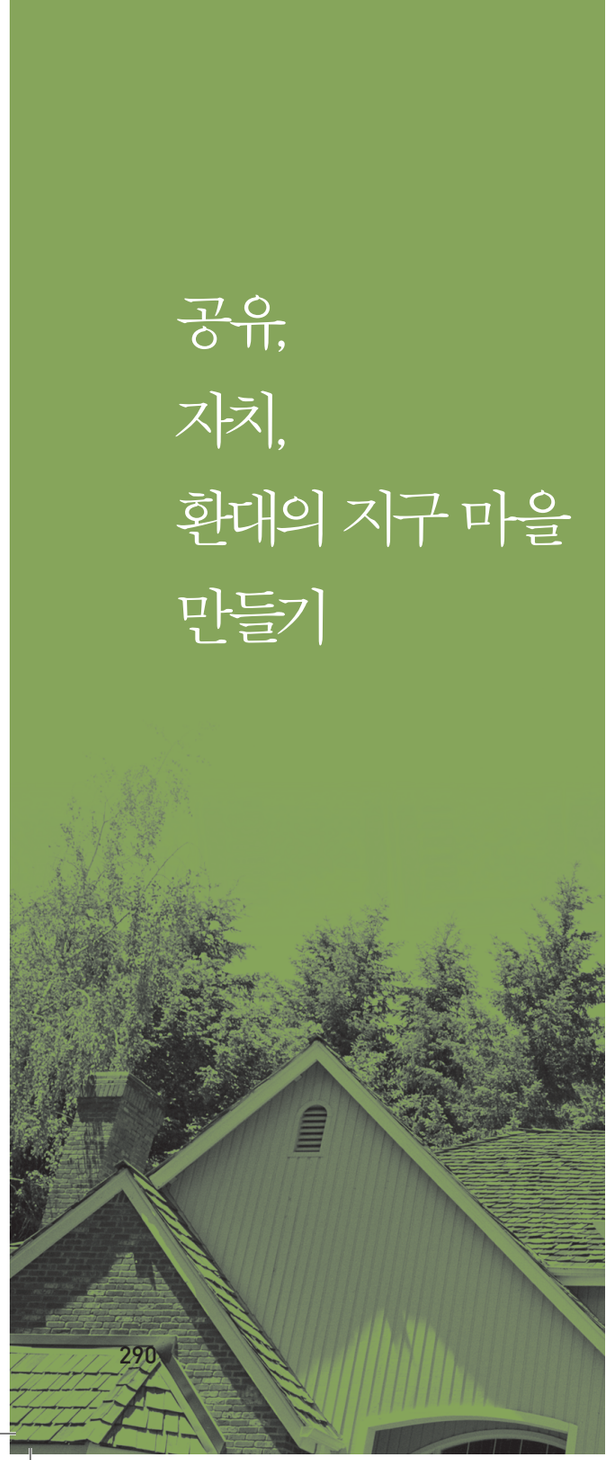
데라이 씨는 지난 3년의 경험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외적 요소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한다. 커뮤니티 붕괴로 방치돼 있던 공공시설과 자치조직을 주민들이 다시 공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토착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젊은 이주자들의 예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모아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쓰도 또한 주민의 삶에 뿌리내린 예술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 앞으로 마쓰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베드타운에 들어온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마쓰도 마을만들기 회의, 중앙공원에서 개최된 빛의 아트 101인 라이트 드로잉, 노상에서 벌인 주민들의 연회, 에도가와강 하천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 이 글은 희망제작소 '안신숙의 일본통신' 및 시사인 306호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글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주재 객원 연구위원)

공유, 자치, 환대의 지구 마을 만들기



해방촌 빈집, 빈가게

빈집의 시작, 빈집들이

2008년 2월 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은 아주 단순한 설정으로 시작했다.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상업적인 게스트하우스guesthouse가 아니라 손님들이 주인이 되는 손님들의 집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시작은 세 명의 백수들이, 방 세 개짜리 평범한 가정집을 임대해서 살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전부다. 처음 입주한 당일은 이삿짐을 나르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보통의 집들이가 집주인이 집을 꾸며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파티는 비어있는 집에서 누가 이 집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자리로 빈집들이라 했다. 파티는 열심히 놀 작정을 하고 온 친구들 덕분에 2박 3일 동안 시끌벅적하게 진행됐고 20~30여명이 잠을 자고 갔다. 여기서 빈집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이 때의 에너지와 관계들이 기반이 되어, 친구들과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장기투숙객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빈집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주인들을 들이는 집으로서 여전히 빈집들이 중인 셈이다.

방은 세 개 뿐이었는데, 장기투숙객들이 살면서도 늘 단기투숙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여자방, 남자방, 손님방 이렇게 나눴다. 장기투숙객들이 여자방 남자방에 나눠 살고, 처음 오는 사람이나 단기로 머무는 손님의 경우를 배려해서 손님방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손님방은 단기투숙객들이 없을 때는 장기투숙객들이 혼자, 커플끼리, 모임끼리 같이 쓰는 다목적 방으로 활용했다.

일상적인 삶들은 각자가 백수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를 줄이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거의 모든 밥을 해 먹고, 채식을 중심으로 먹고, 전기와 물을 아끼고 재사용하고, 쓰레기더미 속에서 쓸 만한 물건들을 노획하고, 이동은 자전거로 하고, 집과 동네와 뒷산에서 놀 수 있는 궁리들을 하면서 지냈다. 채소를 살 돈을 아끼려고 옥상 텃밭 농사를 시작했고, 술값을 아끼려고 막걸리와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 물을 아끼고 거름을 얻자고 옥상 직립 변기를 만들었다.

소비를 줄이면서도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배우고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간 과정은 그것만으로도 삶의 큰 즐거움이다. 집 짓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 목공수업을 했다. 자투리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가구들이 탄생했다. 면생리대를 만들어보았던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 쿠션 커버를 같이 만들고, 천들을 이어 붙여 커튼을 만들었다. 어울려 놀다보니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술 빚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20권 정도 도서관에서 빌려와 함께 읽고 실습하며 맛있는 막걸리를 맛보게도 되었다. 맥주를 만들어 본 단기투숙객이 생겼고 드디어 하우스 맥주의 세계도 열렸다. 된장, 간장을 만들고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는 등 살림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습득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학습의 장이자 즐거운 놀이였다.

닷닷닷: 빈집에서 보름과 그믐날 밤에 하던 캔들 나이트 모습. 에너지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면서 시와 음악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사진제공: 해방촌빈연구소 살구, 이하 동일)

옥상텃밭: 허브들과 잎채소 가지와 호박 등을 키워서 잘 먹었다.

장 담그던 날, 첫 간장을 만들던 날이다.

설날만두, 명절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두 빚기 먹기

빈마을의 형성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주인이기에, 처음 들어올 때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누구도 다른 주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좁아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본다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장기투숙객들이 살게 되었다. 손님방은 물론 거실에서도 장기투숙객들이 살게 되면서 단기 손님을 받는 일이 어려워졌다. 빈집이 꽉 차버렸다. 빈집이 더 이상 빈집이 아니게 되었다.

더 이상의 손님, 더 이상의 주인을 받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집을 더 늘릴 것인가? 논의 끝에 우리는 2,000만 원을 더 대출받아서 새 집을 구하기로 했다. 사람이 더 올 수 없으면 빈집이 아니기 때문이고, 먼저 온 주인만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결국 빈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새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을 구하느니 방이 딸린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사는 게 낫다는 부동산 주인의 제안으로 아예 가게를 구해버릴까 하는 제안도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빈가게에 대한 꿈은 부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빈집과 5분도 안 걸리는 동네에 두 번째 빈집을 계약했다. 이번에는 보증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전셋집이 아니라 월셋집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집은 방이 더 작고, 더 오래된 집이었지만 월세와 이자를 더 하면 첫 번째 집보다 월 주거비는 더 비쌌다. 새 집에는 커플들이 사는 방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커플들이 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더 강했다. 월세가 부담이 됐는데,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룹이 결합해서 방 하나를 쓰고, 첫 번째 집과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집이 두 개가 되면서 언덕 아래 첫 번째 집을 아랫집, 두 번째 집을 윗집이라고 했다.

그리고 석 달이 안 돼서, 세 번째 집이 시작했다. 이 집은 빈집 사람들과 친하고 종종 놀러오던 친구들 세 명이 돈을 모아 집을 근처로 구하기로 하면서 시작했다. 이 집은 커플이 한 방을 쓰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한 명도 곧 커플과 같이 살기로 하면서 두 커플이 두 개의 방을 쓰고, 하나의 큰 방을 공부방 또는 작업실로 개방해서 썼다.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있어서 옆집이라고 불렸다. 이 집을 전셋집으로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운영됐고 운영도 독특한 점이 있었다. 이 집이 생긴 것은 빈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기 때문에 빈집처럼 운영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빈집이라고 스스로 불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연이어 한 달이 안돼서, 네 번째 빈집이 생겼다. 이 집은 원래 같은 동네 인근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백수들이 살던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었다. 방이 4개인데도 엄청 싸서 각각 독방을 썼다. 두 명이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내고, 한 두 명이 더 살 곤 했었는데,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여서 어느 정도는 이미 빈집 같은 집이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영어를 쓰면서, 미국, 캐나다, 네팔, 콜롬비아, 스리랑카 등 다양한 이주민들과 내국인들도 거쳐 갔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집을 빼고 흩어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윗집에 살던 한 친구가 보증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나가는 친구에게 주고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빈집 사람들도 자유롭게 오가고 독방을 쓰고 싶은 친구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는 집이 되었다. 집 이름은 원래 계약자의 이름을 따서 닉산재라고 불렸는데, 빈집이 되면서 가파른집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빈집이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집은 네 채로 늘어났고, 장기투숙객의 숫자는 20명을 넘어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확장이었다. 그래서 각 집별 회의 외에도, 모두가 모이는 마을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빈마을의 시작이었다.
빈마을은 계속되면서 한동안 집 4~5개, 장기투숙객 20~30명 정도의 규모가 유지됐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건과 사고, 놀이와 작업, 모임과 동아리, 우정과 애정, 오해와 갈등 등이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2013년 해방촌에 위치한 빈집의 수는 어느새 7개이다. 장기투숙객 30~40명 정도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

같이 배우고 직접 만들고 함께 즐거운 일을 만드는 것들은 여전히 빈집에서 진행 중이다. 모임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혼자 할 수 없을 때, 같이 하면 더 쉬울 때, 더 즐거울 때 힘을 보태자 얘기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아침에 함께 책 읽을 사람들을 모으거나, 108배를 할 사람을 모아서 몇 달씩이고 계속되기도 했다. 노래를 하고 싶을 때 기타와 멜로디언과 북을 들고서 같이 노래를 연주하는 밴드를 구성하고 엉성하지만 서너 곡으로 친구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해방촌의 빈집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임들과의 교류도 열심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 초대한다. 각자의 어려움이나 즐거운 경험들을 나누고 따라 해보면서 몰랐던 것들을 알고 배워가게 된다.

해방촌 빈가게

빈집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재능이 모여지면서 수많은 일과 놀이들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서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곤 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수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임금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에서 하는 작업들을 마을로 확대하고, 거기서 적더라도 조금의 수입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궁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6명이 의기투합해서 동네에 작은 점포를 구했다. 보증금은 빈고에서 대출받고, 인테리어와 설비에 필요한 비용은 조금씩 출자해서 모았다. 각자 하고 싶은 것은 조금씩 달랐지만, 동네 작은 1층 가게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보자고 덤벼들었다. 기본적으로 낮에는 카페 저녁엔 술집이지만, 한 켠에는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생협 코너와 재활용 공간을 두었다.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각종 모임과 공연, 장터도 함께 했다.

카페 해방촌 모습

동네에서 가게를 시작하면서 집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빈집들이 주로 있었던 지역 해방촌은 서울의 한복판 남산 아래 있는 마을이다. 1945년 해방 이후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지역에서 올라온 빈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판자촌이었던 이 마을은 집값이 싸다는 것 말고는 빈집 사람들에게 큰 의미는 없었다. 집들이 늘어나면서 빈집들간의 관계는 해방촌이라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지게 되었고, 가게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들로 인해서 해방촌이라는 마을을 재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가게는 결코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쇠락한 마을에서 소자본으로 장사를 해서 충분한 수입을 얻는 것은, 장사만을 목적으로 해도 어려운 것이었다. 더군다나 사업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그것도 서로 싸우고 조율하면서 잡다하게 만들어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협력도 위협했고, 생활도 어려워진 탓에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게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그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즈음에 더 크고 조금 더 동네 중심지에 있는 가게가 나왔고, 또다시 몇 사람이 흘린 듯 이전했다. 콘셉트는 비슷한 협동조합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수의 조합원을 모으고, 빈마을 보다도 해방촌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전히 장사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활로를 찾아서 새로운 모색들을 하고 있다.

빈집이 궁금하다면 당신이 직접 접속하길 바란다. 빈집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한다. 우리가 국가와 자본과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자치, 공유, 환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구라는 커다란 집의 한 식구가 아니겠는가?

글 살구 (해방촌 빈연구소)

‘마을 읽기’와 ‘마을 찾기’의 여정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는 언제부턴가 서로 길을 달리하며 먼 길을 왔다. 서로의 기억을 잊고, 서로에게 던지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시선은 낯설음에 다름 아니다. 그럴 때면 애초에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는 한 몸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태동되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소리 높여보기도 하지만,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의 접점 찾기란 종종 어느 하나에 또 다른 하나를 덧붙이는 물리적 결합에 그치곤 한다. 그렇다고 물리적 결합 자체를 탓 할 일은 아니겠으나,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의 관계 맺음이 그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또 다른 낯설음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케 된다.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했던 옛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선 서로의 기억 속에 공유된 유전인자를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할 듯싶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일상의 삶과 일과 놀이에 스며드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서로를 온전케 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로 마을을 사유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실천과 행동'을 구호로 내걸고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이하 '예마네')〉의 문을 열고서,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의 접점을 찾고자 여러 길목을 드나들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이정표를 찾거나 모범답안을 그려냈다고 할 수는 없겠다. 오히려 어찌된 영문인지 하면 할수록 이정표나 모범답안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만 깊어가며 점점 더 오리무중의 심정임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길목을 서성이고 있음은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특이 취향의 기호(嗜好)가 아니라 인간사의 궁극적인 화두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마을 공동체의 모든 스펙트럼을 품을 수 있는 마이더스의 손도 아니지만, 일상 삶의 토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국외자일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일상의 기억과 일과 놀이 등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진 삶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예마네 〈마을이야기학교〉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이야기학교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문화예술의 감수성과 상상력 만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엔 그 이전에 마을 공동체의 맥락과 서사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독해력으로써 '마을 읽기'의 성찰적 관점이 먼저 요구된다. 물론 문화예술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마을 읽기'의 전 과정에 걸쳐 다른 무엇보다 풍부한 기제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마을 읽기'는 아니다. 따라서 '마을 읽기'는 예마네 마을 공동체 활동의 시작과 끝이며, 마을이야기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마을을 읽는다. 그리곤 "이 마을은 이렇다.", "저 마을은 저렇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을의 언어를 읽어내는 독해의 진폭이 어떠한 가를 나타낼 뿐,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은 아닐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아는 것'은 마을도 그렇다. 문화예술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아무리 남다르다 한들 '보고 아는 만큼'의 진폭을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여기에 '마을 읽기'가 필요한 까닭이 있다.

'마을 읽기'란 마을 공동체의 기억과 이야기의 언어를 안팎으로 읽어내는 독해력의 기반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마을 공동체는 '마을 읽기'의 대상과 수단이 아니라 원동력이 된다. 거기서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는 더 이상 화석이 아니라 삶의 빈자리를 채우며 여전히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마을 읽기'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선 마을 공동체의 안과 밖을 아우르며,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성찰적 관점'이 요구된다.

〈마을이야기학교〉 마을잡지 '뒤싯골지나 방아다리건너'는 '마을 읽기' 성과를 모아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 엮어내고 있다.
〈제공: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이하 동일〉

이는 '나만 알고, 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시각이자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주관적 시선이기도 하다. '마을 읽기'의 성찰적 관점이 결여된 때, 반짝이는 소비적 히트Hit 상품을 양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을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공유가치를 들어낼 순 없게 될 것이다.

'마을 읽기'의 실천

2010년 6월, 충북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골 마을의 오래 전 문 닫은 학교에 〈마을이야기학교〉의 터를 잡고, '마을 읽기'의 첫 발을 디디며, 마을의 한 집 한 집을 찾아 귀동냥을 다닌답시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게으른 탓이 크지만, 외지에서 찾아든 근본도 모르는 낯선 이에게 선 듯 입을 열지 않음은 인지상정이다. 마을에서 농사일을 배우며 텃밭농사를 함께하고, 마을 대소사에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들이밀며 조금은 이물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속내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10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대전리 마을 공동체는 지금은 대전 1리와 2리로 나뉘어 있지만 예전엔 모두 한 마을로 엮여서 살았고, 예나 지금이나 그 곳 사람들 모두가 '한밭들 열 두골 사람들' 이라 불리 운다. 대전리 마을은 10리에 걸쳐 열 두골의 자연 마을로 나뉘어 살다보니, 가뜩이나 썰렁한 산골 마을에 인기척을 찾기 힘들다. 행정 구역으론 제천시에 속하나, 마을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을 경계로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와 접하다 보니, 실제 주민 일상의 생활문화 기반은 단양권에 통합되어 있다. 단양에서건 제천시내에서건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의 산세와 충주댐 호반의 풍광이 남다르기는 하나, 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한편의 작은 평지를 한밭(大田)이라 부를 정도로 거친 지형에 둘러싸인 외진 산골 마을일뿐이다. 딱히 내세울 만한 특산물이나 민속이 있는 것도 아니며, 산기슭을 개간하여 어렵사리 농사일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우리네 여느 산골 마을의 일상을 품고 있는 평범한 마을이다.

대전리 마을은 우리네 마을 공동체가 도시화의 물결에 휩쓸려 재편되고 해체되어 온 궤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우리 마을이 1960년대를 전후한 산업화시대의 이농현상을 거쳐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어온 것과는 달리 대전리 마을의 경우,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마을에 광산이 개발되면서 탄광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재편을 맞게 된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반세기에 걸쳐 제천시는 물론 단양권 일대에서 제법 흥청거리던 규모를 지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전통적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공동체 Gemeinshaft라기 보단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이익공동체Gesellshaft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편 탄광이 사라지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 불과 10여 년 사이에 급격한 공동화(空洞化)의 길을 걸으며 그 이전 공동체의 재편 양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케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전리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 대다수는 닫혀 진 동일한 공간에서의 생애주기를 통해 탄광촌이었던 시기의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인적, 물적 기반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재편과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는 공동체의 해체라는 이원화된 과정을 모두 경험한 세대로, 이로 인해 주민 공동체 문화의 물질적, 정서적 기반 역시 서로 다른 여러 층위가 얽혀져 있다. 즉 물적 풍요에 대한 과거 회귀적 향수와 개인화 경향 등 공동

텃밭농사와 품앗이 등 마을의 일상을 지내고 나면 어느덧 예술가의 화폭엔 마을의 이야기가 그득하게 쌓인다.
마을이야기학교 2013 문화농활레지던시 입주작가 허윤선의 '생활의 4요소'(광목, 혼합재료)

체가 재편되던 어제의 기억과 함께 주민 공동체의 노령화, 과소화(寡少化) 및 사회문화적 여건의 열악함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밀려나고 뒤쳐진 무력감 등 공동체가 해체된 오늘의 기억이 교차하는 한편 거기에 더해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 등이 더해지면서 주민 공동체의 구심점과 문화적 동질성이 이완된 체 공동체 문화의 기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이야기학교〉의 '마을 찾기'

마을이야기학교는 지속적인 '마을 읽기' 과정과 성과를 토대로 대전리 마을 공동체가 당면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물적 기반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재편과 해체라는 이원적 경험의 혼재에 의한 가치체계와 구심점의 이완으로 보았다. 거기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의한 부녀자, 유·소년층의 배제와 소외 현상이 더해지면서 파편화되고 분절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이야기학교의 '마을 찾기'는 여기서 비롯된다.

마을이야기학교의 '마을 찾기'는 일상의 회복을 위한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의 이어 맞추기로 집약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매개자로써 예술가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한다. 따라서 마을이야기학교는 예술가의 창조 역량과 마을 공동체 생활문화 현장이 연계, 통합될 수 있는 일상의 플랫폼이 되려 한다. 이를 통해 일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의 조우를 엮어내면서, 문화예술의 감수성과 상상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편 마을 공동체 생활문화 기반의 확장을 위한 자생적 역량이 이끌어지길 기대한다. 실제로 마을이야기학교의 모든 일상은 자급적 활동과 함께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텃밭농사 등 먹거리를 장만하는 일에서부터 의복과 주거 공간을 다듬는 일과 마을 대소사의 품앗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술가와 마을 공동체의 만남을 엮어내고 있다. 서툰 손놀림으로 일구는 텃밭농사를 지켜보는 마을 분들의 오고가는 훈수나 마을 대소사에 품앗이로 얼굴을 내미는 생소한 이들에 대한 수군거림 등으로 묻어나는 일상의 매개작용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는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과 놀이가 통합된 그곳에서 형식과 내용, 시공간과 행위 주체 등의 정형화된 틀 거리로 문화예술과 마을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닥 의미 없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에너지를 포착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예술가와 마을 사람들은 김장배추 모종을 나누며 농사일과 마을살이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예술가의 솜씨로 차린 새참을 함께 들며, 그들은 서로의 손맛을 이야기 한다. 기장떡을 잘 만드신다는 옆 마을 할머님, 막걸리 담그는 솜씨가 일품인 윗집 할머님 얘기 등을 주고받노라면 어느새 예술가의 화첩엔 기장떡 할머님과 막걸리 할머님이 놓여 있다. 농한기의 무료함을 달래려 찾은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생전처음 잡아본다는 붓과 물감 앞에서 마을 어르신의 빛나는 눈망울과 떨리는 손을 볼 수가 있다. 교실 한편에 예술가의 시선으로 전시된 옛 뜀틀과 마을의 버려진 빈 집에서 주어 온 지게 등을 보다보면 "이런 것도 여기서 보니 좋네…!" 하면서, 마을의 기억을 전한다. 비료포대의 상표라도 제대로 읽고 싶다며, 한글을 깨치게 해달라는 어르신의 요청에 어렵사리 한글교실을 열고, 농한기의 한 겨울 추위를 녹인 기억은 어르신에게 보다는 예술가의 자양분이 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호미 한번 잡아보지 않은 젊은 예술가의 섬섬옥수에 물집이 생기고, 벌레 물린 자국에 무관심 해 질 때면, 예술가의 화폭엔 마을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다. 이렇게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는 예술가의 상상력을 얻어 마을의 일상과 자산으로 쌓여간다.

마을이야기학교의 '마을 읽기'와 '마을 찾기' 여정이 이정표나 모범답안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정표나 모범답안이 있다면, 그것은 마을과 만나는 때와 장소, 사람의 수만큼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마을이야기학교의 여정은 쉽게 도달하기도 어렵고, 의도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때그때 눈에 띄는 성과물이 들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서성이던 풍경이 아닐까 한다. 근래에 들어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창조경제'의 열쇠 말이 성큼 다가서고 있다. 거기엔 인간 정신의 창조적 영역을 물질적 교환가치로 치환하려는 조급함이 엿보이기도 하나, 어찌됐든 우리네 마을 공동체에도 문화예술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함께하는 창조적 기운을 북돋아줄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 역시 조급함에서 벗어나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조금은 성찰이 필요할 듯싶다.

글 박명학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상임이사)

생전처음 만져본다는 붓과 물감으로 예술가와 함께 나눈 그림 앞에서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는 마을의 자산이 된다.
(마을기획전 '생전처음', 2011년 3월, 마을이야기학교)

비료포대의 상표라도 제대로 읽고 싶다는 바람을 예술가 선생님의 농한기 한글교실로 녹이기도 한다.
(한글교실, 2010년 12월, 마을이야기학교)

NPO법인 간다(神田)잡학대학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배우는 "평생학습"의 장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연구해온 것들이 한 두 가지 이상 있는 시니어들이 많다. 그런 지식을 혼자 간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관심의 폭을 넓히고, 지적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시니어들에게 평생학습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NPO가 있다. 바로 일본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區)의 사회교육단체인 〈NPO법인 간다(神田)잡학대학〉이다.

1999년 창립 이래, 630회를 넘는 정기 강연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러 분야에서 발굴한 독창적인 테마를 가진 강사를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다. 전문가의 일생의 연구성과, 독특한 체험에 바탕을 둔 귀중한 이야기 등 일반대학이나 다른 세미나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이곳 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밝고, 원기 있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남녀노소가 모여, 이야기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일체가 되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장이다.

이곳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기에 강연료, 수강료, 장소비가 무료인 점이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다만 수강만 하는 일반참가자는 무료이지만, 활동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는데, 연회비 1만 엔을 내는 회원이 되면, 회의 운영이나 행정단체와의 협동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매월 "간다 잡학대학 News"를 받아볼 수 있다. 회원은 현재 70명 정도이다. 또한 1구좌 5,000엔, 2구좌 10,000엔의 후원금도 모금하고 있다.

간다잡학대학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높은 호응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다.

한 예로, 영화역사에 관한 강의를 11년간 28회 진행한 사람이 있다. 영화통인 그 사람은 영화 비디오를 약 8천 개를 갖고 있어서, '이별 장면 명작선' 이라든가 '감독과 여배우의 관계' 등 다양한 테마로 영화 이야기를 진행한다. 또 경찰청 수사 3과에서 35년간 형사로 일한 전직 형사가 "도둑 퇴치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직 NHK의 일본씨름 담당 아나운서이며 일본씨름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이 일본 씨름계의 뒷이야기를 하는 등 잡학이라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래에 열거된 것은 최근 강의의 목록들과 강사진이다.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쟁쟁한 경력의 강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과거의 강의 영상자료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볼 수 있다.

- 우리 나라의 영공 지키기, 공군 전력 확보가 중요하다 : 공군 장성 출신
- 전후의 베스트셀러의 역사, 어째서 이 책은 팔렸는가? : 주간독서인 편집장
- 면역 시스템과 단백질: 관련 기업대표
- 지진열도 일본에 원자력 발전은 필요 없다: 원자력발전 반대 단체 부대표
- 내가 경험한 취직활동 이야기 : 직장 여성
- 스포츠 심판의 이모저모 : 요트 경기 국제심판
- 다윈과 진화론 : 고생물학 박사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가진 강사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과연 희망자가 있을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강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강사의 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원이 추천해주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넣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간다잡학대학은 1999년 시작하였는데, 1979년 키치죠지(吉祥寺) 주지였던

음악가 아마토 마코토(故 和眞人)씨가 '3가지 무료'의 〈키치죠지 잡학대학〉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2001년에는 도쿄도로부터 NPO법인으로 인증되어 치요다 구청의 시설(치요다 자원봉사 센터)에 상설 강의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간다잡학대학에서 열린 제1회 강좌는 요트 레이스인 아메리카 컵 심판원의 이야기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간다잡학대학 이사장인 작가 요시다 에츠꼬(吉田悦子)씨의 '내가 개와 생활하는 이유' 였다. 처음부터 50명 이상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고, 이후 연말연시를 빼고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개강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자원봉사 의식을 발휘하여 서로 협력하는 점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지식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쁨이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자극이 되고 원기 왕성하게 되는 것도 큰 성과다.

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시작되고 있는 U3AThe University of the 3rd Age도 있다. 처음 시작된 프랑스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영국에 와서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선생님 대신 전문성이 있는 회원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수업의 진행을 돕고, 모든 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자율적 자립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움 자체에 대한 열정과 환희, 지식을 공유하는 기쁨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는 U3A와 간다잡학대학은 비슷한 면이 많다. 다만,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잡학대학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잡학대학을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시니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훌륭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어느 날의 강의 풍경

물론 시니어들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간다 잡학대학이 유일한 곳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

글 김경희(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수강생)

시니어 대락 (大樂 : 다이가쿠)

자신의 삶이 활동의 원천이 되는 곳

퇴직 후 좋아하는 것을 살려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욕구를 바탕으로 생겨난 곳이 NPO법인 〈시니어大樂(다이가쿠)〉이다. '현역에서 물러난 세대의 다채로운 능력을 다시 한번 사회로 환원하자', '무엇보다도 스스로 즐기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시니어에게 '강사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법인의 이름처럼 인생을 "크게 즐기는(大樂)" 활동을 지원 한다. 현재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약 500명 정도로서, 나이는 평균 70세이며, 80대는 보통이고, 90세 분들도 있다. 모두 눈빛이 빛나고 있으며 취재하러 온 기자들도 나이에 비해 원기 왕성한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 시니어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의 보물을 그냥 썩히지 않고 잘 활용함으로써 "나는 아직 쓰임이 있다"고 실감할 수 있고 원기 왕

성하게 생활하고 있다.

조직에 구애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지금부터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자기의 체험이 활동의 원점

이곳에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던 분들이 많다. "해외여행"이란 테마로 강연을 한다면 과거에 국제선 조종사나 승무원을 했던 분들, 여행사의 직원들, 종합상사의 해외주재 경험자, 매스컴의 해외특파원 등의 분들이 각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 모두 40년 정도의 근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실무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 또 젊은 시절부터 시대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은 사람은 "역사 이야기라면 나에게 맡겨라"고 말하며 자기 취미를 살려 강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 동안 '만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만담에서 배우는 장사의 지혜"라는 테마로 기업에 강사로 나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여 "정년 후 미국 1만 5천km 암트랙 철도여행"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 직장활동부터 오랜 취미활동까지 오랜 기간 쌓아온 자신의 삶과 생활의 다양한 것들이 강의의 주제가 된다.

현역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

〈시니어대락〉이 설립된 배경은 이러하다. 2003년도에 은퇴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본을 성장시켜 온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을 강좌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에 우선 강사를 파견하는 활동을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다.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얼마든지 있었다. 시니어강사 파견이란 독특한 활동이 신문에 보도된 직후부터 강사희망자가 격증하였다. 지금은 약 500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우수한 강사들이 갖추어지자 곧, 일감 확보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강사의 프로필이 첨부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국의 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이나 라이온스 클럽, 기업 등에 보냈다. 공개강좌나 사내연수 등의 담당자는 언제나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해 줄 사람이 없는가?"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 맞아 떨어졌다. 서서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의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강좌나 시민 강좌,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 고령자 시설 등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주로 시민 강좌를 요청하는데 참가자는 고령자가 많아 역사 등의 일반교양과 건강에 관하여, 혹은 지역활동의 효용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의뢰한다. 기업에서는 크게 3종류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첫째는 정년 전의 사원을 대상으로 세컨드 라이프의 재무설계 및 살아가는 마음가짐 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사회인의 마음가짐이나 예절,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다. 세 번째는 퇴직자 모임에서 취미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를 요청해온다. 고령자 시설로부터는 마술이나 거리공연, 만담 같은 연예물이 자주 요청된다. 이렇게 다양한 강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역시절 다양한 프로필을 갖춘 강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의활동이라는 것이 경험과 이야기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를 원한다는 점이고 듣는 사람들

강연 모습

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인기강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다. 법인에서는 강사들의 "좀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요청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다. 강의 진행 시 우선 인기강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 후, 참가자 전원이 3분간 스피치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3분으로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되면 1시간의 이야기에도 강약의 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의 질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① 웹사이트에 강사의 소개는 물론, 강사의 프로필이 적힌 강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학교, 각종 단체, 행정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② 등록강사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강사와 강의요청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는 프로 수준, 요금은 아마추어 수준

인기의 또 다른 이유는 강사료이다. "이야기는 프로 수준, 요금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강사료는 의뢰 측의 희망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공적 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에게는 양질의 이야기를 저렴한 요금으로 해주는 강사가 있다면 대환영이다. 시니어大楽의 기획은 거기에 딱 들어맞았다.

즐겁게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

하지만 무료 자원봉사는 하지 않는다. 비영리조직으로서 단순한 친목이나 동호회가 아니며 사무처리도 많고 필요한 경비와 활동자금은 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시니어大楽이 자립한 NPO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시스템은 명확하다. 강사파견의 소개료는 무료며, 강사 사례비의 10%를 NPO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강사로 등록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니어大楽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회비는 무료이나 연회비는 6천엔(6만 원)으로 이것이 활동자금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시니어大楽 회원의 사업 활동에 대한 보수는 없다. 이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매월 둘째 화요일에 회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통해 누구나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활동에 참여한다.

시니어大楽에서는 강사 파견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시니어 유머 단시(短詩)를 즐기는 모임도 있고 '발명발견교실'이라는 상품 개발을 즐기는 모임도 있다. 익살, 거리공연, 삼현 현악기 등

연예물이 아주 능숙한 회원으로 '시니어 연예단(演多亭)'을 결성하여 고령자시설이나 주민자치모임 등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산 걷기 모임이나 여행대학, 유머 스피치 모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시니어大楽은 본업으로 하는 일 이외의 '제2의 얼굴'을 갖고, 어떤 사람은 주말직업, 어떤 사람은 부업으로, 어떤 사람은 취미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많은 회원이 모이는 곳으로서, 단지 강사파견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조직이 아니다.

지 요령을 살펴보자.

1) 아무리 훌륭한 소질과 기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없으면 소용없다. Web을 시작하든지, NPO에 참가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강연이나 연기의 내용이 재미없는 개인에게는 강연 의뢰가 반복적으로 오지 않는다. 자기자신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위해 꾸준히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지금까지 회사 등에서 익숙해져 온 "수직"의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 "수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충실한 제2의 인생을 실현할 수 있다.

정년 후는 '한가지 기예'를 계발해보자

무언가 뚜렷하게 잘하는 기술이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시니어대락 회원들이 말하는 몇 가

글 김경회(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수강생)

시니어 엔터테인먼트계의 강사로 결성된 연예단 "演多亭"의 특별공연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시니어가 시니어를 서포트한다

도쿄도에는 시니어의 취로지원에 눈부신 실적을 올리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미타카시에 거점을 두고, 시니어들이 서로를 서포트하는 지역활동의 선구자로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형 NPO법인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이하 시니어 SOHO 미타카)〉이다. 올해로 설립 14년째를 맞이한 이곳을 모델 삼아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에 의한 NPO 설립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현재 수십 개의 NPO가 설립되었다. 등록 회원 수 평균 170명, 평균연령 65세, 연간 1억 엔(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시니어 SOHO 미타카에 대해 알아보자.

이 단체는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르치는 PC교실을 일년 내내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C교육에 대한 도움을 가정에서 받고자 하는 시니어가 있으면 단체에서 교육 받은 시니어가 출장 서

포트를 나가서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이런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 PC교육을 바탕으로, 시니어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이 단체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다른 단체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럼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는 우선, 이 단체의 모체가 된 모임 활동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IT 교육 광경

지역의 대학 동창 모임에서 시작

〈시니어SOHO 미타카〉의 초대 이사장인 호리이 케키이치로(堀池喜一郎)씨는 1999년 미타카시에 사는 대학 친구들과 동창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가 '우리 모임의 홈페이지를 만들자'라고 제안하였고 당시 대기업 히타치(日立)의 현역 엔지니어로서 IT에 밝았던 호리이 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바쁜 회사생활 가운데서도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자, PC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호리이 씨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알아보기 위해 "당신은 인터넷을 배워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독특한 답들이 돌아왔다. "나는 기독교신자라서, 매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있다. 그 경험을 언젠가 책으로 정리하기 위해 우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싶다.", "부부가 미국이나 유럽의 산에 있는 작은 산막을 방문하는 것이 내 취미다. 그 때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의 홈페이지를 보고 싶다. 나도 발신하고 싶다." 등등. 각자 모두 재미있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PC를 가르쳐 주는 것이 꽤 의미 있겠다고 생각한 호리이 씨는 PC교실을 열었고 첫 수업에 15명 정도가 수강했다.

가르치는 데는 교실과 기자재가 필요했다. 마침 그 당시 미타카시는 'SOHO CITY 미타카' 구상을 내걸고, 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그 시설을 빌릴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미타카시의 인큐베이션 센터 Incubation Center 파일럿 오피스(Pilot Office, 시범 사무실) 이었다.

때마침, 미타카시는 'SOHO CITY 미타카' 구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한 SOHO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를 모집하길 원했지만 적당한 사람도, 그룹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때, 파일럿 오피스에 모여 왁자지껄 즐겁게 PC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시니어 그룹을 발견했다. 이것이 물꼬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로 이어지고 이 시니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게 되었다.

PC교실을 계속하는 데는 선생님으로 될 인재가 필요했다. 호리이 씨 혼자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었다. 다행히 동창회 멤버 중에는 회사에서 PC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30분, 1시간의 짧은 시간도 좋으니 와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요청하였다. 그 동창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회사생활에서 익힌 PC기술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수락했다.

수강생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최초엔 동창생이나 지인들이 수강생이었지만, 곧 자신의 친구들도 수강하게 하자는 요청이 저절로 나왔다. 참가자가 늘어나 수강비가 모이게 되었다. 초반 어려움이 따랐던 운영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시니어 모임이 시니어 사업의 국가적 모델이 되기까지

어느 날, 이 모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청 담당자는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보 시스템 활용형 시니어벤처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것에 대해 물어왔다. 우리가 하는 작은 활동이 설마 그런 모델사업으로 인정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시니어의 벤처사업으로서 신청해보기로 하였다. 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임은 심사를 통과했고 지원금 5백만 엔(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모임은 〈시니어SOHO 보급 살롱 미타카〉가 되었고, 다음 해 2000년에는 사업형 NPO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호리이 씨는 처음부터 이 일련의 흐름을 의도하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동창들끼리의 작은 활동이 마치 시대의 움직임에 떠밀린 것처럼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서 다음으로 착착 전개되어 갔고, 본인이 알아차렸을 때엔 이미 일본의 국가적인 시니어 사업 모델로 발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점점 커졌다. 그러나 당시 호리이 씨는 현직 회사원. 본업도 바빠 죽겠는데 단체활동까지 더욱 커져 버렸으니 난감했다. 너무나 바빠서 도저히 더 못할 것 같아 마침내, 정부의 모델지원금을 모두 소화한 것을 계기로 "해산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회원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거꾸로 이 제안이 계기가 되어 "사업소를 갖추고, 조직으로서의 형태도 정비하여 모임을 계속해 가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어느 새, 자원봉사 정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 때, 호리이 씨는 만 59세. 그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고민 끝에 과감히 회사를 조기퇴직하고 시니어 SOHO 미타카의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후 호리이 씨와 그 친구들의 활동은 눈부시게 전개되어,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 2003년엔 제1회 「일본경제신문 지역정보화대상」을 수상하고, 2004년엔 정보화 추진 공헌단체로서 경제산업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곳의 IT강습의 특징은 「시니어PC 어드바이저 인증연수」를 실시하여 강좌의 강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A급 인증 자격자는 각종 IT강좌의 보조 강사 및 방문 서포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S급 인증자격자는 강좌 주임강사가 될 수 있다. 매뉴얼과 교재도 200만 엔(2천만 원)을 들여 자체 제작하였다.

시니어 PC교육에서 시니어 취로 사업으로 영역 확장

작년엔 새롭게 복지분야에도 참여하였다.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WAM 「ICT를 이용한 고령자 고립방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지역에 사는 고령자의 자택에 터치패널 방식의 기기를 설치하여 시니어 서포터가 지켜보면서 사진, 메일 교환 등을 도와주고 있다. 1999년 시작 때부터 쌓은 IT교육 기술과 스스로가 시니어인 만큼 고령자 대응 방법을 잘 활용하여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일할 의욕을 가진 시니어와 인재를 구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맺어주는 "매칭Matching"도 주된 사업 중 하나이다. 지자체에 시니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여 새로운 일도 창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내 IT화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컴퓨터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진행하고, 골프장 근무 경험자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잔디관리 사업도 시작했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이사인 구보 씨는 "지역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시대의 흐름이나 니즈를 잘 파악하기만 하면 이 시니어들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위탁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 사례로 5년째를 맞이한 School Angels(학교 안전 추진원)사업이 있다. 미타카시로부터 연간 2,700만 엔(2억 7천만 원)에 수주하여, 시내 15개 초등학교에 아침 저녁 4시간씩,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지켜보는 사람을 1명씩 파견하는 것이다.

시니어 SOHO 미타카는 원칙적으로 무상활동을 하지 않는다. 시니어는 무료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이라는 과거 개념에서 벗어나 "이 만큼의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만큼의 대가를 받겠습니다."라는 주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액이라도 돈을 받음으로써 일을 하는 쪽은 책임감이 생긴다. 학교 안전 추진원 사업의 경우도 일상적으로 어린이와 접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생각도 강해지고,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구보 씨는 말한다. 다만 과다한 금액이 아닌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시중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니어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만들어봐야…

우리 주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현역에서 물러나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방황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시니어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약간의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혼자 고민만 해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다가도 좌절하기가 쉽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해결하고자 시작한 나라 중 한 곳이 일본이다. 약 15년 전부터 일본의 시니어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다른 시니어들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을 만들어 거기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니어가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닥쳐오는 것에 대하여 젊은이들의 부담만 늘어가는 재앙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생각을 바꾸어 보자.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온몸으로 경험한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만큼 세계적으로 역량이 큰 세대도 없다. 이들의 경험과 일할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글 김경회(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수강생)

p.31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 44호
p.336 학원법 개정으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 26호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

우리나라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시장의 자율적 구조가 아닌 국가주도, 그것도 중앙집권체제 하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기본 골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대표적 정책이 1962년부터 시작되어 4차례나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의 경우에도 5개년 계획이 작성됩니다. 이것은 임의적 계획수립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적 강제사항입니다. 이렇게 5년 단위의 계획이 지금까지 2차례 시행이 되었는데 드디어 지난 9월에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계획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중장기 목표와 침로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계에서 관심 있게 지켜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5년 로드맵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과 함께 3차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작성 과정

정성원 관장 먼저 궁금한 건 이런 계획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건지, 그리고 3차 계획을 짤 때 교수님께서 어떤 참여를 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양병찬 교수 평생교육진흥 1차 계획의 경우는 연구자들의 프로젝트와 같은 형식을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연구자들께서 전공 영역에 맞추어서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평생교육센터(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운영되던 국가 평생교육전달체제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됨)와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때 중앙대 이희수 교수님(당시 평생교육센터)과 함께 마지막 정리하는 데까지 참여하였어요. 교육부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과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이었지 이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만든다거나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하는 준비는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평생교육과장도 예산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거대한 규모의 그랜드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예산 준비나 조직의 반영은 충분치 않았죠. 2차에서도 제가 부분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서 국가 평생교육의 정책 규모를 구상하고 국가적으로 일감을 나눠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하겠다든지, 예산 확충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차 계획 때에는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희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현장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처음 만들어지는 국가 계획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초기 구상에 대한 자평은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 발표 시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관료의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프랙티컬practical하게 수정을 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자기 부서의 사업들이 반영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처음 구상보다 축소되는 상황이 되었던 게 지난 해 12월 전까지의 일입니다. 교육부 관료들의 입장이 개입하는 걸 전 느꼈습니다. 초안의 구상에 비해서 조금씩 현실과 타협해지는 거죠.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대가 바뀌면 큰 슬로건이 나오죠. 예를 들면 '100세 시대', '행복학습'과 같은 슬로건이 나오면 그게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는데 정책에서 다시 사업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하던 것을 덧붙여져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평생교육은 더 강조되어서 국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었고 더 확산될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작되었지요. 저는 기존의 초기 구상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약 가운데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대학의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출구 전략으로써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국정 과제로 정책적·정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교육부에 계속 제시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그런 면에서 대학 관련 평생교육 정책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죠.

정성원 4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해주셨는데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는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정이라는 걸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 법률 만들듯이 공청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 저는 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 조정과 더불어 이런 걸 함께하자 라는 동의와 합의랄까, 이런 게 입안 과정 속에서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과정들, 합의과정이랄까 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로드맵으로써의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병찬 그렇죠.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국가 계획을 기획했던 분들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의 이슈를 본인의 일로 의식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동안 계속 제기하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부 관료들, 평생교육 학자들이 평생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다. 우리가 끌고 가는 평생교육 정책, 국민의 서비스의 대상이라는 식의 정책 전선 형성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실천가들이 최전선에 서서 평생교육 정책 담론을 주장하게 하고 또 학습자들이 그것을 본인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나 역량의 문제로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거 자체도 그런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국가 시스템적 차원에서도 원래 법적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계획과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시군구도 자체 종합계획을 4년마다 세워서 국가진흥원에 보내야 하고 국가진흥원은 이걸 연결해서 만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리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평생교육 국가시스템으로서 합의하는 구조나 정책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없애자고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문화되지 않도록 그 위원회가 이런 일을 해나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최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런 위원회나 평생교육진흥계획이 나오는 프로세스가 잘 정비되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영역의 기본틀에 관하여

정성원 지금까지가 서론이었다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3차 진흥계획의 핵심은 4대 영역과 12개의 추진 과제 그리고 29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4대 영역의 밸런스가 맞는지, 이를테면 대학이 도드라지진 않았는지 혹은 5년 동안 추진할 핵심적인 4대 영역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4대 영역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추진 과제	•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 지역 대학의 • 평생교육 역할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 자격 연계 강화	•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 전문성 · 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 세대별 ·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 시민역량 강화 •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제3차 평생교육종합진흥계획 기본방향

양병찬 초안에서는 밸런스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개혁이라는 국정 과제 이슈가 평생교육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공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도 대학 평생교육 사업비용이 크니까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에 어떤 계획, 어떤 정책의 비전, 이런 것들을 연결해보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의 평생교육은 중요하고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대학 개혁 입장의 측면이고요. 100세 시대 평생교육 체제와 평생교육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을 4가지 큰 영역 맨 앞에 위치지운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격차 사회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가 더 앞으로 포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서, 예를 들면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이라는 영역 밑에 세부 과제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지원'과 '사각 없는 소외 계층 평생학습 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들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한 쪽은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더 채워준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최근 사회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것은 정책적 과제이니 대 과제로 삼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4대 영역의 밸런스가 불균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정성원 기본 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이 4가지로 짜여 있고 그 중 하나가 '국가재정지원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 5개년 동안 3,779억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5년간 추정치로 3,779억 원

이라고 산출하는 거지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가 5년 동안 평생학습에 쓰는 비용이 3,779억이라는 게, 평생학습을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1m당 1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국가가 5년 동안 약 377m 도로를 까는 비용 정도만 평생학습에 쓴다는 거잖아요. 연간으로 따지면 75m 정도의 도로 까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인데요 3,779억 원 중에는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잡혀있고 심지어 민간 자본비도 들어있어서 실제 전액을 국비로만 다 부담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국가 경쟁력, 삶의 질,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평생학습에 기껏 도로 377m 소요 예산을 잡아 놓고 있고 게다가 여기에 민간 자본까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양병찬 그동안 평생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전체 예산중에 평생교육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지금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1차, 2차, 3차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 구동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전향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부 내부에 합의나 정부 내부에서의 합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부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저런 예산의 책정, 예산 계획 자체는 정확하게 분석이 된 상태는 아닌 거죠. 국가 전체 국민의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재구성될 때가 와야겠지요.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평생교육 사업들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분석한 후에 교육부에서 재원을 운영할 것은 이 정도이고, 지방정부는 얼마 하고, 고용부나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국가 전체의 국민의 평생교육 예산을 보는 시점이 언젠가는 와야겠지요.

선진국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15~20% 까지 하는 데도 있고, 거기서 직업교육까지 놓고 보면 훨씬 더 커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6%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은 공적 사회 교육 기반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기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의 평생교육 예산 자체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합계획이 그 경향을 계속 따라가는 상태라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원 그런데 교육부 관료 내부의 합의를 떠나서 국민적 요구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사회 통합·격차 해소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텐데 국가가 1년에 75m 도로 까는 정도의 비용밖에 쓰지 않는 것은 국가 내부에서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다 라는 거죠. 이번 3차 계획만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관료 내부로만 결정해라 하면 절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적 저항이랄까,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만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유럽의 높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부러워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38% 정도까지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 비율이 35%로 OECD 평균(40.4%)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국가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매우 높은 편인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헌신성과 자발성에 기반한 것이지 국가가 잘해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은데 국가 관료에게 맡겨 놓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병찬 국가가 평생교육을 전향적으로 언제쯤 바라볼까 기대감이나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구호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학습사회, 100세 시대라는… 실제 들어가서 예산의 문제나 조직 문제, 전문 인력, 사업 전개방식 측면에서 보면 옹색하기 짝이 없죠. 위에 논의할 때는 크게 이야기하다가 내려갈수록 가느다란 파이프라인으로 국민들에게 근근이 더 많이 배운 사람, 시간 많은 사람만 배우는 상황이지요. 이건 국민적 저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저항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먼저 평생학습의 맛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평생교육)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한국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근대성과 포스트 근대성이라는 2가지 과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평생교육이 나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놀고 같이 배우고 하는 그런 기회가 사회로부터 권리로서 인식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거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가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이 현재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근대적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 정비가 확립되고 나서 다른 새로운 방식의 유연성과 민간 주체적 측면에서의 평생교육 과제들이 또 새롭게 대두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서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일본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민관(우리나라 평생학습센터에 해당되는 공적 교육기관)이 중학교 학구 하나에 공민관 하나가 설치된 상황에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일본 시부야대학처럼 지역 고유의 민간 주도적 거버넌스 평생교육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죠. 전국에 설치되어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족하는 국민들이 존재했었던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다른 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우리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해결하면서 국가 책임은 좀 방기되고 지방정부로

많이 내려왔는데 또 지방정부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상태로 가버리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못하는 상황에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민청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서울시민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일 텐데 그런 면에서 저변을 좀 깔고 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이 구청장의 일이고 시장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민청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져야 밸런스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 전담기구로서의 진흥원 역할

정성원 3차 기본계획의 추진 전담기구로는 국가진흥원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진흥원과 관련해서 2가지가 고민되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진흥원이 모든 과제를 다 수행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추적으로 진흥원이 담당할 텐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부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 각 부처에서 다 실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하면 특정 부처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총리실 산하에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해서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각 부처랑 의견을 협의하거나 융·복합하거나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교육부 산하에서 있으면 다른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나 융·복합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잖아요. 교육부 자체도 다른 부처랑 협의하기 어려운데 교육부 산하로 존재하면서 국가 단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가 주는 업무들만 처리하기도 바쁜 측면이 있는데… 평생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진흥원의 업무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금까지 보여준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평가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인력, 각 인력 조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거기에 투입된 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 3차 기본계획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 나올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업무들을 진흥원이 전담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흥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실제 이 업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병찬 그렇죠, 국가진흥원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계 내부에서도 융·복합 매칭 역할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직속으로 가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 교육부가 있고 행정적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업무가 지역에 내려오면 더 그런데, 연결되지 않은 부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부서들에서 그 업무는 중요시되지 않는 업무들이고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업무 자체가 중심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진흥원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충분히 예산을 잘 쓸 수 있고 그 예산이 중복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업무상 연결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라도 국가진흥원의 위상은 시급히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진흥계획과 관련해서는 진흥원이 현재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하고 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가진흥원과 지역 진흥원이 역할 조정을 하면 중앙과 지역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지역 진흥원들이 제대로 설치되지도 않았었고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 같은 것도 국가진흥원 CPU센터에서만 1급 승급 과정들을 하였습니다. 한번 연수 인원이 40명 이하인데 그 운영이 굉장히 힘들고, 연수 참가자들도 연수 받으러 몇 개월씩 주말마다 서울로 가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역 진흥원과 국가진흥원에서 할 일을 나눠가면서 국가는 더 기획적이고, 평가적이고, 운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시설이나 조건 정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무엇인가 변화를 촉진하는 업무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일차적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기획하고, 조정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 내고, 다른 부처의 유관 사업과 진흥원의 관계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초창기보다 기획적인 업무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 더 활발하게 하려면 무거운 걸 내려놓고, 사업 공모하고 관리하는 일들은 사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그런 것을 지역에 좀 이양하고, 중앙은 좀 더 지역 단위에 기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처 간의 지역 리더, 농촌 평생교육, 소외 계층 평생교육,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교육 등이 지금 다 사각지대에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름만 걸어놨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해 나가며 지역에 과제를 전달해 주고,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 국민의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직업교육, 문화 활동, 사회참여적인 지역 리더, 민주시민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습 참여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아직 마음은 있으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빨리 내려놓으면 좋겠다. 제가 진흥원에 바라는 것입니다.

정성원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

다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는 5년을 통으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1년 단위로 세분화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그마나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작업을 내부에서만 하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외부인과 더불어서 1년 단위로 촉진하기 위한 평가 보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병찬 그러고 보니까 지역은 1년마다 실행 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네요. 국가 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진흥원 계획은 1년마다 실행 계획서가 나오지요. 1년마다 하는 실행 계획도 중요하지만 5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경험적으로 이게 중요한 청사진이 되더라는 거죠. 1차 계획이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사회적인 의미 부여나 기대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업이 나오면 거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근거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성이나 사업의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 학습도시를 몇 개를 지정해야 하는 것 등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서 1차 진흥계획이 청사진이 되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년에 대한 막연한 그림의 의미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평생학습 정책의 실행에 큰 청사진으로써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진흥원도 1년마다 실행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의 의미보다 실행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5년의 위치에서 첫해, 두 번째 해 그런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혹은 그 조직의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는, 좁은 의미의 실행 계획이 많습니다. 국가 전체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써 기획 업무를 하고 재정 업무, 홍보 업무 등 또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지 고려하지 않거든요. 계속 해마다 하는 실행을 하는 거지. 메타 사업에 관점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우리가 지방정부들,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문화교육진흥원과의 관계, 다문화와의 관계, 학부모 교육과의 관계 등이 어떠한 연계 구조나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1년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 방점이나 방향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4대 영역 첫 번째 –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정성원 세부 추진 과제로 들어가서 대학중심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보면 이 영역에 전체 예산의 37%를 세워 놨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학의 역할을 바꾸자 하는 게 물론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수동적인 탈출구 말고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향후 고교 졸업생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수도권, 소위 일류대의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결국 지방대만 해당되니 지방대는 알아서 변신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학의 역할이 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그러니 먼저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들이 상징적으로라도 변화를 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병찬 대학 평생교육사업이 진행된 게 5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대학이 평생교육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이런 관점이 훨씬 더 강했죠.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 산학 연계가 강한 대학 이렇게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산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전체 초중고 학생수가 줄면서 기존 예산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았는데요. 물론 일부는 학교 시설 등에 더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선순위에서 대학이 배정을 받은 것인데요. 더욱이 반값 등록금 문제 등의 이슈가 커져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워낙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약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대학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평생교육 예산을 달라고도 하니까 대학 예산의 배정 부분 중의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30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40억이 만들어지고 올해는 300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작부터가 평생교육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대학의 일부 예산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와 같은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지역 주민에게 사회봉사하는 이런 관점들이 강조되었는데 그러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학생수가 준다고 대학에서 일반학생들 가르치기도 바쁜 대학들이 이걸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출구 전략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로 논의도 많았고요. 저도 대학이 본래 사회공헌적 역할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얘기만 계속하면 업무나 효과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지역과 밀착되는 교육 연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고, 사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시점에서 중요한 교육부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고졸 취업이었습니다. 고졸 취업 이후 직장을 다니다 몇 년 후면 대학을 보내 주겠다는,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을 교육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고 그것 때문에 은행 외 여러 분야에서 고졸자를 취업시키고 진학하는 것에 대해 선전도 많이 했는데 이것과 연결된 사업으로 평생학습중

심대학이 딱 보이니까 당국자들은 그 정책을 맨 앞에 올려놓아라 해서 그게 선취업 후진학형 2030 연계 사업이고,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오니까 4050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넣어 2유형으로 분류시켰습니다. 그때 직접 그 사업 당사자로서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대학의 개방성, 지역적 다양성을 거기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투 트랙으로 공모하게 되니까 참여 대학들은 제안서를 그렇게 내게 되고 사업 경향도 그렇게 갖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 학교는 혼합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연구 계획을 지역 공헌형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지자체 연계형이라고, 대학이 없는 지역에 우리 대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이며 또 우리 입장에서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5개 지자체의 연계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7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는데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2천 3백만 원에서 적게는 1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보통 대학이 위탁 사업을 많이 하지만 위탁 사업 운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니 신뢰가 쌓이고 지자체도 우리가 요구하고 사람 모집해주고 원하는 강좌에 대해 제안도 하면서 대학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하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 모형(地×知 파트너십 프로젝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대학들은 평생교육으로 비즈니스를 형성한 대학도 있습니다. 고대나 명지대, 한양대, 덕성여대는 큰 규모로 대학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죠. 다른 관점에서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교육부의 제안이지만 실제 대학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대학이 들어가야 하는지 교육중심대학들도 사회봉사를 하면 위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저희 대학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넓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 지난번 인터뷰한 순천향대 송병국 교수님도 대학 평생교육원장 역할을 하면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고민하셨는데 내부 교수 구성원들의 기존 고정관념이 워낙 강고해서 본인도 좌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요. 내부 구성원들이 강력한 성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건다 할지라도 내부에서 변화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지역의 요구가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드라이브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병찬 국가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정책을 추진할 때 제도적인 드라이브를 잘 걸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주는 등 예산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대학 내부를 설득하여 대학 스스로가 성인 학습

친화형의 개방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을 해보니깐 대학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설득이 됩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학 지원국〉과 〈평생교육 직업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평생학습대학을 신청했는데 〈대학 지원국〉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직업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대학 지원국〉에서는 새로운 일이고 관례가 없으니 단과대학에서 성인을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아졌을 것 같아 다시 올려 보려고 합니다만 국가는 자기들 내부에서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를 조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풀어줘야 예산 진행보다도 나아질 텐데 사실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등으로 학위가 방만하게 고등교육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통 대학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조건을 마련해주고 하면 평생교육중심대학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미약해 보입니다.

4대 영역 두 번째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제 구축

정성원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격화되면 온라인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 등을 잘 분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편적인 것이 많고 연계 과정이나 심화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통합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서 배치가 되어야 수요자들의 욕구가 해갈될 수 있지, 기존에 있는 것만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은 좋은데 체계화, 세분화되는 작업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병찬 온라인이 항상 앞에 나오죠. 온라인 필요성에 대해서 진흥원 설립 전인 2001년도에 평생교육센터 개원되었을 때도 평생교육 정보망이라고 해서 온라인 프로그램 풀, 강사 풀 등이 쭉 있는데 현재 진흥원에도 다모아 정보풀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성에 비해 실제 구상과 디자인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자보다 가시적인 구조나 틀이 안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큽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쓰다가 다음에 못쓰고 그 다음 해 다른 업체에 새롭게 버전을 맡기고…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온라인에 관련해서 구축하는 게 전체적 구상 없이 구축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지자체만 딱 잡고 하자. 그 지자체가 프로그램 풀이나 강사 풀 같은 정보를 잘 진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행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중앙에서 필요한 DB는 지역에 잘 구동되는 팔로우 테스트를 하고서 전국에 확산시키면 좋

겠다."고 제가 관련 회의 때 담당 박사님한테 얘길 했었는데 그냥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모아 정보망은 어떻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 진척될까. 더욱이 문제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배움닷컴이나 LG, 현대, 삼성 등 사설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근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콘텐츠가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얘기만 계속하는데 정말 그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의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되면 좋지만 아주 정교한 그리고 단순한 그 밑그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성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행복학습센터인데요. 자료를 보니 2013년도에 16개가 진행될 계획인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양병찬 올해는 그 이름으로 직접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해달라는 조건을 건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개수가 그 정도는 되긴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굉장히 줄어서 사업비를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원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거 법률이 없으니까 그 이름으로는 못하고 변형된 형태로 진행이 된 거군요.

양병찬 행복학습센터 명칭을 평생교육법에 넣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라는 말이 이 정부에서는 슬로건으로 걸 수는 있지만, 물론 명칭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특히 소외계층 지역인 농촌지역이나 도시 빈곤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마을 단위에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명칭이나 법명에 넣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랄지 읍면동 평생학습관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을 수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배타적인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들을 부처 차원에서 협의해 가서 세팅을 해가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특정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센터라는 의미지요. 주민자치센터가 8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입니다. 어떤 도시는 주민자치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도시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곳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천시는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보다는 프로그램이 5배 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외 창원의 평생교육센터(기존의 사회교육센터 및 마을도서관), 대전 대덕구의 주민문화교육센터로 명명하고 이곳에 전문 직원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원 제가 이천에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업무 역할과 처우가 어떤지 주의 깊게 봤는데 처우는 비정규직이고 급여도 높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그런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이고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만 업무 역할이 높은 기대 수준을 갖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가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이나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패턴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또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의지와 다른 문법, 그리고 주민들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백번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건데, 행복학습센터에 행복학습 컨설턴트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높지 않은 보수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1백만 원 남짓 주거나 안정적인 신분 고용도 없이, 업무는 '국민행복학습 프로그램 생애단계별 개발·보급 및 생애 단계별 학습상담 진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그분들이 어려운 곳에 가서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2~3년 있어봤더니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한 지역을 지정하고 한 명을 배치해서 될 문제인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행복학습센터라고 지정해서 컨설턴트 배치해 놓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컨설턴트가 어떤 사람이냐, 보수가 어떤지, 소속이 어디냐, 구체적인 업무와 네트워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양병찬 국가진흥원에서 새로 구상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상하고 실행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문법을 잘 적용해야 하죠. 제가 이천 종합계획을 세울 때 평생교육사 배치를 주민자치센터에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일반 공무원의 5분의 1정도 업무로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어떤 곳은 간사를 뽑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때 비전임 다급이고, 연봉이 1,8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 분들이 본인의 비정규직성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는 지역 사람이, 평생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좀 더 지역에 맞게 가는 곳이라면 진안도 있습니다. 진안은 평생교육 지도자라고 해서 군에만 평생교육사가 한 명 있고, 주민자치

센터에 지역 주민 중에서 고학력이나, 아이들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귀촌인 중에서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내외의 낮은 월급이지만 그래도 지역에 주부들이 갖는 직업으로는 적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분들이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가 운영될 때는 지역성이 잘 가미된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의 거주자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종의 이해관계가 만들어져서 지역 단체장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수준의 디자인보다는 좀 더 정교해져야겠죠.

정성원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기본계획 자료 중 제일 난감했던 것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창조학습도시로 기능 전환'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학습도시란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이야기 한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가 핵심이 되는 창조적 산업 중심의 도시로, 기술 확보, 창조인재 육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사회 유지를 위한 관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창조'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양병찬 저는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라는 말이 평생학습도시의 정신과 맞는지 회의가 듭니다. 골든칼라Golden collar들이 만드는 창조도시에서 평생교육의 일부는 그게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외가 없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교육도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원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일정한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시군구를 지정'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후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좀 더 잘 진행된다면 좋은 건데 한 단계 레벨 업 한다고 한 것이 창조도시라는 정책이어서 좀 당혹스럽고… 사람이나 도시가 꼭 다 창조적이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찬 지금 행복학습센터하고 창조학습도시가 레토릭rhetoric으로써 이번 정부의 슬로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맞추려고 관료도 그랬을 것이고 진흥원에서 코디네이터 하는 분들도 그랬을 테지만 행복학습센터 처음 디자인할 때 전문가 협의회를 들어갔어요. 그 때 송병국 교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시대에 맞추어 컬러링하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학습센터로 하지 말고 평생학습센터로 무채색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창조학습도시도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 문제가 걸리는 거죠.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도 잘 정착되기가, 언어적으로 시민들 귀에 잘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학습도시든 교육도시든 이런 것보다 좀 더 나아가도록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창조학습도시라고 하면 그것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겠지만 창조학습도시는 계속 설명해야하고, 또 다른 창조라는 관점도 다양한데 그런 면에서 창조경제처럼 당사자들도 헤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성원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에서 보면 시도 진흥원 레벨의 역할이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한데 개정안을 보면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국가진흥원도 그렇고 광역 단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개별단위 사업들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김포, 파주에 강의를 갔는데요. 물론 평생교육 관련자들 교육 개념이니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만도 하지만 그런 개별 사업으로 인력이 투입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으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 연구, 개발, 평가해서 31개 시군에 제공하고 담당자들 교육하는 등등의 이런 역할에 정말 충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큽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광역 단위에서도 빨리 제 기능과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병찬 그래도 경기도 진흥원이 제일 역할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서 합의도 충분치 않고 더욱 문제는 내부의 그런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메타 사업을 하는 게 본인들의 업무인데 대전 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시민교육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단체들과 갈등이 생겼다는데 그게 본래 평생교육의 기능이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라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입장이 반영되면서 시작한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지역 진흥원이 지역에 대한 지원, 연수, 계획,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전체적인 메타 업무, 구조적인 업무들을 자꾸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야와 내부 역량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정성원 국가나 시도 진흥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검색하려고 들어가면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만한 인력과 재원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쪽에 업무 역량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병찬 그런 걸 우선적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과제를 계속 줘야하는데 국가진흥원이 사업을 담당하고 발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료 생산이나 분석, 욕구에 대한 평가, 어떤 쪽으로 제안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센터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성원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있던데 목적을 봤더니 학습자들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선택권 보장, 기관 간 경쟁을 통한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저희 평생학습관도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정보를 다 올려야 하는 거겠죠?

양병찬 네, 그렇겠지요.

정성원 그런데 사실 이런 목적에 비춰보면, 그런 정보공시를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거나 혹은 그걸 보고 어디가 더 좋은 기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현장 실무자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홍보입니다. 만일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 미디어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그곳에 정보공시건 뭐건 정보를 집적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존의 시청 홈피나 그와 유사한 곳에 정보공시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평생학습기관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지 정보공시를 통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경쟁을 붙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사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평생교육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이수를 통한 주기적 자격 갱신을 하겠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 같은 것을 주겠다는 거죠. 연간 몇 회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양병찬 제도를 만들면 제도가 활용되게 하고 제도의 표준을 유지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와 관련해서는 양성에 비해서 배치나 채용 문제가 좀 열악한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때에 항상 전문성 시비가 갈리는 거죠. 전문성이 얼마나 있냐는 그런 얘길 계속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책임 연구를 했던 '평생교육사 배치 활성화 연구'에서 경력 개발 제도를 제안했어요. 지금 현재 진흥원에 있는 이경아 박사가 집필한 부분이었는데요.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을 하는 것, 단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3년이 되면 경력을 위한 추수교육이 필요하고 그가 원하는 여러 가지 트랙에서 인력 개발, 시민사회, 문화 등의 여러 트랙에 올라와서 승급 과정도 만들어지거나 대학원과 연결되어도 좋다는 등의 그런 구조를 계속 제안했었습니다. 그 중에 딱딱한 것만, 경력 관리 제도만 남아서 관리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커리어 개발 측면에서 말하는 건 스스로의 성장도 같이 보는 거죠. 그 제도가 발전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개인의 성장 루트가 있는데 경력개발은 필요한 것 같다. 거기에서 추가 자격 갱신 문제는 의사나 사회복지사도 그런 게 있는데 본령은 그게 아니죠. 경력 관리가 아닌 경력 개발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전문성 중심의 평생교육사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존재할 때 그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권한도 부여받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사회로 책임을 요청받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논리로 가야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격 갱신제 도입이라는 것은 통제의 관점인 것이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교육부 관료들의 통제의 개념이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나마 몇 년 후라도 평생교육사 직렬화를 하겠다는 희망을 줘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해야지, 갑자기 이게 무슨 자격 갱신 제도인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병찬 직렬화 문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직렬 통합문제가 안행부의 방침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평생교육사가 장기적으로는 공적으로 필요한 자리라서 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 관료나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수들의 관점과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대 영역 세 번째 –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정성원 3번째 영역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관련입니다. 성인 문해 영역을 집중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문해라는 영역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전에 시민교육 관련 포럼 갔을 때 한숭희 교수님이 기조 발제를 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OECD에서 발표한 건데요. 리터러시 스킬Literacy Skill 레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영에이지(16~24)의 경우 300점을 기준으로 리터러시 스킬이 293점 정도의 레벨에 포진되어 있는데 올드에이지(55~65)의 경우에는 243점 정도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의 간격차가 있어 세대 간의 단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문해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 말고 사물을 분별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의미인데 지금의 문해교육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글교육으로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해는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인

가, 내용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명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표준 모델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문해교육을 세대적으로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이 잘 연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병찬 그렇죠. 이런 논의는 계속 해왔었는데요. 문해교육이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지식정보화사회가 되면서 리터러시 역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저학력 성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이거라도 국가정책과 예산이 반영된 걸 보면 일취월장한 거죠. 5년 전쯤 우리 그룹 중에 소수그룹이 문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평생교육법이 함께 제정되면서 평생교육법에 포함해서 문해교육 조항이 들어갔고 법제처에 가면서 문해가 뭐냐 해서 문자해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림대 이지혜 교수님이 주도하시고, 운동적으로 전은경 교수님과 정찬남 교수님 두 분이 중심이 돼서 하셨는데 이지혜 교수님이 평생교육법 조항으로 들어가면 협소하게 갈 수 밖에 없고 학교 중심적 관점이 도입되는데 대해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부연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글자를 식별하는 식자교육이라고 했다가 문맹교육이라고 바꾸었고, 글자맹인이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라고 해서 문해교육이라고 또다시 바꾸면서 한국 평생교육의 선구자격인 황종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얘기하시면서 문해교육을 설명하셨습니다. 문자 해득에서부터 문화 해방까지 둘 다 문해인데 굉장히 함축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의 리터러시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좁은 입장인 것이고 현장에서는 기초 문해부터 시작해서 생활 문해, 정보 문해 이렇게 넓혀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원 지역 사회 학습 역량 강화는 현장에서도 매우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지역에 학습동아리 1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75개 인데 2017년까지 마을 단위에 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방안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별 학습동아리 조직, 학습 계획 공모, 심사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첫 번째인데 적정한 계획을 공모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돈이 개입되었을 때 폐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창업이 가능한 동아리를 발굴해서 창업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 평생학습관 예를 들면 저희 공간 3층에 학습동아리를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을 만들어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를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공간도 필요하고 지속 교육도 시켜야 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함께 투자도 해야 하고, 미약하니까 저희들 사업비로 일정 부분 다른 사업들을 연결시키게 되고 이런 과정을 약 1년간 거쳤는데도 아직 자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동아리를 발굴해서 창업시키는 게 평생교육계 내에서 누가 담당할거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학습동아리를 만들겠다는 건 참 좋은데 방식이나 운영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이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양병찬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몇 가지 전략 중에서 학습동아리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도 1천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이 합당할까 의문이고요. 지원의 방식 같은 것도 직접 지원이 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학습동아리의 자발성을 해칠지도 모르겠어요. 학습동아리가 스웨덴처럼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어떤 거점 시설에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모여서, 배우면서, 강사비 자원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전통이 아주 오래된 나라하고 우리처럼 강좌 중심의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나라하고는 학습동아리 육성 정책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조직을 강화하는 연수랄지, 공간을 임대해주는 기관을 찾아서 동아리들에게 공공적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이나, 동아리연합회가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하는 방식이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앙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역에서 돈을 덜 들게 하고 자발성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을 만들고 찾아야하죠.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조성해주는 평가 지표나 그와 관련된 큰 덩어리의 사업 공모를 해나가는 것이지… 사실 직접 1만 개를 건드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재정 지원을 쓰라고 내려보내는 것도 세련되지 못한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돈을 간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가면서 육성할 수 있게 해 나갈 것인가와 학습동아리가 왜 필요한가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동아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절반의 가치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동아리가 자주적으로 변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지역학습 공동체가 아니며 단순히 단체가 늘어나는 거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얘기하셨는데 참 어렵잖아요. 저희도 아까 차 마신 카페가 일종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10개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분들이 돈을 내고 강의 들었고, 추가적으로 교육을 또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리스타 강의실에서 인턴십을 진행했는데 그런데도 이후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흩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실을 7백만 원 들여 리모델링하고 기구 구입하고 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강의도 보조강사로 연결해 드려서 얼마 전 한 명이 취업을 했고요. 굉장히 공이 들어가는 일이고 에너지가 들어갈 텐데, 저렇게 대학 창업동아리처럼 목표 세워놓고… 물론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해야 하지만 사업의 구조 같은 것들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놔버리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원 그렇죠.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어린이 경제교육을 하는 팀이 아직 자생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까지라도 육성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이건 한번 살려봐야겠다 해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되지 않죠. 웬만한 평생학습기관에는 공간이나 인력으로 공을 들이기 쉽지 않는데 사회적 기업 창업한다는 게 알아서 하라는 거지 사회적으로 보듬어 안고 할 여력은 사실은 없는 편이잖아요. 동아리도 사실 끊임없이 챙겨주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의 동아리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지 1만 개 만들겠다는 무지막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량주의적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양병찬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얘기가 지금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문화예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서 뽑고 배치해 주는데 왜 평생교육사는 그런 게 없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습동아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가려면 학습동아리 조직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를 중앙이나 광역 레벨에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동아리 조직화와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냥 중앙에서 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과업을 내리는 게 중앙에서 이 부분은 강조해서 파일럿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성원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 없이 목표로만 던진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실현하려고 하는 건지 단순 페이퍼웍paperwork인지,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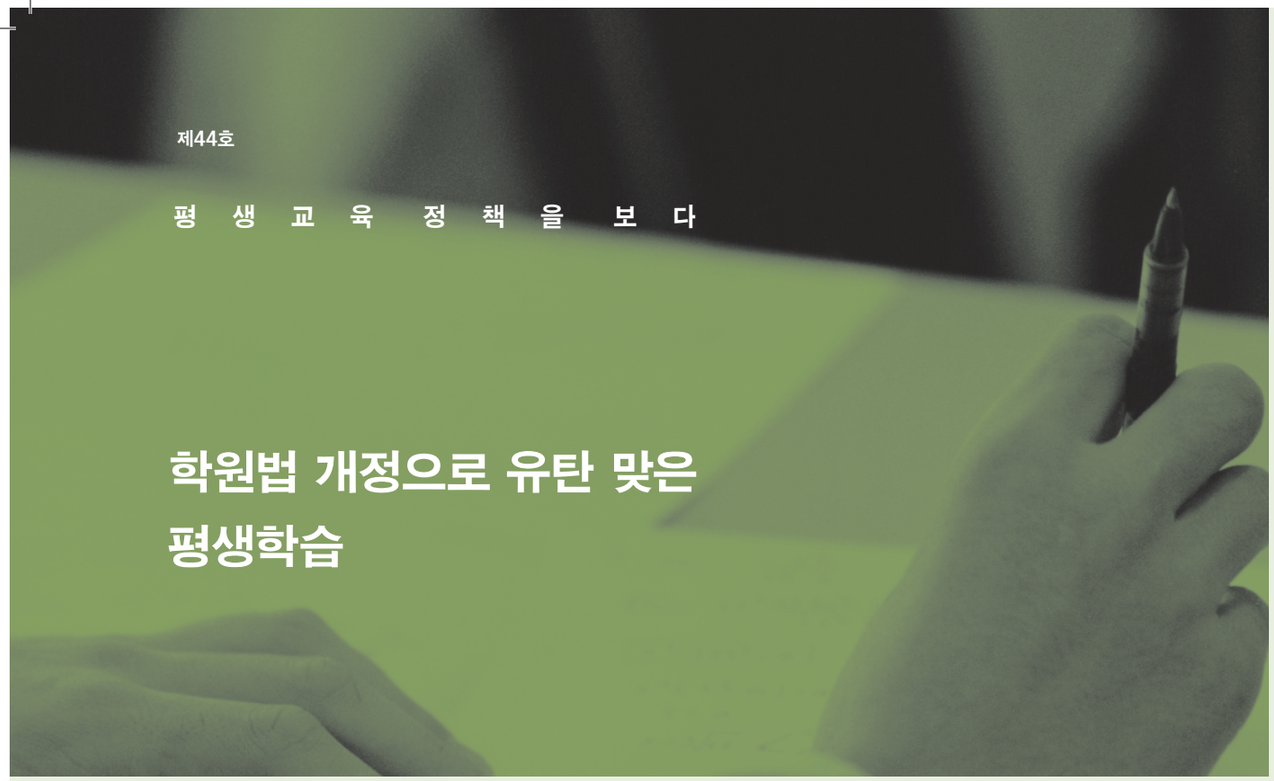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 학습형 일자리 문제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간단치 않은 문제라 오늘은 빼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건지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텐데 교수님과의 토론이 아니더라도 평생학습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병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 통합에서 격차가 심한 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학교교육의 문제이고 그게 다시 평생교육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원래 평생교육이 사회교육으로 시작할 때는 보완교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복지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었단 말이죠. 사실은 복지부하고도 관련이 깊은 분야이고, 사회서비스 영역에 평생교육이 없습니다. 저도 복지부하고 다른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부분적으로 교육복지 파트를 맡아서 평생교육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필을 해서 세대 간 격차, 지역 격차, 소득 격차에 따라서 평생교육 기회가 굉장히 박탈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쿼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목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중에 쿼터의 30%는 소외 계층을 넣고 해야 한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문화 가정, 노인 등 소외 계층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평생교육이 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내려올 때 쿼터가 있긴 합니다만, 모든 평생교육기관은 공적 쿼터를 채운 다음 들어오게 한다는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고 또 그 분들도 낮에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법 정신이 정책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항상 직업교육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직능원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 사업에서 이 사람들의 재취업이나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것처럼 국가 통계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고용기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에 들어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백 상태거든요. 차상위계층까지가 제일 문제인 게 학력, 직업훈련 교육, 또 인문소양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함께 엮여 있습니다. 시간문제뿐만 아니고 접근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교육부랑 복지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에서 만들 수 있고 새롭게 소외 계층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 기본계획에는 제안적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 방면이 중요하게 사회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성원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으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응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찬 오늘 제가 3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한국 평생교육은 국가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게 고작 1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아직 지역에는 평생교육 전달체제가 완비된 상황도 아니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 유선애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원법 개정으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

탕.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4년 8월 사격 경기장 결승전, 한 발의 총알이 과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과녁에 명중했지만 선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급기야 선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50m 공기소총 3자세에 출전한 미국의 메튜 에몬스. 2위와는 여유 있는 점수 차여서 마지막 한 발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금메달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표적지를 향해 마지막 한 발을 쏘았지만 그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은 옆 선수의 표적지였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었던 금메달 대신 그는 최종 8위라는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탕탕탕.

2011년 6월 24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들겼습니다. 이로써 최초 법안이 발의된 2008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동안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인데 이 학원법으로 말미암아 평생학습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항목은 3세부터 19세까지의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든 시설은 학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과학부에서 주도를 했는데 교과부의 기본 입장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학원의 투명성은 높이고 학원비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이 투명해지고 게다가 학원비 부담도 준다고 하니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요.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학부모는 학원법의 즉각 통과를 학원업계는 반대를 외쳤습니다.(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이것은 대척점에 있는 학원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원법이 법사위 통과되기 전인 2011년 5월 3일에 학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학원업 종사자 1만 명의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더불어 학원 강사 100만 명 서명운동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개정된 학원법의 골자는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파라치로 불리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신고 포상금제도가 법제화되었다는 점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수강료나 적절치 않은 강의임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이제부터는 학원으로 편입되어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19조 원이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 6천 원입니다. 유아에 대한 교육비용은 제외되었고 또한 공식 통계에 잡힌 것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셈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비대하고 왜곡된 나라를 찾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정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MB정부에서도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체감하는 학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교육이 활개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내 놓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경감 방안이 있다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자면 학원법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학원법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해당 기관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 2013년 1

월부터 학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상황을 보면 경기도의 미래상황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학원법 시행을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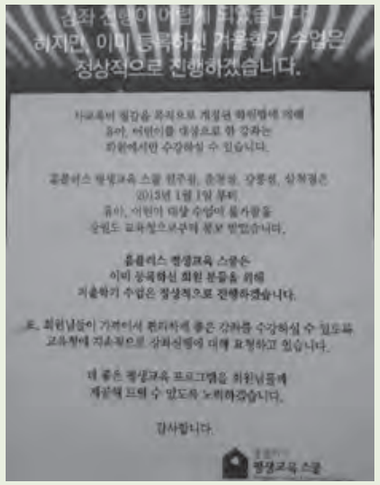
강원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등 학원 외 시설이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위반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상황에서 문화센터를 통해 가까이서 저렴하게 수업을 듣고 있던 지역주민들과 강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들이 직접 피해를 받게 되어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홈플러스는 강원도에서만 600여 명의 강사가 1,200여 개의 강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5,000여 명의 주민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중 40%가 만 3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강의로 결국 300여 개의 강의를 폐지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다음 학기부터는 100여 명의 강사가 실직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2,000여 명의 주민이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 롯데마트의 경우는 전체 강의 중 70% 이상이 폐지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형마



트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유아와 초중고생으로 강의하는 1만 여명의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소비자 피해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개정 학원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문화센터는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규모도 큰 편이어서 1차 타깃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만 학원법의 칼끝은 다른 평생학습시설,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각종 시민단체라고 비껴갈 리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정된 학원법에 대해 평생학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누군가의 제보로 알게 되었는데 그 직후 관련 기관 분들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예 학원법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법에 대해 사실 확인 차 수원시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Q 올해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다.

A 올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Q 그럼 내년부터 바로 단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A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학파라치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어서 학파라치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다.

Q 일반 시민단체도 해당 되는가.

A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습을 한다면 당연히 해당이 된다. 학원으로 등록해야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된다.

Q 무료 교육도 해당이 되는가.

A 무료냐 유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당 대상자를 모아 교육하느냐가 핵심이다.

Q 수원시평생학습관도 해당 대상이 되는가.

A 수원시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법률도 개정되었으니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허나 고려는 할 수 있으되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서 '학원설립안내문'을 다운받아(http://goesw.kr/sub4/sub4_3.asp) 살펴보았는데 결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공간과 교습 목적에 따른 장비 일체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조건에 맞는 공간을 임대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시설의 경우 법률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영리 평생학습시설의 경우 한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과 교육이 이뤄집니다. 어느 날은 미술치료를 하다가도 다음 날은 심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음악교육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공간과 시설을 별도로 각각 구비하게 되어 있어 동일 공간에서 여러 강좌와 교육이 이뤄지는 비영리 평생교육시설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지하 공간에는 학원을 개설할 수 없기에 재정문제로 지하에 둥지를 튼 기관은 결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치 선정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여야 하며 주변이 교육환경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로 규정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인 노래방이나 비디

오방, 모텔, 여관, 진료소, 오락실 등의 인근에서는 학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타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학원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는 그 이름을 고유명칭 + 교습과정 + 학원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 평생학습시설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완전히 학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강해 평생학습기관들로서는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소재한 문화센터들은 다급한 처지여서 상호 연락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농협문화센터 김상경 실장님을 만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수원농협문화센터 김상경 실장

개정된 학원법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작년 신고증 변경과 관련하여 수원시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때 담당자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자도 상급 기관에서 아직 구체적인 전달내용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센터의 수강 현황을 소개해 주시죠.

이용 인원은 연간으로 하면 약 6천에서 7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유아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내외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은 댄스, 기타, 드럼 등 취미생활부터 아이의 신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창의발달놀이, 즐거운 오감발달, 창의미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못하면 결국 다른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저희의 결정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강원도 쪽에서 단속이 시작되면서 언론에 소개되자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지난달이 피크를 이뤘던 것 같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주부들이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사실 저희가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저희는 아예 학원으로 등록할 수도 없더라고요.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근 500m 이내에 모텔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조항들 때문에 어떤 조직도 학원으로 등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센터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다들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교육비 절감 측면을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 게 저희와 같은 기관은 일반 학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콘텐츠도 다양하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안 하면 결국 피해는 부모들이 받게 됩니다. 또 저희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데 왜 학원법에 적용을 받아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한 법원의 판결은 의미심장합니다.

남양주의 동부광성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1년 7월 한 파파라치가 이 교회를 불법학원으로 신고하여 남양주시 교육지원청이 나서게 되었고 결국 3백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2012년 10월 29일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기일 내 상고가 없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의 문화강좌가 단순한 종교활동 내지 취미활동으로 판단된다며 학원법 위반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시킨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과 평생학습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에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예외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라'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조항만 놓고 가타부타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포털에 '학원법'이라고 치면 개정된 법률 전문이 나오니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부는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원비 경감이라는 과녁을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만 마치 미국 사격 선수처럼 엉뚱한 과녁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미국 사격 선수야 짠하긴 해도 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만 학원법은 평생학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미 강원도는 현실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조만간 학원법의 유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학원법에 관한 주부들의 비판적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농협문화센터 김상경 실장님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고 답답

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도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정보조차 모르는 기관이 많으니 일단 이 상황을 좀 소상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지혜가 모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폐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중심이 되어 사실 파악 및 이후의 대안까지 마련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평생학습관 혹은 저 개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나 빠른 전달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격주 발행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은 다행히 학원법의 유탄을 맞진 않겠지만 내리는 비를 함께 맞는 자세로 다른 기관의 어려움과 노력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2013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수원시평생학습관

허브-네트워크 •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누구나학습마을 4개 마을 212개 프로그램 4,136 명 참여

찾아가는 학교
경제교실 및 커뮤니티댄스 86개 강좌 1,941명 참여

지역단체연계사업
공동체영화상영 및 수원평생학습한마당 필우 3회 개최 630명 참여 23개 단체 참여

수원평생학습 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5회 진행 84명 참여

학습 및 행사를 위한
공간지원 209,214명 (일평균 699명 이용)

평생학습 싱크탱크 •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26회 발행 6,628명 구독

평생학습아카이브(웹) DB 1,086건 600여명 일평균 접속

시민제작일상학습 심포지엄 1회 개최 373명 참여

시민주도평생학습 사례집 1권 제작 16개 사례 수록

시민주도 평생학습 •

누구나학교 및 누구나샘 176개 강좌 1,641명 참여

학습동아리 및 함께읽기모임 98개 모임 3,250명 참여

인큐베이팅사업 5개 팀(단체) 63명 참여

학기별 교육사업 •

개설강좌 353개 수강인원 10,603명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 61개 강좌 4,686명 참여
수원시민인문대학, 인문사회학세미나, 명사특강, 교사인문학, 학부모아카데미, 담쟁이문화살롱, 문화예술학교

지역학 — 6개 강좌 138명 참여
길 위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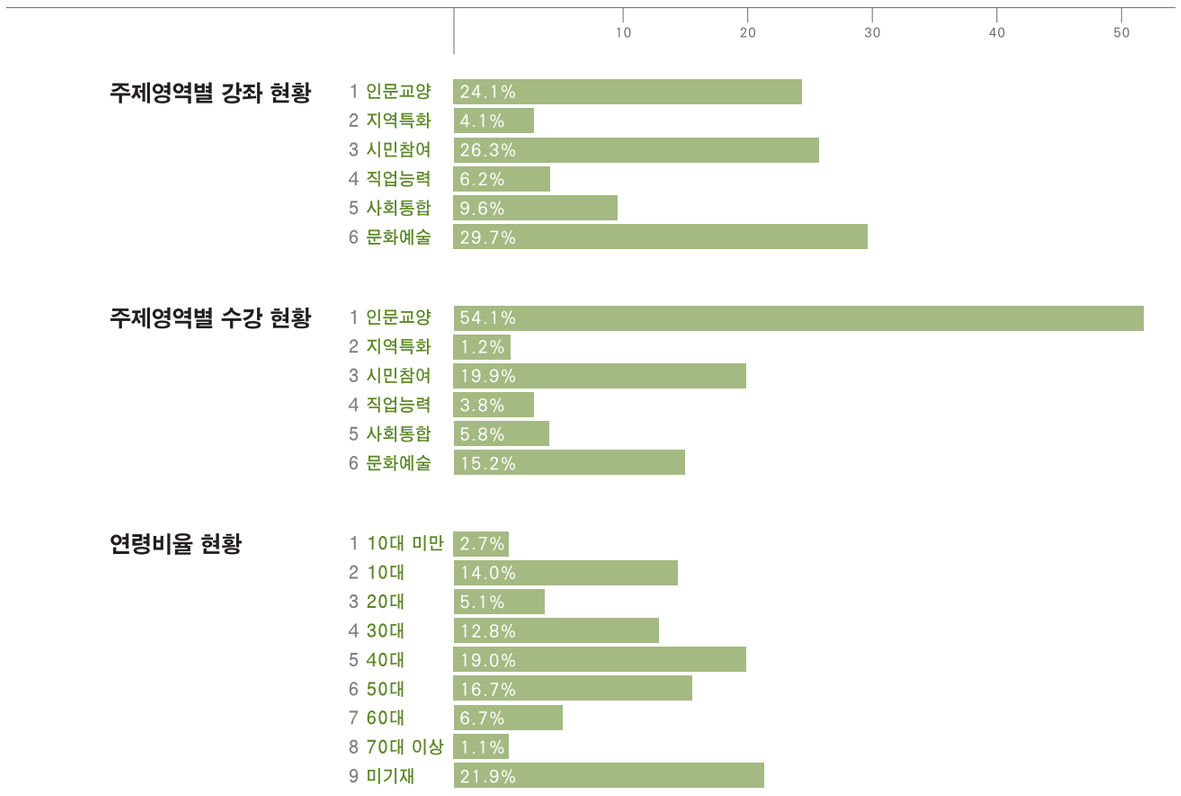
지역리더 및 전문가 양성 — 13개 강좌 219명 참여
평생학습상담사, 누구나학교오프너, 누구나학습마을코디네이터, 공정여행가, 협동조합디자이너(수원SDS), 문화기획워크숍

업무스킬 향상 과정 — 17개 강좌 317명 참여
김프, 엑셀, 에버노트, 워드프레스, 온라인서비스, 책쓰기, 프레지, 행사공간디자인, 행사기획과 운영, 홍보인쇄실무, 카피라이팅

시민사회자료관 프로그램 — 26개 강좌 696명 참여
마을열린극장, 시민광장, 시민열전, 시사토크, 도시생활자

사회통합 및 어린이청소년 — 54개 강좌 916명 참여
영어 및 컴퓨터 기초,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강좌, 청소년 강좌

생활문화 — 94개 강좌 1,635명 참여
거북이공방워크숍, 스타일워크숍, 약초 및 막걸리 교실, 집짓기, 외국어, 음악, 건강체육, 사진, 글쓰기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기사 목록

※ 기사전문은 평생학습 아카이브 와(wa.suwoned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인물

발행호	일자	기사 제목
22호	2013.01.02	꿈을 품은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스스로의 배움을 찾아 나선 그대에게
23호	2013.01.16	앎과 삶과 일이 조화롭게 연결된 공동체 〈롤링다이스〉
24호	2013.01.30	지혜와 지식,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지혜의 돔구장 〈Wisdome〉
25호	2013.02.13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지리산문화공간〉
26호	2013.02.27	학원법 개정으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
27호	2013.03.13	수원시평생학습동향리포트 1주년을 맞아 사람들 사이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28호	2013.03.27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시부야 대학〉
29호	2013.04.10	건물도, 책도 없다.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도서관 〈똑똑도서관〉
30호	2013.04.24	주민이 주체가 되어 즐긴다 〈프랑스 이웃의 날 축제〉
31호	2013.05.08	주민의 언어로 소통하라 시흥시 마을만들기를 만나다
32호	2013.05.22	영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영화나눔협동조합〉
33호	2013.06.05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공유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다 〈다음세대재단〉
34호	2013.06.19	[대담] 시민교육, 클래스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서울대학교 한숭희 교수를 만나다
35호	2013.07.03	새살은 '격의 파괴'에서 돋아난다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새로운 시도
36호	2013.07.17	[대담] 영남대학교 허 준 교수를 만나다 삶과 접속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37호	2013.07.31	세상에서 가능 조용하고 지적인 플래시 몹 〈책 읽는 지하철〉
38호	2013.08.14	[대담] 평생학습,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가 말하는 평생학습
39호	2013.08.28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40호	2013.09.11	[대담]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허하라
41호	2013.09.25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살아 있는 책과의 생생한 만남
42호	2013.10.08	[대담]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새로운 시대애 걸맞은 콘셉트 정리가 필요하다
43호	2013.10.23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경제를 위하여 〈코자자〉
44호	2013.11.06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와 함께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다시보기
45호	2013.11.20	[대담]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당신은 직업인인가 신념을 가진 활동가인가
46호	2013.12.04	책 공유를 통한 소통 프로젝트 〈책 읽는 벤치〉
47호	2013.12.18	[대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혁신·교육思考

발행호	일자	기사 제목	
27호	2013.03.13	트레이드 스쿨Trade School	공짜가 아니다. 물물교환에서 오는 비금전적 가치의 힘
28호	2013.03.27	43 싱즈43 Things	일상을 공부로 바꾸는 메커니즘
29호	2013.04.10	언신투어즈UnseenTours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30호	2013.04.24	메이커 페어Maker Faire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다 창작자이며 생산자이다
31호	2013.05.08	DIY 대학 운동	내가 스스로 디자인 하는 나만의 대학
32호	2013.05.22	프리존Free Zone	발랄한 일탈이 허락되는 길거리 공간
33호	2013.06.05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표정으로 말하는 메시지와 소통의 힘
34호	2013.06.19	디자인과 교육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35호	2013.07.03	Learning To Love You More 프로젝트	일상에서 예술하기
36호	2013.07.17	게임과 학습	사회악과 가능성, 그 경계에서 학습의 방법을 찾다
37호	2013.07.31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38호	2013.08.14	DIY	만드는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
39호	2013.08.28	기술 변화와 미래 교육	다양한 변화, 확인하고 실현하기
40호	2013.09.11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공유
41호	2013.09.25	더시티2.0The City 2.0	당신의 꿈의 도시를 제작하라
42호	2013.10.08	P2PU	수강자들이 함께 만드는 대학
43호	2013.10.23	SOLE자기조직학습환경	인간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44호	2013.11.06	코드 아카데미	미래 세대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45호	2013.11.20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46호	2013.12.04	Roots of Empathy공감의 뿌리	
47호	2013.12.18	네스타Nesta	사회적 의미까지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평생교육초첨

발행호	일자	기사 제목	
22호	2013.01.02	시니어, 학습으로 소통하다(1)	공유의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산다 〈간다잡학대학〉
23호	2013.01.16	시니어, 학습으로 소통하다(2)	〈시니어 大樂〉 자신의 삶이 활동의 원천이 된다
24호	2013.01.30	시니어, 학습으로 소통하다(3)	시니어가 시니어를 서포트 하는 곳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25호	2013.02.13	스스로 말하게 하라(1)	주민운동 교육훈련, 주민의 가능성을 보는 눈
26호	2013.02.27	스스로 말하게 하라(2)	행당동 사람들, 삶으로 쓰는 교육 이야기
27호	2013.03.13	스스로 말하게 하라(3)	쪽방촌에서 움튼 주민교육과 공제협동조합
28호	2013.03.27	스스로 말하게 하라(4)	변화를 위해 전진하다 필리핀 주민운동교육
29호	2013.04.10	스스로 말하게 하라(5)	주민이 함께 떠들고 꿈꾸고 만드는 평생학습과 주민운동
30호	2013.04.24	다름을 이해하다(1)	우리는 왜 다문화인권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나
31호	2013.05.08	다름을 이해하다(2)	다문화인권교육,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32호	2013.05.22	다름을 이해하다(3)	소통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33호	2013.06.05	청소년과 진로교육(1)	변화하는 미래, 진로교육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34호	2013.06.19	청소년과 진로교육(2)	해외사례로 알아보는 진로교육의 내용과 방향
35호	2013.07.03	청소년과 진로교육(3)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한 〈하자센터〉의 실험 청소년 自共公 하기
36호	2013.07.17	청소년과 진로교육(4)	무엇이 되느냐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질문과 답 구하기
37호	2013.07.31	여행과 만남, 그리고 배움(1)	〈공감만세〉가 전하는 공정여행과 관계 맺기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38호	2013.08.14	여행과 만남, 그리고 배움(2)	공정여행, 더디지만 이어지는 일상의 변화
39호	2013.08.28	창의적 커뮤니티 만들기(1)	베드타운에 들어온 이상한 예술가들
40호	2013.09.11	창의적 커뮤니티 만들기(2)	〈해방촌 빈집, 빈가게〉 공유, 자치, 환대의 지구 마을 만들기
41호	2013.09.25	창의적 커뮤니티 만들기(3)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읽기'와 '마을 찾기'의 여정
42호	2013.10.08	프랑스 평생학습의 제도와 현장	개인의 경험을 학위로 인정하는 '경험학습인정제'
44호	2013.11.06	시민교육을 말하다(1)	한국사회에서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46호	2013.12.04	시민교육을 말하다(2)	일상의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47호	2013.12.18	시민교육을 말하다(3)	정치교육: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위하여

기관탐방

발행호	일자	기사 제목	
22호	2013.01.02	장안구보건소	건강한 마을 함께 만들기
23호	2013.01.16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이해
24호	2013.01.30	마을신문 〈세류동마을이야기〉	골목과 주민의 소소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엮어 올리다
25호	2013.02.13	해님달님작은도서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책사랑방
26호	2013.02.27	전주시평생학습센터	문화·학습의 조화로운 융합, 그리고 함께하는 네트워크
27호	2013.03.13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일상의 삶을 함께 하며 주민의 주체성을 믿고 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곳
28호	2013.03.27	문화예술공유기〈디귿〉	공유를 통해 마음에 아로새기는 문화예술
29호	2013.04.10	도로에서 노는 시민들	카프리데이 D-11, "4월 21일 일요일" 정조로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30호	2013.04.24	치매미술치료협회	미술로 3세대가 공감하는 마을 문화 공간
31호	2013.05.08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 거버넌스 활동을 하다
32호	2013.05.22	소프트 아카데미.WA	예술가와 함께 일상예술을 즐기며 자연스러운 배움을 만들어 나가는 곳
33호	2013.06.05	솔대노리협동조합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마음껏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
34호	2013.06.19	희망샘도서관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
35호	2013.07.03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의 기여,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킨다
36호	2013.07.17	남문청소년모임 〈꾸나〉	공간+사람+지역, 점을 선으로 선을 원으로 연결한다
37호	2013.07.31	청년소셜벤처 〈기린〉	즐겁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공정여행 만들기
38호	2013.08.14	수원KYC	참여·나눔·성찰의 선순환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고 문화유산이다"
39호	2013.08.28	SK청솔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와 배움을 함께 한다
40호	2013.09.11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안에너지를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든다
41호	2013.09.25	수원청소년지역센터-권선, 광교, 장안, 영통	수원지역 청소년들이 모이고, 배우고, 놀며 땀 흘리는 공간
42호	2013.10.08	푸드포체인지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바른 식문화를 전파한다
43호	2013.10.23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평등한 삶, 함께하는 지역가족
44호	2013.11.06	마을배움@네트워크 판	교육을 살찌우는 좋은 밥상, 네트워크. 마포지역 교육단체들이 함께 판을 깔다
45호	2013.11.20	수원일하는여성회	배우고 활동하며 조금씩 사회를 바꾸는 여성의 힘이 모이는 곳
46호	2013.12.04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47호	2013.12.18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청년을 품는 사회, 사회를 품는 청년을 그리다

정다운우리학교

발행호	일자	기사 제목	
22호	2013.01.02	거북이 공방 워크숍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쌓는다
23호	2013.01.16	명사특강 2012 VS 2013	수원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며 만들어가는 명사특강
24호	2013.01.30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배우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
25호	2013.02.13	담쟁이 문화살롱	자유로운 만남,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카페 안의 살롱'
26호	2013.02.27	이 달의 독립영화	열린 시각과 이야기가 있는 극장에서 나와 너, 우리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
27호	2013.03.13	수원시민 인문대학 3기	수 천 년 전의 고전을 마치 어제 누군가가 보낸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고, 또 함께 읽는 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28호	2013.03.27	와글와글포럼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발견해 내는 힘, 와글와글포럼은 2013년에도 계속된다
29호	2013.04.10	〈도요새책방〉 1년간의 이야기	거칠 때도 있지만 때론 유연하게, 때론 열정적으로 자료관 스타일을 만든다
30호	2013.04.24	창의적 업무스킬	누군가 속 시원히 가르쳐주지 않는 일상의 업무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31호	2013.05.08	교사 인문학아카데미 2기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역사와 문명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
32호	2013.05.22	도요새책방 「함께 읽기 모임」	함께 읽고 나누며 서로의 삶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
33호	2013.06.05	2013 필우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원에서 즐기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34호	2013.06.19	공동체 영화 상영 「위 캔 두 댓」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탈리아 코디미 영화를 통해 웃고 감동하며 협동조합을 배운다
35호	2013.07.03	수원SDS '협동조합을 디자인하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하기, 사회적 의미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36호	2013.07.17	여름학기 「담쟁이 문화살롱」	무더위를 정화시켜주는 예술과의 만남
37호	2013.07.31	문화예술학교	수원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실-뮤지컬, 드로잉, 캘리그라피
38호	2013.08.14	청소년 포크기타	입시와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기타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다
39호	2013.08.28	〈도요새책방〉에서 마련한 맛있는 교육 밥상 함께 즐기기	
40호	2013.09.11	인큐베이팅센터 99도	교육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며 모이는 공간
41호	2013.09.25	인문사회학 세미나	놀이, 대안적 삶에 대해 탐색하기
42호	2013.10.08	도시생활자를 위한 일주일의 변화	여럿이 공부하고 배우며 함께 익히는 회사생활백서
43호	2013.10.23	문화기획워크숍	전방위 문화기획자 3인과 함께 상상하고 찾고 협업하는 상호작용 워크숍
44호	2013.11.06	창의적 업무스킬	새로운 트렌드 기술을 활용하여 나의 업무 스킬 업그레이드 하기
45호	2013.11.20	누구나학습마을	이웃과 관계 맺기로 시작되는 유쾌한 혁명
46호	2013.12.04	문화예술학교 발표회	문화+예술+지역+사람+축제, 함께하다
47호	2013.12.18	콜마이네임워크숍	가게 이름, 프로젝트 이름, 상품 이름… 이름 만들기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2013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무크지『THE 와』

펴낸 곳 수원시평생학습관
펴낸 날 2013년 12월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
아카이브 wa.suwonedu.org
누구나학교 nuguna.suwonedu.org
페이스북/트위터 @suwonedu

주소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전화 031-248-9700
팩스 031-248-9902

CC BY NC ND

※ 2013년도(제22호~제47호)에 발행된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중 일부 기사를 엮은 자료집입니다.

표지 : S/W 250g, 내지 : 백색모조 80g, Soy ink